

서울의 미래를 찾다.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시리즈 정책토론회 2차

서울의 미래세대

일시: 2017년 10월 26일 (목) 오후 2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주최: 한국사회학회, 서울연구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차례

1세션: 서울의 미래세대는 누구인가?

1. 서울의 미래세대: 과거, 현재, 미래 /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 3
2. 서울의 밀레니얼과 부머들 : 공통점과 차이 /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센터장) / 19
3. 서울 청년의 도시공간: 사이(in-between)공간과 탈성장(degrowth) 지향 /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31
4. 빅데이터로 본 서울 미래세대의 행복과 불안 / 배 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 45

2세션: 서울의 미래세대는 어떻게 살고 있나?

1. 미래세대의 불안정한 노동: 워킹푸어와 타임푸어 /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 59
2. 새로운 친밀성: 미래세대의 가족관계 /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75
3. 미래세대의 감정과 마음: 분노와 혐오 /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 95
4. 서울 미래세대의 정치이념 /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 111

3세션: 서울 미래세대의 꿈

1. 서베이로 본 서울 미래세대의 꿈 /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 127
2. 변혁의 꿈, 혁신의 꿈 / 김은지 (서울대 사회학과), 이상규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 / 139
3. 꿈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성연주, 김지애 (서울대 사회학과) / 161
4. 청년들에게 꿈을 증여하기-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중심으로 / 조민서,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 177

1세션

서울의 미래세대는 누구인가?

사 회: 김홍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 서울의 미래세대: 과거, 현재, 미래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서울의 미래세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세대의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본 장은 미래세대를 청소년기인 13~19세와 청년기의 일부인 20~34세를 아우르는 기간으로 보려 한다. 생애과정에서 이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 왔을 테지만, 본인이 구성할 가족의 형태나 경제활동 경로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형성되어 가는 혹은 형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간의 시간 간격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현재의 미래세대를 낳은 부모들이 미래세대였던 시기를 살펴보려면 30년 전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한편 현재 미래세대의 자손들이 미래세대인 시기를 보려면 30년 후의 서울을 예측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세대 전 과거를 살피는 일과 달리,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것도 가장 역동적인 도시인 서울의 한 세대 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 미래세대 중 청소년기가 청년기가 될 10년 후를 미래 시점으로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해보려 한다.

정리하자면 서울의 미래세대, 즉 청소년과 청년기 세대가 어떻게 변천해 왔고 변화할지를 198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려 한다. 아래 <표 1-1>은 본 장에서 살펴볼 이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미리 정리한 것이다. 각 세대별로 우선 사회변화의 근간이 되는 서울 미래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트라우마 및 위험요소를 짚어본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과 공유된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제적 조건과 정서를 서술한다. 이러한 조건과 정서로부터 파생된 욕망과 그늘, 광장의 경험이 어떻게 서울이라는 공간에 표출되었는지 정리해본 후, 마지막으로 서울의 발전이란 미래세대에게 어떤 의미인지 세 시기를 비교하고 전망해보며 마무리하려 한다.

<표 1-1> 서울 미래세대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1980년대)		현재 (2010년대)		미래 (2020년대)
	청년기 (20~34)	청소년기 (13~19)	청년기	청소년기 -----> 청년기	
출생 코호트 특징	베이비부머와 그 이후	산아제한	한자녀 운동	출산 장려	
서울 인구 변화	인구 증가	남아선호	기혼 가구 유출 & 1인 가구 증가	청소년 인구 급감 & 고령화: 부양비	핵가족 유출 & 글로벌 청년 유입
좌절된 미래	IMF 파산, 서울역 노숙	성수대교, 삼풍	만성적 실업, 비정규직, 알바	세월호	유급노동 기회 박탈
서울의 위험	세계화, 금융 위기	시설의 안전	세대 갈등	미세먼지	가치 파레토 법칙

경제 정서	집단적 근면 과 발전	성장과 소비 미덕	신자유주의적 자기 규율 & 불확실성 공 존	부모보다 가 난한 세대	공유기반 개인 화
서울의 욕 망	아파트	압구정	차와 명품	대치동 학원 가	대학
그늘진 공 간	판자촌		고시촌		주거 양극화: 지옥고
서울 광장 의 경험	민주화 운동 대학가	서울 올림픽	광화문 촛불	디지털 서울	wiring 카페
서울의 발 전	개발: 땅의 사유화		재생: 땅의 공유화		활용: 부채의 사회화

1) 인구학적 특성

우선 서울시 통계연보를 통해 서울 미래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자. 1980년대 서울의 미래세대는 출생 코호트 면에서 이질적인 두 세대로 나뉜다. 청년들은 인구가 폭증한 베이비부머와 그 직후 코호트라 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들은 그 이후 산하제한 시대인 1970년대에 출생한 코호트에 해당한다.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서울시의 인구는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선 약 1천만 29만명이었으며, 이는 그 10년전 7백80여만 명이었음을 생각하면 1980년대를 거치며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대 서울의 미래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태어나 인구 면에서 팽창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던 청년들과 인구팽창 억제 정책 하에서 태어나 성장기에 왕성히 소비하며 자란 청소년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5년이 지난 1993년부터 서울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서 2015년 현재 약 1천 30만명으로 198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의 미래세대 역시 이질적인 출생 코호트가 공존함을 의미한다. 현재 20대 이상 청년들은 출산 억제 정책이 더욱 강화된 한자녀갯기 운동 시대에 출생한 코호트라면, 청소년들은 오히려 출산 장려의 정책적 분위기 속에서 출생한 코호트이다. 10년 후 미래인 2020년대에도 출산 장려 정책은 계속 되겠지만, 출산 억제 정책과 달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출산률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즉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출생한 현 청소년들이 10년 후 미래에 급증하는 부양비를 감당해야 할 청년이 된 상황에서 자녀를 더 낳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출생률 감소는 서울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진행되어 현재 대부분의 미래세대 연령층도 구성비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흥미롭게도 20~24세 구간의 청년들은 2010년의 6.54%에서 2015년 7.11%로 구성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아래 그림 참조). 이는 서울 내부에서의 출산률 저하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외부로부터

의 인구 유입을 뜻하는데, 2016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2.7%인데 서울의 경우 14.5%에 이를 정도로 서울로의 청년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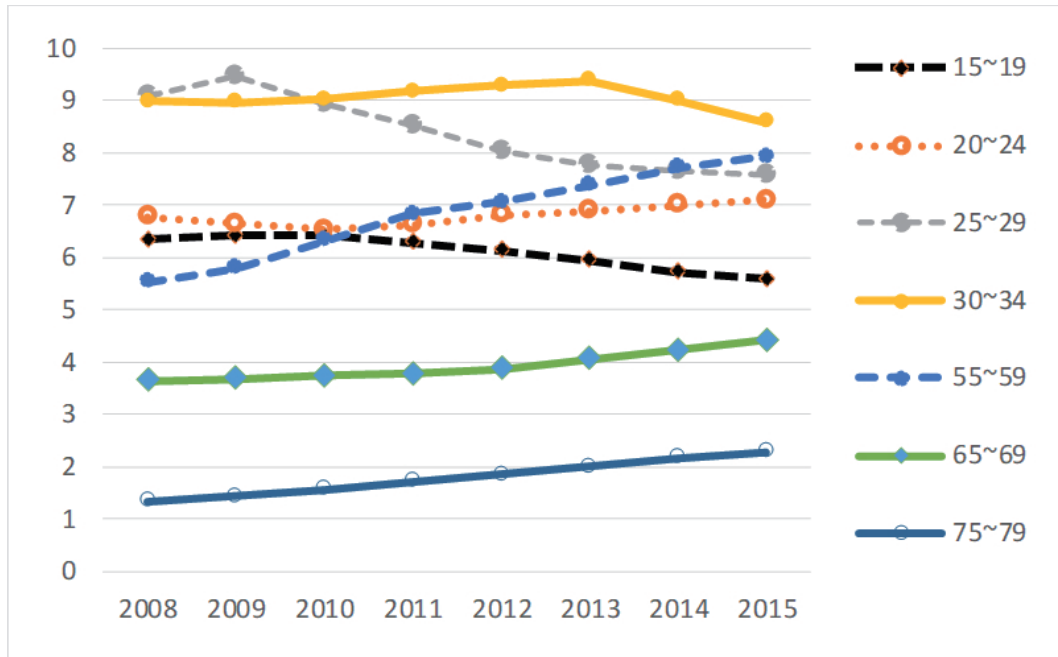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동 (%)

대학의 서울 집중이 유지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비수도권에서 모여드는 청년들도 유지되고,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가는 서울의 위상이 지속 혹은 강화된다는 가정 하에 외국으로부터 유입하는 청년의 수도 증가한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서울이 생산보다 고등 교육, 문화 및 소비의 도시로서 특성이 강화될수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들이 겹친다면 서울은 전반적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청년층 중심의 미래세대는 그 비율을 늘려갈 것이다.

청년층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핵가족의 유출이 가속화된다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청년층의 인구 비율은 늘 것이다. 1990년 이후 서울 외곽 수도권이 발전하면서 서울은 이미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상태였는데, 국가기관의 세종시 및 지방 혁신 도시 이전이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는 30대 남성 중심의 수도권에서의 순전출도 발생하고 있다(통계청, 2017). 만일 가까운 미래에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핵심 기구들이 대거 이전하는 수도이전이 이루어지고 핵가족 중심의 전출이 증가한다면, 서울은 청소년에 비해 청년층의 비율이 두드러지는 인구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예상에서도 2025년까지 서울가구 구성의 30%가 1인 가구, 29%가 2인 가구가 될 것으로 본다(조영태, 2017). 10년 후 서울의 미래세대는 청소년보다 청년층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2) 트라우마와 위험요소

미래세대라 하면 막연하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세대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세대도 충격이 큰 사회적 사건을 직간접으로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좌절을 경험한다. 과거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좌절을 안겨줄만한 사건들은 주로 1990년대에 일어났다.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와 다음 해 삼풍 백화점의 붕괴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특히 서울 경제와 소비의 핵심지역에서 발생한만큼 서울 주민에게 준 충격은 컸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등교하던 청소년들이 단체로 사망했고, 삼풍 백화점 붕괴에는 부모를 따라 백화점에 갔다가 참사를 당한 청소년들도 많았다.

1990년대 후반 소위 IMF 위기라 불린 금융위기 발발은 청년층 이상에게 특히 충격이 큰 사건이었다. 당시 대학 졸업이나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층은 갑자기 취업이 불투명해졌고,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30대 이상 청년이나 중년층도 직업을 잃거나 한순간에 서울의 여러 역의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성장만을 경험했던 베이비부머와 그 이후 세대에게 경제 위기는 매우 급격한 형태로 경험되었고,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빨리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며 위기를 나름 극복했지만, 경제위기가 또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아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발전을 상징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자라면서 별 의심 없이 누리던 생산과 소비시설의 붕괴(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풍요가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협할 수 있음을 처음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IMF 시절 역시, 지옥같은 입시경쟁을 통과한 후에도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청년들에게 처음으로 느끼게 한 사건이었으며, 서울은 그 후유증을 미취업, 파산, 노숙 등의 형태로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이처럼 1990년대 서울은 경제적으로 세계화되어가는 도시가 제조된 위험(벡, 1997)에 노출되어 있음을 미래세대에게 처음으로 각인시킨 시절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만성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청년들은 만성적 실업과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의 악순환에 시달린다. 과거 IMF위기의 트라우마가 경제적 성공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청년들에게 심었다면, 현재의 만성적 위기는 청년들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IMF 위기의 극복은 재기의 희망을 남기기도 했으나, 현재의 상황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hell) 조선’으로 바라보는 자조를 남기고 있다. 특히 서울은 여전히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그들이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며 좌절된 미래를 받아들이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세대를 초월해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트라우마, 그 중에서도 청소년에게 가장 강렬한 트라우마는 세월호 사건이다. 2014년 수학여행을 가던 수많은 청소년을 익사시킨 세월호 침몰은 미래세대를 보살피지 못한 어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으나, 당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어른들이 보여준 비겁함과 무능함은 청소년들에게 윗 세대에 대한 긴 불신을 남겼다.

현대의 만성적 일자리 부족과 세월호 사건은 모두 세대갈등이라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남겼다. 고령화로 치솟는 부양비를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는 일자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기성 세대가 일자리를 내놓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그들을 “꼰대”로 규정하기도 한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는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이어졌다 (노컷뉴스, 2016). 탄핵 정국 당시 청년층 중심의 촛불집회는 노년층 중심의 태극기집회와 첨예한 갈등을 보이기도 했으며, 최근 각종 선거에서 연령별 투표성향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첨예한 것으로 인식되는 세대갈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거나 근본적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10년 후 미래에도 그러한 세대갈등이 우리나라와 서울의 주요한 위험요소일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10년 후 서울의 청년세대는 어쩌면 기성세대와의 경제적 격차와 갈등보다 청년 내 격차와 갈등이 더 두드러질지 모른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의 청년 비율은 늘어나고 1인 가구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을 누리지 못하고 청년 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회 부의 대부분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경제적 파레토 법칙은 청년 집단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미래 비전을 갖고 실현시키려는 가치를 지니는 소수의 청년과 추구하는 가치가 부재하거나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청년으로 구성되는 가치 파레토 법칙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현재 서울과 지방 청년 간 보이는 가치 격차가 서울 내에서도 점점 분명해질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학자 최종렬(시사IN, 2017)은 세대담론 속의 청년세대는 수도권 세대에 국한됨을 파악했는데, 현대 서울 청년의 외부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어쩌면 외국 도시보다 우리나라 지방과 더 멀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더 발전해가면서 심화될 수도 있다. 우리가 파악하는 청년세대는 알고보면 서울의 청년, 그 중에서도 실현시킬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단이 있는 일부 청년의 모습에 점점 국한될 위험성이 있다.

3) 서울의 경제적 정서, 욕망과 그늘

1980년대 서울은 성장을 거듭했고 1988년 올림픽으로 그 결실을 확인했다. 서울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근면했고 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정서와 자부심이 있었다. 도시 단위에서 올림픽으로 성장을 보상받았다면, 일하는 개인들은 아파트 마련으로 근면과 성실의 결실을 얻고자 했다. 서울의 아파트 시세는 1988년 올림픽 이후 폭등하여 아파트를 이용한 재테크 개념이 등장할 정도였다(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16).

이처럼 근면한 생산활동을 통한 내집 마련이 당시 일하는 미래세대의 가장 큰 욕망의 대상이었다면, 당시의 청소년들은 생산활동의 열매인 소비에 익숙한 세대였다.

절약만 하지 않고 쓰는 것이 미덕이라는 의식도 싹트기 시작했고, 소위 ‘오렌지족’이라 불리며 과소비를 일삼는 청년 부류는 사회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은밀하게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진 압구정동은 청소년이나 어린 청년들에게는 그런 정서가 투영된 장소였다. 유하(1991)가 1991년에 발행한 시집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는 이러한 당시의 정서와 욕망을 반영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와 2000년대 이후 만성 불황을 겪은 미래세대의 정서는 달라졌다. 청년들은 여전히 근면한 자기규율 하에 있었으나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집단적 풍요를 향한 욕구라기보다는, 나태하면 남들에게 뒤쳐질 수 있다는 개인화된, 소위 신자유주의적 자기규율 하에 놓였다. 이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세대에게 서울에서 아파트 마련은 부모도움 없이 본인의 근면으로 달성하기 힘든 욕망이었으며, 돈 버는 청년의 욕망은 좀 더 단기적이고 소비적인 명품이나 자가용으로 우회했다. 그러한 소비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자신에 대한 선물이며, 나태하지 않게 해주는 각성제의 역할을 한다.

현 시점의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서를 공유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그들의 경제전망은 바로 이전 청년들보다 어둡다. 사회학자 김창환(주간동아, 2017)이 지적하듯 현재의 젊은 세대는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살게 되는 세대”라는 불안감이 크다. 거시적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그러한 성장에서 소득으로 돌아오는 몫은 줄어들고, 심지어 소득의 분배는 점점 젊은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기에 젊은이의 불안감은 매우 근거있고 실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서울 강남의 의미는 예전과 다르다. 압구정동으로 대변되던 소비적 욕망의 장소가 아니라, 여전히 성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학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장소다. 이들은 더 이상 과소비를 욕망할만한 여유가 없다. 아파트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에 대한 욕구도 줄었다. 소비액수와 만족감이 비례하지 않는 똑똑한 소비나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것은 부모보다 못사는 시대의 젊은이에게 강요된 각성일지 모른다. 경제적 상황이 허락된 테두리 내에서 욕망의 최대치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궁서리,’ 즉 궁색한 럭셔리 추구(한겨레, 2017a)는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씹쓸한 자기모순이라기보다 익혀야 할 긍정적 체념과 경제적 조절감각의 표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은 부모보다 가난한 미래세대에게 적합한 소비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서울은 지난 몇 년간 도심 재생과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어 왔다. 부수고 새롭게 지은 호화로운 도심이 아닌, 낡은 멋을 조화시킨 서울의 곳곳은 젊은이들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위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기도 하며 미래세대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연남동 경의선 철길을 살린 잔디밭에는 삼삼오오 앉아 만남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다. 집을 마련하고 재화를 구매해 공간과 물건을 사유화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공간은 취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감각있는 소비가 가능한 공유지 역할을 한다. 물론 이러한 공간이 상업화되어

지대가 치솟고 원래의 취향을 밀어내는 젠트리피케이션 경향을 보이곤 하지만, 아직 서울 곳곳은 문화적 공유지로 재탄생될 잠재력이 풍부하며 시민과 서울시는 가까운 미래에도 이러한 잠재력을 계속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경의선 숲길 잔디밭에서 쉬고 있는 시민들]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93110>

10년 후 쯤 이러한 서울에서 살게 될 청년들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된 경제정서를 가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서울 곳곳에서 시도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도심 재생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합하여 향유하면서 1인 가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청년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독립적이나 가난하며, 가난하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는 정서일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서울의 청년들이 이러한 정서를 공유한다고 해서 욕망의 대상이 사라지는 아닐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 수도가 이전하고 핵가족이 빠져 나가면서 중등 교육을 위해 서울로 모여드는 추세는 약해진다 하더라도, 서울은 여전히 대학 혹은 고등교육의 중심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 대학들이 사라지겠지만, 이는 서울보다 지방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 따라 서울을 떠난 청소년들도 서울의 대학에 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10년 후 서울의 대학의 모습은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은 대학의 교육모형이 졸업 후 10년 이상을 책임질 수 없다고 질책하기도 하며, 청년들도 비싼 학비를 내고 받는 대학교육의 실효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책이나 회의는 대학무용론을 확산시키기보다는 대학의 변화노력과 실험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학은 여전히 청년들이 모여 비범한 변화와 다양한 교육실험을 하기 좋은 장소이며, 생산활동을 하는 시민을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을 할만한 자원도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

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서울은 청년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도시갈 될 것이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이 전국에서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미 모여들고 있다. 고등교육 도시로서 서울의 미래는 미래 청년의 욕망을 생산적으로 해소시키는 역할을 더욱 고민하게 될 것이다.

서울의 미래세대가 지향하던 욕망의 공간은 그림자진 공간도 만들어왔다. 1980년대 내집마련의 정점에 있던 아파트의 그늘은 판자촌이었다. 판자촌은 서울로 모여들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젊은이들과 재개발로 밀려난 주민들이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정착한 집단 주거 공간이었다. 따라서 재개발로 화려하게 탄생한 아파트 지역 근처에 외딴섬처럼 자리잡고 개발의 물결에 따라 흘러다녔다. 아직도 남아있는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일하고자 하는 서울 청년들에게 판자촌의 그늘이 열어졌다면 고시촌 쪽방의 그늘은 더욱 짙어졌다. 서울명문대 입학에 위한 현대 사교육의 정점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다면, 주로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가난한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준말)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모여사는 노량진 고시촌도 있다. 필연적으로 대다수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난한 공시생 젊은이들의 수강료와 소비에 의존하는 사교육과 여가의 거대한 경제구역은 공시생의 미래만큼 위태롭다.



<그림> 노량진 큰 길 학원가와 골목길 상가 지역

인구학자 조영태가 지적하듯이, 서울은 이미 “인(in)서울 대학으로, 노량진 고시촌으로” 젊은이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한경닷컴, 2017). 그러나 고등교육과 고시를 향해 모여드는 젊은이들의 삶은 녹록치 않다. 보호자의 뒷바라지나 본인의 저임금 비정규 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삶은 결혼도 취직도 이루지 못한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촌)의 삶이다(동아일보, 2017).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 청년 내 소득 양극화가 미래에 심화된다면, 이는 주거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며, 지옥고의 삶에 빠지는 청년의 비율은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청년을 위한 서울의 공유재를 두루 살펴볼 심리적

여유와 실제 향유할 시간적 여유가 생길지는 불확실하다.

4) 서울의 광장

한 도시의 광장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뜻하지 않는다. 중요한 순간들에 시민들이 희망적인 집합적 열광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곳이다. 그러기에 서울의 미래세대가 어떤 광장의 경험을 하느냐는 그 세대가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80년대 서울 광장의 경험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현장일 것이다. 1987년 1월,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박종철은 정부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으며, 같은 해 6월 9일, 연세대 학생이던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류탄에 맞고 숨졌다.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위가 불붙었고, 결국 6월 29일에 군사정권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불씨를 지피는 장소였으며 대학가는 지성과 양심의 광장이었다. 이러한 대학 광장에서 시작한 집합적 용기와 저항은 시청 앞과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우는 전 시민으로 확대되는 민주화 요구를 이끌었고 성취했다. 이러한 광장의 경험은 성취 이후 광장의 해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시민운동을 꽃피게 했다(조희연, 1995).

1980년대 서울은 정치적 항쟁의 광장만 갖고 있지 않았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의 성장과 그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다. 서울 곳곳과 시민의 모습은 전 세계로 중계되었으며, 이제 서울 시민도 근면하게 벌 줄만 아는 모습을 넘어 깨끗하고 질서있게 전 세계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국가는 이러한 질서있는 시민성 향상에 힘을 쏟았고 대부분 서울시민과 국민들은 기꺼이 동조하고 노력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처럼 손님맛이에 신경쓰는 한편, 당시 미래세대, 특히 청소년들에게 서울 올림픽은 좀 더 순수한 축제였다. 성장과 소비를 자라면서 체득하기 시작한 이 세대는, 부모세대만큼 긴장하며 올림픽을 치르기보다는 세계적 축제를 좀 여유있게 즐기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좀 더 몰입하며 축제에 열광하고 그 유산을 미래로 끌고가는 세대였다. 14년 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청년이 된 그들은 열광적으로 축제를 즐겼으며 성숙하고 여유있게 축제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을 주도하였다.



<그림> 광장 조성 전 광화문(좌: 서울특별시, 1996)과 2016년 촛불시위 중 광화문(우: 한국일보, 2016).

2010년대인 현재 서울의 광장은 광화문 광장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만 해도 중심은 시청 앞 서울광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광화문 광장이 시민에게 개방된 이래 집회의 중심은 확연히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였다(한국일보, 2015).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주말마다 백만명 안팎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몰려와 촛불집회와 공연, 행진 등을 벌였다. 30년 전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지 한 세대가 지나, 이제 실패한 대통령 선출을 국민의 힘으로 되돌리기 위해 청소년들까지 적극적으로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성공했고, 그 유산을 간직하고 싶어한다(한겨레, 2017b).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은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나 반대 진영의 태극기 집회 외에도 크고 작은 집회를 통한 시민의 의사가 표출되는 곳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서울살이 청년들과 관광객들이 주로 들리는 대표 광장이기도 하다. 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의 과거 역사 뿐 아니라 현재의 집회들을 체험하며 서울을 “광장과 자유의 도시”로 인식한다(서울&, 2017a).

이러한 글로벌 청년들의 서울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디지털 공간에서 공유되는 것은 서울에 새로운 광장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 디지털 광장은 서울 안에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있지는 않지만, 서울의 구체적 장소들에 기반한 생생한 체험을 간직하고 있기에 실재적이며,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을 ‘낯설게’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광장이다. 서울의 방문객들은 서울을 “생생하게”, “24시간 깨어 있는”, “바쁜” 도시로 인식한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치안이 좋으나, 대중 교통 이용시의 매너나 “불편한 시선”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한다(서울&, 2017b). 그러나 서울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 청년들은 서울의 “고요한 사찰”이나 “친절하고 열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음식의 맛을 깨닫고 머물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서울&, 2017a). 친구 도심, 산과 강을 모두 품은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 안에 이제 글로벌 청년들도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며, 그들이 디지털 광장에 모여 남기는 흔적과 생각들은 서울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다.

사실 서울의 디지털 광장을 꾸미는 데는 외국에서 온 청년들보다 서울에서 살아온

미래세대의 역할이 더 클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시공간을 초월한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구체적 시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 강한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 광장에 콘텐츠를 올리고 소비하는 미래세대는 이 광장에 이끌려 서울의 곳곳을 방문하여 보고 듣고 맛보고 공유한다. 이 곳에 모이는 미래세대는 서로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관심에 이끌려 모이고 서로 이러한 관심사를 인지하고 있는 관계, 즉 “우리 관계(we relation)”를 통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형성(Knorr Cetina & Bruegger, 2002)하는 데 낯설지 않다. 바로 그러한 상호주관성이 디지털 서울과 아날로그 서울을 튼튼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카페는 이처럼 서로를 향하기보다 같은 곳을 향하면서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아날로그 장소로서 서울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10년 후 청년들에게는 더 큰 광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17년 초 현재 서울에는 1만 5184개의 카페가 있으며 지난 15년간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15년 전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중심이던 시절이었는데, 이 시절에는 강남구와 종로구에 카페가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미래세대가 몰리는 홍대, 상수, 연남 등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개인 카페들 덕에 마포구에 카페가 가장 많다(한국경제, 2017). 최근 서울의 카페 증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카페 산업의 결과보다는 젊은이들의 취향과 필요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구 근대화 시절 국가가 담당 못하던 공적 문제들을 부르주아들이 모여 활발히 논하던 공론장 역할을 하던 카페(하버마스, 2001)에 비추어 보자면, 이처럼 서울을 짝 채운 카페에 모여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매우 낯설다. 혼자 와서 휴대용 컴퓨터로 무언가에 몰두해 있거나 핸드폰을 충전하며 소일하고 있으며, 소통보다는 개인 간 투명벽을 확보하기 위해 카페에 온 듯한 모습은 시민 광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카페에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거 공간의 소박화와 시민적 무관심(civil inattention: Goffman, 1984[1959])에 적극적으로 기댄 유대 형성의 욕구가 두 가지 주요한 이유이고 10년 후 서울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청년들이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지는 않는다. 소비, 문화, 복지, 취향 등을 누리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들에게 서울의 협소한 주거공간과 여유없는 예산은 온전한 사적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게 허락하지 않는다. 카페는 그들에게 단순히 커피를 마시거나 지인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같은 취향과 예산규모를 공유하는 시민들과 서로 인정받고 함께 살아가는 공유 거주지다.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지역성이나 개성을 강하게 띠는 개인 카페가 늘어나는 추세는 개별 카페들이 시민의 다양한 관심사와 욕구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공론장의 원형이던 카페의 형성기와 비슷할 수 있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서울의 청년들은 비록 혼자 시간을 보내기위해 카페에 가더라도 그 공간에 혼자만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서로 말을 걸 일이 거의 없더라도 자신처럼 이 곳을 찾아온 시민들과 관심과 욕구를 공유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같이 있고 싶어한다. 카페라는 공통점을 통해 연결된 그들에게 낯선이들 속에서의 편안함

과 유대감은 더 이상 뜻밖의 경험이 아니라 일상화된 경험이 될 것이다. 그 곳에서 청년들은 무선(wireless)으로 카페 밖의 다른 곳들을 배회하는 것 같지만, 실은 디지털 서울과 아날로그 서울 사이를, 그리고 이 곳에 모인 서로를 실재적으로 엮는(wiring) 광장으로 카페를 발전시켜 갈 것이다.

5) 서울의 발전: 개발, 재생, 그리고 사회적 부채

서울의 ‘발전’이 의미하는 바는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달라져왔고 달라질 것인가? 1980년대 서울은 성장했다. 인구, 경제, 국제적 위상 모두가 성장했고, 그러한 서울의 발전은 개발을 의미했고, 개발이란 성장의 결실을 시민들에게 사적 재산으로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서울의 사유화 바람에서 부동산과 아파트 값은 폭등했고, 성수대교나 삼풍 백화점과 같은 공공재는 붕괴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와 200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되는 불황과 취업난은 서울이 더 이상 성장이라는 가치를 발전의 중심에 둘 수 없게 했다. 경제도, 출산도, 인구도 성장을 멈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울의 미래세대는 발전할 수 있다는 혹은 발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모두 안고 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공간의 발전은 더 이상 과거를 덮어가는 개발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와 공유하는 재생을 의미한다. 공간의 사유화가 불확실해진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공유공간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며, 서울은 그러한 역할을 재생을 통한 서울의 정체성 다양화로 수행 중에 있다.

이러한 재생을 통한 공간의 공유화가 10년 후 서울에서 지역 경제, 사회적 경제의 부흥으로 이어져 다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글로벌 청년과 지방 청년을 동시에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겪을 수 있는 주거의 지옥고 현상이나 가치의 파레토 법칙은 서울의 미래세대가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소득없는 소비는 개인에게 빚을 안긴다. 그러한 시민에게 빚 없는 삶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할텐데, 성장 없는 복지는 도시에 빚을 안긴다. 따라서 시민의 소득 불안정과 도시의 저성장이 주어진 조건이라면 복지 증대만으로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면 서울의 발전은 서울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활용(exploit)’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활용이란 그간 도시 재생으로 발전하고 다양화된 서울의 경제적 자원, 사회적 가치, 문화적 정체성 등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군가가 낭비없이 향유하는 활동을 뜻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시장이 아닌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활동을 포함한다. 복지가 경제적 풍요 정도가 이질적인 시민 간 재분배 정책이라면, 활용은 욕구가 이질적인 시민을 서울이 축적해온 다양한 공급 잠재력과 짝지어주는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다.

활용의 힘을 시장 내에서 가장 잘 일깨워준 주체는 아마도 아마존(Amazon.com)일 것이다. 아마존은 세상에 몇 명만 갖고 있을 법한 수요욕구를 채워줄 상품을 귀신

같이 찾아(explore) 배달해주며, 그 댓가로 받는 티끌같은 수수료가 쌓이면 태산같은 경제적 가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앤더슨, 2006). 이러한 활용의 가치 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규모 모두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서울은 시간적 다양성(역사적 전통과 현대성)과 공간적 다양성(재생을 통한 지역 특색)을 모두 지녔으며, 앞으로 규모가 더욱 증가할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의 미래세대도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의 미래세대는 활용의 미덕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줄 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같이 가난함을 받아들이는 체념과 경제적 조절감을 바탕으로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낯선 시민들과 서로 ‘신세지기’에 능하다. 강제적 재분배인 복지에서는 시민 간 신세지기가 상호적이라 느끼기 보다는 일방향적이라고 느끼기 쉬운 반면, 활용을 통한 신세지기에서는 서로가 동등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심지어 물품이나 재능, 정보를 기부받는 입장에서조차 그 기부들은 무수한 익명적 상대방으로부터 티끌같이 쌓이기 때문에, 부채의식은 구체적 상대방이 아닌 시민 전체와 사회에 대해 형성된다.

서울의 미래세대가 활용(exploit)의 역량을 갖췄다면, 서울시는 활용 역량을 극대화해줄 탐색(explore)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광장에 쌓이고 유통되는 정보는 지극히 국지적이고 지역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wiring 역할을 하는 카페라는 광장을 통해 그러한 정보가 개별 시민의 욕구, 지역 행정 정보와 결합된다면 활용 역량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그렇게 실현된 활용에 관한 정보는 다시 광장에 축적되어 활용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데 서울에 집중된 유능한 고등교육 기관들과 젊은 재능들이 이러한 탐색 역량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이 사유화한 정보에 기반한 탐색과 활용이 자기파괴적 악순환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O'Neil, 2016), 정보를 시민의 공유지와 광장에 축적하고 활용의 영역을 시장 밖에서 넓히는 탐색의 수행은 글로벌 도시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활용의 미덕이 시장 밖에서 극대화될 때 서울의 미래세대나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빚을 질 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다. 성장 없는 도시에서 불확실한 경제활동을 하는 1인 가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실질적 자원과 정서적 위로를 찾게 도와주고, 광장을 건설하고, 그곳에 지혜와 정보를 축적해가는 과정들은 개별 시민이 시민 일반과 지역에 빚을 지게 해준다. 또한 수시로 빚을 갚을 기회도 제공한다. 이처럼 개인이 사회에 지는 부채감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기반한 시민적 연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재정적 부채는 미래세대의 희망을 잠식하겠지만, 사회적 부채는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조영태. 2017. “서울의 인구”, <<서울사회학>>. 나남.
- 조희연. 1995. “민중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운동’.” 유팔무 김호기 (역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출판사.
- 백, 율리히 (홍성태 옮김). 1997. <<위험사회>>. 새물결.
- 앤더슨, 크리스 (이노무브그룹 외 옮김). 2006. <<롱테일 경제학>>. 랜덤하우스.
- 유하. 1991.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문학과 지성사.
- 하버마스, 위르겐 (한승완 옮김).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 Goffman, Erving. 1984[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Harmondsworth: Penguin.
- Knorr Cetina, K. and Bruegger, U., 2002. Global microstructures: The virtual societies of financial marke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pp.905-950.
- O'Neil, Cathy, 2016.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 Crown.
- 노컷뉴스. 2016. “춧불 든 '세월호 세대'는 '어른들 구태'에 분노했다.” 2016.12.11.
<http://www.nocutnews.co.kr/news/4699660>
- 동아일보. 2017. “일자리 못 만드는 청년예산… ‘지옥고’ 못 벗어나는 청춘.” 2017.04.06.
<http://news.donga.com/3/all/20170406/83715379/1>
- 서울&. 2017a. “21세기 하멜들의 달콤짹짹한 서울살이.” 2017.05.11.
http://www.seoulant.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941.html
- 서울&. 2017b. “속도감 있는 도시, 매너가 필요한 도시.” 2017.05.11.
http://www.seoulant.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942.html
- 시사인. 2017. “지방 청년도 다른 세계를 꿈꿔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498>
- 주간동아. 2017. “6·25 이후 최초로 부모보다 못살게 된 청년세대.” 2017.02.22.
<http://weekly.donga.com/List/Series/3/990436/11/850964/1>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16.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
http://community.joinslant.joinslant.com/column/column_print.asp?pno=3118
- 통계청. 2017.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이동, 통근·통학, 활동제약).”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aSeq=360052&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 한겨레. 2017a. “‘부채 상황의 아이콘’ 이상민이 주목받는 이유.”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797390.html?_fr=mt3#csidxc642f

[cc6b6effdba389484193cc1728](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3547.html?_fr=mt2)

한겨레. 2017b. "10대들은 어떻게 대통령을 퇴진시켰나." 2017.10.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3547.html?_fr=mt2

한경닷컴. 2017. "'인구학 권위자' 조영태 교수 '두 딸에 베트남어, 농고 추천'." 2017.03.23.

<http://www.hankyung.com/news/realtime/index.php?aid=201702095780g>

한국경제. 2017. "[#서울커피맵] 커피공화국·카페 점 찍으면 서울지도가 뜬다." 2017.02.23.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215729G>

한국일보. 2015. "청와대 더 가까이... '시위 메카' 이젠 광화문광장." 2015.11.08.

<http://www.hankookilbo.com/v/6250820d879948eba7551d7f909fcaec>

한국일보. 2016. "광화문 촛불집회 130만명 돌파 '역대 최대 경신'...전국 160만." 2016.11.26.

<http://www.hankookilbo.com/v/134428318a2e432ea7ca102e4cdf33ba>

서울시 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jsp3/stat.book.jsp?link=6&cot=009>

서울특별시. 1996. <<서울, 도시형태와 경관 1995/96>>.

<http://ebook.seoul.go.kr/Viewer/HBE9VPMPCl6A>

2. 서울의 밀레니얼과 부머들 : 공통점과 차이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센터장)

1. 왜 세대문제를 보려고 하는가?

서울의 인구사회영역과 경제영역에서의 변화가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고 예측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점차 수면위로 부각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십 수 년만 지나면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 과연 누가 이들을 부양할 것인지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현재의 젊은 청년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노부모들과 함께 기꺼이 공존하려고 할 것인가? 서울이 생산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사회 전체의 파이를 어떤 우선 순위를 갖고 나누느냐의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고, 이때 세대 간 갈등과 충돌은 정치제도를 통해, 사회제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서울을 둘러싼 인구사회적 환경의 변화 가운데 세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청년세대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이러한 세대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 중 일부인 서울의 청년세대의 문제는 흙수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 계층론’과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를 다룰 때 어떤 프레임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노동과 일자리, 정체성, 세대갈등, 삶의 질 등 다양한 주제로 전개될 수 있다. 서울의 청년실업이 10%를 육박하면서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가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 정책적 개입이 베이비붐세대나 노년세대에게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세대간 충돌의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논란, 100세 시대

를 살아가야 할 청년세대에게 현재 ‘청년의 정체성’은 생애주기에서 과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결혼과 출산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3포, 5포세대의 청년들에게 인구절벽을 피하기 위해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계몽적인 캠페인성 정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지 하는 등등. 청년세대의 문제는 그것이 오롯이 독립적인 위상을 차지하기 보다는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성년으로의 이행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행기의 조건은 그 다음 단계인 인생 주기의 전제가 된다는 점 등이 청년세대의 문제를 더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사건으로서 대통령선거에서 세대 간 선호가 분명히 갈라지는 투표 현상이 고찰되면서 세대간 갈등이나 세대간 차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투표현상이 정치지형의 핵심에 있다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기술 리터러시에 따른 ‘세대 차이’가 발생하면서 세대 간 차이점이 확연히 부각되고 이에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한 세대문화에 대해 주목하는 논의들이 나타났다. 이처럼 세대를 다루는 논의는 세대 간 동일성과 차이가 공고화된 사회현상으로 계층적 대립을 대체할 것이라는 시각과 세대는 인구 코호트적 특성을 근간으로 고유한 문화가 각인된 현상으로서의 세대문화는 다른 한편으로 연령효과가 작용하면서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흐름일 뿐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대간 차별과 대립을 파악하려는 시각이 우리 사회의 연령간 사고방식을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라는 시각과 세대론이 사회의 갈등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론적 세대담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미래서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근간으로서 세대연구는 미래 정책수요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변화는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세대의 객관적, 주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밀레니엄 세대와 그들의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를 조망하면서 두 세대의 현재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모습을 동일성과 차이라는 맥락에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는 세대 간 문제를 풀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 밀레니엄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

서울의 인구구조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00년대부터 유소년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중장년층인 40, 50대 인구가 1,64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3.2%를 차지하면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 20-29세는 6,413,8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 30-39세는 7,394,623명으로 14.9%를 차지하여, 미래세대인 20-39세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8%에 해당 한다. 서울 역시 중장년 중심의 인구구조가 전국의 인구구조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전국에 비해 서울의 20-29세는 1,403,549명(14.7%), 30-39세는 1,591,560명(16.6%)를 차지해 전국에 비해 3.7% 더 높은 서울인구 전체의 3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미래세대는 다양한 이유로 미혼상태가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20-24세의 대부분(98.9%)은 미혼, 25-29세 역시 89.1%가 미혼상태이다, 한편 30-34세까지는 56.1%가 미혼상태로 과반 이상이 미혼이나 35-39세 구간에 이르면 배우자 있음이 63.4%로 미혼 33.7% 보다 약2배 가까이 많은 미혼, 기혼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가구 특성은 25~29세는 1인가구가 가장 많으나 나머지 연령층은 2세대가구의 특성이 가장 일반적이다.

[표 1] 서울 미래세대 혼인상태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미혼	673,851	98.9	642,650	89.1	461,220	56.1	258,095	33.7
기혼	6,832	1.0	76,824	10.7	352,439	42.9	485,455	63.4
사별	243	0.0	200	0.0	403	0.0	1,595	0.2
이혼	397	0.1	1,490	0.2	7,422	0.9	20,242	2.6
계	681,323	100	721,164	100	821,484	100	765,387	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15

[표 2] 서울 미래세대 가구구성

(단위: 명,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1세대가구	33,203	5.7	92,485	12.9	156,175	19.0	92,756	12.1
2세대가구	423,126	72.1	429,150	59.6	469,464	57.0	510,543	66.4
3세대가구	38,727	6.6	34,584	4.8	44,788	5.4	60,304	7.8
4세대이상 가구	230	0.0	373	0.1	918	0.1	857	0.1
1인가구	78,174	13.3	146,542	20.4	141,005	17.1	98,258	12.8
비친족가구	13,127	2.2	16,544	2.3	10,646	1.3	6,179	0.8
계	586,587	100.0	719,678	100.0	822,996	100.0	768,897	100.0

주) 1세대가구: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기타친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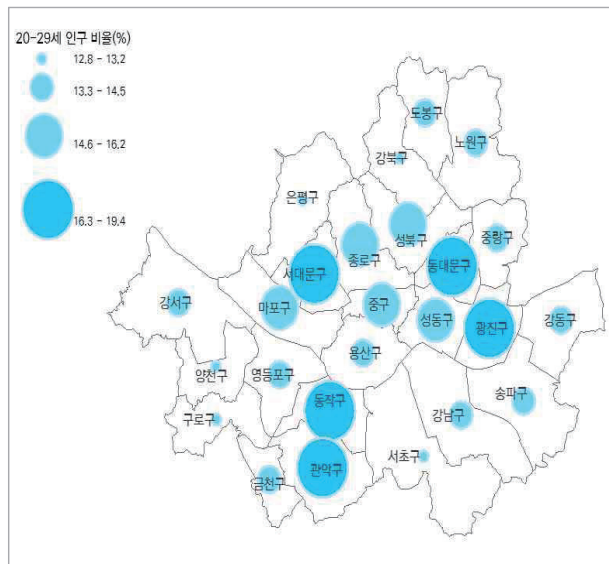
2세대가구: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3세대가구: 부부+미혼자녀+양친, 부부+미혼자녀+부친, 부부+미혼자녀+모친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 2015

미래세대 중 20대 청년층의 공간별 분포도는 다음 표와 같다. 관악구, 광지구,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이 20대 청년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그림 1] 20-29세 인구의 공간별 분포도

서울의 미래세대는 모든 연령층에서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많으며, 20-24세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30세 이상에서는 제조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세 초반 직업종사자의 직업안정성은 높지 않으며 이들은 주로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에 밀집되어 살고 있다. 미래세대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패널조사에 따르면, 30-39세 가구주의 자산은 2012년 2억2,747만원에 비해 2016년 2억5,73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30대 미만 가구주의 자산은 2012년 8,954만원에 비해 2016년 8,7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여 30-39세 가구주의 부채는 2012년 4,405만원에서 2016년 5,877만원으로, 30세미만 가구주의 경우 2012년 1,283만원에서 2016년 1,59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밀레니엄 세대가 가진 특성을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이들 세대가 마주한 위기요인들은 이들 세대가 고성장시대에 출생해 성장의 풍요로 누리며 자랐으나 정작 본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기는 한국사회 전체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취업난이 심화되고, 서울의 경우 과밀인구에 따른 주거난의 문제로 이 세대가 고스란히 주거비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들이다.

[표 3] 미래세대 경제사회적 특징

	위기요인	기회요인
경제적 측면	· 저성장시대: 취업난 심화 · 주거비 부담 심화 · 부모세대의 자산가치 하락 · 전세계적 경제 위기 지속 · 저출산 고령사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가중)	· 디지털세대 부각 · 다양한 문화 수용 · 한류 등 국내 문화 수출 · 새로운 상품서비스시장 창출 · 시장의 글로벌화, 정보화
사회적 측면	· 개인주의적 성향 · 부모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 · 고학력 니트(NEET) 증가 · 사회지표 낮은 수준 (고용율, 자살률, 빈곤율)	· 높은 교육수준과 창의력 · 유연한 사고방식 · 독창성, 개성, 다양성 · 글로벌 마인드, 외국어능력 · 인터넷, 게임, 정보 등 디지털 접근성

더욱이 이들 부모세대의 자산 가치 역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 세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요인이외에도 개인주의적 성향이나 고학력 니트족의 증가 등도 미래세대 앞에 놓여진 위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밀레니엄 세대가 가진 기회요인들도 물론 존재한다. 이들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집단들로 유연한 사고방식이나 독창성,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글로벌 마인드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세대로 향후 사회의 발전이 정보기술, 디지털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발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 세대가 가진 특성들이 밀레니엄 세대에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

베이비붐 세대의 여러 특징적인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우리 사회의 상수로 작용하는 현상을 전제해야 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과 저출산 현상은 ‘인구절벽’이라는 ‘공포’에 가까운 사회현상이 3-4년 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베이비붐은 출산율의 급등으로 인해 출생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베이비붐은 단기적으로 큰 규모의 출생아가 인구에 유입되어 인구구조를 젊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만든다. 또한 출생아의 급증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구성장은 주택, 교육 등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50년대 초반 5.6명에서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후반 6.3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태어난 1955-1963년생을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시기를 기준으로 1955-1974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김용하·임성은, 2011). 이 기준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인구의 32.5%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에 따라 이들 세대의 형성원인이나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르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적인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출산율의 상승 시기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60-1970년대까지 경쟁적인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1980년대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을 형성하면서 경제성장기 한국 사회의 중추세력을 형성한 인구집단이다. 이들 세대는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주택, 소비, 자녀교육 등을 둘러싸고 특징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 어떤 연령집단보다 큰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사회에서 신(新)노년층으로 성장할 세대이며 향후 몇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인구집단이다. 2015년 기준 52-60세 연령집단인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소비정점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이 시기 인구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의 인구변화에 매우 중요한 인구 집단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 기준 약 7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연령집단은 54세인 1961년생으로 90만 5,656명에 달한다. 규모가 가장 작은 연령집단은 59세인 1956년생으로 1961년생에 비해 약 23만 명 적은 67만 9,651명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 현재 생산가능연령에 속한다. 그런데 5년 후인 2020년이 되면 1955년생이 65세에 도달하면서 고령화가 시작된다. 이 연령 코호트가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다른 베이비붐 연령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러나 젊은 코호트일수록 베이비붐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크다. 예를 들어, 1958년생은 베이비붐 세대의 10.6%, 1961년생은 베이비붐 세대의 12.7%를 차지한다.

[표 4]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인구와 비중, 2015

연령(출생연도)	인구 (명)	베이비붐 세대 내 비중 (%)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
52세(1963년생)	810,566	11.4	1.6
53세(1962년생)	839,413	11.8	1.7
54세(1961년생)	905,656	12.7	1.8
55세(1960년생)	891,909	12.5	1.8
56세(1959년생)	800,039	11.3	1.6
57세(1958년생)	754,393	10.6	1.5
58세(1957년생)	737,103	10.4	1.5
59세(1956년생)	679,651	9.6	1.4
60세(1955년생)	691,507	9.7	1.4
합계	7,110,237	100.0	14.3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2000년 733만 3,814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총인구의 14.5%인 714만 1,110명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 이들 인구의 비중은 2020년 13.5%(700만 1,333명), 2040년 10.3%(526만 8,199명)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최연장자가 85세에 이르는 204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10% 이상으로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구집단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서울의 베이비부머 중 가장 빠른 출생세대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2020년 서울의 고령인구 비중은 14.9%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령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이 시기의 사회현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베이비부머들의 44.8%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이며, 26%는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문집단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경우 월소득 400만원 이상 가구가 전체 50%를 차지하며, 59%는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다(서울서베이 2015, 2016년).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지를 보면 40.5%가 비수도권출생이며, 35.2%는 서울출생, 24.3%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서베이 2015).

4. 밀레니엄 세대의 가치와 태도

서울 미래세대는 희망적 꿈과 현실의 고단함이 혼재되어 있어

우리는 밀레니엄 세대가 중심인 서울 미래세대 서베이를 통해 이들 세대의 사회문적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서울 미래세대의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면 10명 중 4명 정도가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38.5%는 행복한 상태, 20.6%는 불행한 상태이다. 주관적 행복감이 수치적으로 낮지는 않으나 구성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세대는 자신들은 ‘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는 실현가능하다고 믿고 있다(실현가능성에 대해 68%가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응답). 서울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미래세대의 기대감은 사실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최근의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수 있는데, 미래세대들은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그 다음으

로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35~39세,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의 지원을 기대한다.

서울 미래세대의 욕망을 들여다보면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욕망이 내 집 마련, 취업, 일자리에 자리를 내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과반을 넘지만 51.3%),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에 대한 긍정율은 60%,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59%에 달한다. 서울 미래세대 10명 중 9명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88.5%)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2015년 기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나타났다. 놀라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다.

서울 미래세대의 마음과 감정이 드러내는 혼종성(混種性, hybridity)

서울 미래세대의 10명 중 6명 이상은 본인 성격이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하다'(63.4%),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 한다'(60.1%)는 긍정적 성격이 과반수 넘었으며, 반면 절반 정도는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하다'(52.3%)고 응답하고 있었다. 미래세대가 스스로 긍정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는 인식은 월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600만원 이상층에서 70% 내외), 가구원수가 5명 이상 함께 사는 상대적으로 가구수가 많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판적이고 논쟁을 좋아 한다'라는 자기 성격 인식은 직업이 없거나 혹은 고학력 집단에서 과반을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 미래세대 10명 중 7명은 '친구 및 지인을 신뢰할 수 있다'(69.4%)고 하였고, 10명 중 6명은 '친구가 나의 학업과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64.4%)고 생각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협동해서 일하면 보통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49.8%)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편하다'(47.7%)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미래세대는 문제 유형별로 먼저 찾았던 대처 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금전적 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돌봄 문제, 긴급 혹은 재해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찾은 경로가 '같이 사는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각각 51.6%, 48.8%, 45.6%, 38.4%), 감정적, 심리적 문제에서만 '친구'를 찾는 비율(44.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미래세대들이 1순위로 선택한 성공한 삶의 모습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40.7%)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것’(2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의 속내에 이중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미래세대는 가족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진보적 의식을 가져
서울 미래세대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미래세대는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과 공유하는 정도가 31.8%, ‘공유하지 않는다’는 38.8%로 나타났다. 독립기로 이행기에 있다는 생애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유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정도(40.9%)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24.5%에 비해 16.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중요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평균 4.15점)와 ‘외부압력이나 뺑에 의한 영향’(4.15점)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사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4.07점), ‘적용되는 기준의 수시 변화’(3.87점),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의견 미반영’(3.57점), ‘필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음’(3.35점)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미래세대들은 한국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연고나 배경과 같은 외부 요소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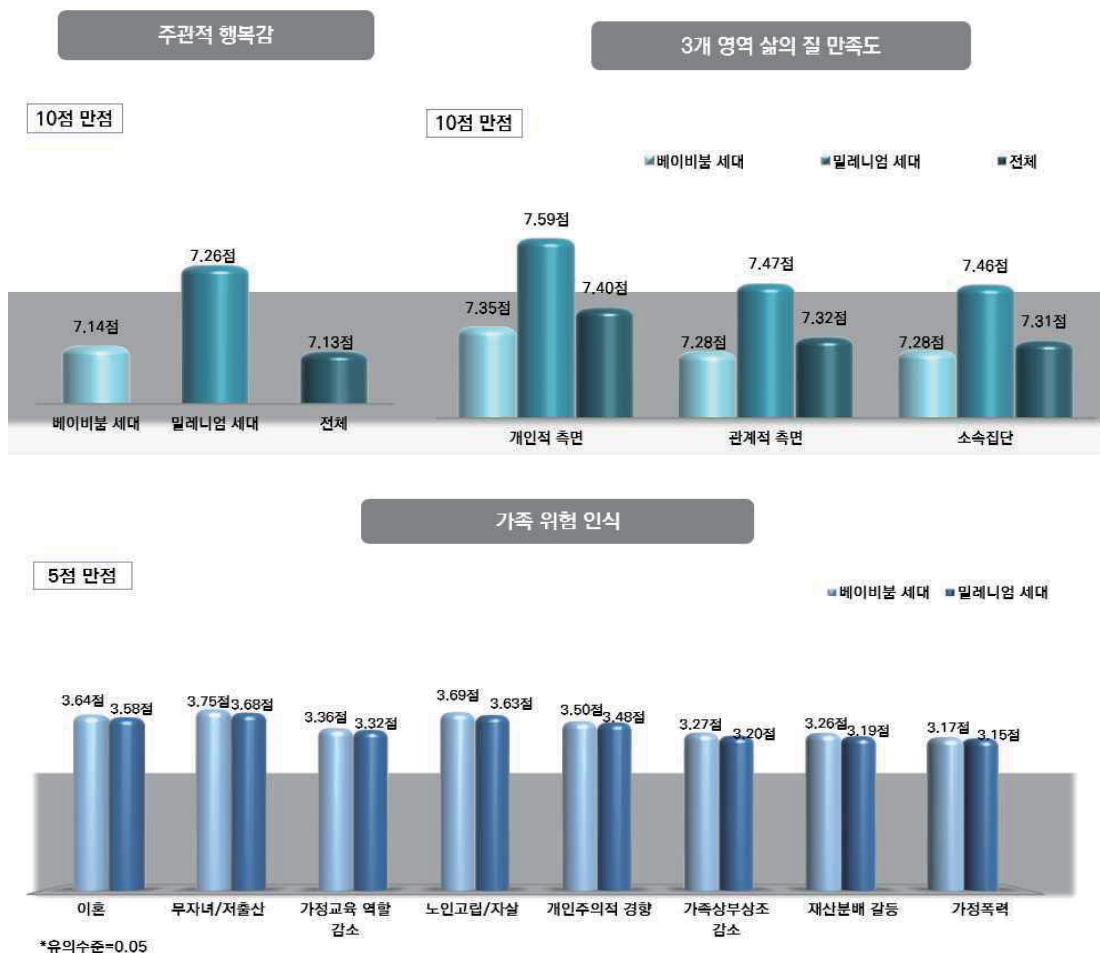
미래세대의 정치적 성향은 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45.5%, 매우 진보적4.0%+다소 진보적41.5%), 중도적 정치성향이라고 응답한 미래세대는 10명 중 4명 정도인 39.0%로 나타났다. 10명 중 1~2명정도인 15.5%(다소 보수적14.1%+매우 보수적1.4%)는 스스로 보수성향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지형을 서울시민 전체와 비교해 보면 미래세대가 갖는 상대적 진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민 전체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성향은 38.2%, 보수성향은 32.1%, 중도성향은 29.7%이다(2016년 서울서베이 기준). 이들 진보적 성향의 서울 미래세대는 ‘좋은 시민이 되는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4.52점, 5점 만점), ‘탈세하지 않는 것’(4.37점)과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키는 것’(4.29점),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4.00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3.9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베이비붐 세대의 가치와 태도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 중심적이며 자녀 중심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부중심 가치는 고령세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대는 이웃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아직은 소극적이나 노력중이며 자기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세대의 부양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깁 세대’로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들은 향후 자녀와 근거리의 독립된 공간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한다.

(작성 중)



참고문헌

조사자료 _ 서울서베이 2015, 2016년, 서울시·서울연구원

조사자료 _ 서울미래세대서베이, 2017, 서울연구원(근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계봉오. 2015. “베이비붐: 한국.” 『인구대사전』.

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변미리, 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청·통계개발원

3. 서울 청년의 도시공간: 사이(in-between)공간과 탈성장(degrowth) 지향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 서론

서울의 청년의 공간은 다양하게 분화하고 이질화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청년의 공간은 70년대~80년대에는 명동과 동숭동 및 대학가, 종로, 90년대 이후에는 홍대와 압구정으로 양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독립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홍대와, 오랜지족으로 대표되는 상류층 청년의 압구정 문화, 강남 클럽 문화 등이 청년 문화의 양대산맥으로 인식되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년의 문화공간은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문화 공간의 분화는 청년문화가 다양화되고 이질화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문화와 대학문화 이외에도, 청년들은 다양한 공간과 새로운 공간 전략을 창출하고 있다.

흔히 3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서울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간문제 특히 주거공간의 부족이다. 청년들은 고시촌, 반지하 등에서 거주하며 독자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간의 격차가 심해지면, 서울에 집이 있는 청년과 아닌 청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에 근간한 도시이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기존의 소비문화 중심적이었던 청년의 도시공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생활의 개념을 재구성하며, 머무르고 생활하며 유희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생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새로운 공간 창출에 대한 연구이다. 청년들은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은 기성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 청년의 활동은 도시재생과 연결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공간의 전략을 사이(in-between)공간과 탈성장(degrowth)이란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유위주의 축적위주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자력으로 감당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서울의 청년들은 새로운 공간 행위전략을 형성하고 있다. 소유권의 습득에 기반한 공간전유가 아니라, 유연한 공간, 흐르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정주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미 뻣뻣한 도시공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이공간/틈새공간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푸코와 세르토가 언급하는 헤테로토피아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소유권적 질서 속에서 정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주하고 유동하고 변화하는 공간들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사이공간들은 일종의 헤테로토피아로서 “한 사회가 ‘일상적인 것’ 때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한 한계의 바깥에 위치하는 무엇인가에 관련된 공간”으로 “복수적·다수적·분산적인 이질적 공간”(허경, 2011:246)이다. 일상과 정상의 범주와는 다른 이질적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런 공간이 새로운 일상으로 대체되고 있다. 국가나 자본에 의해서 규정된 공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청년들은 새로운 사이공간 혹은 헤테로토피아를 형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공간들은 고정되거나 안정된 방식으로 제도화되기 보다는 유동적이며 불안한 공간들이다.

청년의 공간활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개념은 탈성장(degrowth)의 지향이다. 탈성장이란 개념은 프랑스 경제학자 세르주 라트슈에 의해 제창된 개념이다. 탈성장의 시도는 “정치적인 것을 회복하고 정치 공동체의 운명을 시민의 손으로 되찾는 것, “욕구의 자기 억제를 사회의 모든 성원과 함께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가능한 생산·소비 활동은 그것을 사회 관계 속에 다시 끼워넣는 것”, **“탈성장 혁명은 경제를 사회 관계에 다시 끼워넣고 문제의 인식방법을 변화”** 시키는 것이며, **“폐기물의 재활용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재활에도 관심”** (라트슈, 2010: 94)이다. 특히 이것은 기존의 시장적 관계를 재전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탈성장의 논의는 카스토리아디스의 철학에 기반했다.

“과거에는 유례가 없었던 규모로 새로운 상념의 창조가 필요하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의 확대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를 인간 생활의 중심에 두는 창조이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목표를 제기하는 창조이다. ...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들을 중심에 두는 (또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을 중지하고, 경제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단순한 수단으로서 합당한 위치로 되돌아간 사회, 따라서 끝없이 증가하는 소비의 이 미친 경쟁을 사람들이 털어버리는 사회를 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카스토리아디스, 라트슈 재인용, 2010:179)

탈성장은 일종의 사회운동의 방식이자 삶의 지향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실천을 생산하고 있다. 임금노동 보다는 자발적 활동을 선호하며, 노동의 탈상품화와 탈전문화를 추구한다. 공유의 과정과 결과과 중시되며 행위자들은 자체로 자족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 자체의 행위를 추구한다. 새로운 형식의 공유를 강조한다. 소유의지에서 구축되는 쾌락과는 다른 대안적 형태의 공유를 강조한다. 행위자들간의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맺기 연결하기 등을 강조한다(Giacomo D'Alisa, 2014: 57). 탈성장을 지향하는 삶에서는 소유와 축적에 기반하기 보다는 공유(conviviality)를 강조한다. 라트슈는 이런 탈성장적 활동이 증가하는데 강조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했다. 탈성장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재평가(reevaluate), 재개념화(reconceptualize), 사회구조의 재구성(restructure), 재지역화(relocate), 재분배(redistribute), 감소(reutilize), 재활용(recycle)(라트슈, 2010: 72)등이다. 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공식화된 검소한 생활을 위한 것이다. 공유는 새로운 경제적 실험이다. 경제중심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상품화 관계를 거부하는 방식(commodification)을 거부하는 방식 시장경제와는 다른 관계 설정, 새로운 종류의 시장의 창출에 대한 노력들이 있다.

청년의 이런 삶의 지향에 대한 논의들은 사토리 세대, 키포크(박주현, 2017), 심플라이프, 샤오취에싱(쉬진위, 2016), 달관세대 등으로 일종의 사회적인 트렌드로 명명되고 있으며 분석되고 있다. 거창한 꿈을 추구하기 보다, 일종의 소소한 일상의 재미들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이런 경향은 도시 공간의 전유와 활용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추구는 도시공간 이용전략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신현준(2016), 김보름(2016), 정민우&이나영(2011)/ 젠트리피케이션

기존의 연구들은 젠트리피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공간활용에서의 청년의 박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의 새로운 공간활용전략이다. 청년들은 서울의 공간

에서 소외/ 배제되어가고 있다. 삼포세대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은 공간의 사용에 대한 기회가 협소하다. 그래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청년들이 기존의 시장구조에 들어가고, 기성의 관계 속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장사꾼, 청년 기업가 정신(entrepreneur)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성의 시장과 질서 속에서 소상공인으로서 청년이 성공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활동 등이 재래 시장과 상권의 변화에 일정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경향은 청년들의 공간 전략 중 특히 지속적으로 틈새(in-between) 공간을 확보하거나 혹은 새로운 방식의 공간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공간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탈성장적 공간전략이라고 명명하고 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청년 공간과 소비문화

서울의 청년의 공간은 대학의 공간이거나 소비의 공간이었다. 90년대 이후 대학의 청년공간들 역시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되어갔다. 대학공간은 소비공간과 구별되는 문화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로 소비문화의 확장 속에서 이대앞, 홍대앞, 신촌 등은 소비문화의 기지로 바뀌어 갔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홍대앞은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문화적 취향을 향유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비문화와 구별되는 문화를 향유하는 아방가르드적 공간이었다. 당시 새로운 청년의 저항의식을 선보이며 등장한 황신혜 밴드, 노브레인 등은 홍대앞의 드럭이라는 클럽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다. 클럽 등을 역시 예술가들이 운영하면서, 실험 예술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클럽문화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전개되면서 홍대앞은 예술대학앞이라는 독특한 아우라와 인디음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류 등 음악 산업이 대형기획사 등으로 자본화되면서, 홍대앞의 인디밴드 및 클럽 들은 대형기획사들의 일종의 자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유학을 다녀온 청년들이 귀환하며 홍대의 문화가 확장되며 홍대앞은 점차 대중적으로는 탈선과 향락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강남의 클럽 등이 활성화되면서, 청년들의 공간은 소비문화적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글로벌 패스트 패션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청년의 문화거리는 글로벌 패스트 패션의 대형 샵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대형 프랜차이즈 들이 이곳에 파고들었다. 청년 문화공간에 대한 논의/ 대학로/ 홍대앞/ 종로 등등. 도시문화연구에서 청년들의 소비문화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초기의 연구들에서 소비공간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논의들이 증가했다. 홍대앞/압구정동으로 대표되는 90년대의 청년문화는 외래문화(서구문화, 일본문화)를 받아들이는지와 그리고 그것에 입각한 소비문화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강내희 외, 1992). 홍대앞의 부상과 동시에 압구정동은 욕망과 소비의 공간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압구정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1992, 강내희 외) 등은 소비공간으로서의 청년공간을 강조했다.

3. 청년의 탈성장 공간 전략

최근에 청년의 공간전략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존의 소비공간에서 소비문화와 해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공간을 생성하고 있으며 일종의 생산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발생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감수성과 취향에 맞추어 기존의 소비지역이 아닌 곳에 터잡고 새로운 공간

을 창출한 이후, 그것이 자본에 의해 침식되어가기도 있다. 홍대앞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문래동, 성수동 및 서울 외곽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런 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게릴라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서울에서 형성하는 새로운 공간을 조망하고자 한다. 특히 탈성장적 전략을 채택하여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 공간들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개념화/ 재구성/ 재활용의 전략에 더하여 연결하기의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탈성장 연구에서는 탈성장 지향 운동간의 정보공유나 연결하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들이 전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의 문화공간을 살펴보았을 때, 이런 다양한 산발적인 활동들을 연결하는 전략이 무척 중요하고 이것은 공간전략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1) 새로운 주거 실험과 집의 재개념화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공간에 대해 재개념화하려 하고 있다. 탈산업화와 노동조건의 변화라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증가하며 불안정한 노동조건들을 전환하려는 사회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등장하고 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한편 서울과 같은 대규모 도시에서는 거주 문제도 청년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한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전에는 월세의 부담이 없었다. 그런데, 현재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제도가 차츰 월세제도로 전환해가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 재정비를 목적으로 뉴타운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청년들이 가족에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대만과 중국에도 달팽이집(蝸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청년 운동단체가 결성되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상품이 아니라 살아갈 공간으로서 민달팽이의 집을 짓겠습니다”¹⁾라는 기치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90년대와 2000년대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귀촌·귀농을 하면서 대안적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변산공동체 등, 다양한 생태 공동체 운동들이 전개되며, 농촌을 근거로 대안적 사회운동, 대안적 교육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획일적인 입시위주와 다른 대안교육을 지향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교외나 시골 지역에 있고, 도시형 대안학교와 도시형 대안적 삶의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이런 대안적 삶의 방식은 추구는 도시 노동자들과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서울에는 성미산 공동체 등 일부 도시형 대안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대안적 삶의 방식의 추구는 고학력 중산층 이상에게 호소하는 운동의 측면이 있기에,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층노동자들은 소득적인 측면에서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측면에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은 도시화율이 약 83퍼센트로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불안정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는 청년들은 도시를 떠날 수 없다. 알바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년들은 고시촌, 옥탑방 등의 비좁은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공무원 시험, 경찰관 시험 등 하급공무원 시험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목하여 <빈집>이란 도시형 청년 공동체 운동이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기도 했다.

1) <https://www.facebook.com/page.minsnailunion>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상업적인 게스트하우스(guesthouse)가 아니라 손님들이 주인이 되는 손님들의 게스트하우스(guests' house)가 바로 그것이다. 세 명의 맥수들이 방 세 개짜리 평범한 가정집을 임대해서 살면서 문을 열어 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소비를 줄이면서도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가는 과정은 그것만으로도 삶의 큰 즐거움이었다. 집 짓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가 선생님이 되어 목공수업을 했다. 자투리 나무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가구들을 만들었다. 면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하던 친구가 선생님이 되어 쿠션 커버를 같이 만들고, 천들을 붙여서 커튼을 만들었다. 여럿이 어울려 놀다 보니 술을 마실 일이 잦았다. 그런데 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술 빚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20권 정도 도서관에서 빌려와 함께 읽고 실습하며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었다. 맥주를 만들 줄 아는 단기 투숙객이 머무르게 되면서 드디어 하우스 맥주의 세계도 열렸다. 된장, 간장을 만들고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어 보는 등 **살림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습득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학습의 장이자 즐거운 놀이였다**²⁾.”

앞에 소개한 민달팽이 유니온은 구체적인 주거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단체라면, 빈집같은 경우는 좀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2008년 시작된 게스트하우스라는 외피를 가지고, 일종의 도시형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유를 넘어서서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택하나를 임대로 시작한 빈집이 현재는 네 채가 되었고, 장기투숙객이 20~30명정도가 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을 하며 도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공동체가 없고,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어 살고 있지만, 이곳 빈집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공유가 이루어져서, “실제 소득수준과 소비수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삶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농사를 짓거나 혹은 카페를 열기도 했다. 이런 활동의 와중에는 프리라이더의 문제, 공유지의 비극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집에 대한 개념이 전환되는 측면이 있다. 집을 소유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삶의 공간으로 **재개념화**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존의 시장질서적인 집의 개념과는 다른 사이공간이다. 최근에는 이런 공유공간이 강남 등지에서도 생겨나며 새로운 주거 형태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했지만, 청년들의 새로운 주거 실험이 실패한바가 있다.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순천에서 청년 여관 등. 하지만, 지방의 경우,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시도가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서울이라는 공간이 지가가 비싸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적 허용성, 관용성, 경제의 집중으로 인해 다양한 상상력이 전개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서울은 점차로 코스모폴리탄한 도시로 변화해가고 있기에,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지향을 지지해주는 층위가 확장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시장의 재구성(reconstrue)

서울의 청년들은 기존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청년들의 활동 중 특히 도

2)

<http://www.makehope.org/%ED%95%B4%EB%B0%A9%EC%B4%8C%EC%97%90-%EA%B0%80%EB%A9%B4-%EB%B9%88%EC%A7%91%EC%9D%B4-%EC%9E%88%EB%8B%A4/>

드라지는 것은 마켓과 관련된 활동들이다. 기존의 재래시장을 기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장관계를 실험하기도 한다.

다음의 지도는 서울의 대표적인 마켓들을 표시한 것이다. 청년 연구자들이 마켓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지도이다. 이런 마켓들은 다양한 청년의 활동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청년과 관련된 시장들은 총 56곳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 마켓들은 강남 지역 이외에도 서울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마켓들은 공공영역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소규모로 생성된 마켓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폴리마켓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셀러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마켓³⁾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내 56여개의 장터들을 조사한 결과 도시형장터 분포도를 통해서는 첫 번째로 장터가 양적으로만 팽창하고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장기간 자신만의 컨셉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양질의 장터가 많았다는 것이다. 장터가 가장 많았던 곳은 마포구와 종로구로 주로 강북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고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유동인구 뿐 아니라 문화예술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열리는 도시형장터 중 절반 가까이의 장터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도시형장터의 생성과 지속이 유동인구와 관련있을 뿐 아니라 공원 등의 공공시설, 그리고 문화시설과 역사유적 등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둘째로, 장터의 성격을 콘텐츠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나타나는 성격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도시형장터를 아트, 수공예, 가공식품, 농산물, 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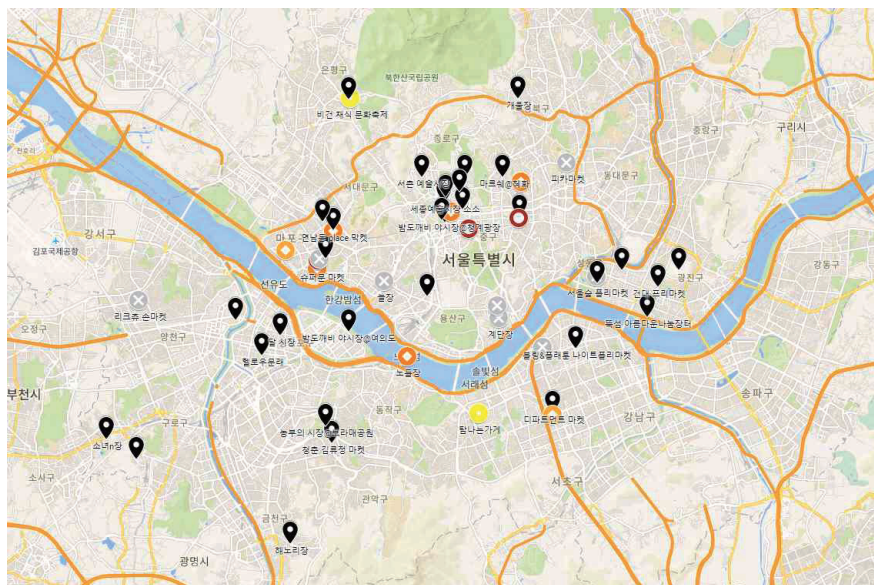


그림 1 <https://goo.gl/PLekz6>(박주연 외 작성)

품, 기업/소상공인, 푸드트럭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과거의 주요 품목이었던 아트, 수공예 장터를 벗어나 전문적인 성격을 갖춘 장터가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에 약세였던 중고 장터가 가장 트렌드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전통시장의 영역에 가까웠던 농산물이 직거래 및 도시농장의 열풍과도 맞물려 파머스마켓⁴⁾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3) <http://cafe.naver.com/pandamarket>

4) 박주연 외, 2016, 「청년창작자들이 만드는 도시형장터의 양적, 질적 현황조사」, 2016년 청년허브 연구공모사업: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늘장은 2013년부터 경의선 폐역 부지에서 운영되었던 시장이다. 청년 단체들은 ‘늘장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경의선 숲길의 공원에 마켓을 운영했다. 2013년 임시허가를 받아 늘장이 생겨났다. 개발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장은 부분적으로 공유지에서 일종의 시민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다. 늘장에서는 청년들이 제작해서 파는 다양한 공예상품, 식품 등을 판매했다. 폐부지의 개발이 확정되면서 늘장이라는 공간은 사라졌다. 청년들의 공간은 도시 개발에 의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지속적인 도시재개발 속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화하고 상시화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곳은 경의선 폐부지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마켓을 운영했다.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만들고 판매했다. 대부분 수제의 쟀들, 음식 등을 판매하고 어린이들에게 놀이 경험을 제공했다. 폐부지를 활용해 지역의 공동 공간은 만들어 낸다는 놀이+일+삶의 공간⁵⁾을 만들고 있었다.

늘장은 사라졌지만, 서울에는 현재 각종의 핸드메이드 페어 및 공예기반의 마켓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뒤의 소소마켓, 덕수궁 뒷길 크래프트 마켓, 파머스 마켓 등이 있는데 이런 마켓은 청년의 대표적인 문화적 코드이다. 청년들은 셀러로도 활동하고, 또한 소비자로서 동시에 참여한다. 현재 청년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청년들이 다품종 소생산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기성의 제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장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위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 때문은 아니다.

기존의 장터에 문화적 활동을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조윤석이란 문화 기획자가 시작한 홍대 희망시장이다. 희망시장은 “수작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며, 홍대 예술가들에게 대안적 유통경로를 만들고자 시작”되었다. 이런 시장들은 “지역 예술가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젊은 작가들에게 대안적 유통의 장”(원철, 2015:15)이 되었다.

이런 마켓들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곳에 단순히 소비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셀러로 참여하여서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소액으로나마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제품이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 시장의 의미를 재구성(reconstrue)하면서, 소비재 시장과는 다른 방식의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http://blog.naver.com/i_sfacc/220534659217

대학에서의 동아리 활동 등이 축소되어가면서, 청년들이 자발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소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터에서의 제품생산, 장터의 기획자 등의 다양한 역할은 청년들이 기획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터는 단순히 기성의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창작 기반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무형의 가치로 인해서 아트마켓, 폴리마켓 등은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청년들이 기획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공서·작가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런 장터/마켓 활동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은 다음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마켓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공통의 경험/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다. 공통 감각을 키우고, 자신들의 자발성에 의거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시장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전유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청년에게 시장은 상품가치에 기반한 시장이 아니다. 이런 마켓에서 작동하는 경제의 원리는 “살림살이 경제”로 착근된 경제이자 거주의 경제라고 볼 수있다(이병천, 2003:165). 사회적 관계가 시장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은 마켓을 사회적 관계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3) 버려진 것의 재 활용(recycle)

청년들의 공간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의 또 한 특징은 “버려진 것의 재 활용”이다. 물론 도시 재생이, 도시의 발전기능이 정제되어가면서 도심지가 쇠락해가서 도심재생이 중요한 도시정책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시재생과는 별도로 청년들은 버려진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확인하고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독립예술공간: 시청각, 커먼센터, 교역소, 반지하 청년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확장하고 있음. 주류전시공간에서 전시기회를 얻기 어려운 청년들이 전시를 하기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었고 활발히 전시를 하고 있음. 이런 활동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미술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당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활발히 하며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고 있음. 현실적으로는 이런 공간들의 렌트비가 저렴한 이유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반듯이 도시재생이나 혹은 지역화와 결합된 것은 아니다. 지역의 장소와 유리된 섬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폐허와 같은 공간에서 청년들은 전시를 하고 파티를 한다. 청년의 새로운 전시장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커먼센터는 폐가와 가까운 건물을 인수하여 전시장으로 꾸몄다. 그래서 <청년과 잉여>(2014) 등 청년과 관련된 기획전들을 몇차례 하면서 미술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는 공간이 되었다. 커먼센터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그리고 그 주변의 집창촌 건물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소위 화이트 큐브식의 전시공간을 철저히 배격하고,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베어나는 방식으로 전장을 운영했다. 이런 낯설은 공간에서 청년들의 미학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커먼센터는 공간 운영자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이 공간은 문을 닫았지만, 이런 방식의 전시공간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공간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전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버려진 황량한 공간에, 청년의 예술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드러내는 작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및 상업갤러리에서 청년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스스로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홍대앞 및 인사동 등 기성의 미술의 거리에 대안공간을 열었지만 청년 예술인

들은 미술과는 전혀 동떨어진 공간에서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여 청년의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좀더 맥락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도 있다. 버려지고 잊혀진 역사를 되찾고, 이것에 대해 새로이 가치를 찾기 위한 것이다. 관공서와 자본주도의 도시 재생의 경우에는, 기존의 퇴락한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입혀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하지만 이 경우 중시되는 가치는 대부분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가치들이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가치 이외에 역사나 인문적 기억 등 새로운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의 ‘옥바라지 길’ 운동이다. 옥바라지 길은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앞의 거리인데, 식민지 시대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 길에 거주하며 수형인들을 보살폈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여기에는 또한 박완서 작가의 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서대문 근처에서 서울 도시의 특성을 보여주는 근대형 한옥가옥들이 몇 채 남아 있었다. 이공간은 아파트 개발에 의해서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을 때, 리슨투더시티라는 청년 예술가 그룹은 이 지역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재활용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유산적 가치기준에 의거해서는 보전가치가 없는 도시형 한옥건물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의미와



서사전략을 창출했다.

옥바라지 철거반대운동시 청년 예술가들가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청년들은 상반된 입장이었다. 청년 예술인들은 이곳의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주장하며 철거를 반대했다. 반면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철거에 참석한 청년은 같은 공간에서 적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도시의 다양한 정치 속에서 청년들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적대적 관계로 조우할 수도있다. 이렇게 청년들은 버려진 것들에서 과거의 의미를 환기하여 새로운 서사를 창출한다. 이것은 반드시 도시재생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도의 도시재생에 대해 저항하여 새로운 도시의 의미공간을 창출하기도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개장한 세운상가 역시, 관주도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전 청년들이 이공간을 자생적으로 재활용하고 예술공간(300/20)으로 활용했었다. 재활용에 의해 퇴락한 의미화에 창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도시공간의 자본중심적 논리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의 이런 재활용상상력은 지속적으로 자본에 의해 전유되며 도시개발 혹은 사차산업혁명의 자원으로 끌어들이지고 있다.

4) 재지역화(relocate)와 마을경제

-커뮤니티 운동과의 결합: 양말목을 통한 지역재생활동(황새등지), 양말목을 매개로 하여, 지

역재생에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

지역의 폐기물이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예술의 재료가 되다



황새둥지란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예술을 진행하고 있는 방이동 지역은 양말공장이 밀집한 지역이다. 양말공장의 주요 노동자들은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아 각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양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최소한 14번 이상의 수가공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생산기지들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전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양말 공장이 남아있고 여전히 저임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황새둥지가 활동하고 있는 방학동에는 100여곳의 양말하청공장이 밀집되어 있다. 양말 생산이후 버려지는 양말목들이 골목골목마다 쌓여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버려져 있는 양말 부산물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평소에 직조에 관심 많았던 한 작가가 양말목 쓰레기 더미를 “실”이라고 재정의했고 이것을 가지고 직조를 해 방석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방이동의 양말공장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재활용해 지역의 의미를 다시 창출하고 있다. 방이동에는 독거노인, 비혼 여성 가구 등이 많은데 이런 양말목 직조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활동이 생기고 이것을 가지고 마을의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마을의 주민들은 양말공장이 마을의 주요 부업 중의 하나였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양말의 의미를 공유해본 바 없었다.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해 공장이 이전해가고 있지만, 국내에도 다양한 제조업 기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가내수공업에 가까운 공장들에서 일하는 분들은 노인 특히 여성 노인들이다. 이들은 독거노인인 경우도 많이 있으며, 지역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황새둥지의 활동을 통해, 양말을 노동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이어주며 엮어주는 매개체로 보는 시각이 발생했다. 황새둥지는 지역사회복지관과 더불어 이런 직조 워크숍 이외에도 환경관련 워크숍을 실시해 지역의 여러 문화활동들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청년 예술가들은 예술가/사회복지사/지역 주민의 사회에서 매개 역할을 하며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다.

5) 사이공간의 기록과 연결

청년들의 활동은 파편적이며 지엽적으로 보일 수 있다. 청년들의 다양한 사이공간을 기록하기 위한 독립매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잡지, 진 독립출판 등을 통해 청년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이런 매체들은 독립서점에서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다. 청년의 예술활동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독립잡지와 독립출판물들의 출간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매체들이 무가지 혹은 독립매체로 출간되어서 청년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2015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청년들 독립출판물에 대한 특별 전시를 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대체적으로 2008년 이후에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홍대앞과 청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독립서점들도 상당수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80년대의 운동권 전문서적, 사회과학 서점들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의 서점들이 이념서적을 강조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이 등장하는 독립서적과 매체들은 대안적 삶의 방식과 청년의 삶의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 역시 중요하지만 장소성을 강조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추구하는 독립출판물 역시 한국 동시대 청년문화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독립출판물과 독립서점들은 단순히 서울중심적인 것만이 아니라, 부산 대 구동 지역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⁶⁾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신변잡기적인 수필/ 디자인 문화적인 출판물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런 출판물들이 판매되고 공유되는 독립서점들은 청년문화의 기록을 하는 장소이자 연결고리이다.

서울에는 다양한 독립서점들이 있다. 그 중 별꼴은 카페와 인포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곳은 독립서점이라기 보다는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아카이빙 하고 공유하는 곳이다. 이곳은 청년의 다양한 혁신활동과 창의적 활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장애인 극단인 판의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문화예술관련 매개의 공간으로 변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하여, 차츰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 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이곳에서는 예술단체들의 기획활동, 전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페/아카이브/전시 공간 적 비정형적 성격을 유지하고 . “장애/비장애 청소년들과 함께한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워크숍, 물비누 만들기 워크숍, 장

6)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867&contents_id=98228

애인문화예술관과 함께 했던 장애인영상제작 발표회, 장애여성들의 연극 발표회, 아나키즘 독서회, 벌레벌레배급사와 함께 했던 여러 번의 영화 상영회와 ‘일하지 않는 자의 날’ 카페 만들어 먹기 행사, 제주 강정마을 관련 다큐 상영회, 카페 문을 다 개방하고 주렁주렁 옷가지를 걸어놓은 채 열었던 벼룩시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관에서 기획했던 휠체어에 LED 조명 달아주기, 중증장애인 POP 손글씨 작품 전시회 등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 활동가는 공간을 운영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010년 당시 부당한 철거에 반대하는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두리반>에서는 한 달에 한번 벼룩시장을 열었고, 이후에는 <명동 마리> 농성장, 행정대집행 전야의 <두물머리> 커피 워크숍, 연희동 철거농성장 <분더바> 앞 벼룩시장, <오큐파이 서울> 시청 앞 텐트촌에서의 카페 등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이상한 장소를 만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순간들이 만들어지게 했다. 한 겨울에 여성가족부 앞 텐트 농성장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거나, 보신각 앞 농성장에서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요가를 한다거나, 커피를 볶거나, 케이크를 먹거나. 나는 이 모든 이상한 순간들이 보통의 사람들과 ‘운동’을 엮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과는 다르게, 삶 속에서 느리게 스며들며 ‘인식’을 바꾸는 운동. 그리고 그것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뜰히 돌봐주며 ‘재생산’ 하게 만드는 순간 순간을 탄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⁷⁾

이런 사이공간은 서로의 돌봄의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정치중심적이고 제도중심적인 사회운동과는 다르게, 다름과 차이, 소수자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한 다양한 현장의 경험과 기억들은 사이공간을 만들었고, 이를 별꼴이라는 카페+아카이브+문화공간의 사이공간으로 다시 재현하고 “엮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앞의 사이 공간들의 활동의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장소를 만들어낸다.

4. 탈성장 공간 전략의 딜레마

1) 도시재생의 도구화

이런 청년들의 공간적 전략은 기존의 질서와 공간에 틈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종의 사이공간(in-between)을 만들어내며 청년들의 혁신적인 활동들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청년의 혁신적 활동은 기존의 사회 질서 속에서 다소 법적,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이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도시 재생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공간전략은 일종의 도시재생 정책의 도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고유활동과 자생적 활동 자체가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4차산업혁명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청년들의 활동들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창신동, 세운상가 등 지역특색 사업의 전개를 위해 청년 활동이 호명되고 배치되고 있다. 이런 경우 정책적 필요와 청년의 활동이 서로 공생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청년의 자생적 활동이 도구화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이 강조되다 보면 청년들의 자생성과 자발성 자체가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청년이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움직

7) 유선 활동가, 자기소개서 발췌

임들이 도구화되고 자본의 논리에 잠식될 수도 있다. 탈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청년의 새로운 삶의 창출은 도시정책에 종속되어 자체의 생명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2) 청년의 계층화

한편 탈성장적 가치와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이런 대안적 삶의 가치와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하층청년들은 일탈적 삶을 추구하거나, 혹은 주류적 소비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탈성장적 공간을 향유하는 이들과 기존의 소비문화적 공간을 향유하는 청년간의 격차는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탈성장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청년들은 어느 정도 교육받고, 대안적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들이라는 점이다. 저학력과 생존 자체, 그리고 기존의 정상적 범주의 삶에 대한 대안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전략을 채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옥바라지길에서 탈성장 지향의 청년들은 철거를 반대하며 용역업체와 싸우며, 또한 한편에서는 학비를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로 철거업체에 용역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 탈성장 지향의 청년들과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갖추어진 청년이다. 이런 청년들은 기존의 사회제도에 대하여 각성을 할 수 있고, 성찰을 통해 이를 빗겨나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생존 자체가 절박한 하층의 청년들에게 이란 대안적 삶과 탈성장의 지향은 사치로 인식될 것이다. 하루하루의 생존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결국 탈성장적 삶의 지향이 보편적인 사회운동과 사회의 대안적 세력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3) 수공예 중심주의와 도시성의 모순

탈성장적 공간은 대체로 수공예 및 단순한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과학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가치창출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 중국의 경우 베이징의 중관촌과 선전의 창업촌이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의 청년문화는 공예 지향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는 경쟁에 지친 한국의 청년들에게 일시적인 힐링과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청년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심화시키지는 않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놀이+일+생활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공간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세운상가와 메이커 운동의 촉진은 중요한 청년의 공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주도로 이루어져서 청년 자체의 자생성과 자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 나선영, 2017,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 헤이마켓(Hay Market)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44
- 박주연 외, 2016, 「청년창작자들이 만드는 도시형장터의 양적, 질적 현황조사」, 2016년 청년허브 연구공모사업: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 박주현, 2017, 소박함의 열망: 키포크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여름호 24권.
- 세르주 라투슈, 2010, 탈성장 사회: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 양상모 옮김, 오래된 생각: 서울.
- 쉬진위, 2016, '중국몽'과 '소확행'. 두 발전 상상의 갈등과 대화,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 진인진.
- 이병천, 2004, 칼 폴라니의 제도경제학과 시장사회 비판 : 60주년에 다시 읽는 『대전환』, 회경제평론 제23호.
- 이병철, 2013, 대안탐구 :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며, 계간 민주, Vol. 7
- 이상호, 2016, 생태경제학과 탈성장 조지스큐 -로이젠과 라투슈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Vol. 34.
- 진예린, 2016,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계획·정책결정 과정으로 살펴본 도시 비공식성과 공식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地理學論叢, Vol.62.
- 허경, 2011,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인문학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Vol.3 No.2
- 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 어려운 시대에 안주하는 사토리 세대의 정체, 이연숙 옮김, 민음사.

Giacomo D'Alisa &Giorgos Kallis eds, 2014,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 Routledge: Kindle Edition

4. 빅데이터로 본 서울 미래세대의 행복과 불안

배 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이생망이지만,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다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 할 만 할텐데요.’(S대 대나무숲)

한 대학생이 자신이 속한 대학의 페이스북 대나무 숲 페이지에 올린 말이다. ‘이생망’, ‘헬조선’ 같은 말이 기성세대에게 다소 생경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학생들에게 이미 너무도 익숙한 말이다. ‘이생망’은 ‘이번 생(生)은 망했다’를 줄여 나타낸 말이고, ‘헬조선’은 말 그대로 ‘지옥(hell)같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기성세대에게 말 자체도 어색하고, 그 의미도 수용하기 쉽지 않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저성장과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거부감없이 쓰여지는 말이다. 나고 자람이야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현실을 원망하며 다음 생을 기약하거나, 적어도 한국을 벗어나면 무언가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이생망’ 세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미래세대이다.

일상의 생각들이 표출되는 SNS에는 이런 푸념과 함께 다양한 얘기들을 접할 수 있다. 무엇을 하며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피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래세대의 생각과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SNS를 선택했다. 글이나 이미지로 표출되는 자아가 그 사람이 가진 온전한 모습을 모두 드러내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보다는 훨씬 밀착해서 다가갈 수 있고, 또 한 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모여 있는 공간이기에 조금은 더 보편적인 생각의 단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원하고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행복’을 키워드로 하여 살펴보았다.

행복과 행복의 조건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다. 개인들의 삶 속에서 필수적인 일과 노동, 그리고 여가를 갖게 되는 것도 현재의 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에 어떤 하나의 조건과 기준으로 행복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유엔(UN)의 『세계행복보고서』는 GDP, 사회안전망,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사회적 관용, 부패 인식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¹⁾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1) http://worldhappiness.report/wp-content/uploads/sites/2/2016/03/HR-V1_web.pdf

사회적 조건과 환경,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척도에 포함된다. 행복이라는 가치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 만족에 근거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척도의 마련과 측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느 정도일까?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 10점 만점 중 5.835점을 얻은 한국은 158개국 중 5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2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다.²⁾ 경제적 수준이 행복 지수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은 듯 하다. 2016년 보고서에서 10위권에 포함된 국가들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포함된 선진국이었다.

다양한 경험적 증거를 통해 경제적 조건은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의 유지 및 연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절대적 확보가 중요하지만, 잉여(剩餘)의 발생은 교환을 통해 보다 다양한 만족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물질적 풍요가 심리적 만족과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 행복을 위한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 발전 속에 행복에 대한 시각과 조건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많은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스털린(Easterlin)의 역설이라 애기되는 행복과 소득수준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이스털린에 따르면 소득 수준은 행복의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도 행복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³⁾ 우리의 경제성장이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부유하지만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위스 등은 한국에 비해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갖지만 행복 지수에서는 한국을 앞선다.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어느 수준 이상의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개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경제적 여유와 신변의 안전을 중시하는 물질주의(materialism)에서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한다.⁴⁾ 경제적 궁핍 속에서 성장한 과거 세대와 달리 경제적 풍족함 속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는 물질적 성취와 사회적 안정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탈물질주의는 서구의 정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논의와 맞물려 있는데, 산업사회의 이념과 가치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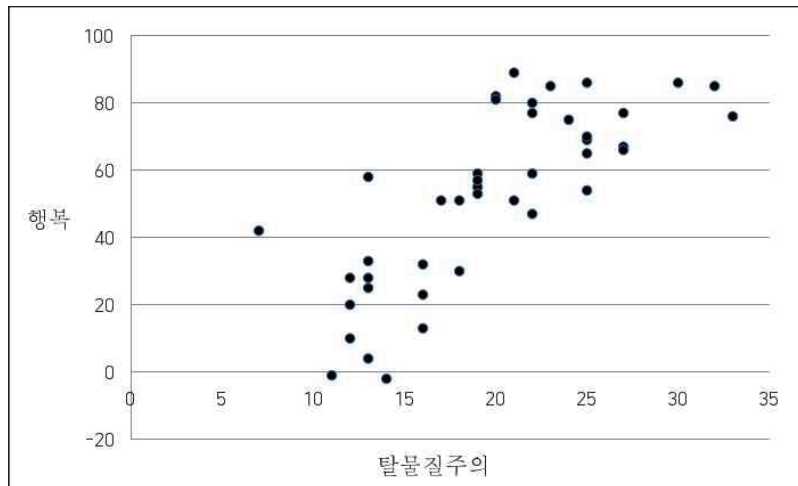
2)『조선일보』2016년 3월 17일

3) Richard. A. Easterlin(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A. David & M. W. Rede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New York: Academic Press.

4) Ronald Inglehart(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4.

5) 성기중·박형(1999)『탈물질주의: 진실인가, 허구인가?』『한국정치학회보』제7집 2호, p. 146.

그림 1 탈물질주의와 행복의 상관관계



자료: Inglehart(1995), pp. 357-361.

잉글하트의 연구에 제시된 42개국의 탈물질주의 점수와 행복 수준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탈물질주의와 행복 수준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잉글하트의 이러한 도식을 따르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세대들의 행복은 탈물질주의와 어떤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가? 주관적 행복의 수준이나 탈물질주의적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행복의 수준은 앞선 세계행복보고서에 잘 나타나있고, 잉글하트의 계산식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미국이 48%, 일본이 45%로 나타난 데 비해 우리는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덕진, 2017).

물질적 풍요를 통해 가능해지는 심적 여유는 다급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 관용과 다양성의 폭을 증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과거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는 비교적 성공했지만, 심적 여유에 기반한 탈물질적 가치의 체득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듯 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겐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기업의 안정적 일자리를 포기하고 요리를 하기 위해 급여없이 도제식 수련을 하거나, 장기간의 해외여행을 위해 월급을 고스란히 모으고, 여행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일들이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해 휴식을 위한 여가 생활을 기본으로 했다면, 젊은 세대들은 여가를 재미있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한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플래니건(Scott Flanagan)도 일반적으로 탈물질주의 성향이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중년층에서 낮아지고, 이후 노년층에서 다시 높아지는 U형 곡선을 그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⁶⁾ 이러한 설명에 기반한다면, 다른 세대에 비해 탈물질적 가치에 열려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⁷⁾. 하지만, 현실 속의 또 다른 일

6) Flanagan, Scott(1987), "Changing Values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Inglehart's Silent Rev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ese Finding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4, no. 4, pp. 427-428.

7)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및 행태가 세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계량적 접근을 통해 측정한 2006년의 김옥·김영태의 연구에서는 15-24세의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이 23.3%로 다른 세대(25-34세 9.4%, 35-44세 6.3%, 45-54세 4.9%)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제시했지만, 다소 기간이 경과한 자료라는 점에서 참고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미래의 안정적 행복을 위해 오늘도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가지 요인이나 일관적인 틀 속에서 행복을 위한 조건 및 상황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행복의 조건과 함께 세대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선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내용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위해 미래세대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SNS 속에서 행복과 불안의 근거를 찾아 보고자 한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행복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생산된 설문조사자료이다. 조사는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되어,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20세 이하의 응답자는 20대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행복의 필수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 및 유엔의 세계행복 보고서의 주요 항목들을 참고하였다. 즉 “귀하께서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①건강, ②화목한 가정, ③경제적 여유, ④시간적 여유, ⑤좋은 친구, ⑥종교, ⑦직업적 성취, ⑧기타 등 8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행복 요인의 경우, 세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0대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20대는 화목한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시간의 경우, 20대가 행복의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나 직업의 경우에도 20대의 수치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종교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세대에 비해 20대가 가장 높거나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항목이 많아 세대적 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1. 세대별 행복 요인의 교차표(%)

구분		건강	경제	친구	종교	직업	가족	시간	기타	비고
한국	20대	21.2	22.1	9.0	0.9	5.4	29.3	12.2	0.0	Pearson chi2(28) = 94.8**
	30대	30.1	24.5	1.0	3.6	1.5	29.6	9.2	0.5	
	40대	34.8	20.7	2.2	3.1	4.4	26.9	6.2	1.8	
	50대	38.8	19.2	5.0	5.0	1.8	28.3	1.4	0.5	
	60대	47.3	16.3	3.1	4.7	0.0	26.4	1.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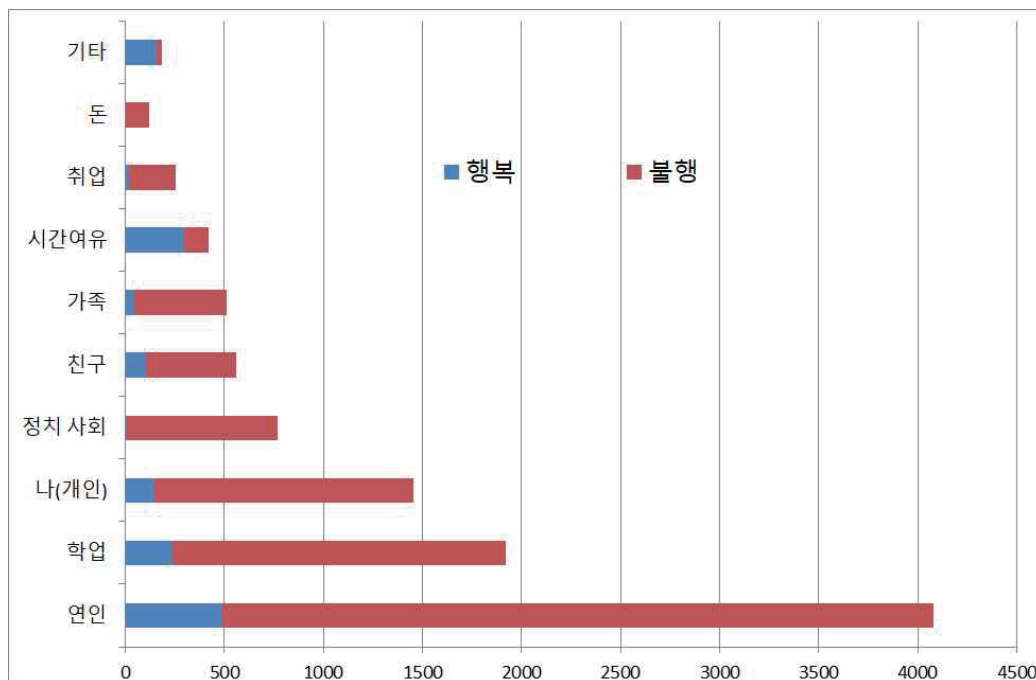
참고: ** p<.01, * p<.05

행복과 불행에 대한 언급 건수와 주요 영역

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미래세대를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의 추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상 속에 나타나는 개인들의 생각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채널은 SNS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 또한 존재한다. 한정된 내 주변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는 특정한 누군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만, 빅데이터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지 파악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생각의 파악은 가능하지만 누구의 생각인지에 대한 파악은 용이치 않다는 것이다. SNS의 특성상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미래세대’라는 한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SNS를 통한 데이터 추출 방식으로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결국 대안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서울 소재의 각 대학(학생회 포함)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익명 페이지(대나무 숲)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식 게시판이 있지만, 기명에 의한 게시물 작성과 주로 문의 중심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일상 속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기에는 적절치가 않았다. 반면 현재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대나무숲은 소속 학교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일상의 관심 사항과 감정적 공유가 활발히 나타나는 공간이다. 이러한 서울 소재 대학이나 대학 소속 학생회의 대나무숲 중 ‘페이지 좋아요’가 1만 명 이상인 45개 곳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1년으로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올라온 게시물 2만2117건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림 2 대나무숲에 나타난 영역별 행복과 불행 관련 게시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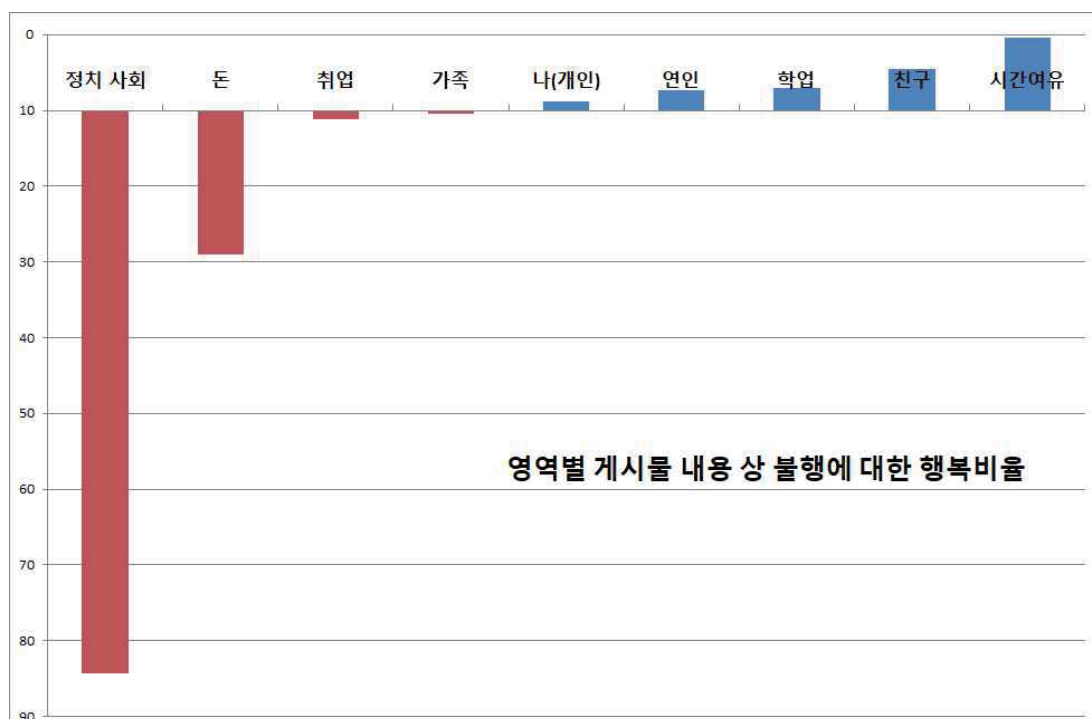


전체 게시물 중 ‘행복’이나 ‘불행’등과 연관성을 갖는 감성어휘들을 투입하여 총 1만281건의 게시물을 추출하고, 최종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함께 내용 분석을 활용하여 분류한 결과, ‘행복’과 관련한 게시물은 1512건(14.7%), ‘불행’과 관련한 게시물은 8769건(8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 보면 행복 관련한 게시물보다 불행과 관련한 게시물이 약 6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 핵심 요인에 대해 군집을 분류한 결과, 행복을 좌우하는 10개의 대상 혹은 조건이 도출되었다. 이는 △정치·사회 문제 △취업 △가족 △개인 △돈 △시간 여유 △친구 △꿈 △학교·학업 △기타 로 분류될 수 있었고, 해당 영역에 있어서의 행복 혹은 불행 관련 게시물의 건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순히 건수로만 보면, 연인과 학업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SNS가 아니라 대나무숲이라는 상대적으로 공개된 SNS이지만, 연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상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였다. 학업과 관련된 내용은 예상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팍팍한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고려할 때 그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었던 취업과 관련한 언급은 예상보다 작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림 3 대나무숲에 나타난 영역별 내용상 행복과 불행 관련 게시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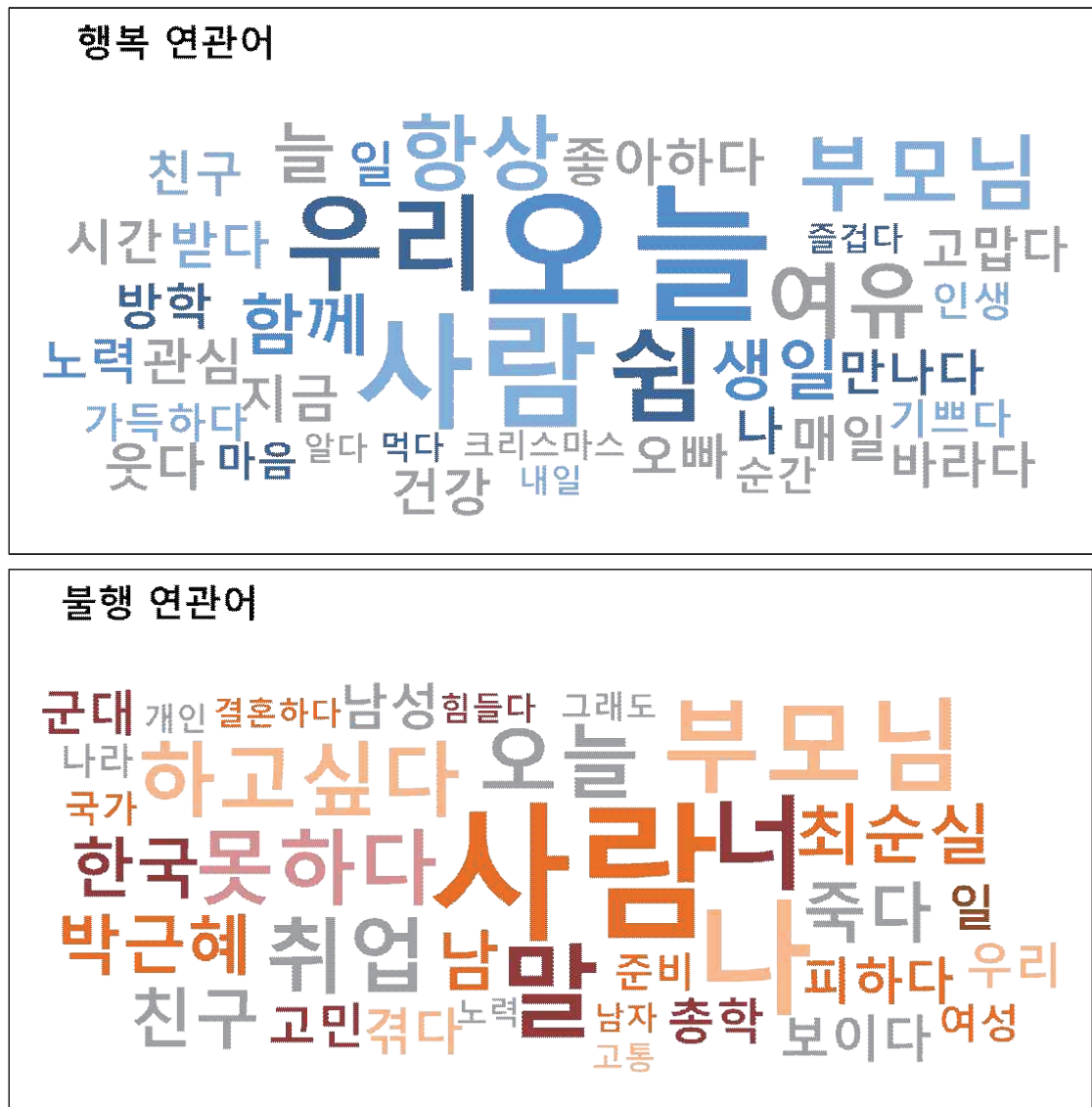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영역별로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았다. 행복을 내용으로 한 게시물에 대한 불행 게시물의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전체 건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영역별로 파악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행복 관련 내용보다는 불행과 관련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정치·사회 문제(84.3배) △돈(29배) △취업(11.2배) △가족(10.4배) 등의 영역에서 불행 관련 게시물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고, △시간 여유(0.4배) △친구(4.6배) △꿈(5.7배) △학교·학업(7.0배) △개인(8.8배) 등

의 요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행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불행의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의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무기력의 근원적 원인이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시기의 특수성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데이터 추출이 이루어진 분석 대상 기간 중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함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 속에 함축된 실망과 분노는 매주 이어진 촛불집회를 통해 결국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 에너지로 작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간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사실들은 국민들을 감정적 허탈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아노미적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주요 연관어

그림 4. 대나무숲에 나타난 행복과 불행 연관어



이번에는 행복과 불행을 키워드로 하여 주요 연관어들을 살펴본다. 전반적으로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소망과 불안’으로 대나무 숲에 나타난 얘기들을 요약,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낮은 사회, 그리고 불안과 불만이 많은 시기이자 사회적 상황이기에 자연스레 관심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영역보다는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주변에 머물게 되는 듯 하다. 행복 연관어로 나타난 ‘오늘’, ‘항상’, ‘늘’, ‘지금’, ‘매일’과 같은 단어를 통해 볼 수 있듯 현재의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다. 사회가 자신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롤 모델을 충분히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보다는 눈 앞에 놓여진 현실에 대한 추스림이 우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가능성이 희박한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알바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아무나 ‘일할’ 자리 있으니까 당분간 여기서 일해라’라고 좀 말해주시면 안될까요?”(K대 대나무숲)

행복에 비해 불행관련한 게시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역시 ‘박근혜’나 ‘최순실’, ‘국가’, ‘나라’와 같은 연관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국정농단 관련 내용과 함께 총학생회나 젠더 관련 이슈 등 학내 주체들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한 내용들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관계를 맺게 되는 대상의 경우, 행복과 불행 모두에서 나타나는 중요 인물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가족과 친구인데, 오랫동안 친밀하게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동시에 발현되는 모순된 감정 상태인 양가감정(兩價感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님과 친구가 행복과 불행, 두 영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세부 영역별로 그 의미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부모님은 세부 영역 중 취업, 미래, 꿈, 학업 등 전 영역서 걸쳐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게시물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의 ‘사회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항상 함께 고려되는 ‘판단의 근거’ 혹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행복에 대한 연관어 속에서의 부모님은 흔히 쓰이는 ‘물심양면’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회적 지원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존재한다. 다른 내용보다 부모님과 관련된 얘기에는 많은 호응 또한 나타났다. 몇 가지 얘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가 얼마나 좋은 아들인가’라고 고민하곤 한다”(H대 대나무숲)

“대2병(주: 대학교 2학년 때 방학한다는 뜻)에 걸려 앞날이 불안한 차에 오늘은 항상 저를 아껴주시는 어머니께 신경질을 내서 상처를 입혔다.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쏟았다.”(D대 대나무숲)

불행과 연관된 부모님은 충분히 자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미안함,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맘 한구석 늘 갖게 되는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우리들의 젊은 세대들은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부담을 주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금의 청년들이 여리고 유약해서 무슨 일이든 판단하는데 있어 부모님을 필요로 한다기 보다는, 예측불가능하고 진입 자체가 어려운 사회적 환경 때문에 무언가를 도모함에 있어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대상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행복과 불행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친구’이다. 친구는 생활 시간을 가장 오래 나누고 있는 사회적 대상이자 동반자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비교의 대상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의 취업율이나 저 멀리 있는 그 누군가의 취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주변의 친구가 보다 크고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친구의 취업에 대한 시샘이 작용하는 심리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한다기 보다는, 성공 혹은 실패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미래를 반추하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거울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복과 관련하여 나타난 연관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쉽’이다. ‘쉽’ 뿐 만 아니라 ‘여유’나 ‘방학’같은 말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지친 일상에 대한 고단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라 생각했던 취업관련 키워드나 학업 등의 성취를 의미하는 연관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불행 연관어에 있어서는 ‘취업’이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제도권 교육에 발을 디는 순간부터 경쟁은 시작된다. 경쟁을 뚫고 목표로 한 학교에 합격을 해도 행복한 느낌은 잠시 뿐이다.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합격이 의미하는 것은 수험생을 벗어난 대학생이 아니라 ‘취준생’이 되는 것이라는 자조섞인 얘기가 쏘쏴 하다. 그렇다면, 취업을 하고나면 행복은 찾아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을 체험하며 또 다시 고민은 시작된다. 취업은 잠시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언정 온전한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찌들어있는 현실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한자락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훨씬 흔하게 얘기되고 있다. 취업난과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에 지친 청년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매달리는 건 비단 우리 사회만의 현상은 아닌듯 하다. 한동안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휘게(hygge-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뜻하는 덴마크어)’에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혼자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장벽 앞에 나름의 진지(陣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치열함만으로는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관어 중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술어들의 내용을 보면 행복과 불행의 지형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행복 관련 연관어에는 ‘좋아하다’, ‘고맙다’, ‘받다’, ‘바라다’, ‘만나다’, ‘기쁘다’, ‘가득하다’, ‘알다’, ‘먹다’, ‘즐겁다’ 와 같은 말이 자리하고 있는 반면, 불행과 관련해서는 ‘하고 싶다’, ‘못하다’, ‘죽다’, ‘피하다’, ‘겪다’, ‘보이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행복과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일상에서의 소소한 일 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얘기들이라면, 불행과 관련해서는 달성되거나 채워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감정과 함께 타인에게 스스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스펙, 취업, 고학력, 고소득....

이제까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단어들이 성취될 수 있다면, 미래의 행복은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혹시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미루어 짐작을 통해 제시해 놓은 프레임은 아닐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바로는 다소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면한 과제와 궁극적 행복은 다른 것이다. 스펙과 취업과 같이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제시된 목표는 긴 호흡 속에 언젠가 다다를 인생의 고지가 아니라, 눈 앞에 보이는 100미터 지점이다. 눈 앞의 목표는 다다르면 설 새도 없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하는 속성을 갖는다. 예전에도 궁극적인 행복, 인생을 통해 다다를 고지가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의 기성세대, 베이비부머가 청년이었던 70-80년대는 성장의 시대였다. 무엇을 하든 미래는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했고, 희망 속의 삶은 고단했지만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어느새 성장은 소진되었고, 지금은 한정된 파이를 나눠야 하는 제로섬의 시대가 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실현된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서로 양보하며 공생의 지혜를 나눌 수 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그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도 치열한 경쟁이 작용한다. 힘들지만 운 좋게 그 자리에 도달해도 고민은 계속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감당해야 하는 눈치는 오롯이 남는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다. 오히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일상 속에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 나아가 행복은 경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나와 있을 때이다. 수많은, 복잡한 일상사를 뒤로하고, 일단 그리고 그냥 저질러보는 여유와 쉼을 행복이라 말하고 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현재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 말한다.

행복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렇기에 사회 속의 개인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것 만큼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의미부여가 중요하다. 현재의 행복이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판단과 만족의 정도라면, 미래의 행복은 추구하는 가치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파이를 늘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파이를 다양화하기 위한 시각의 변화도 필요하다. 다양화된 파이에 도달하는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의 목표에 시야를 가둬버리는 성장위주의 가치관부터 점검이 필요하다. 다른 생각, 다른 생활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 우선 마련되어야 기성세대가 감당 못했던 새롭고 과감한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한 사회의 행복은 제로섬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 김옥.이이범(2006)「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한국정당학회보』제 5권 2호.
- 성기중·박형(1999)「탈물질주의: 진실인가, 허구인가?」『한국정치학회보』제7집 2호.
- Flanagan, Scott(1987), "Changing Values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Inglehart's Silent Rev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ese Finding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14, no. 4, pp. 427-428.
- Richard. A. Easterlin(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A. David & M. W. Rede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New York: Academic Press.
- Ronald Inglehart(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4.
- 『유엔 행복 보고서』 http://worldhappiness.report/wp-content/uploads/sites/2/2016/03/HR-V1_web.pdf
- 조선일보, 2016년 3월 17일.

2세션

서울의 미래세대는 어떻게 살고 있나?

사 회: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1. 미래세대의 불안정한 노동: 워킹푸어와 타임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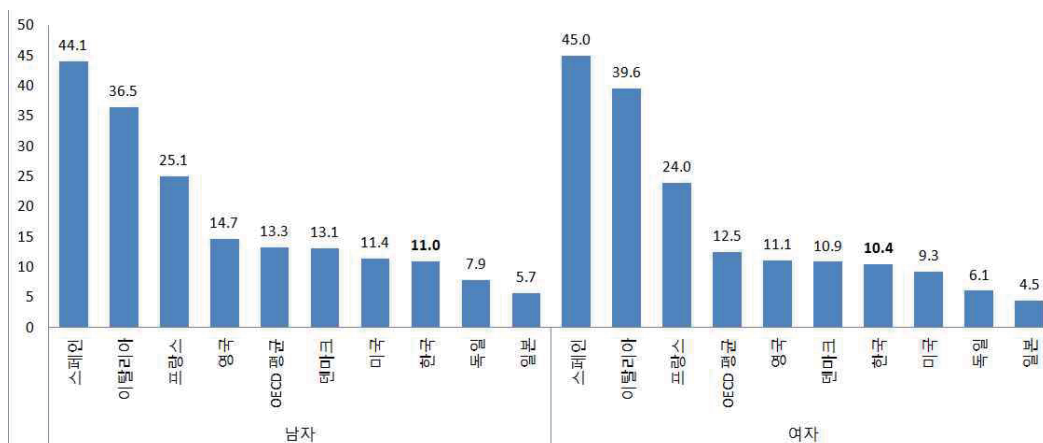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1. 성장이 멈춘 시대, 청년 프리카리아트는 어디에나 있다

1) 한국, 서울의 노동시장과 청년

청년실업이 10%를 넘어섰다. 정의와 계산 방식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지만 경제 위기의 혼란을 지나면서도 이내 3%대 낮은 실업률을 회복했던, 실업률 지키기에 있어서만 큼은 국제적 모범생이던 한국에서 당황스러운 수치다. 15-24세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OECD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그림 1), 여타 OECD국가에서 들려오는 다소간의 호전 소식에 아랑곳없이 한국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악화 경향이다. 2016년 현재 20대 청년 실업률은 남성 10.9%, 여성 8.8%로 남성은 전년대비 0.3%p 여성은 1.2%p 증가했다.

[그림 1] OECD 주요국 청년실업률, 2016



출처: OECD(2016), OECD Youth Unemployment Rate.

지방의 취업준비생까지도 모여드는 밀집 학원가와 일자리가 집중된 곳, 기회와 경쟁이 공존하는 서울의 일자리 상황은 그러나 전국평균에 비해 좋지 않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보면, 2013년과 2016년 하반기 서울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각각 8.2%, 9.6%로 전국평균 7.8%, 8.5%에 비해 높았다. 매우 작지만 2013년에 비해 2016년 전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졌다. 사실 문제는 실업률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부족은 고용률과 일자리 질을 모두 악화시키고 있다. 창익과 혁신, 도전을 부르짖으면서도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바늘구멍의 기적을 바라는 청년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불평등이 주는 좌절은 깊다.

20대 고용률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다는 취업 유경험자의 비중이 최근 35%를 넘어섰다. 일자리도 없고 교육기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청년 NEET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온전히 NEET로 장기간을 견딜 수 있는 청년도 사실 많지 않다. 청년의 다수는 고용과 비고용의 경계에서 양자를 넘나들며 저글링 중이다. 여기에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가 기여하는 몫이 크다. 글로벌 현상인 플랫폼 경제는 한국에서 주로 주문형 앱기반 서비스로 정착 중이다. 물류, 배달, 운수 부문 등에 이들 서비스가 현저하며 이들 서비스 부문에 결부된 노동자들은 대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깃노동자(gig workers)로 살아가고 있다. 앱기반 노동의 특성 즉, 앱 활용능력과 신속성, 불안정성 등은 중고령 노동자의 회피 혹은 청년의 유입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이들은 임금노동과 자영의 경계를 넘나든다. 제도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한 이들 노동자의 특성 뿐 아니라 서비스 채널에 대한 별도의 공식 조사가 없으므로 이들의 분포를 보여줄 제대로 된 통계는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종별 업종별 분류를 교차해 자영자 중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의 숫자를 구한 뒤 임금근로자 중 특고와 합산하는 방법으로 전체 특고의 규모를 추산한 조돈문(2015)은 전국적으로 229만 7000명의 특고가 있다고 보고하지만, 이들 중 깃 노동자의 분포는 알 길이 없다. 영세자영업의 구조조정으로 전통적 자영자가 줄고, 일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게 되는 이 새로운 자영적 특고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을 뿐이다 (황덕순 2016).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노동 형태는 새롭게만 경계에 선 이들은 새로운 불리(liability)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태가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서 있기도 하다.

최근 서울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20대 후반 서울 청년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순이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기성세대는 청년이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지만, 이런 청년의 바램이 청년의 현실적 선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상반기 현재 서울거주 15-19세 청년의 16%, 20-24세 청년의 42%만이 정규직이다. 첫단추 꿰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현실을 멀리하지 못하고 첫일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청년이 절반이상이라는 말이다. 25-29세까지 기다리면 정규직 비중이 약 70% 정도로 올라온다.

1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2008년 서울 소재 5인 이상 총 사업체 고용의 25%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담당하고 있고, 채용계획인원은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채용계획의 18%에 불과했다. 이 통계에서 고용규모가 큰 5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더 낮아진다. 2016년 전국 자료를 사용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인력은 연령을 막론하고 18% 정도이며, 입직자로 보면 12.9%, 채용은 11.9%(상용직 14.1%)에 불과하다. 날로 커져가는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격차를 생각하면 (아래 그림 2 참조) 적어도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싶지만, 300인 이상의 중견·대기업의 좁은 문은 이처럼 활짝 열릴 기미가 없다.

[그림 2]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2008-2016



주: 1) 임금 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상용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성장이 멈춘 시대,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얼어붙고 비정규직이 범람하는 시대에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경제적 성장에 나를 맡겼던, 혹은 국가/기업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동일시했던 부모 세대를 본받아 일과 직업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꿈을 키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냉혹한 고용현실이다. 일군의 학자들은 만성적 경기 침체를 “뉴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이는 때가 되었다고 본다. 나서 (Nasser, 2014)는 자본주의 경제가 숙성단계를 넘어서면서 정체된 생산과 투자에 임금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만, 반대로 소비와 자본과 소비자로서의 노동자는 넘쳐나는 그야말로 위기적 경제가 영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저성장, 위기의 노동시장에 던져지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살고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 글로벌 시티 서울의 노동시장이 청년에게 줄 수 있는 기회와 전망은 무엇인가?

1) 청년의 프리카리아트화: 문제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적응력?

OECD가 매해 발간하는 Employment Outlook 최근호는 2008년 글로벌 위기 후 10년을 경과하면서 회원국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기에 안착했음을 선언하고 있다 (OECD 2017). OECD가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세 가지 기본 축은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공급(more and better jobs)과 노동시장 포용성(inclusiveness)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 성과를 고용률과 (장기)실업률로 평가하는 양적 접근 일변도에서 벗어나 일자리 질을 끌어올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불평등이 노동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타당한 접근이다. OECD는 각국의 비교 성적표(scoreboard)를 제시해 각 회원국이 적어도 평균수준에 근접하기를 암묵적으로 독려한다.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로만 보면, 고용률과 실업률로 본 한국의 양적 노동시장 성과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일이 주는 스트레스(job strains)의 정도, 소득의 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측정되는 일자리 질(job quality)이나 포용성은 크게 낙

후된 나라다. 특히 OECD 최고의 직무 스트레스 (41%), OECD 최하위의 남성 대비 여성 평균임금(61%), 일자리 상실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소득 등이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성, 한국노동자의 직업전망과 행복을 한층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 같은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복원력(adapability & resilience)을 강조함으로써 OECD가 염두에 두는 일자리 해법이 역시 개인의 인적자본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변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개개인의 생존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의존하며, 인적자본은 개인 적응력의 요체라는 시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인적자본에 대한 강조가 예전과 달라진 것은 이 적응력이라는 단어와 관련된다. 일정년수 이상의 학교교육이나 좁은 직무경력을 통해 축적되는 인적자본은 적응력을 갖추기에 충분치 않으며, 빠르게 그리고 예측불가로 무한히 변해가는 기술환경과 글로벌화에 따라 산업이 요구하는 숙련의 내용에 끊임없이 자신의 자산을 부합시켜 가는 능력을 새로운 인적자본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교육 포화의 시대에 닥친 일자리 위기는 기존 인적자본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했고, 이제 인적자본론의 관심은 교육-일자리의 연계를 저해하는 질적·내용적 부조화(mismatch)에 맞춰지고 있다.

유럽 경험을 핵심에 두는 OECD의 기본 접근은 이러한 개인 적응력을 사회 제도로 뒷받침하자는 제도주의적 시각에 근거한다. 상시적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복원력의 근간은 경기(cycle)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일자리 침체가 구조적(structural)침체로 가는 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s)에 있으며, 개인의 유연성과 적응력 제고 역시 이 정책의 프레임 안에 있음을 제안한다. 더불어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소수자가 확대되면 노동시장은 자칫 구조화된 침체의 길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새롭게 경계한다. 따라서 내부자 (insiders) 위주로 구조화된 시장과 정책을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 외부자(outsiders) 즉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처한 (다수의) 소수자에 대한 노동시장 포용력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적응력 제고를 기하자는 것이다. 이를 평화적, 합리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부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와 내부자의 이해가 사회적 맥락에서 타협되는, 합의와 조정에 기반한 (coordinated) 노사관계 제도의 사회통합적 역할과 기여가 다시 강조된다.

OECD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른바 선진자본주의국 경제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아도 문제의 핵심에 청년세대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당기간의 초기 훈련투자를 요하는 신규진입 청년보다는 가용하다면 준비된 숙련노동력을 바로 투입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하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의 노동시장 조건, 즉 반복되는 위기에 따른 고용조정, 노-사 상호간 암묵적인 로열티의 약화 등은 이러한 숙련 인력의 이동성과 가용성을 높이고 있다. 경력직에 대한 기업 선호는 노동시장 경험이 일천한 청년의 졸업 후 실업/미취업의 장기화 혹은 숙련 축적과 괴리되는 질 낮은 일자리 진입으로 이어지고, 이는 현 청년세대

가 전 노동 생애에 걸쳐 노동시장 주변부에 머물 개연성을 높인다. 드라기(Draghi)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듯이 청년실업은 비극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세대는 생애에 걸쳐 사회에 의미있게 개입하고 기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21세기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이런 개연성은 어디에나 상존한다.

예컨대 글로벌 위기의 충격과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남부 유럽, 그리고 크로에이시아와 같은 유럽의 주변부인 동유럽에서 청년은 이미 만성화된 초(超)고실업, 장기실업의 주인공이며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한다 해도 내일을 예측하거나 기약하기 어려운 경제의 밑바닥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한 일자리에 고착되고 있다. 50%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사회의 일부로 편입해 역할하지 못하는 이들 아웃사이드의 확산은 이미 노동시장의 전반적 재기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에 중간계급 이상 부유한 가족 배경을 가진 야심찬 청년들은 일찍이 유학길에 올라 핵심국 대도시의 신산업(new economies) 부문에 진입하는 글로벌 엘리트군을 형성한다. 그러나 비교적 자유로운 역내(regional) 이동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회를 엿보려는 유럽 젊은이 중 이들은 오히려 소수에 불과하다. 영어 등 외국어와 첨단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젊은 몸과 의지를 담보로 탈그리스, 탈스페인, 탈폴란드 등을 감행해 기꺼이 소매업, 음식숙박업, 유통업 등 선진국 저임금 산업의 밑바닥 일자리에 다시 시작하기를 마다지 않는 노동계급 청년이 넘쳐난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이들의 여정도 녹록치는 않다. 예를 들어 유럽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유연 고용의 극단적 형태, 0시간 고용계약(zero-hour contract)은 이들에게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호혜적으로 원하는 시간에만 노동자를 불러 사용할 수 있는, 심지어 일이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르지 않을 자유를 사용자에게도 부여한다. 이러한 “자유롭고 유연한 노사평등” 계약형태의 확산은 특정 일자리에 정착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전례없는 고용 및 임금 불안정, 그리고 어두운 생애 전망을 주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글로벌 위기 후 미국과 캐나다의 청년 실업률도 전체 평균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인구구조 변화에 힘입은 고용률 호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팽배해진 불안정 고용은 지속되고 있다.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처한 젊은이들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규모의 위험계급(new dangerous mass class), 즉 가이 스탠딩이 명명하고 최근 마이크 새비지 등 영국의 계급 연구자들이 대규모 조사를 통해 기존의 프롤레타리아트와는 구별되는 계급으로 분류해 낸 프리카리아트(precariat) (Standing, 2011; Savage et al. 2016)의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한다. 기존 노동계급이 획득한 케인즈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과 계급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제도 밖 만성적(chronic)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던져진 이들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이들은 분노에 찬 반항을 이합집산하는 원자화된 개인으로 드러내는데 불과해 계급 형성의 전망을 보이지는 않았다 (Standing 2011). 최근 선진산업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종적 증오 발언(hate speech)이나 한국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생산하는 각종 혐오

담론도 그와 같은 양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방향을 찾지 못한 분노와 좌절이 위축되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프리카리아트는 점차 변화를 요구하는 결집된 새로운 사회적 세력으로도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는 좋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괜찮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핵심 사회경제적 자원을 재분배하자는 이들의 사회적 요구가 개입되어 있다(Standing 2014). 미국 대도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급 15달러 쟁취” 운동(*Fight for 15*),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저임금노동자 조직화에 전범이 되고 있는 노동자센터(*Workers Center*) 운동, 런던의 생활임금운동(*Living wage campaign*), Gig경제화(*gig economy*)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뉴욕시의 노동권 보호 입법화 운동(*Freelance isn't free act*), 한국 청년 유니온의 최저임금 운동 등이 그 예다.

새로운 계급 운동으로서 프리카리아트 운동이 모색하는 해법은 개인의 적응력과 노동시장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접근하자는 OECD의 해법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개인과 사회의 적응력에 앞서 분배의 원칙과 노동의 규범을 새로 세우자는 데 그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21세기 선진산업국이 처한 경제를 어떻게 독해할 것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국가 경계 내에서 획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성숙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과연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의 적응력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다.

다시 적응력을 제고할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시각이 제시하는 해법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적 논의 중 하나인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론(*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s*)의 기본 아이디어는 선진국의 개인 및 사회의 적응력과 혁신역량을 키워 노동시장 위기에 대응하자는 논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이 시각에 따르면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주도하는 높은 숙련 수준을 지닌 노동자들은 고용구조상 이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골딘과 카츠(*Goldin and Katz 2008*)는 특히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은 고용 및 임금 분포는 새로운 기술이 요구하는 인적자본을 충분히, 적절하고 빠르게 충족시킬 교육시스템의 역량에 의존한다는 점을 장기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즉 산업이 요구하는 숙련 생산에 교육시스템이 느리게 반응하고 노동력이 이러한 기술역량에 충분히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성장이 지체되고 희소한 숙련자원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프리미엄을 발생시켜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Goldin and Katz, 2008: 254*). 일관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취약한 미국의 맥락에서 교육기관은 산업과 숙련수요를 매치시킬 중요한 제도다. 이들이 전하는 함의는 대졸 고학력자 증가와 훈련 수요에 대한 재집중은 고숙련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의 문제를 경감할 뿐 아니라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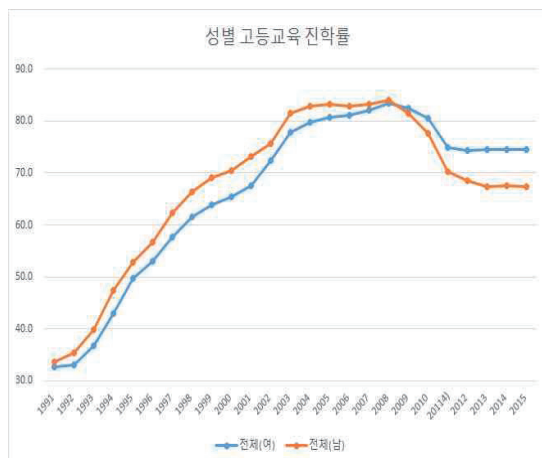
Autor(2010)는 여기에 직무(job) 특성에 대한 분석을 얹어 SBTC와 불평등 관계에 대한 이론적 보충을 꾀한다. 로봇화나 자동화 등의 기술변화와, 강화된 자본이동, 생산체제의 글

로벌 확장은 미국에서 생산기술노동자(technicians), 사무직, 중간 관리자 등이 광범하게 포진하던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자리를 없애 중간계급을 공동화할 것이라 전망한다. 반면에 새로 창출될 다량의 일자리는 STEM(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엔지니어링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연관 분야나 금융 등의 고임금 직종과 자동화나 아웃소싱이 어려운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 예비노동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높은 학비에 고임금으로 보답할 STEM 및 금융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데 투자하는 것이고, 청년고용위기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답은 이러한 고용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자극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대안에 대한 OECD적 번역은 개인의 교육투자 극대화가 아닌 사회제도의 해법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ALMP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STEM관련 고임금 일자리가 사회전반에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STEM에 대한 투자 증대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다. 유사 이래 최대의 스펙을 자랑한다는 한국의 청년들과 산업화 이후 최악의 청년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좁게는 서울의 노동시장에 이러한 해법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서울의 청년세대는 입국사증의 제약 없이 장기간 탈조선할 수 있는 선택지를 택할 수도 없는 위기에 갇힌 세대다. 이들에게 탈출구는 여전히 교육투자 밖에 남아 있지 않은가?

고등교육의 팽창은 글로벌한 현상이지만 지난 20년간 한국이 보여준 폭발적인 고등교육의 증가와 꺾이지 않는 부모의 교육투자 의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서울은 그 중심에 있다. 아래 [그림 1]은 지난 91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의 성별 고등교육 진학률(왼쪽)과 전체 인구 및 25-34세 청년의 학력 구성비(오른쪽)를 보여준다.

[그림 3] 최근 20여년간 성별 고등교육 진학률



전체 및 25-34세 인구의 학력구성비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여성)
전체				
1980	55.2	18	19.2	7.6 (3.6)
1990	33.4	19	33.5	14.1 (8.3)
2000	23	13.3	39.4	24.3 (18.0)
2010	17.1	10.2	36.9	35.8 (30.6)
25~34세				
1980	30.3	27	31.9	10.8 (7.2)
1990	8	19.1	51.2	21.7 (15.8)
2000	1.2	4	54	40.9 (38.0)
2010	0.5	1.4	33.3	64.8 (67.9)

91년 30%를 약간 상회하던 대학진학률이 수직상승해 2008년 80%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다소 하강하는 추세다. 25-34세 청년만을 놓고 보면 2000년 40%정도이던 대졸이상 인

구가 불과 10년만에 24%p 증가했다. 1990년대 말 국가부도 상황에 가까이 갔던 사회가 경제위기 직후 10년간 만들어진 변화라 믿기 힘든 증가세다. 특히 여성 진학률은 2009년 남성 진학률을 추월한 이후 현재 7% 정도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2010년 현재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 35.8%, 청년의 2/3인 65% 가량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고학력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어지는 [그림 2]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2015년 현재 서울 거주 15세 이상 및 25-34세 청년 인구의 교육정도를 전국과 대비시켜 본 것이다. 서울 인구 중 고등교육수혜인구의 비중은 전국평균에 비해 10%p 이상 높으며 25-34세 청년 그룹에도 이러한 격차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서울 청년의 68%이상은 4년제 대졸자이며 이중 약 8%정도는 석사 이상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서울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양적 투자 특히 청년세대에 대한 투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은 증가하는 청년 실업과 세대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효과적인 기제라 낙관하기 어렵다.

[그림 4] 2017년 서울거주 15세이상 인구(왼쪽) 및 25-34세 청년인구(오른쪽)의 교육정도



3) 서울의 고학력 프리카리아트: 저임금 섹터의 고용증가와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서울 청년 노동시장의 간단한 사실 한 두가지만 더 확인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자. 68%에 이르는 대졸 청년 인력풀을 지니고 있는 서울이 대체적인 졸업 연령인 20-24세 청년에게 제공하는 정규직 일자리는 2015년 현재 42.1%에 불과하고 해당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15년 상반기 현재,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20대 서울 청년들 중 월 평균 15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는 28.9%에 이른다.

기간제로 고용된 청년의 비중은 55.3%로 이들의 임금은 100만원 남짓이다. 최근 청년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향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청년이 다수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2015년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재학 중이면서 임금노동을 하는 30세 미만 학생은 9%, 휴학생 중 임금노동을 하는 경우는 40.5%에 이른다. 휴학의 주된 사유가 경제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대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전자 중 93%, 후

자 중 73%가 비정규직이다. 휴학 중 임금노동자는 주간 평균 38시간 일하며, 월평균 111만 원을 번다.

어느 정도 경력 성숙기에 이른 35-44세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풀타임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 청년의 임금은 20-24세 51.5%, 25-29세 65.5%에 불과하다.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청년집단이 진입하게 되는 섹터의 구성적 차이나 혹은 청년집단에게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패널티를 추측하게 한다. 실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빠르게 흡수해 왔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꾸준히 저임금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남성의 저임금 비중이 빠르게 늘어 2008년 이후는 여성의 수준에 거의 근접했으며, 이들 산업 취업자의 80% 이상이 중위임금 이하 수준이고, 절반은 저임금상태에 있음이 발견된다.

<표 1> 서울 청년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분포와 평균임금

	정규직		시간제		기간제	
	임금노동자 중%	평균임금	임금노동자 중%	평균임금	임금노동자 중%	평균임금
15-19	15.8%	153.2	58.2%	46.2	81.4%	71.0
20-24	42.1%	179.2	28.8%	62.9	55.3%	102.3
25-29	70.6%	227.8	8.2%	114.4	27.1%	160.6
30-34	77.5%	284.1	6.7%	177.8	18.8%	190.1
35-44	73.0%	348.0	8.3%	135.1	23.5%	185.0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5년 상반기

한편,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급격한 상승, 대학교육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 전문과학 부문의 고용증가는 더디다. 전국 수준에서 볼 때 2007년에 비해 2015년 금융보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전문과학부문은 약 2~3%의 고용증가를 보였다. 2016년 통계를 보면 전문과학 부문에서 2014년 대비 남성의 경우 32천명이, 여성의 경우 45천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음식 숙박업에서 증가한 86천명, 95천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렇게 보면 혁신, 전문 분야의 성장과 고용증진에 대한 교육효과는 적어도 지금 한국의 맥락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교육투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가 대거 진입하는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이다. 서울시 정책의 우선적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은 변화에 대한 청년의 적응력을 높일 교육의 추가 투자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격차가 크고 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대체적으로 매우 낮아, OECD가 제안하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이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긴요한 과제로 보인다. 지역 차원의 노사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세대간·계급간 연대의 기반을 만들고, 사회 투자의 관점에서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참을성 있게 제공하는 지속가능 사회의 모멘텀을 찾아내는 등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다.

2. 그럼에도 모두 같은 건 아니다: 청년세대 내부의 이질성

앞에서 서울 청년의 불안정화, 빈곤화를 프리캐리아트라는 단어로 일반화했다. 그럼에도 빠지지 말아야 할 오류는 청년이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관습적인 생각이다. 저성장시대, 청년은 제도가 부여하는 안정성에서 대체로 배제된 채 삶을 영위하는 세대적 특성과 심리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집단 내부의 이질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그 방향이 무엇이든 현재 한국사회에 범람하는 청년담론은 청년의 존재적 동일성, 그리고 그들이 지닌 경험의 동질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은 변화된 경제 구조의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묘사되거나, 조금 더 나아간다면 수동적으로 적응하거나 이탈하는 평균적 존재로 묘사될 뿐이다. 그러나 청년들 자신이 수저계급론을 통해 직관적으로 간파했듯, 청년 세대 내부의 계층적 격차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회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 청년세대는 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축소되던 불평등이 다시 급증하는 시기에 자라난 코호트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이 공유한다는 세대적 특성은 실제로는 상당부분 계층적으로 분절된 경험일 개연성이 높다. 위기 이후 임금 노동자 내부에도 상대적 고임금과 저임금 계층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각 계층이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삶의 경험과 기회 역시 강하게 계층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례없이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초·중등 학교교육 12년을 거치는 동안 가족으로부터 투자받은 사교육비가 계층별로 크게 다르다는 것이 하나의 예증이다.

<표 2> 가족 특성별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현황, 2016년¹⁾

단위:만원

가구소득 수준별	~100만원 (B)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700	700+ (A)	A/B
	5.3	10.7	17.7	24.1	30.3	34.4	38.8	46.8	8.83

자료 출처: 통계청 KOSIS,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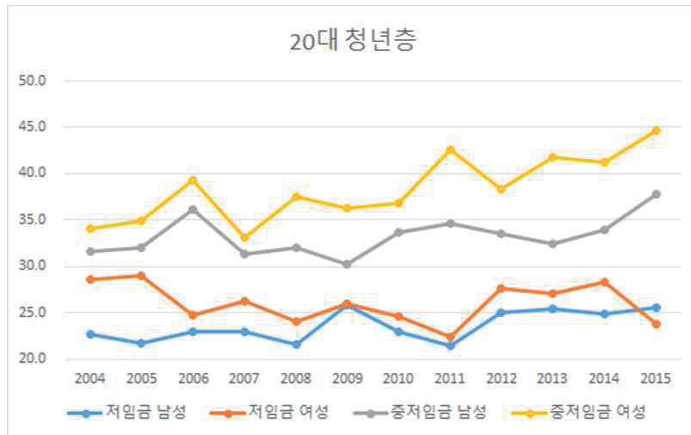
단순 기술통계만으로 인과성을 실증할 수 없지만, 위에 제시된 소득수준별 외에도 부모의 경제활동 특성별 및 교육수준별로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정확히 서열화되고 있으며, 자녀 성적분포 역시 사교육비 지출액에 정확히 조응한다. 부모의 배경이 청년의 노동시장 경험에 여하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잠시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한편, 현 청년 담론에서 엿보이는 또 하나의 한계는 몰젠더성 혹은 젠더 중립성이다. 이미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남녀 간의 교육격차에도 불구하고 청년 노동시장의 모습은 여전히 젠더화되어 있다. 구성적 차이와 차별의 결과가 혼재하는 것 같다. 아래 그림은 2004년에서 2015년까지 중위임금의 2/3선 미만인 저임금과 중위임금의 2/3 이상부터 중위임금까지의 중저임금 분포의 성별 추세를 제시한 것이다. 저임금의 경우 남녀의 수렴 현상이, 중저임금의 경우 여성의 꾸준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대 청년층 여성의 70%정도, 남성의 60% 정도가 각기 중

1) 지면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아래 <표 1>은 가장 최근인 2016년 자료를 기술했지만, 이는 2007년 이래 지난 10년간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위임금 이하에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남성의 저임금화가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5] 20대 청년층 저임금, 중저임금의 성별분포 추이



[그림 6] 청년 집단 내 연령그룹별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서울 2015년 상반기



또 한가지 <그림 6>은 청년을 연령 집단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간의 격차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2015년 지역별 고용실태 자료를 보면 20대까지는 여성과 남성의 비정규직 분포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높다. 그러나 30-34세에 이르면 남성중 정규직 비중이 여성중 정규직 비중을 앞지르기 시작한다. 또 20-24세까지 거의 유사하던 여성과 남성의 임금은 25-29세로 접어들면서 역전되기 시작해 빠르게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간략한 기술통계를 사용해 살펴 본 것이지만, 최근 청년노동시장은 남성, 특히 20대 남성의 급격한 불안정화, 저임금화와 남녀간 점진적 격차 확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젠더 갈등에 노동시장적 맥락을 제공한다.

아래 제시된 일련의 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KLIPS)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대학을 다녔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간의 노동이력을 간략히 정리해 본 것이다. 취업 준비생을 포함하는 비취업 그룹을 제외

하면, 대체로 졸업 후 1년(t1)의 분포가 졸업 후 10년(t10)까지 연계되는 경향이 강함을 살펴볼 수 있다. 노동시장 경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는 소득계층별, 성별 집단내 이질성을 언급했지만, 지역별 이질성도 상당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출신대학의 지역이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출신대학이 서울권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비서울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졸업 후 1년 시점에 미취업자로 남을 확률이 낮고, 대기업 정규직으로 진입할 확률은 한층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정규직으로 정착할 가능성 역시 높아 서울권에서 비서울권에 비해 청년세대 내부의 노동경험이 더 이질화되는 경향을 암시한다. 반면, 비서울권 대졸자들은 5년이 지난 시점에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서울권 대졸자에 비해 한층 높다.

<졸업 코호트별, 졸업후 시점별 노동시장 위치 분포>

	코호트 1(2002-2004년 졸업)			코호트 2 (2010-2012년 졸업)		
	t1	t5	t10	t1	t5	t10
미취업	42.1	28.9	24.2	39.5	18.6	-
자영	2.6	5.1	7.7	1.0	2.4	-
정규_대	11.0	13.9	14.3	13.3	13.8	-
정규_중소	31.5	42.5	40.3	32.9	49.1	-
비정규	12.1	9.2	13.2	12.9	15.7	-
기타	0.7	0.4	0.4	0.5	0.5	-
	100.0 (273)	100.0 (273)	100.0 (273)	100.0 (210)	100.0 (210)	-

	서울권 (출신대학)		비서울권 (출신대학)		서울권 (졸업무렵거주지)		비서울권 (졸업무렵거주지)	
	t1	t5	t1	t5	t1	t5	t1	t5
미취업	31.2	25.7	44.4	23.1	27.3	27.3	36.3	20.4
자영	2.8	5.5	1.7	3.4	2.6	2.6	2.2	4.4
정규_대	19.3	21.1	9.4	11.4	11.7	9.1	13.3	13.3
정규_중소	30.3	31.2	32.2	50.7	36.4	37.7	36.3	50.0
비정규	15.6	16.5	11.7	10.8	20.8	23.4	11.1	11.1
기타	0.9	0.0	0.6	0.6	1.3	0.0	0.9	0.9
	100.0 (109)	100.0 (109)	100.0 (351)	100.0 (351)	100.0 (77)	100.0 (77)	100.0 (226)	100.0 (226)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KLIPS 노동이력 데이터

한편 앞에서 언급했지만, 졸업1년후와 졸업 5년후의 이동상황을 표현하는 교차표(아래 표)를 보면 출신대학이 서울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졸업 후 1년 시점의 고용상태가 졸업 후 5년 시점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그렇다.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겨간다거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 5년후 미취업으로 옮겨가는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노동이동의 주된 이유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있다는 조사 결과(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부가조사 2017)를 뒷받침하는 결과다.

<졸업 1년후 - 졸업 5년후: 노동시장 위치의 이동 현황>

서울권(출신대학)

t1	t5					Total
	비취업	자영	정규직_대	정규직_중	비정규직	
비취업	15	2	4	8	5	34
	44.1	5.9	11.8	23.5	14.7	100.0
자영	0	2	1	0	0	3
	0.0	66.7	33.3	0.0	0.0	100.0
정규직_대	3	0	16	2	0	21
	14.3	0.0	76.2	9.5	0.0	100.0
정규직_중소	5	1	2	22	3	33
	15.2	3.0	6.1	66.7	9.1	100.0
비정규직	5	1	0	2	10	18
	27.8	5.5	0.0	11.1	55.5	100.0
Total	28	6	23	34	18	109
	25.7	5.5	21.1	31.2	16.5	100.0

비서울권(출신대학)

t1	t5						Total
	비취업	자영	정규직_대	정규직_중	비정규직	기타	
비취업	57	3	10	70	14	2	156
	36.5	1.9	6.4	44.9	9.0	1.3	100.0
자영	1	4	0	1	0	0	6
	16.7	66.7	0.0	16.7	0.0	0.0	100.0
정규직_대	4	0	23	6	0	0	33
	12.1	0.0	69.7	18.2	0.0	0.0	100.0
정규직_중소	9	2	4	91	7	0	113
	8.0	1.8	3.5	80.5	6.2	0.0	100.0
비정규직	10	3	3	10	17	0	43
	23.2	7.0	7.0	23.3	39.5	0.0	100.0
Total	81	12	40	178	38	2	351
	23.080	3.420	11.400	50.710	10.830	0.570	100.000

※ 종속: 졸업 후 5년 시점의 노동지위(준거집단: 비취업) / 독립: 출신대학소재지 / 통제: 가구소득, 졸업코호트, 연령, 성별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KLIPS 노동이력 데이터

한편, 아래 표는 졸업 후 5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비정규직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이와 다른 고용상황에 처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multi-nomial logit 분석을 통해 간단히 살펴본 결과다. 분석결과는 위의 기술통계로 언급한 내용을 대체로 입증한다. 비정규직에 비해 비취업에 정착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인데 대체로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남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04년 졸업 코호트에 비해 2012-14년 졸업 코호트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낮음을, 즉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남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기업 정규직 종사자가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족의 소득수준과 성이다. 가족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졸업 5년 후 비정규직이기보다 대기업 정규직 종사자가 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비서울권 대학 출신의 영향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요소를 통제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될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친다. 서울권 대학에 비해 비서울권 대학 출신자가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정규직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출신대학(의 소재)와 가족 소득배경의 교차, 그리고 젠더가 대학졸업자의 고용위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계층과 젠더의 영향력이 대졸자의 노동시장이 매개하는 생애기회에 상당한 영향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청년세대 내에도 이러한 집단간 이질성이 작동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 있다.

졸업 5년 경과 후 노동시장 위치 결정 요인

5년 경과후 시점	Coef.	Std. Err.	z	P>z
비취업				
univ_nonseoul	0.34	0.40	0.87	0.39
h_income	-0.20	0.17	-1.16	0.25
cohort 2	-1.21	0.55	-2.20	0.03
age	-0.04	0.08	-0.50	0.62
female	1.52	0.39	3.87	0.00
_cons	2.69	3.71	0.73	0.47
정규직_대				
univ_nonseoul	-0.09	0.43	-0.22	0.82
h_income	0.82	0.19	4.31	0.00
cohort 2	-0.39	0.64	-0.61	0.54
age	-0.02	0.09	-0.21	0.83
female	-1.13	0.45	-2.48	0.01
_cons	-0.28	4.34	-0.06	0.95
정규직_중소				
univ_nonseoul	0.93	0.36	2.57	0.01
h_income	0.07	0.15	0.47	0.64
cohort 2	-0.56	0.50	-1.12	0.26
age	-0.02	0.07	-0.28	0.78
female	-0.16	0.34	-0.47	0.64
_cons	1.11	3.38	0.33	0.74
비정규직 (base outcome)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KLIPS 노동이력 데이터

한편, 노동이력에 대한 분석의 함의는 청년 자신이 평가하는 본인의 현재 사회경제적 위치와 미래에 부모의 나이 정도에 이르렀을 때 도달할 것이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도 연결된다. 아래 교차표는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가 시행한 2016년 한국 청년의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해 만든 것이다.

청년의 현재 계층인식과 미래 기대 계층 전망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기대 도달 계층					기대 도달 계층					기대 도달 계층				
		하	중하	중상	상	계	하	중하	중상	상	계	하	중하	중상	상	계
현 재 인 계 층	하	9	14	0	0	23	15	19	0	0	34	30	49	0	0	79
	(1-3)	39	61	0	0	100(13.5)	44	56	0	0	100(16.3)	38	62	0	0	100(19.0)
	중하	1	66	0	0	67	6	91	0	0	97	12	176	0	0	188
	(4-5)	1.5	99	0	0	100(39.2)	6.2	94	0	0	100(46.6)	6.4	94	0	0	100(45.2)
	중상	1	0	68	0	69	0	0	71	0	71	2	0	127	0	129
	(6-7)	1.5	0	99	0	100(40.4)	0	0	100	0	100(34.1)	1.6	0	98	0	100(31.0)
	상	1	0	0	11	12	0	0	0	6	6	0	0	0	20	20
	(8-10)	8.3	0	0	92	100(7.0)	0	0	0	100	100(2.9)	0	0	0	100	100(4.8)
	계	12	80	68	11	171	21	110	71	6	208	44	225	127	20	416
		7	47	40	6.4	100	10	53	34	2.9	100	11	54	31	4.8	100

출처: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한국청년 가치관 조사

표의 왼쪽은 서울거주 청년, 중앙은 여타 대도시 청년, 그리고 오른쪽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현재 계층인식과 미래에 기대되는 계층 전망을 보여준다. 애초 설문 문항은 계층을 10단계로 구분했으나 분석과정에서 편의상 4개의 계층으로 묶었다. 10단계로 구분했을 때 보였던 이동, 즉 현재와 미래의 전망이 다른 경우들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아 이동을 전망하더라도 대체로 근거리 이동에 전망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는 현재의 계층적 지위와 20-30년후 미래에 전망되는 계층적 지위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자신이 최하층에 위치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1단계 상향 이동을 전망하는 경우가 약 5-60% 정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서울과 비서울권이 공히 그렇다. 반면, 현재 자신을 중하계층이라 인식하는 경우 특히 비서울권에서 약 6% 정도의 젊은이가 하향 이동의 불안을 공유한다. 서울 청년이 기타 지역 청년들과 구분되는 점은 현재 중상 혹은 상층에 위치한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지만(서울 47.4%, 지방대도시 37%, 중소도시 35.8%) 현재 계층이 유지되리라는 전망에 있어서는 세지역이 모두 유사하다. 꿈의 좌절, 부재를 강조하는 담론이 넘치지만, 정작 청년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김석호 외(2017)가 제시한 청년의 꿈자본, 즉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력을 세부지표로 구성되는 계량화된 꿈자본 지표를 살펴보면 한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서울 청년의 경우 직업경험이 없을 때 여타 도시들의 청년에 비해 희망, 낙관성, 회복력 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직업경험이 있는 경우도 서울청년의 꿈자본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다. 직업경험이 없는 서울 청년과 직업을 경험한 서울 청년 간의 갭도 크다. 서울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은 희망과 낙관성, 그리고 회복력을 잠식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 청년의 직업 경험에 따른 꿈자본>

	직업경험 없음					직업경험있음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력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력
서울	3.81	4.01	3.93	4.02		3.76	3.76	3.73	3.73
대도시	3.60	3.67	3.75	3.86		3.68	3.63	3.68	3.71
중소도	3.81	3.73	3.83	3.87		3.62	3.56	3.59	3.72
Total	3.75	3.77	3.83	3.90		3.67	3.62	3.64	3.72

출처: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한국청년 가치관 조사

4. 새로운 모색: 청년을 위한 사회적 노동, 사회적 도시

창의와 혁신의 가능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면서도 청년의 다양한 생존 방식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동, 사회적 도시로서의 서울의 가능성 모색이 필요하고, 세대간, 계급간 연대를 도모할 지역기반의 사회적 협의의 공간, 거시노사관계의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서울의 노동존중 특별시 선언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문제는 문제의식자체가 아니라 실행력을 갖춘 정책 역량이다. 미래세대를 개별적 투자와 경쟁에 내몰거나 유기적 제도 인프라의 부재 속에 인위적으로 급조한 조야한 창의의 공간에 내던지지 말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 사회 투자의 안목으로 포용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처방이 요구된다. 또 세대간·계급간 연대에 기초해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서울 노동존중 특별시/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시민 권리선언 (2011. 10.19) 서울시민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 및 증진과 적절한 임금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2015.1.2.) [런던: 런던생활임금은 영국의 수도가 숙련되고 열정적인 인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이며 이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켄 리빙스턴 런던시장 2000-2008]

서울특별시 아르바이트 권리장전 (2015. 9.23)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6. 1.7)

포용도시 (inclusive city)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도시의 국제적 예

런던: 생활임금캠페인 (living wage campaign)

뉴욕 (프리랜서 보호법 2017. 4. 15 : freelance isn't free act 서면계약, 적시지급, 보복으로부터의 자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권리, 이종피해 및 변호사 비용 변상을 위해 고용주 고소권, 법정네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권리)

2. 새로운 친밀성: 미래세대의 가족관계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 문제제기

친밀성(intimacy)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을 뜻한다. 친밀성은 한편으로는 몸, 섹슈얼리티 등과 같이 신체적으로 규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 우정, 가족 등의 사회관계의 특징으로 규정된다. 『친밀성의 구조변동』에서 현대인의 성과 사랑, 에로티시즘에 천착한 기든스는 친밀성의 의미를 평등한 두 사람간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협상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친밀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고 18세기 이후에야 낭만적 사랑이 등장했다(기든스, 1996). 한편 연애 지침서 또는 에세이로 오해받기 십상인 『열정으로서의 사랑』에서 루만은 익명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사람들의 친밀관계가 어떻게 보완하면서 얽혀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는 비인격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집중된 인격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증가한다. 단순히 사회관계의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내적으로 밀도가 높은 인격적 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인격이 가진 모든 속성들이 중요해지는 사회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루만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침투가 일어나는, 즉 내밀한 것들을 교환하면서 서로를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인격으로 확인할 때 친밀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루만, 2009: 28-29).

이러한 친밀성은 사회관계와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청년의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 주목한다. 생애주기에서 청년은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규범(social norm) 및 역할을 포괄하는 “사회적 시간표”(social timetable)(정민우·이나영, 2011a: 111)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은 취업과 결혼 등의 생애사건을 앞두고 갈등과 선택을 고민하는 ‘아픈 청년’이다. 연애와 결혼 및 출산이 가능한 연령층은 사회문화적으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청년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한 가족으로부터 공간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것은 사회의 재생산의 핵심이다.

‘표준적 성인기’의 표식이 결혼, 부모 되기, 독립생활, 쓸 만한 직장(Blatterer, 2007, 전상진, 2016: 72 재인용)이라면, 오늘날 표준적 성인기 규범을 만족시키는 청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높은 주거비 부담, 비정규직의 확산은 청년의 독립생활과 안정적인 직장의 취득을 방해하고 낮은 출산율을 초래함으로써 성인이 되기 어렵게 한다. 한국에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적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연기, 거부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켄거루족의 규모는 대졸 청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오호영, 2015). 켄거루족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미국의 키덜트(Kidult), 프랑스의 탕기(Tanguy), 독일의 네스트호커(Nesthocker), 영국의 키퍼스(KIPPERS, Kids in Parents'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 이탈리아의 맘모네(Mammone), 캐나다의 부메랑 키즈 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의 특성과 요구가 다변화되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3포 세대’로 묘사하기도 한다. 3포 세대라는 용어는 2011년 무렵부터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그 외에도 5포 세대(3포+취업, 내집마련 포기), 7포 세대(5포+인간관계, 희망 포기), 그리고 N포 세대¹⁾까지 가세하여 청년의 좌절과 절망감을 보여준다. 청년이 주요한 생애사건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회, 과연 그 사회는 미래가 있을까? 청년의 연애, 결혼, 출산 포기의 이유로는 청년층이 돈이 없어서/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을 대출했지만 졸업 후에 비정규직이거나 취업이 어려워서 20대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연애가 무슨 소용이며 결혼은 어떻게 하나”라고 한다.²⁾

그런데 청년은 단지 “돈이 없다”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걸까? 만일 그들에게 충분한 경제력이 주어진다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려고 할까? 경제적 이유로 청년이 3포를 한다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었는데도 싱글의 삶을 살고 있는 골드미스, 골드미스터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편 청년의 3포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는 “내가 네 나이일 때 주어진 대로 살았으니 ‘징징대지 말라’”³⁾고 지적한다. 기성세대가 보기에 요즘 청년은 “포기가 무슨 선택쯤 되는 줄 알고”있는 반면 자신들은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보다 더했던 예전에는 왜 청년이 3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청년의 3포에는 경제적 어려움 이외의 다른 요인이 청년의 생애사건에 대한 의식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청년이 3포 하게 되는 과정은 청년의 다양성 만큼이나 복잡하고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보일 것이다. 한 온라인 조사에서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유를 살펴보면⁴⁾, 연애의 포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57.5%), 결혼의 포기는 ‘주택 마련 등 해야 할 것이 많아서’(49.8%), 출산의 포기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72.8%)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각종 사회지표 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과 대비되는 의식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3포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미래세대의 친밀성의 실태

1) 친밀성의 대상의 다양성

루만의 규정에 따르면 친밀성은 결국 외형적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밀도가 높은 관계를 뜻한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친밀하다고 느낀다면 그 대상의 특성이 유일무이하게 생각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서로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중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청년이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부모, 형제자매 등의 가족, 연인, 친한 친구일 것이라고 직

1) 건강, 외모 관리를 포함하여 최근에는 극단적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을 비판하여 삶까지 포기한다는 완포세대 또는 진포세대 등으로 부른다. 이를 통상적으로 N포 세대로 통칭한다.

2) <우리는 정말 ‘돈’이 없어서 ‘삼포’했을까> 고향20 2015.10.6

3) 김광일, 늙는다는 건 罰이 아니다, 조선일보 2015. 9. 22일자

4) <2~30대,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집 마련’ 중 하나 이상 포기> EDUJIN 2015.3.3.

관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청년들이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을 조사한 결과는 예상대로 가족, 연인, 친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나왔다.

‘최근 한 달 간 생활하며 가장 친밀감을 느낀 대상’을 묻는 질문에 ‘애인’이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 21.4%, ‘친구’ 20.4%로 응답이 많았다. 가족 중에서 ‘형제자매’는 9.3%로 친밀감의 대상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한집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형제자매들 간에 관심사항이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람이 아닌 사물, 즉 ‘핸드폰(5.6%)’, ‘컴퓨터(5.5%)’, ‘책(1.6%)’, ‘TV(1.5%)’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통틀어 10% 이상을 차지한다. 정보화세대답게 일상생활에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끼고 살다시피 하니 사람이 아닌데도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는 내적으로 밀도가 높은, 상호침투적인 인격적 관계를 친밀관계로 규정한 루만의 개념을 재고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애완동물’에게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3.6%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청년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애인’, ‘부모’, ‘친구’에게 가장 친밀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형제자매’, ‘핸드폰’, ‘애완동물’은 여성보다 낮다(문은영·김정숙, 2013)

<그림 1> 청년이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



출처: 문은영·김정숙(2013). 99쪽

2) 청년층의 결혼 실태 및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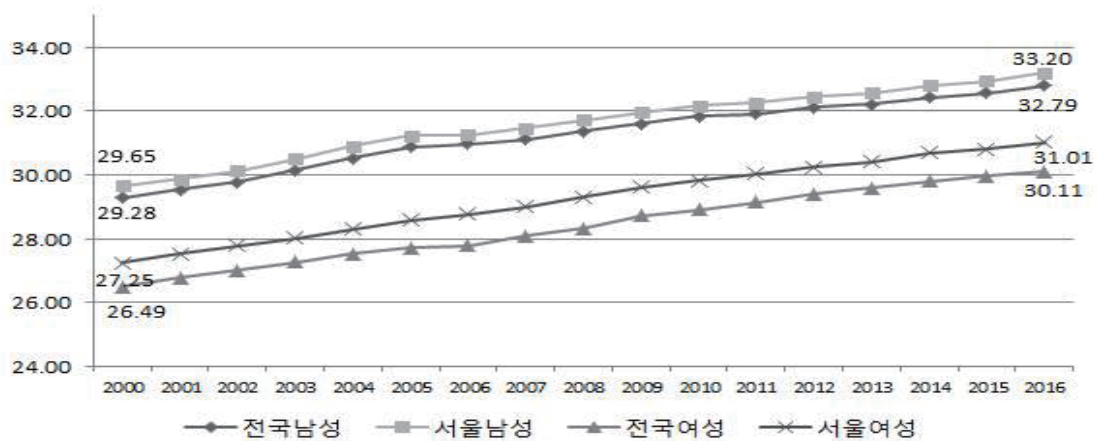
<표 1> 행정구역별 조혼인율 추이(%)

행정구역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6.5	6.6	6.5	6.4	6.0	5.9	5.5
서울특별시	6.9	7.1	7.1	6.9	6.5	6.5	5.9
부산광역시	5.7	5.8	5.8	5.9	5.4	5.3	4.9
대구광역시	5.4	5.6	5.5	5.5	5.1	5.1	5.0
인천광역시	6.4	6.6	6.5	6.4	6.0	5.9	5.5
광주광역시	6.0	6.2	5.9	6.0	5.6	5.4	5.1
대전광역시	6.3	6.5	6.5	6.3	6.0	5.8	5.5
울산광역시	6.9	6.9	7.0	7.0	6.6	6.4	6.0

출처: 통계청

최근의 혼인건수는 2013년까지 32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3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계산한 조혼인율은 2014년까지는 6%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5%대로 감소하였다. 그나마 서울의 조혼인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인 울산시를 제외하고, 다른 5개 도시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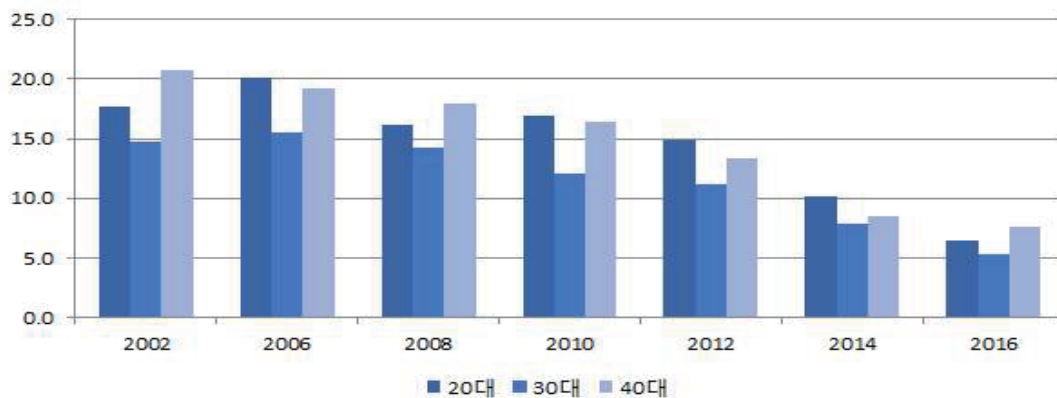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및 서울의 남녀별 초혼연령(세)



출처: 통계청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만혼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국남성의 초혼연령은 29.28세(2000년)에서 32.79세(2016년)로 높아졌고 서울남성의 초혼연령은 29.65세(2000년)에서 33.20세(2016년)로 높아졌다. 전국여성의 초혼연령도 26.49세(2000년)에서 30.11세(2016년)로 높아졌고 서울여성은 27.25세(2000년)에서 31.01세(2016년)로 높아졌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남성보다 2~3살 낮은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초혼연령은 전국과 서울의 차이가 3~4개월인데 여성의 초혼연령은 전국과 서울의 차이가 8~9개월에 달한다.

<그림 3>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율(%)



출처: 통계청

연령별 결혼관을 비교해 보면, 20~40대의 모든 연령층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가치관이 약화된 것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에 비해서 30대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낮다는 것이다.

3. 개인화로의 사회 변동: 3포로 유인하는 요인

(1) 미약한 사회안전망, 불안한 노동시장

① 생존에 급급함: “나에게는 가족도 사치다”

완전고용 상태의 노동시장에 기반을 두고 작동해 왔던 복지국가는 1차 오일 쇼크, IT·디지털 혁명, 지식기반 경제, 세계화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기반이 약화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공적인 복지체계를 후퇴시켰다.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고용에 타격을 받는 것은 여성과 청년인데, 노동유연성과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완전고용의 불능, 평생직장의 소멸, 비정규직의 양산, 높은 이직률과 실업률은 청년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겨준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예전과 같은 낭만적인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 모험, 정치적 열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삶의 곤경에 직면한 청년은 생존이 급선무가 되어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투를 벌인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청년 실업, ‘학교-직업(school-work)’의 연결고리 파괴로 야기된 취업 문제, 대학등록금과 대출, 주택마련 등이 꼽힌다. 실업을 피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것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위한 스펙 쌓기가 가장 우선적인 과업이 된다(김홍중, 2015: 190).

그런데 청년이 실제로 하고 있는 노동의 대다수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실업상태와 취업준비, 생계형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비정규직), ‘묻지마 취업’을 오가며 비정규·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고 있다. 청년이 가난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정상의 삶’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음”을 뜻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스러움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가난은 또한 “그 사회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기회들과 단절되고 ‘삶이 제공해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바우만, 2010: 73).

노동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일해야 한다면 모든 것에 앞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삶은 가능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결혼을 통한 정서적 자립 등 청년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정민우·이나영, 2011a).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라. 요즘

안 그래도 취직 준비하는 생각하는 애들 여러 명인데 자존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계속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경제적인 이유.”⁵⁾

“저는 남자친구랑 연애를 꽤 오래했어요. 만약 남자친구랑 저랑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다면 더 일찍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4대보험이 안 되는 직업은 신혼부부 대출도 지장이 있거든요. 처음 살림을 시작하는데 있어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쳐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연애를 했어도 이런 부분이 고민인데, 나이 들어서 배우자를 고를 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매우 중요할거 같아요.”⁶⁾

불안정한 고용, 좁은 취업문,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친밀성 욕구는 억압되거나 지연된다. 특히 취업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비혼 여성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서 결혼 이후의 삶을 부정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 20~30대 비혼 여성이 현실의 고용불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중상층의 비혼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을 미루면서 부모에게 의지하고, 중하층의 비혼 여성은 비정규직의 악순환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부모님의 경제력에 기대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스펙쌓기에 투자하고 취업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중상층 이상의 배경을 가진 청년의 특권인 셈이다(박기남, 2011).

그렇다면 중상층 이상의 배경을 가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희망직업을 위한 스펙쌓기를 할 수 있는 청년은 빈곤한 계층의 청년보다 결혼 가능성이 높은가? 청년 켄거루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부모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켄거루족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 제도를 선택하는 대신에 자신을 지원해주는 원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싱글로서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는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김윤희, 2012).

② 친밀성의 과도한 비용: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한다”

친밀성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물질적 비용이 요구되는데, 현대사회의 소비지향적 가치관, SNS를 통해 가능해진 상호비교성으로 인해 연애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연애의 정체성 자체에 소비가 깊숙하게 들어있어서 연애 초반기에는 소비를 통한 “로맨스 각본”을 피해가기 어렵다. SNS에 올려진 데이트코스는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맛집, 디저트카페 등으로 가득차 있고, 무슨무슨 데이에 형성되는 거대한 특수, 만난 지 1000일에 주고받는 선물은 연애가 기념일과 데이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소비로 작동하는 로맨스 각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⁷⁾ 따라서 일상적인 데이트에도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돈 때문에 애인과 헤어졌다는 한 청년남성은 “사랑은, 연애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했다”고 강변하였다.

고작 2주일 만에 그녀와의 만남을 그만뒀다. 돈. 돈이 문제였다.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만 원은 넘게 들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8천 원이 우스웠다. 둘이서 영화라도 한 편 보면 2만 원이다. 그녀를 만나는 2주 동안 내가 쓴 금액은 18만 원이 넘었다. 실질적으로 만났던 날이 5일 밖에

5) 기경서 외, (2016) 458쪽에서 재인용

6) 기경서 외, (2016) 149쪽에서 재인용

7) <가난한 대학생이 사랑을 하는 법>, 《고함20》 2014.12.21. <http://www.goham20.com/39486/>

안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많은 돈을 썼다. 문제는 나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도 나만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다.⁸⁾

한창 20대.. 저희가 한 6년 만난 커플인데, 한창... 아무래도 남녀가 만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참 그런 거죠. 둘 다 이제 부모님한테 공간적으로는 독립 못 했고 돈도 없고 해서 둘이 웃으면서 한 얘기가, ‘섹스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다’(웃음)⁹⁾

이런 소비문화에 기반한 연애 형태는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고 주머니가 얇은 청년은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적인 노동으로 해결한다. 추가적인 노동을 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노동이 불러오는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연애를 포기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청년에게 연애는 낭만이 아닌 기회비용으로 전략해 버린다. 연애의식에 관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38%)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¹⁰⁾ 최근에 등장한 ‘썸’탄다는 말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기 전의 미묘한 관계, ‘어느 한쪽에서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한다.¹¹⁾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청년에게 썸이란 ‘연애를 시작할 여건이 되지 않아 머무르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데이트비용의 지출방식을 둘러싸고 남녀간 갈등이 불거지거나, 데이트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는 데이트통장까지 나오고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문제라 여기서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면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고 한다. 10~5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비용 문제로 헤어질 수 있다’고 답한 연인이 7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78.6%, 남성 63.6%로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¹²⁾

연애비용문제가 이렇진대 결혼비용은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20·30대의 41.4%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30대의 40.5%, 20대는 49.7%가 비용 문제로 결혼에 주저한 적이 있었다. 현재의 결혼식은 혼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상업적·물질적으로 외형이 확대되어 결혼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전국의 신혼부부 1천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듀오, 2016), 결혼비용의 평균은 총 2억 7,4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15% 상승한 금액이다. 이 중에서 주택자금이 약 1억 9천만 원으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자금을 제외한 예식장, 예물, 예단, 혼수 등의 결혼비용은 약 8천만원에 달한다.

“주변에 결혼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20대 후반에 남자가 마련해 온 4억짜리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던 그는 서울의 59㎡(18평) 아파트 전셋가가 평균 2억9,000만원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돌이켜 보면 4억짜리 아파트를 구해오는 남자들도

8) <그래, 연애도 돈으로 하는 거다 — 삼포세대의 우울한 고백>, 《오마이뉴스》, 2014년 8월 11일

9) 정민우·이나영 (2011a) 153쪽에서 재인용

10) <가난한 대학생이 사랑을 하는 법>, 《고함20》 2014.12.21. <http://www.goham20.com/39486/>

11) 2014년 정기고와 소유의 노래가사인 ‘요즘 따라 내꺼 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 니꺼 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가 썸을 잘 설명한다고 한다. 즉 무슨 사이인지 헷갈린다는 연애의 전초전, 혹은 연애에 이르러 기엔 애매모호한 모든 불확실한 관계들. 1990년대에는 ‘사랑과 우정 사이’

12) <데이트 비용, 왜 ‘사랑의 수류탄’이 되었나>, 한국일보, 2017년 4월 22일

평범한 회사원인 자기 돈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인 그들의 부모님 자산으로 집을 구한 금수저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¹³⁾

그러면 “2층 양옥의 북쪽 모퉁이 방에 철제 계단 타고 올라가는 전세”를 살거나 “헛간 같은 지하 단칸에 신혼을 꾸렸다”¹⁴⁾는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충고는 어떤가? 결혼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결혼비용은 결혼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렵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결혼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고, 과거와 달리 월급의 상당부분을 저축해도 내집마련은 어렵다. 다 갚추고 시작하지 말고 차근차근 마련하라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마련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조언한다면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이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결혼 후 내집마련, 자식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결혼비용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상은 달라진다. 즉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 있는 청년은 결혼비용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 대신 경제적, 독립적으로 독립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결혼은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기점이 되었고,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장석원, 2016: 68)

“결혼하려면 이것저것 조건 다 따질 텐데 절반 넘게 대출인 거 알면 이해할까요? 부모님께 손 벌릴 처지가 안되는 사람은 그냥 죄인 같아요. 괜히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했나... 저는 결혼에 필요한 3가지가 모두 없어요. 연봉, 유산, 외모. 이러니 4년 넘게 혼자죠. 전 아마 결혼 못할 거예요”¹⁵⁾

(2) 개인화와 각자도생의 사회: 경쟁적 일상과 자기계발

① “경쟁과 자기계발에 몰두하느라 여력이 없는”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은 고도의 자발적 착취로 강도 높게 작동하게 되었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했던 공적 복지체계가 쇠퇴하자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한 현실을 개인이 떠안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평생직장의 약화가 초래되고 개인의 노동이력은 취업과 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에 놓이면서 불안정해졌다.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립’하며 ‘자기실현’을 위해 매사에 ‘자기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그 결과를 오롯이 ‘자기책임’으로 돌리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된 것이다. 새로운 삶의 곤경에 직면한 청년들은 생존이 급선무가 되어 자신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투를 벌인다. 생존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경쟁과 효율, 자기계발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의 마음속에 구성된 생존주의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는데 몰두한다(김홍중, 2015).

청년에게 자기계발은 취업준비에 다름 아니며 여기에는 “당연히 외국어공부,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인턴, 봉사활동, 공모전 참가, 체력관리, 외모 가꾸기(심하면 성형도 불사),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 프레젠테이션 및 스피치 훈련 등”이 포함된다(오찬호, 2013: 52). 또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계발’의 암시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자기능력을

13) <막막한 결혼비용, 둘이 헤쳐 나가야죠>, 한국일보 2016. 1. 14

14) <늙는다는 건 罰이 아니다>, 조선일보 2015. 9. 22일자

15) 장원석(2016) 63-64쪽에서 재인용

입증해야만 한다(서동진, 2009; 한병철, 2012).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오력’해야 하므로 시간·돈·에너지(감정) 소모를 요구하는 일은 기피한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노동의 유연화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기에, 연애와 사랑, 가족처럼 한정된 시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친밀성, 유대감과는 맞지 않는다(엄기호, 2011).

우선 나는 최대한 업무와 자기계발에 집중하기 위해 회사 앞에서 살기로 했다. 그래야 매일 사람들이 출퇴근하느라고 잡아먹는 2시간 가량을 내 역량을 쌓는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곳은 회사 앞 고시원이었다. 고시원에 살면서 교통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회사에서 임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회사 앞에 살다보니 가끔씩 선배들의 자잘한 부탁도 들어줄 수 있었고, 주말에 불러내도 언제든지 편하게 나가서 일할 수 있었다.¹⁶⁾

지금 당장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연애도 결혼이다 신경 쓰느니 차라리 나에게 집중하고 싶다. 5년 뒤라고 크게 좋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고, 여자친구를 책임지지 못할 바에야 지금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다....지금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다. 당분간 결혼이나 연애를 꿈꾸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에만 집중하려고 한다.¹⁷⁾

예전의 청춘은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많았던 낭만의 시절이었다면 지금의 청년은 경쟁과 자기계발의 압박 때문에 한마디로 여력이 없다.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격화된 경쟁 속에서 모든 시간을 미래를 위해 써야 하는 청년은 불안 속에서도 자신과 상대를 탐구하고 사랑의 경험으로부터 통찰을 찾아낼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계발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훈련과정이며 고통스러운 자기희생이 따른다. 자기만족이 아니라 외부가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시간에 대한 통제가 가장 강조된다. 시간 단위로 일일계획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어떤 업적을 완수했는지도 측정한다. 자신의 목표 및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시간에 스스로를 구속시킨다(오찬호, 2013: 55).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취할 것만을 정확히 취하되 사랑이 요구하는 다른 비용들은 최소화한 관계를 맺고” 있다.¹⁸⁾

이 학생은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아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시간이 든다. 이것은 서울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의료전문대학원 준비를 하는 한 최상위 대학의 학생은 사람을 만나면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것 때문에 연애를 하지 않고 섹스 파트너만 두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섹스 파트너도 너무 자주 만나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히 절제하면서 만난다고 한다. 스스로의 감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절제이다. 사랑은 취업의 가장 큰 적이다.¹⁹⁾

② “연애도 능력이고 스펙이다”

한편으로 연애에서 감정 소비나 시간 낭비, 경제적 손실 등의 이유로 자기계발에 걸림돌로 간주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연애도 계발되는 능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지금의 청년세대

16) 오찬호(2013) 80쪽에서 재인용

17) <3포? 3가3회도 있다> 아이굿뉴스 2016.2.3

18) <청춘 남녀에게 사랑할 ‘여력’을 허하라> 주간경향. 2017. 3.22

19) 엄기호(2011) 4쪽에서 재인용

는 상대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맺기를 어려워하는데, 개인화된 자아가 다른 자아와 결합하는 연애와 결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다른 자아와의 관계적 갈등, 감정적 갈등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연인관계는 결혼 등 향후 생애기획을 위한 필수적인 경험으로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연애도 능력이고 스펙이다. 연애의 스펙화는 연애가 청년에게 하나의 사회적 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김민석 외, 2016).

연애의 스펙화로 인해 이 시대의 청년에게 연애는 무리를 해서라도 이뤄야 할 과업이 되고, 연애 여부가 개인의 사교성이나 사회성을 드러내는 지표와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연애를 하지 못한 자는 ‘모자란 사람’, ‘찌질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커플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학가의 소비문화가 관계의 기준이 되고, 저소득층 대학생은 이러한 소비문화에서 소외되는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김효진, 2010). 이러다보니 “연애를 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불쌍한 눈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연애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도 등장하였다. “친구들끼리 연애 중인걸 우월한 상태로 여긴다. 연애 여부에 따라 급을 나눈다. 이성친구가 있으니 너보다 급이 높다”고 본다(최서운 외, 2017: 23)

아래의 그림은 모대학의 졸업생을 위해서 준비된 현수막인데, 축하 메시지와 함께 해당 졸업생의 모든 스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어문계열의 여학생이 5년간 쌓은 스펙을 보면 토익 985점을 비롯하여, 오픽(영어말하기시험), ZD(독일어능력시험), 한국사 1급, 컴활(컴퓨터활용능력) 2급, 문화인류학 복수전공, 문화비평학 연계전공, 그리고 취업 상황(대기업 입사)이 적혀 있다. 맨 마지막 줄에는 “현차 남친”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연애상황을 스펙에 견주고 있다.

<그림 4> 다양한 스펙이 기록된 졸업축하 현수막



그런데 연애는 다른 스펙 항목과 달리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 그렇게 노력하면서까지 연애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보니 연애 경험, 연애 스펙을 쌓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애는 단순히 상대방을 좋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좋아해줘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시간, 감정, 에너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뭐든 가성비를 따지는 요즘의 청년에게 스펙쌓기로써 연애는 순위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4.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 3포로 떠미는 요인

(1) “진정한 관계를 억압하는 결혼”

① ‘가족 사업’으로서의 결혼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결혼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해야 하는 당위적 규범이며 남녀간의 동거와 자녀 양육, 원가구로부터의 분가 등과 같은 가족 행위의 필수조건이었다. 또한 여전히 결혼을 개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중하층도 결혼을 개인의 선택이나 부부가 되는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가족 전체가 관련된 문제이자 일종의 가족 사업으로 생각한다.²⁰⁾ 배우자는 상대방의 가족 및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비슷한 인맥을 지닌 짝을 만나야 한다. 집안에 어울리는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제3자를 통해 소개받는 것이다. 친구에게 소개받은 사람이나 엄친아, 엄친딸은 그런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소개팅, 미팅, 맞선을 볼 때도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묻고, 체계화된 중매를 하는 결혼전문회사도 신규 회원에게 당사자의 성격, 교육, 직업적 배경 뿐만 아니라 가족사항에 관한 정보도 질문한다.

결혼이 집안간의 결합이다 보니 부모들은 계속해서 결정권자로 행동하게 된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지만 상대방 집안의 교육수준, 직업, 경제 사정 등을 탐탁지 않게 여긴 부모가 반대하고 나서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경우도 많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는 자녀가 부모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모가 하는 말이다. 자녀의 삶에 밀착되어 있어서 자녀의 독립을 용납하지 않는 부모, 자녀에게 막대한 ‘투자’²¹⁾를 했으니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부모가 해당된다. 특히 중산층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강력한 규범과 통제를 행사하고 일상을 규율함으로써 중산층의 아비투스²²⁾를 유지, 재생산하고자 한다. 중산층의 가족은 강력한 성적 규범과 통제를 행사하지만 다양한 물질적·상징적 자원을 제공하므로 향후에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기 때문이다.(정민우·이나영, 2011a). 특히 비혼여성에게 있어서 부모의 규칙과 시선은 지배적이며 늦은 귀가, 외박, 여행, 혼전 성관계 등은 금지사항이다. 부모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혼을 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혼자 살아라. 너는 충분히 능력이 되니까”라고 권고한다.

이렇다보니 마침내 성인자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양가의 교환능력은 결혼하는 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결혼비용도 결정된다고 할 수

20) <대담 #2. 페미니즘, 청년을 향하다> 청년허브, 2016.11.23 (<https://youthhub.kr/hub/17056>)

21) NH투자증권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양육비를 추산한 결과, 3억9천670만원에 달했다. 2012년 기준으로 자녀 1명당 대학졸업 때까지 22년간 들어간 양육비 3억896만원이며, 2009년의 2억6천204만원과 비교해 14.12%(3천700만원)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2003~2012년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준으로 5년 치를 반영해 2017년도 양육비를 추산했다. <무리한 사교육 노후에 ‘독’. 대학까지 양육비 4억 육박> 연합뉴스. 2017.2.28

있다(김주희, 2005). 결혼식은 양가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외부에 보여주는 이벤트이며, 결혼 당사자와 그 집안의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표출하려는 소비욕구를 경쟁력으로 보여준다. ‘남부럽지 않은 결혼’ 또는 ‘남들 만큼 하는 결혼’은 하나의 경쟁거리가 되어서 압박감을 심어준다. 이런 ‘지위경쟁’ 때문에 가계소득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결혼비용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호텔결혼식, 지나친 예물과 예단 등의 허례허식적 욕구를 보여준다(김정은·이기춘, 2006).

② 가부장적 결혼 및 가족제도: 성별차이

지난 2~30년간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결혼 및 가족제도와 문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과 부진한 가계소득으로 인해 이제는 남성도 맞벌이 아내에 대한 선호가 늘었고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가사와 양육의 문제도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맞벌이부부의 여성은 남성보다 4.9배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 2004년의 6.5배, 2009년의 5.4배에 비하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부담이 크다. 게다가 남성이 부양책임자인 외벌이 가정에서 여성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가사노동을 한다. 지난 10년간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4분 줄었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9분 줄었을 뿐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도 급격히 변하는데, 결혼 및 가족제도 안에서 여성의 현실은 여전한 상황이다.

<표 2> 맞벌이 및 성별 가사노동시간(1일)

(단위: 분)

	2004년				2009년				2014년			
	맞남	맞여	외남	주부	맞남	맞여	외남	주부	맞남	맞여	외남	주부
가사노동(A+B)	32	208	31	385	37	200	39	378	40	194	47	376
가정관리(A)	20	167	15	259	24	158	19	251	26	155	25	254
가족돌봄(B)	12	41	16	126	13	42	20	127	14	39	22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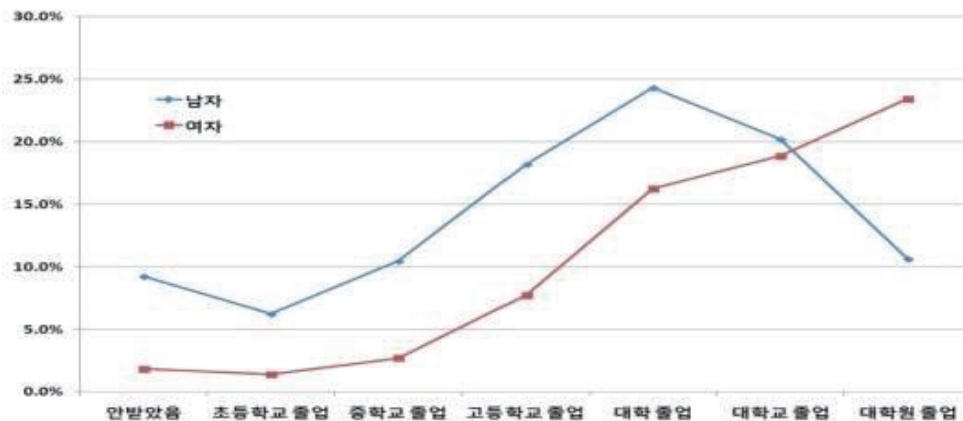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주변 어른들은 만날 때마다 ‘아이 언제 갖느냐’고 물어보신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생각이 없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느껴진다. 공부도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한다.....운 좋게 새 직장을 찾아 맞벌이를 한다 해도 아이는 누가 키워주나 싶다.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오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디 맡긴다고 해도 그 돈이면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게 속편할 것 같다. 무상보육은 말뿐이고, 어린이집 지원에 몇 백 명이 물렸다는 뉴스를 보면 그냥 낳지 않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²²⁾

22) <3포? 3가·3회도 있다> 아이굿뉴스 2016.2.3

이런 상황 속에서 2010년 즈음부터 남성의 대학 진학율보다 여성의 대학 진학율이 앞서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성취지향의 여성이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비혼이 하나의 현실성 있는 선택지로 되고 있다. 2015년 센서스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별 비혼율을 살펴보면(통계청, 2016), 남성은 학력수준이 향상할수록 비혼율이 증가하다가 대학(2·3년제) 졸업이 24.3%로 정점을 찍고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으로 높아질수록 비혼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관되게 비혼율이 높아지며, 특히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의 비혼율은 23.4%로 같은 학력수준의 남성의 비혼율(9.6%)보다 상당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여성에게 비혼이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교육정도 및 성별 비혼율(30세이상)



출처: 통계청(2016)

출생 코호트(세대)별로 교육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성별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우해봉, 2009). 1970년을 기준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최근 세대가 미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출생 코호트별 격차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세대는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으면 초기에는 결혼하는 비율이 낮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혼함으로써 교육으로 인해 연기된 결혼을 사후적으로 “따라잡기”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으면 “따라잡기”현상은 남성에게는 뚜렷하게 관측되지만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비혼율은 저학력 여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성별 차이를 보인다.

한편 전통적, 가부장적 결혼 및 가족제도는 여성의 결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결혼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취업난, 비정규직화 등으로 많은 남성들이 가장으로서 가족부양의 전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미루고 비혼으로 있는 것이다. 남성이 결혼하려면 취업 등 최소한의 가족부양 능력을 갖출 것이 기대된다. 결혼 전에 교육, 군복무, 취업의 순서를 거쳐 결혼에 이른다는 순서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은기수, 1995; 유홍준·현성민, 2010). 또한 일반적으로 남성은 주택, 여성은 혼수를 마련하는 일종의 성별 분업이 존재하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주택자금이 없는 남성은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가족의 의미: 친밀성인가 책임성인가?

일반적으로 결혼과 가족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기혼이 미혼보다 더 행복하다고 설명된다. 또한 결혼 전에는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던 개인이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통해서 성숙된 어른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은 개인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장 확실하고 1차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해 왔다.

서구의 가족은 부부 중심의 친밀성이 강화된 관계이며,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서정주의적 가족’의 모습을 띠었다(장경섭, 2001).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 훼손된 개인성과 상실된 인간성은 애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었다. 반면 도구적 가족주의가 작동되는 한국의 가족은 서구와 같은 남녀의 애정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강조하는 사적 영역이기보다 공적 영역에서의 생존과 경쟁논리를 뒷받침하는 기능적 단위로 기능해 왔다(배은경, 2009). 세대간 관계가 강조되고 부모의 자녀사랑은 정서적 사랑을 넘어 자녀가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말한다.

특히 중산층의 가족은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과 어머니의 교육 관리라는 성별화된 실천을 통해 자녀의 계급지위를 유지·상승시키기 위한 경쟁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자녀의 계급을 유지·상승시킴으로써 가족의 계급 지위를 유지·상승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가족적 관리에 몰두하였다. 이는 사교육이나 해외어학연수 등을 통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녀교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에 진입했을 때까지 의미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황정미, 2005; 조은, 2008; 박소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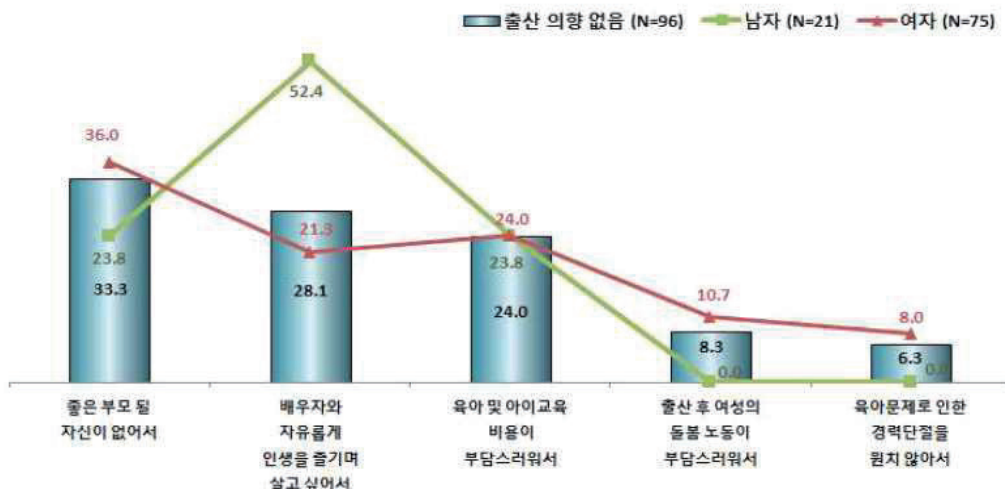
이러한 가족적 관리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혈연주의적 배타성에 기반한 가족주의로서, 계급 재생산의 장으로 재편되었다.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린 자녀의 해외조기 유학에 따른 ‘기러기가족’은 가족주의의 도구적 면모를 드러낸다. 기러기가족의 구성원간의 관계는 축소되고(특히 부부관계) 기능적으로 결합될 뿐이다. 기러기가족의 남편/아빠, 아내/엄마, 아들/딸 등은 가족 중의 일부가 부재한 삶을 극복하거나 부재한 가족의 삶까지 떠맡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따라서 혼자 떨어져 돈을 버는 가족(주로 아버지)만 희생하는 일방적인 희생자-수혜자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 각자의 상황에서 희생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기러기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었던 최초의 희생의 의미는 사라지고 가족관계의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진옥, 2012).

가족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목표로 하는 단위로 형식화되어 갈수록 가족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으로서 정서적 차원, 친밀성은 편안함, 안정감, 소속감을 제공하는 방식이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 책임, 부모에 대한 형식적인 예의범절 등의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유로 청년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책임감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은 희생”으로 여기고, “뭔지 모를 두려움”을 느낀다. 가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힘들고, 자유롭게 살 수 없으므로 결혼의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된다.

“결혼하면 안정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의 책임감은 가지고 싶지 않고.....제일 큰 이유는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였어요. 결혼이란 게 가정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²³⁾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는 기혼남녀는 삶을 즐기거나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열악한 양육현실 속에서 책임감 있는 부모, 좋은 부모의 상을 내면화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화의 증가로 인해 아이를 키운다는 것, 때때로 아이를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나 능력이 되었고 결국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요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부모에게 출산과 양육은 단지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비용과 시간, 최고의 애정과 노력의 투하가 필요한 일이다(이민아, 2013). “한국의 가족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은 “가족피로”를 겪고 있다고 진단되기도 한다(장경섭, 2009: 295). 서울시 청년실태조사에서도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33.3%로 가장 높고, ‘배우자와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어서’(28.1%), ‘육아 및 아이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24.0%), ‘출산 후 여성의 돌봄 노동이 부담스러워서’(8.3%), ‘육아문제로 인한 경력단절을 원치 않아서’(6.3%)로 나타났다(문은영·김정숙, 2013).

<그림 6> 출산의향이 없는 이유



출처: 문은영·김정숙(2013). 105쪽

5. 청년으로부터의 목소리: “포기한 게 아니라 안하기로 선택한 것”

현재의 청년을 ‘3포 세대’ 등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년들은 별로 수긍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포기라는 용어에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거나 ‘스스로 갈망하는 일’인데도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과연 연애, 결혼, 출산이 요즘 세상에서도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인지를 되묻는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며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최서운 외, 2017: 212-213).

23) 기경서 외(2016)에서 재인용

출산·연애·결혼을 포기한 세대라고 3포 세대라고 불렀다죠? 꼭 해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다니 우리 청년들 너무 불쌍하다는 건데,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이제는 ‘못해서’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나는 안 하기’로 선택한 거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선언과 요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보입니다.”²⁴⁾

“20대가 연애를 안 하면 ‘포기’했다고 치부하는 시선에 문제가 있다. 왜 포기인가. 이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연애보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있다면, 연애쯤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닌가?.....오늘날 청년에게 사랑과 연애는 부차적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3포-5포-7포-n포로 이어지는 포기의 발전 고리 속에서 포기되어진 것들의 공통점은, 그 항목들이 각자의 삶에 진정 중요한 가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이라는 것이다. 정확히 그렇지 않은가? 연애와 결혼과 출산, 그리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²⁵⁾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청년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삶을 구성하고 있으며 연애, 결혼, 출산의 의미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연애-결혼-출산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통과 의례로 여겨졌다. 즉 개인의 생애는 출생—교육—취업—결혼—출산—은퇴—노후—죽음과 같은 ‘정상적’, ‘표준적’ 과정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생애과정은 사회의 재생산에 핵심적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은 표준화된 전형적 생애과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생애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과 고용체제, 가족구성 등의 변화는 ‘정상적’ 생애과정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생애과정‘들’을 만들어 내었다. 청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제도와 체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생애과정의 편차와 그 변이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 시기가 탈표준화, 탈구조화된 것이다(전상진·정주훈, 2006).

청년들은 스스로를 사회적 관습에 맞추는 것보다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온전히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행복한 혼자만의 삶을 선택하는데도 적극적이다. “결혼을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 “자유로운 싱글족으로 지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며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표준적인 과제로서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을 압박하는 가족, 친척이 싫어서 명절에 귀향을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의 3포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연애, 결혼, 출산을 못하게 돼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 중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혼적령기라는 사회적 시간표에 맞춰서 결혼하지 않고 마땅한 사람이 만났을 때, 결혼하고 싶을 때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나 조만간 할 예정인 ‘미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청년이 비연애, 비혼, 무자녀를 선택하는 원인이 하나로 묶기 힘든 만큼 다양해졌다.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취업난 등의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화와 자기계발에 의한 각자도생의 사회, 가부장적 결혼 및 가족제도 역시 청년이 3포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와 같은 가부장적 결혼과 가족제도 하에서 청년 여성만 비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남성도 비혼을 선택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이다.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 생계에 대한 책임져야 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24) 최서윤·이진송·김송희(2017). 21쪽에서 재인용

25) <청년에게 사랑을 묻지 마세요>. 에큐메니안 2016.2.26.

대한 인내를 요구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 및 취업난은 청년 남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내가 무용하며,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담을 의문시하게 만들었다.

청년이 3포 하거나 연기하는 이유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가치에서 기인하는 내적인 요인이라면, 즉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경험을 더 쌓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다’ 등의 이유라면 응원할 일이다. 그러나 3포의 이유가 외적인 요인이라면 즉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미약한 사회안전망,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제도 등이라면 정책적 고민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왜 연애, 결혼, 출산을 두려워하는지, 부담스러워 하게 되었는지, 왜 연애, 결혼, 출산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스크로 여기게 되었는지를 풀어야 한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청년의 3포는 철회되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방식의 삶의 영역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청년의 “立”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청년의 경제적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가정의 생계책임과 가사노동을 균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과 연결, 소통, 교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생존하는데 급급해서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엄기호, 2011)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것이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 '결혼하지 않을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가로막는 장벽', 앞서 나온 고용난이나 '워킹맘'에 대한 육아 지원책 미비 등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선택이 아닌 강요'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바뀌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²⁶⁾

비혼을 택했다고 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애인과 동거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되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비혼 공동체를 꾸려 함께 생활하는 이들도 있다. 비혼이라는 하나의 삶의 방식 안에는 여러 모습이 존재한다. 결혼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토록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은, 너무 선부르지 않은가.....그날 우리의 대화는 "나중에 늙어서 가족 없이 살다 죽으면 아무도 거둬주지 않을 테니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자"는 농담 아닌 농담으로 끝났다. 비혼에 대해 신나게 떠들면서도 한편으로 찝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 밖의 삶에 대한 불안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울타리를 뛰쳐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느슨한 안전망 짚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²⁷⁾

참고문헌

“'독신'과도 다른 '비혼'... '비혼족'이 느는 이유 4가지”, SBS뉴스, 2016.12.5

“가난한 대학생이 사랑을 하는 법”, 고함20, 2014.12.21.

“막막한 결혼비용, 둘이 헤쳐 나가야죠”, 한국일보 2016.1.14

“그래, 연애도 돈으로 하는 거다—삼포세대의 우울한 고백”, 오마이뉴스, 2014.8.11.

“데이트 비용, 왜 '사랑의 수류탄'이 되었나”, 한국일보, 2017.4.22.

“우리는 정말 '돈'이 없어서 '삼포'했을까” 고함20 2015.10.6

26) “입만 열면 기승전 ‘결혼’ 거절합니다”, 오마이뉴스, 2016.10.12

27) '독신'과도 다른 '비혼'... '비혼족'이 느는 이유 4가지”, SBS 뉴스, 2016.12.04.

“입만 열면 기승전 ‘결혼’, 거절합니다”, 오마이뉴스 2016.10.12.
 “청춘 남녀에게 사랑할 ‘여력’을 허하라”, 주간경향. 2017.3.22.
 “청년에게 사랑을 묻지 마세요”, 에큐메니안 2016.2.26.
 “3포? 3기·3회도 있다”, 아이굿뉴스 2016.2.3.
 “늙는다는 건 罰이 아니다”, 조선일보 2015.9.22
 “2~30대,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집 마련’ 중 하나 이상 포기”, EDUJIN 2015.3.3.
 “대담 #2. 페미니즘, 청년을 향하다”, 청년허브, 2016.11.23.
 “무리한 사교육 노후에 ‘독’. 대학까지 양육비 4억 육박”, 연합뉴스. 2017.2.28.

기경서·윤유리·이예진·이준영·황윤지(2016) “결혼하지 않는 가족-2,30대 청년 비혼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자기삶의 연구자가 되다』. 청년허브 연구공모사업 논문집
 기든스(1996)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 역). 새물결
 김기현 외(2016)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민석 외(2016) 『내가 연애를 못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 알마
 김정은·이기춘(2006) “결혼의 소비지출과 소비문화 고찰을 통한 결혼준비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07-128.
 김주희(2005) “해방 후 혼수문화 변천에 대한 사례연구: 부계제 의식과 가족주의의 지속”. **가족과 문화** 17(2): 127-154.
 김홍중(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김효진(2010) “신자유주의적 상황 아래 대학생의 연애와 생애기획: 저소득층 ‘명문대생’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듀오(2016) 『결혼비용조사보고서』
 루만(2009)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문은영·김정숙(2013) 『2013 서울시 2030세대 일-생활실태 및 정책지원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바우만(2010)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New Poor)』 (이수영 옮김) 천지인
 박기남(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박소진(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통권 84호: 12-35.
 배은경(2009) “경제위기와 한국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9(2): 39-82.
 백진아. 2007. ‘한국 기혼여성의 가족 경험-가족주의와 변형적 친밀성의 결합-.’ **답론** 2010(3): 241-269.
 서동진(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엄기호(2011) “위기의 시대, 실종된 청년성의 새로운 모색: 세 청년의 이야기로 풀어보다”
 오찬호(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오호영(2015) 『갠저루족의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해봉(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유홍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남녀의 결혼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 이민아(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47(2): 143-176
- 장경섭(2001)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 가족” **정신문화연구** 24(2)
-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장원석(2016) 『앵그리2030: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새로운현재
- 전상진(2016) “비참한 청년과 화려한 기성세대?: 청년성과 세대게임” 강명규·김홍중·신혜선 엮음.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진인진
- 전상진·정주훈(2006) “한국 후기 청년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쪽
- 정민우·이나영(2011a)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130-175
- 정민우·이나영(2011b)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경제와사회** 89: 105-145.
- 조은(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24(2): 5-37.
- 최서윤·이진송·김송희(2017) 『미운청년새끼』
- 최진옥(2012) “‘기러기 가족’을 통해 본 한국 가족주의의 도구적 변모-멕시코 이주 노동자 가족과 비교를 중심으로-”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논문
- 통계청(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 프레스리안 특별취재팀(2010), 『한국의 위킹푸어』 책으로 보는 세상.
- 한병철(201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 황정미(2005)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21(3): 99-132.

3. 미래세대의 감정과 마음: 분노와 혐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내 꿈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 김애란의 소설 『사랑의 인사』 중

1. 마음 읽기의 어려움

현재 한국사회 미래세대의 정신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관념 혹은 정서는 ‘생존’일 것이다. 비교적 풍요로웠던 80, 90년대에 태어나 절대적인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크게 겪지 않았던 구성원이 대다수인 이 세대는, 역설적으로는 그러한 물질적 세계로부터 이탈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살아야만 하는 성인기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한 삶은 크나큰 시련이나 굴곡진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어떤 걱정과 열정의 스토리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일상은 비교적 평온하나 뚜렷한 희망은 보이지 않고, 무언가의 목표를 위해 수많은 작은 노력들과 일시적 위안을 주는 소비들을 하나, 당장 자기 앞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안개 같은 근본적 불확실성이 치워지지 않는 삶이다. 거대한 악이나 고통과 영웅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꺼안고 자신들을 위축시키는 것들에 의미는 없지만 버티면서 살아가야하는 삶이다.

특정 세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것은 사회과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다. 그러한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능력일 것인데 그러한 공감은 공통된 입장과 경험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의 안온함, 풍요로운 인간관계가 주는 충만함, 직업으로부터 얻는 삶의 의미 등이 모두가 결여된 어떤 도시빈민 청년의 삶의 궤적과 마음을 사회과학자로서 읽어낸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 세계의 미학적 구성을 공유하지 않는 한, ‘객관적’ 거리를 둔 3인칭 화자의 의미없는 분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경험한 학대로 인해 생긴 자기방어 기제로 인해 상대방의 삶에 대해 쉽게 폭력적인 말을 하는 윌 헌팅(맷 데이먼 분)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는 손 교수(로빈 윌리엄스 분)이 “너 고아지? 그런데 네 삶이 어땠고, 네가 고아라서 어떤 느낌을 가졌고, 네가 누군지에 대해 올리버 트위스트 한 권 읽었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가지고 마음을 읽어냈다고 가정하는 담대한 작업은, 최선의 경우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 폭력적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미래세대의 마음, 특히 최근들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그들의 혐오와 분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원인과 의미, 기제를 다루어보도록 한다.

1) 미완성 초고이오니 혹시 인용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최종 완성본이 나온 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작업은 조심스럽다. 때문에 3인칭 관점으로 1인칭 주체의 시선을 특정방식으로 규정하고 정의 내린다고 보다는, 그러한 감정의 존재 근거가 되는 가능성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풀어내기로 한다.

현재 미래세대의 마음을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는 화두가 ‘생존’이라면, 그러한 생존에 대한 집착이 낳는 그림자는 분노와 혐오 그리고 경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이 절박할수록 그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담긴 마음의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생물학적 유기체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의 끈을 놓칠까 두려울 때 생겨나는 배타적 심리, 자신이 그 끈을 놓칠까 두려울 때, 자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분노와 혐오는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흐름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들로 여겨지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나타나며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혐오는 다양한 집단에 대해 다양한 모습과 언어, 내적논리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성적 소수자 혐오, 이성혐오, 특정세대 혐오, 장애인 혐오, 빈곤층 혐오, 이민자 혐오 등 혐오의 대상은 최근 들어 기존에 등장하던 혐오의 범위를 넘어 생겨나고 있을 만큼 광범위 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주류집단이 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주로 집중적으로, 폭력적으로 표출된다. 분노는 혐오와 겹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분석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감정이다. 분노는 주로 자신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만드는 공정하지 못한 사람/대상에 대해 나타나며, 어떤 특정한 구체적 대상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그러한 특정한 대상이 없거나 아니면 무작위로 그 대상이 결정되기도 한다.

혐오와 분노가 주로 표출되는 온라인 공간들에 대한 사례 분석이나, 그러한 미래세대의 감정을 잘 반영하는 소설, 웹툰 등과 같은 문화적 산물들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본 글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서술하도록 하겠다.

2. ‘극혐’과 ‘발암’의 세상: 미래세대 마음의 풍경

최근 많은 미디어들은 현재 우리가 ‘혐오의 시대’를 살고 지적한다. 혐오의 대상은 위에서 예를 든 것 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그 누구든 ‘극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무엇이든 ‘발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당할 수 있고, 그러한 미움을 참을 수 없는 혐오의 형태로 쏟아내면 속이 시원하다는 ‘사이다’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의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도 있고, 혐오 방송을 통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혐오하고 비난하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렬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더 유머러스한 조롱을 통해, 대상을 악마화하고 그 대상을 본질적으로 미워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이다. 혐오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입에 담기 힘든 수많은 유

행어들을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새로운 단어들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아니다. 무조건 최대한의 혐오와 미움, 그리고 가벼운 재치를 결합시키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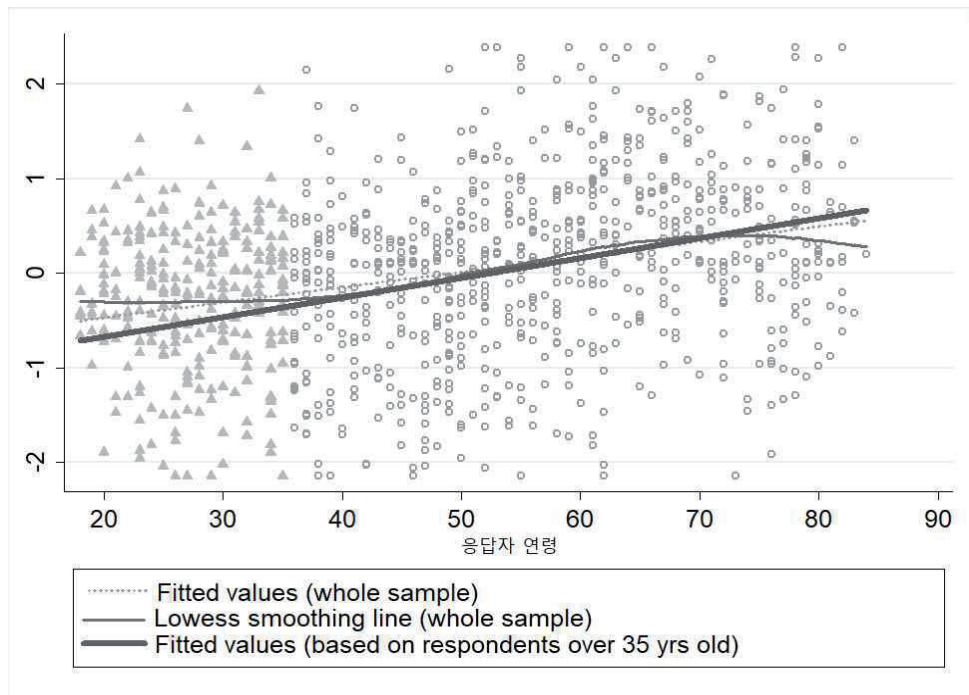
넷상의 혐오가 도덕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 진지함과 가벼운 경멸과 조롱의 집단 잔치의 혼합이라면, 분노는 그 보다 좀 더 무겁고, 좀 더 유머가 탈색되어 있다. 하지만 분노 역시 그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이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분노의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대상에 대해 얼마만큼 강렬하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느냐가 미래세대의 마음이 요청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미래세대의 마음에 이러한 혐오와 분노의 정서가 정말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일까? 인터넷 상의 유행어와 조롱, 혐오, 분노들이 실제로 그 안에 진지하고 실제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부정적 태도들의 공통지점에는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자리잡고 있는데, 불안이 강화되면 보다 닫힌, 동기화된 인지 체계(권위주의적, 흑백논리적)가 작동되면서 그러한 태도들이 형성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권위주의적 태도(authoritarianism 또는 RWA: Right-Wing Authoritarianism)로 개념화 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미래세대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어떠한 수준일까? 이에 답하기 위하여 2016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실린 권위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들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권위주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 2)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 3)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싸워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 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 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 5)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 6)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 집단들을 강력히 척결해야한다
- 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층의 인도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이들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권위주의적 성향이라는 요인을 추출, 요인점수화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연령과 권위주의적 태도(=요인점수)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있다. 원(연령>35)과 세모(연령≤35)들은 응답자들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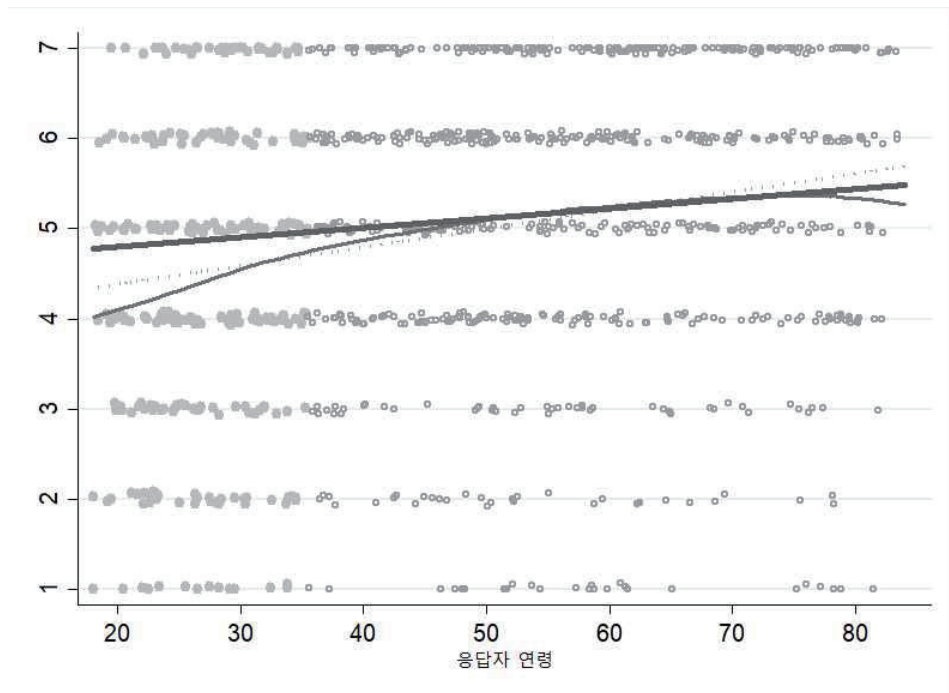
<그림 1> 연령과 권위주의적 성향 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굵기가 비교적 가느다란 곡선으로 된 실선은, 1,051명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권위주의적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Lowess 곡선 (지역적 WLS를 바탕으로 한 비모수 통계분석에 의해 그려진 추세선)으로 그려 나타낸 것이고, 점선은 역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연령과 권위주의적 태도와의 관계를 OLS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선형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는 연령에 따라 권위주의적 태도가 어느 정도 상승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Lowess 곡선의 패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추세는 약 20세에서 30대 중반까지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30대 후반에서 20대로 연령이 내려가면서, 권위주의적 태도 또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지만, 이 연령대에서 그러한 추세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X축과 평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굵은선으로 된 추세선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이 선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다. 우선, 표본 중에서 35세 초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이 권위주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다. 그 다음, 그렇게 도출된 회귀계수 값을 35세 이하까지 적용하여 예측값을 나타낸다. 그렇게 보여지는 굵은 선은 전체 표본을 바탕으로 한 추세선과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즉, 미래세대(18세에서 35세까지)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전체적 추세에 비해 권위주의의 정도가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세대의 특징은 다음의 분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는 위와 같은 데이터에서 인간 본성에 태도를 물어보는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문항은 “인간의 본성의 선악에 대한 의견”으로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1점: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 7: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래프는 연령과 인간 본성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이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들은 연령이 35세 보다 많은 응답자들이고, 색이 칠해져있는 원들은 35세 이하이다. 이 역시 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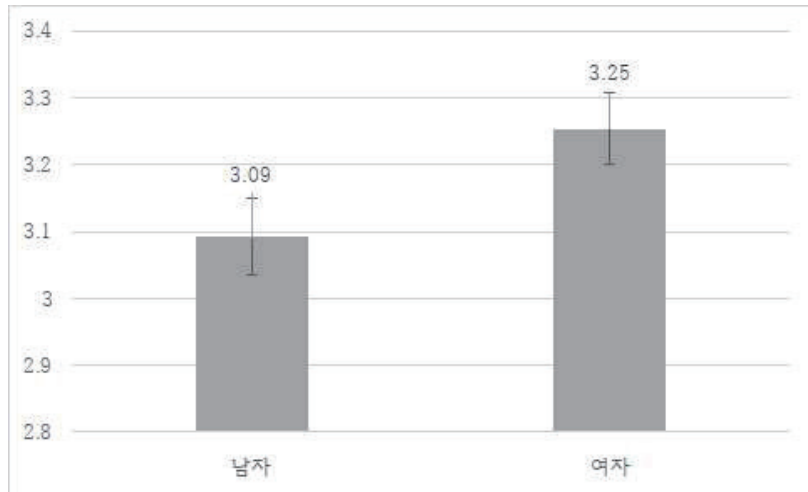
<그림 2> 연령과 인간본성에 대한 시각과의 관계 (자료: 2016년 KGSS)

우선, 35세 이상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연령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의견 간에는 유의미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다(OLS회귀분석 결과). 이는 <그림 2>에서 굵은 직선 추세선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반면, 미래세대에 해당하는 35세 이하의 응답자를 분석에 포함시키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인간본성을 악한 것으로 보는 유의미한 경향성이 발견된다(점선: OLS회귀분석 결과, 곡선: Lowess추세선). 35세 이상의 표본을 바탕으로 한 예측(굵은 실선)과 Lowess 곡선이 미래세대 연령대에서 나타내는 추세선을 비교해보면 미래세대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흔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인간에 대해 이상적인 태도, 즉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이드 사람들일수록 현실적이고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진다는 통념과는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간단한 분석만을 가지고 미래세대가 유독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수성 그리고 그들이 인식한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전경은 어떠한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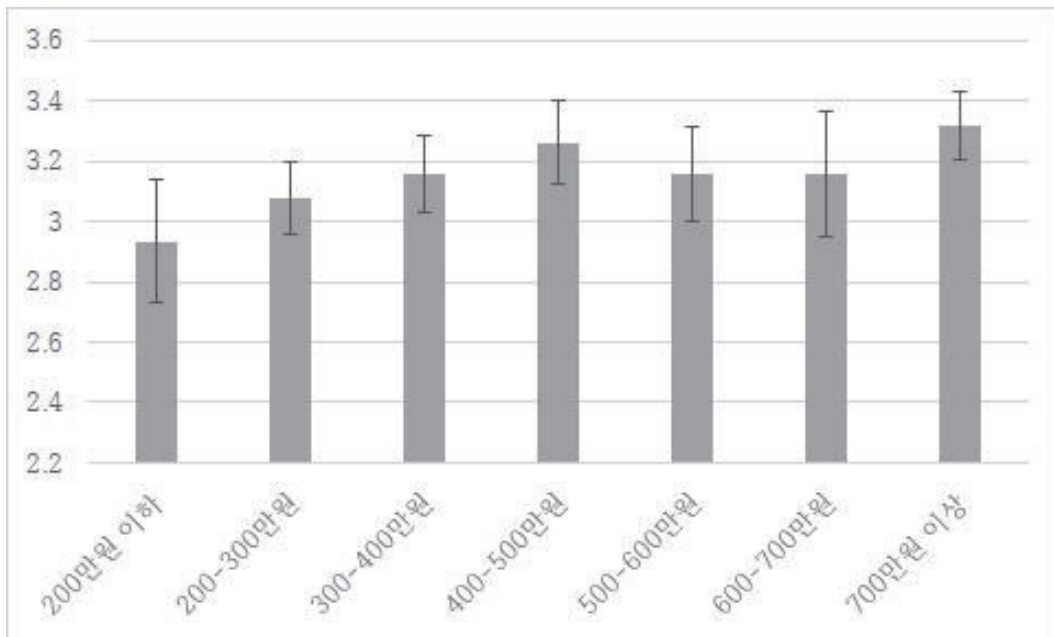
한편, 미래세대 내부에서는 스트레스나 행복감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별 차이를 보일까? <그림 3>는 2017년에 실시된 서울의 미래세대 인식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4점 척도로 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문항에 대해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즉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성별 스트레스 정도

(자료: 2017 서울 미래세대 인식조사, 오차막대: 95% 신뢰수준)

반면 예상과는 다르게, 가구 소득은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스트레스 설문 응답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종속변수의 분산이 작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은 미래세대 내부에서 행복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은 가구소득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그림 4> 가구소득별 평균 행복감(5점 척도)

(자료: 서울의 미래세대 설문 조사(2017), 오차막대는 95% 신뢰수준을 나타냄)

이러한 행복감의 차이가 과연 분노와 혐오의 차이를 실제로 낳는지는 아쉽게도 자료의 부족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득의 차이가 주관적 행복감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정적 감정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함축하는데 결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혐오, 분노, 그리고 경멸: 부정적 감정의 삼조(tri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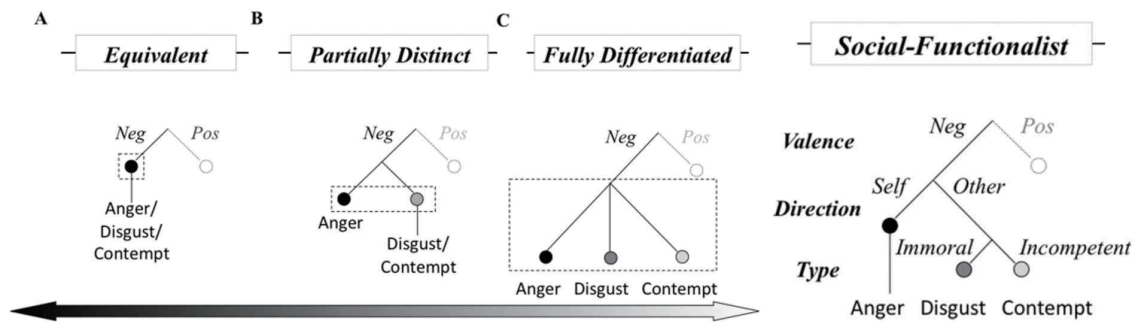
미래세대의 감정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혐오, 분노, 경멸 같은 용어들이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한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세부적으로 다른 감정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떨어져 있는(discrete) 감정인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심리학에서는 수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어왔다. 이 중 분노, 혐오, 경멸은 대표적인 세 가지 부정적 감정을 구성한다(Haidt, 2003).

Hutcherson and Gross(2011)는 감정의 본질과 구체적 감정들의 구분 가능성에 사회-기능주의적 설명(social-functional account)을 적용한다. 그들에 따르면 감정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맞닥뜨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반응하는 기제로서, 닳친 문제를 평가하고, 소통을 위한 제스처를 만들어내고, 생리적인 반응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 행위를 하는 것이 고도로 조직화된 경향성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점을 따르면, 분노, 혐오, 경멸과 같이 비교적 유사해보이고 상호간 접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감정들이, 그들이 수행하는 다른 기능들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림 5>는 세 가지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에 대한 방식과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A는 그러한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묶일 수 있고 세부적 구분은 힘들다고 하는 관점이고, B는 그들이 부분적으로 구분 가능한데, 분노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혐오와 경멸은 구분하기 힘들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C는 세 가지 감정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림 5> 분노/혐오/경멸을 구분하는 방식과 관점(좌)과 이들을 구분하는 사회기능주의적 모델(우) (Hutcherson and Gross, 2011)

Hutcherson and Gross(2011)의 사회기능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분노는 주로 감정의 주체와 관련 (self-relevance)되어 있는 사안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는 분노의 기본적 성질을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 가능하다. 분노라는 감정은 주로 공격과 관련이 있고, 이는 자신을 해치려 하는 존재나 자신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들 중에는 특이하게 (예를 들어 혐오와는 달리)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에게 접근(approach)하게끔 만드는 감정이다. 또한 비록 분노는 '도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상대의 도덕적 의도나 성향 보다는 어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노라는 감정의 특수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한다. 즉, 분노는 유용성이라는 측면이 강한데, 예를 들어 '대체 감정(substitute emotion)'적 성격을 지니는 측면이 있다. 분노는 신체가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의 원인을 제거 시키게끔 순간적으로 신체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즉 고통이 분노로 대체되는 효과가 난다. 분노의 감정은 사실상 심신적 고통 경감과 고통 원인 제거를 위한 심신(psychosomatic)반응의 측면이 있다. 또한 분노는 당사자가 가지는 감정의 효과에 대한 기대(expectations)와도 관련이 있다. 즉,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낳을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분노감이 수단적 목적으로 크게 생성되어 발휘되기도 한다. 어떤 심리학 실험들에서 분노가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더 크게 화를 내는 경향성도 발견된다.

반면 혐오와 경멸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를 미리 피하게끔 만드는 감정이다. 분노는 그에 따르는 비용을 감수

하겠다는 의지까지 포함되는 반면, 혐오와 경멸은 비교적 낮은 비용(less costly)으로 위험을 사전에 피하려는 것이다. 혐오와 경멸은 중첩되는 부분이 크에도 그러한 감정을 자극하는 기제의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혐오는 어떤 대상이 도덕적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거나 중요한 도덕적 기준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반면, 경멸은 상대가 무능하거나 무지한 것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혐오를 유발시키는 도덕 감정에 대하여 CAD(Community-Autonomy-Divinity)모형 같은 경우 신성한 것, 순수한 것과 관련된 도덕 감정을 여기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화한 반면(C: 경멸과 관련, A: 분노와 관련, D: 혐오와 관련), 사회기능주의적 모델에서는 그러한 도덕 감정 뿐 아니라, 자율성(autonomy), 공동체적 의무, 신체적 깨끗함, 그리고 기타 윤리들까지 포함되어, 그것을 위반하는 대상에 대한 회피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Hutcherson and Gross, 2011; Graham, Haidt, and Nosek, 2009)

이러한 구분법을 활용하면, 최근 들어 혐오/분노 관련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 이슈로 떠오른 ‘여혐’ 그리고 ‘남성혐오는 없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개념적 판단을 내려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이론적’ 구분을 바탕으로 하면, 여혐에 맞서는 ‘미러링’으로서의 남성혐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혐오’가 아니라는 개념적 주장 자체는 이론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²⁾.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는 심리학적 분석과 개념화에 있어서는 정확성을 가질지 모르나, 또는 감정이 생성되는 1차적 과정에 대한 묘사로서는 비교적 정확할지는 모르나,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는지, 그리고 1차적으로 일어난 감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추가적인 의미와 뉘앙스, 감정들과 결합하여 2차적 감정으로서 새로운 의미와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노, 혐오, 경멸 모두 도덕적 문제들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도덕 감정들(moral emotions)로서(Tangney and Dearing, 2002, Rozin et al., 1999) 사회적으로 구분해놓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적절함과 부적절함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질서를 타인이 위반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 코드들을 따르면서 뒤섞이게 된다. 따라서 이하의 글에서는 분노, 혐오, 경멸이라는 용어들을 비교적 느슨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4. 혐오와 분노의 생성: 미래세대의 내적, 외적 요인들

개인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공격적 감정과 태도에 대해 전통적 이론에서는 그러한 공격성이 좌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격은 좌절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명제가 그러한 관점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다. 개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는 존재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동물들의 행위로부터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분노는 그래서 특정한 효용성(utility)을 뚜렷하게 가지는 종류의 감정으로 다른 감정과 구분되는 성격이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2) 물론 현실적으로 행위자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2차 감정이 파생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분노의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은 왜 경제적 좌절이 심해지면 특정 대상을 지목한 공격적 태도와 행위가 생겨나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희생양 이론’으로 지칭될 수 있는 이런 관점은, 예를 들어 경제적 좌절이 심해질 때 흑인에 대한 린치가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가 오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생기고 풍요로운 시기에는 인종간 평화를 유지하기가 더 쉽다는 발견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분노의 경제학은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Sherif et al., 1961)이라 불리는 이론, 즉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다른 집단이 경쟁하는 경우 타집단에 대한 편견(prejudice)이 생겨나고 이는 공격적 태도나 혐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서유럽이나 미국 노동자층에서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이 이에 근원을 둔다는 지적들이 이에 해당한다.

현실적 집단 갈등이 인지되거나 사회경제적 좌절을 경험할 때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식 중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자기계발 담론을 받아들여,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에 귀인 시키면서 상황 타개를 위해 경쟁에 몰두하는 것이다. 반대로, 또 다른 대응방식으로는 자신을 좌절시키는 원인이나 대상을 찾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생존이 유일한 지배 패러다임이 되는 문화에서 그러한 패러다임에 어쩔 수 없이 포섭되지 못하는 개인들은 분노와 혐오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내적 좌절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예를 들어 청년층에서 보이는 기성세대에 대한 공격적 태도에서 보일 수 있다. 스펙을 쌓지 않아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기 쉬웠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 “꼴을 빨았던 세대”가, 자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지도 못하고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집값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지극히 어려운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기성세대가 된 이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586세대, 산업화 시절의 기여는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고압적 태도로 젊은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으름장만 놓는 산업세대들에 대해, 현실적 좌절을 겪고 있는 미래세대는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쌓게 되고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출된다.

분노와 혐오가 이처럼 경쟁, 좌절,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논리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체화된 형태(embodied)로 존재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분노와 혐오의 감정이 신체적 상태에 기반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가능하다. 우선 혐오의 경우, 특정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을 한 가지 범주로 묶어 그 범주에 부정적인 낙인이나 꼬리표를 붙여 비하하고 경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범주화’ 작업은 고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인간이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상물을 분류하여 판단하는데 필수적 능력이자 인지적 기능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화 작업이 지나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불합리한 일반화와 부정적 편견이 자동화된 인지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자동 범주화는 특히 신체적으로 피로를 느낄 때, 불안한 상황일 때, 또는 시간에 쫓길 때 더 강하게

드러난다. 즉, 삶의 여러 측면에서 불안과 피로,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의 경우, 타인들을 다양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 범주화를 토대로 인지하고 부정적 편견을 투여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신체의 부정적 상태는 범주화 같은 인지적 과정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공격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공격의 대상은 대상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나타날 수 있다(Myers, 2013, p.433-34). 즉, 경멸과 분노의 대상이 반드시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혐오는 순수하게 의식적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 몸이 인지하고 몸이 배출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Schnall(2017)는 혐오가 손실 회피(loss aversion) 시스템으로서, 체화된(embodied) 도덕적 반응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어떤 대상물을 보았을 때 드는 혐오감이라는 감정을 신체가 정보로 활용하여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은 심지어 단순히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역겨운 대상물에 노출되거나(->도덕적 반응 강화) 깨끗함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신체를 깨끗하게 하는 경우(-> 도덕적 반응 약화)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사회적 맥락에서는 특히 도덕적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혐오는 자신의 신체를 비롯한 귀중한 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손실 회피 행동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미래세대의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각과,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잠재적으로 항시 내재되어 있는 경우, 손실 회피를 위한 혐오라는 반응이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헬조선’이라는 반응과 인식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공적 시스템과 사적 관계에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부조리, 체계화된 위선적인 의례들, 기성세대의 익숙한 수사에 대한 염증 등에 대한 염증이 위에서 언급한 메커니즘을 통해 도덕적 반응으로서 혐오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혐오와 분노는 한편으로는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해해볼 필요도 있다. 즉 미래세대의 혐오와 분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명령인 ‘가만히 있으라’로 요약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의 부조리에 대한 도덕적 반응으로서의 정의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도덕적 반응으로서의 혐오와 분노는, 크게는 헬조선, 흡수저/금수저, 불공정/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감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미시적 관계나 특정 종류의 집단을 일괄적으로 묶어 범주화하여 지나치게 비난하고 경멸하는 부정적 사례(e.g., ‘맘충’, ‘김치녀’, ‘한남충’, ‘툼딱’ 등)들을 낳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관적으로 이해된 본인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이 낮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Robinson et al. 2013)하기도 하고, 몇몇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통제감(sense of control)이 낮을수록 분노의 횟수가 증가하는 관계를 발견하기도 하였다(Schieman 1999). Schieman(2006)은 그래서 분노는 기본적으로 힘과 관련된 감정(power emotion)이라고 지칭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공격적 태도는 개인들의 불안과 좌절로 인한 감정을 누그러

뜨릴 수 있는가?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들이 외집단 경멸이 내적 불안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Myers, 2013; p.392), 분노는 주체로 하여금 힘과 통제력(power and control)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부정적 감정 상태를 진정시키는(anesthetic)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과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분노와 혐오 등의 감정 상태에 대한 설명은 그 감정들의 기능적, 생리학적 원인과 가깝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래세대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 그리고 그것을 집단적·문화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감정과 마음은 일차적으로는 심리학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생겨나고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면서 지속되는 현상은 사회학적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 그러한 관점은 뒤르켐이 저작들에서 주장하였던, 사회적 규범의 결속이 약해지면 우울과 아노미로 이어지는 것이나, 종교가 약화되고 과학적 지식이 증가하면 자유로운 탐색을 하게 되는 인간의 정신이 결국 방황하게 되는 것, 사회통합의 중심이 되는 성스러운 대상물에 대한 집합적 감정을 통해 사회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감정은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다.

감정의 근원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설명들 중, 가장 구조와 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감정은 구조의 산물이고, 특히 권력과 지위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이라는 켐퍼(Kemper)의 권력-지위 이론(power-status theory of emotions)이다. 호실드(Hochschild) 등의 감정 관리 관점, 혹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감정이 대체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개인은 상황적/사회적/규범적으로 적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켐퍼의 권력-지위 이론은 감정의 실질적 생리적 기반을 인정하는 실증주의적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박형신·정수남, 2009). 그와 같이 감정이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인 것이 아니라 ‘실제’ 감정이라면 그것은 어디에 기반하는 것일까? 켐퍼의 설명은 권력과 지위 관계에 의해 일차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통제감(sense of control)과 힘/능력/권력(power)간의 관계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켐퍼(Kemper, 1991)의 주장에 따르면, 분노는 개체로 하여금 중요한 자원을 박탈당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동원하는 것이라 하고, 기타 연구들에서도 사람들이 분노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경우, 스스로가 더 강력한 것으로(powerful, potent) 느껴지는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였다(e.g., Berkowitz and Harmon-Jones 2004).

분노와 혐오는 이와 같이 권력-지위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통제감과 개인이 가진 힘/능력의 수준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생존의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시스템에 대하여 좌절을 느끼는 경우, 개인들은 자신들의 통제감과 힘에 대한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 그 목적에 맞는 가장 쉬운 대상을 찾게 된다. 대부분의 혐오 문제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반화시켜 부정적으로 대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데, 그리하여 혐오의 대상이

되는 혹은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집단은 그렇게 혐오와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보통 상대적으로 낮은 권력-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약자 혹은 소수자인 집단인 경우가 많다. 동성애자, 여성, 장애인, 노인, 이민자, 빈곤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퍼지는 분노나 혐오를 반드시 그러한 방어기제적, 좌절-공격적 기제로 설명할 수만은 없다. 적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분노와 혐오가 어느 정도 견고한 논리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그러한 집단적, 감정적 움직임은 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배링턴 무어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사람들이 강하게 부정의를 느끼는 것을 지적했듯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특정한 감정/정서의 실천적 함의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사회학의 사회운동론 관련 연구와 문헌들에서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Snow and Benford(1988)의 연구에서, 사회운동이 조직화되고 동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프레임’과 해석적 ‘스키마’가 수행하는 역할이 지적되면서 사회운동의 사회학이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러한 프레임의 과정에서는 현실태와 문제에 대한 진단과 관련된 프레임(diagnostic framing) 뿐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동기적 프레임(motivational framing)이 포함된다. 즉 사회운동에 있어 부정의(不正義) 프레이밍(injustice framing)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움직이는 형태의 스키마와 언어에 의존하게 된다. 혐오나 분노는 미래세대가 온라인 공간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비판하고자 할 때 동기적 프레임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적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각할 점은, 부정의 인식에 기초한 분노, 그리고 그에 기초한 집합적 감정의 등장과 연대는 반드시 화나고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정적 감정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Lofland(1982)가 말한 ‘군중의 기쁨(joys of crowds)’, 과거 여성운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꼈던 자매애(sisterhood)의 기쁨과 자부심(Echols, 1989), 흑인 인권운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꼈던 자부심과 본인의 자존감(dignity) (Bell, 1992) 등 긍정적 정서가 분노와 혐오 등의 부정적 정서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와 운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Goodwin and Jasper, 2006). 따라서 미래세대가 암울한 현실이나 부정의한 대상에 대해 분노와 혐오 같은 감정을 펼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낮은 수준의 행복감이나 지속적인 부정적 정서로 이어진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느끼는 낮은 수준의 자존감과 자긍심, 존엄을 회복하는데 그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수단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였지만 그러한 집합적 분노의 표출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뿌듯함과 긍정적 정서 또한 경험할 수 있던 것이 그 예이다.

다만 그러한 집단적 감정의 움직임들이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 상당부분 ‘놀이’화 되어있는 것은 문제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와

표현들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쏟아낸다거나, 특정 대상을 인터넷에서 때로 몰려 ‘조리돌림’하는 모습들은 이제는 익숙한 광경이 되었다. 따라서 ‘혐오’문화의 원인을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결핍, 즉 개인들의 경제적, 환경적, 정서적 어려움 등에만 초점을 맞추어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러한 혐오문화는 또한 상당 부분 혐오‘놀이’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특정 대상을 비하하고 농락하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가 쉽고, 집단적 유행이 일어나는 경우 그 유행을 쉽게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나이가 지나치게 어리지는 않은 많은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은 왜 사회적으로 혹은 일반의 상식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쉽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참여하는가?

우선,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가 어느 집단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잡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혐오 태도나 행위가 강화되기가 쉬워진다. 집단 내 속하는 경우 의견이나 태도가 보다 극단적이 되는 경우(group polarization)의 경향성은 그동안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밝혀왔다. 또한 미시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학급이나 친구들 간 관계에서 혐오가 일종의 놀이가 되는 순간, 그 집단 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 혐오가 놀이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도덕적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혐오를 놀이로서 즐기게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에서 강조했던 의미가 담긴 제스처(gesture), 집단이 모일 때 생기는 감정적 에너지(emotional energy: Randall Collins),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따르는 고프만적 문화적 대본(cultural script) 등이 왜 집단적으로 유사한 문화적 코드를 재빠르게 소비하고 그것들이 무분별하게 전파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혐오, 경멸, 조롱이 놀이화 되면서 생겨나는 정체성 효과 또한 작동한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의 농담과 놀이가 다른 대상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것이 될 때, 그러한 농담과 놀이는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집단이라는 느낌을 주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는 효과를 가진다(이해완, 2014). 김수아·김세은(2016)이 말했듯이, 유머는 혐오의 정서를 무난하게 유통시켜주는 ‘당의정’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했던 ‘군중의 기쁨’이 여기서는 사르트르가 말한 ‘증오의 기쁨’인 것이다(김수아·김세은, 2016, p.15에서 재인용). 이는 결국 혐오와 경멸이 집단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정체감 확인과 집단 내부의 문화적 코드 공유를 통한 감정적 에너지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다른 한편,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 사회심리학의 정서 통제 이론(affect control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부여된 정서 및 감정에 대해 그것에 일치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로빈슨과 스미스-러빈의 연구(Robinson and Smith-Lovin, 1992)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역할 수행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 긍정적 비평과 부정적 비평을 각각 주었을 때, 높은 자

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후에 긍정적 비평을 준 사람과 더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였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 비평을 준 사람과 더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였다. 그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높은 자존감 집단은 30%정도의 사람들만이 부정적 비평가를 선택한 반면, 낮은 자존감 집단은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적 비평가를 선택하였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과 오히려 상호작용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유지(identity maintenance)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적 동기(motivation)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동기(self-enhancement motivation)와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후자와 같은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로빈슨과 스미스-러빈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성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치료(treatment)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즉, 학대나, 빈곤, 부정적 경험들로 인해 구조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경우,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그들은 부정적, 피학적, 가학적 상호작용 속에 위치하는 것에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서 통제 이론적 측면에서 더 예측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 일부가 부정적 자기 인식, 낮은 자존감 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성장과정에 있어의 구조적 환경(e.g.,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경쟁과 낙오, 그로 인한 좌절과 자존감 하락 등) 속에서 키워진 것이라면, 그러한 집단이 어떠한 계기에 의해 갑자기 긍정적이고 희망찬 태도를 가지고, 혐오와 경멸을 자제하는 이상적인 시민이 되고자 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정체성이 고착되고 그것을 재반복 해서 확인하고자 하며, 그러한 와중에서 분노와 혐오는 점점 커지게 될 수 있다.

5. 결론

쑨거(孫歌)라는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예전 중국의 문화대혁명 기간의 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문혁의 광풍이 몰아치는 기간 동안 비록 정규 학교 교육은 중단되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기간이 있었기에 자유롭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이런저런 생각을 제멋대로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경쟁이나 생존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철저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이후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와 같은 철저한 경쟁과 생존, 성과 위주의 사회와 문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청년기가 그렇게 여유 있고 호락호락한 시절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 1960~70년대 당시의 미래세대에게도 청년들에게 현실은 일상생활에 대한 구속감,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문화적 빈곤감 등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고, 그 와중에 기존의 세대와 문화와는 다른 정체성을 추구했던 미래세대의 감수성은, 결국

눈을 돌려 서구를 향하게 하였다. 그러한 차별화 의식과 탈출 의식은 서구 지향적 태도와 취향으로 나타났다. 이혜림(2002)은 우리나라 70년대 청년 세대의 이와 같은 경향성을 ‘위축의 감수성’과 ‘지향의 감수성’의 공존으로 설명하였다.

그러한 조합의 감수성은 현재의 미래세대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들을 ‘열정페이로’로 착취하는 ‘극혐’의 ‘헬조선’에서 ‘꼰대’와 ‘한남’들의 사회에서 ‘이생망’(‘이번 생애는 망했다’는 뜻)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적이고 공정한 ‘갓양’인 서구적 기준과 문화를 동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분노와 혐오, 경멸, 공격적 태도 등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현실적, 구조적 모순과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분노와 혐오의 핵심에는 한국사회가 언젠가는 거쳐가고 짚어가야 하는 (즉, 기성세대가 하지 않은) 정치/사회/문화적 문제들이 담겨있고, 그와 관련된 담론적 투쟁과 몸부림, 지배규범의 부재와 자기계발 패러다임과 구별짓기의 유혹의 틈에서 쏟아져 나오는 날 감정들, 여러 아이디어들의 중요한 충돌들이 뒤섞여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한 시민사회, 보다 덜 부조리 하고 더 공정한 사회로 진화해 나가는데 피해갈 수 없는 성장과정의 통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중요한 작업을 기성세대도 아닌, 이후 세대도 아닌, 현재의 미래세대들이 부딪쳐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길게 보면 사회적 학습과정이고, 이를 희망적인 시선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어떠한 심리적 반응들과 감수성과 정체성이 드러나는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였다. 그만큼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의 심리를 구성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들과 면모를 다루기는 힘들었다. 그러한 작업은 일상 세계와 미시적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세밀한 관찰과 공감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서울 미래세대의 정치이념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1. 서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두 공간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광화문 광장이고, 다른 하나는 촛불에 맞서 박근혜 정권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모인 “맞불 집회” 참가자들이 점거한 시청 앞 광장이다.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은 이 두 공간을 채운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참가 인원의 규모와 그 구성원들의 특성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광화문에 모인 압도적인 규모의 군중들은 결국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해야 했다(손호철 2017). 당시 광화문에 확산된 시위의 활기는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던 것에 비해, 시청 앞의 목소리는 구세대 장년층의 것이었다.

탄핵 정국에서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광장은 각각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간이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광장을 점거한 두 군중들 간의 연령-세대의 차이를 주목하였고, 한국 정치에서 이념 갈등은 곧 세대 간 갈등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긴 하나, 사실 광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 내부의 다양성을 간과한 이야기이다. 대규모의 군중의 모인 “촛불 집회”의 경우, 주도층이 청년층과 중년층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일부 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맞불 집회”에서도 청년 보수를 자처한 참가자들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세대 차원에서의 다양성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이념 다양성(ideological diversity)이다(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박근혜 정권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었기에, 그 정권 수장의 하야 혹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진보”라는 범주를 단일한 내용으로 요약하기에는 그 내부에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있음을 잊어서 안된다. 가령 촛불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최순실과 박근혜를 비난하는 내용이 “여성 비하” 영역으로 넘어갈 때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또한 일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정권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그 정당의 수장이었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칠 때 눈살을 찌푸린 참가자들도 많았다. 촛불 집회 도중 금속노조가 자신의 이익 관철을 목적으로 한 구호를 외칠 때, 그것을 따라 외치지 않은 다른 참가자들의 수 역시 상당했다. 이렇듯 진보 세력으로 뭉뚱그려진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이념 동질성(ideological homogeneity)을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더 나아가 이념 이질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단 내의 연령-세대 차이로 환원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여성 비하, 이석기 석방 운동, 노조의 세력 확장에 대해 경계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청년층 혹은 중년층으로 한정되진 않는다는 말이다.

이 연구는 “촛불 집회=진보=신세대”와 “맞불 집회=보수=구세대”로 구분되는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한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 내부의 이념 균열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지난 탄핵 정국에서 어쩌면 과장되었을지도 모르는 연령-세대 간의 갈등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서울에 거주하는, 20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한정시켰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결과 해석에 앞서, 정치 이념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해 본다.

2. 정치 이념의 다차원성

정치 이념(political ideology)이란 일반인들이 정치를 보는 시각, 즉 정치 현안을 해석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의 정치 성향이 “보수(conservative/right-wing)”와 “진보(liberal/progressive/left-wing)”로 나뉜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1950-60년대에 정치 행태 분야를 이끌었던 구미의 초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 이념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태도의 합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치 이념과 몇 가지 현안에 대한 태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동성간 결혼을 지지한다던가, 진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덜 세련된 사람으로 치부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졌다 (Converse 1964).

하지만 현재 정치 심리학계에서는 정치 이념과 현안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치 이념을 일차원적인(unidimensional) 스펙트럼으로 보지 않고, 경제 현안 관련 이념과 사회 현안 관련 이념, 이렇게 이차원적인(two-dimensional) 스펙트럼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다 (Feldman and Johnston 2014). 이 때 경제 현안이라 함은 세금, 최저임금, 은행/재벌규제 등과 같은 현안으로써, 국가가 기업/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따지는 영역이다 (복지국가 대 자본주의). 사회 현안이라 함은 낙태, 동성간 결혼,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같은 현안으로써, 사회 관행을 지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회 관행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따지는 영역이다 (사회 규범 대 개인의 자유).

이렇게 정치 현안을 이차원으로 파악하면, 사람들을 정치 이념에 따라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진성 진보: 경제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 모두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찬성하고 (대기업 규제, 최저임금 인상), 개인의 권리 보장에 적극적이다 (동성간 결혼 찬성, 낙태권 옹호).

2. 진성 보수: 경제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 모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고 (법인세 인하, 노동조합 규제), 개인의 권리 보장보다는 사회 관행 및 규범의 수호에 앞장선다 (동성간 결혼 반대, 일부 여성 권익 보장 정책 반대).

3. 자유 지상주의자(libertarians):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개인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즉, 친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동시에 낙태, 동성애, 양심적 병역 거부 등과 같은 개인의 선택에 정부나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4. 구세대 사회주의자: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사회-문화 영역에서 관행과 전통 혹은 규범을 해치는 개인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정치 이념을 일차원적으로 보는 대신,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을 활용해서 파악하면 얼핏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의견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행태는 정치 이념을 일차원적으로 이해하였을 때 설명하기 어려웠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보수로 분류한 사람이 동성간 결혼을 찬성함을 확인할 때 느꼈던 불편함, 혹은 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진보로 분류한 사람이 여성에게 더 관대한 육아휴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함을 확인할 때 느꼈던 불편함은 정치 이념을 이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 현안들을 경제 현안과 사회 현안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념의 지형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관련 현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혹은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정부-시장 간의 대립구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 보기도 어렵고, 정부/사회-개인 간의 대립구도에 근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관련 현안을 이용해 정치 이념을 구성하는 제 3의 차원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 경우 정치 이념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는 범주의 숫자가 8개(경제 현안 진보/보수 x 사회 현안 진보/보수 x 북한 현안 진보/보수)가 되어 지나치게 복잡한 분석틀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정치 이념을 몇 개의 차원을 이용하여 이해하느냐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어떤 한 정치 집단을 단순히 보수-진보의 일차원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공감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을 이 연구의 맥락에 적용시켜 보면, 탄핵 정국을 이끌었던 세력, 특히 서울에 사는 청년층을 맞불 집회의 핵심 세력인 노년층과 대비시켜 “진보”라고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3.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7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서울 미래세대 인식조사”라는 명칭을 달고 수행한 설문조사는 미래 서울의 중심세대가 될 서울 시민들의 사회문화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이들의 삶을 관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서 미래세대는 2017년 현재 20~3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 자료의 성격 상, 자료에 사용된 표본이 확률 추출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미래세대라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자료 결과 해석 시 이 점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4. 측정 및 자료 분석

4-1. 정치이념의 내용

정치 이념은 다음의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표 1>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불과 15% 정도의 응답자만이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은 39%로 꽤 높은 편이다.

<표 1> 서울 미래 세대의 정치 이념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빈도 (%)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이 정보만 가지고는 서울 미래세대 설문 응답자들의 이념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 상적인 조건이라면 이러한 정보와는 별도로, 응답자의 경제 현안에 대한 태도, 사회 현안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를 물어서 정치 이념의 여러 차원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는데, 이 연구가 사용하는 설문조사에는 구체적인 현안 및 정책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하나의 질문만을 던져 측정한 응답자들의 정치 이념은 결국 응답자별로 다양한 내용을 갖는 진보-보수의 경향성을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시켜 본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 개개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즉, 어떤 응답자는 경제 현안보다는 사회 현안에 대한 본인의 태도에 근거해 답을 하였고, 다른 응답자는 경제 현안과 사회 현안은 제쳐놓고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 관련한 본인의 태도에 바탕을 두어 답을 했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스스로의 정치 이념을 보수-진보의 스펙트럼에 위치시키는 양태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s)를 검토하기에는 설문조사 자료에 담긴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여기서는 <표 1>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 미래 세대 내부에 존재하는 이념 균열의 가능성만을 타진해 본다.

서울 미래세대의 정치 이념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1) 성별, 나이, 혼인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demographic

factors), (2) 소득수준, 교육수준, 거주 지역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socio-economic factors), (3) 경제만족도, 계층의식, 성격 특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psychological factors). 각 요인들과 정치 이념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4-2 . 인구학적 요인들과 정치 이념

우선 설문 응답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한 후, 정치 이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서울 미래세대 안에 성별에 따른 정치 이념의 차이가 의심되는 이유는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혐오”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가부장적인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한국 사회가 급속한 가치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종종 갈등과 충돌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은 자신들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직장 문화, 가족 문화, 정부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그러한 요구들의 일부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역차별을 유도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곤 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 자립도가 낮고 학업 및 부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트 비용 부담, 군복무/군가산점 등의 현안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남-여 온도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는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반응의 성별 간 차이로 명확히 확인된 바이다. 즉, 서울 미래 세대 안에 성별에 따른 정치 이념의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경제 현안이나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이기 보다는, 성평등과 같은 사회 현안에 근거한 것이라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을 것이다.

<표 2> 성별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남성	16 (3.20)	198 (39.60)	199 (39.80)	80 (16.00)	7 (1.40)
여성	24 (4.80)	217 (43.40)	191 (38.20)	61 (12.20)	7 (1.40)
총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표 2>를 보면 남성 응답자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3.8% (3.20% + 39.60%)임에 비해, 여성 응답자에게선 그 비율이 48.2% (4.80% + 43.40%)이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17.4%임에 비해, 여성 응답자에게선 그 비율이 13.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 미래 세대 안에 연령에 따른 정치 이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청년층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서울 미래세대가 겪은 사회화 과정이 약간 다를 것이라는 의심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이다. 가령 30대 중반 이후 세대는 1997년부터 수년 간 겪은 IMF 구제금융의 기억이 생생한 반면, 20대의 경우 천안함이나 연평도와 같은 북한 관련 사건들의 기억이 상대적으로 생생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30대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겪은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소위 좌파 정권이었고, 20대의 경우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의 집권세력이 이명박-박근혜로 대변되는 소위 우파 정권이었던 차이도 있다. 분석을 위해 미래세대 내의 네 범주를 출생연도에 따라 나누었다. (1) 1978년~1982년 생, (2) 1983년~ 1987년 생, (3) 1988년~1992년 생, (4) 1993년~1997년 생.

<표 3> 연령대와 정치 이념 간의 관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20 ~ 24 세	10 (4.44)	89 (39.56)	97 (43.11)	26 (11.56)	3 (1.33)
25 ~ 29 세	15 (6.02)	90 (36.14)	112 (44.98)	27 (10.84)	5 (2.01)
30 ~ 34 세	4 (1.57)	120 (47.06)	77 (30.20)	52 (20.39)	2 (0.78)
35 ~ 39 세	11 (4.06)	116 (42.80)	104 (38.38)	36 (13.28)	4 (1.48)
총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표 3>을 보면 서울 미래세대 중 20대와 30대가 약간은 다른 이념 성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해보아야 할 결과는 20대의 경우 40%가 넘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답한 반면, 30대의 경우 그 비율이 30%대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30대의 경우 20대보다 진보라고 응답한 비율과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진보-보수 간의 상대적 비율 차이로 요약된다기보다, 좌-우 이념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향이 20대보다는 30대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으로 요약 가능하다. 즉, 20대의 경우 아직 진보-보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거나, 다양한 정치 현안들 사이에서 진보-보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말이다.

다음 인구학적 요인으로서는 혼인상태를 선택하였다. 이 요인을 보는 이유는 최근 눈에 띄는 혼인을 저하에 따라 청년층에게서 혼인 여부로 나뉘는 균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미혼인 “나홀로 세대”는 기혼인 사람들이 비해 사회 현안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혼인상태는 (1) 미혼, (2) 기혼으로 나누었는데 두 번째 범주에는 사별, 이혼, 별거라고 응답한 6명의 응답자까지 포함하였다.

<표 4> 혼인상태와 정치 이념 간의 관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미혼	24 (3.44)	289 (41.46)	281 (40.32)	92 (13.20)	11 (1.58)
기혼	16 (5.28)	126 (41.58)	109 (35.97)	49 (16.17)	3 (0.99)
총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표 4>는 미혼과 기혼 간의 정치 이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기혼의 경우 미혼에 비해 좌-우 이념 방향이 공고화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긴 하다. 또한 기혼의 경우 미혼에 비해 진보라고 답한 비율과 보수라고 답한 비율이 다 조금씩 높다. 이는 결혼이 진보-보수 입장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경험임을 암시하긴 하나, 그것이 이념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3. 사회경제 요인과 정치 이념

우선 가장 대표적인 사회경제 요인인 소득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통상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계소득을 200만원 미만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7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 문항을 통해 파악하였다.

<표 5> 가계소득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200만원미만	5 (5.43)	38 (41.30)	32 (34.78)	15 (16.30)	2 (2.17)
200 ~ 300	8 (4.30)	75 (40.32)	84 (45.16)	17 (9.14)	2 (1.08)
300 ~ 400	8 (4.42)	72 (39.78)	73 (40.33)	27 (14.92)	1 (0.55)
400 ~ 500	8 (5.23)	68 (44.44)	57 (37.25)	18 (11.76)	2 (1.31)
500 ~ 600	6 (5.31)	49 (43.36)	41 (36.28)	14 (12.39)	3 (2.65)
600 ~ 700	1 (1.32)	31 (40.79)	34 (44.74)	10 (13.16)	0 (0.00)
700만원이상	4 (2.01)	82 (41.21)	69 (34.67)	40 (20.10)	4 (2.01)
총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표 5>를 보면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소득과 정치 이념 간의 상관관계가 서울 미래세대 설문에서는 잘 잡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월 가계소득 700만원 이상 되는 응답자들이 다른 소득 수준을 갖는 응답자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긴 하나 (22.11%), 월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난한 계층 응답자 중에서도 18.47%나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답하였다.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가계소득에 따라 일관된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소득 수준이 정치 이념에 주는 효과와는 별도로 재산 수준이 정치 이념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다. 다른 하나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해석이 좀 더 개연성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설문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확답을 내릴 수는 없다.

또 다른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은 교육수준이다. 보통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 현안에 대해서 강한 진보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으나, 자유 무역 혹은 노동 시장 유연화와 같은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육수준은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재학포함), (4) 대학원(재학) 이상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는데,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까닭에 첫 두 범주에 속한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들을 합친 하나의 범주를 별도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6> 교육 수준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고졸 이하	4 (4.12)	37 (38.14)	42 (43.40)	11 (11.34)	3 (3.09)
대재/대졸	33 (4.33)	325 (42.65)	294 (38.58)	103 (13.52)	7 (0.92)
대학원재/졸	3 (2.13)	53 (37.59)	54 (38.30)	27 (19.15)	4 (2.84)
총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표 6>을 보면 고졸 이하 응답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고 덜 중도 또는 보수라고 응답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재학 혹은 졸업한 응답자들을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한 응답자와 비교해보아도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고 덜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진보-보수의 상대적 비율은 교육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일관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보수와 비교해 진보의 상대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 재학 혹은 졸업한 응답자이고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한 응답자이다. 이러한 발견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서울이라는 공간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주 지역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서울에서 어느 구에 사느냐는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재산의 규모, 직업 등을 예측하게 해 주는 척도이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람들에게 1990년대의 “8학군”, 2000년대의 “대치동 학원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하다. 자료에서 거주 지역은 다섯 범주로 나누었다. (1)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7> 거주 지역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도심권	1 (2.00)	26 (52.00)	15 (30.00)	7 (14.00)	1 (2.00)
동북권	12 (3.97)	137 (45.36)	107 (35.43)	43 (14.24)	3 (0.99)
서북권	10 (8.47)	39 (33.05)	52 (44.07)	16 (13.56)	1 (0.85)
서남권	11 (3.47)	129 (40.69)	134 (42.27)	40 (12.62)	3 (0.95)
동남권	6 (2.82)	84 (39.44)	82 (38.50)	35 (16.43)	6 (2.82)
총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표 7>을 보면 예상대로 동남권 응답자들이 보이는 보수 성향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5%).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남권 응답자들 중에서 진보의 비율이 다른 거주 지역 응답자들의 그것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니다.

4-4. 심리적 요인과 정치 이념

마지막으로 서울 미래 세대의 심리적 요인들이 정치 이념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경제만족도는 다음의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귀댁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5점 척도)” 이 항목은 응답자의 객관적인 소득 수준 혹은 재산 상태와는 별도로 응답자 본인이 느끼는 경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항목과 보수 성향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고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진보-보수 성향은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만족도와 이념 간의 관계를 상수로 놓아서는 안된다.

<표 8> 경제 만족도와 정치 이념 간의 관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매우 만족	3 (8.33)	12 (33.33)	10 (27.78)	9 (25.00)	2 (5.56)
약간 만족	5 (2.42)	102 (49.28)	61 (29.47)	36 (17.39)	3 (1.45)
보통	13 (4.04)	117 (36.34)	151 (46.89)	39 (12.11)	2 (0.62)
약간 불만족	8 (2.60)	138 (44.81)	120 (38.96)	40 (12.99)	2 (0.65)
매우 불만족	11 (8.66)	46 (36.22)	48 (37.80)	17 (13.39)	5 (3.94)
총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표 8>은 경제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더 보임을 확인해 준다. 현 경제 상태에 매우 만족하는 응답자들 중에서 35.56%가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보고한 반면, 경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사람에게선 그 비율이 17.33%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제 만족도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이 위의 발견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수 성향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경제 만족도 질문에 만족도 불만족도 없는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다음의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 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척도)” 이 문항 역시 응답자의 객관적인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직업의 귀천과 별도로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계층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보수 성향을 띠기 마련이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진보 성향을 띠 가능성이 높다.

<표 9> 주관적 계층의식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평균	4.30	5.02	4.98	5.51	5.93
(표준편차)	(1.73)	(1.61)	(1.66)	(1.77)	(2.09)
총 (%)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표를 보여주는 대신 각 이념 집단 별 주관적 계층의식의 평균값과 그에 딸린 표준편차를 보고하였다. <표 9>에서 보고된 대로 다소 보수적이거나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띠는 응답자들이 다른 이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성격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를 성격의 5가지 요인을 묻는 설문 도구를 사용해 확인하였다 (Gosling, Rentfrow, and Swann 2003). 이 설문 도구에서는 다음의 열 가지 진술이 응답자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7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해 대답하게 하였다. (1)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 (2) 비판적이다. 논쟁을 좋아한다. (3)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한다. (4)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한다. (5)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복잡다단하다. (6) 내성적이다. 조용하다. (7)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하다. (8)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덩벙댄다. (9) 차분하다. 감정의 기복이 적다. (10) 변화를 싫어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 1번 문항과 6번 문항(역코딩)을 이용해 외향성을 측정하

였고, 2번 문항(역코딩)과 7번 문항을 이용해 친화성을, 3번 문항과 8번 문항(역코딩)을 이용해 성실성을, 4번 문항(역코딩)과 9번 문항을 이용해 정서적 안정성을, 그리고 5번 문항과 10번 문항(역코딩)을 이용해 개방성을 측정하였다. 그 후 5가지 성격 특성을 최소값 0, 최대값 1을 갖도록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 현안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Gerber, Huber, Doherty, Dowling, and Ha 2010).

<표 10> 성격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성실성	0.52 (0.19)	0.58 (0.18)	0.58 (0.17)	0.59 (0.19)	0.54 (0.19)
개방성	0.58 (0.22)	0.55 (0.18)	0.54 (0.16)	0.52 (0.18)	0.50 (0.19)
친화성	0.50 (0.13)	0.56 (0.15)	0.57 (0.14)	0.55 (0.16)	0.60 (0.25)
감정안정성	0.38 (0.21)	0.48 (0.18)	0.48 (0.16)	0.48 (0.21)	0.55 (0.23)
외향성	0.53 (0.27)	0.50 (0.20)	0.49 (0.19)	0.49 (0.23)	0.45 (0.23)
총 (%)	40 (4.00)	415 (41.50)	390 (39.00)	141 (14.10)	14 (1.40)

<표 10>은 성격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성격의 다섯 요인들이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념 집단 별 성격의 평균값과 그에 딸린 표준 편차를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보수적인 응답자일수록 개방성과 외향성은 줄어든다고, 감정안정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친화성의 경우 보수적인 응답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긴 하나 그 관계가 일정하지는 않고, 성실성의 경우에도 일관된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4. 회귀 분석 결과

앞에서 분석한 내용들은 (1) 인구학적 요인, (2) 사회경제 요인, 그리고 (3) 심리적 요인과 정치 이념 간의 관계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본 것이다. 위에서 고려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각각의 요인들이 서울 미래 세대의 이념에 갖는 고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표 11>은 5점 척도인 정치 이념의 특성을 반영한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분석을 수행한 후 얻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은 모두 네 가지가 사용되었는데, 첫 세 모형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을 각각 묶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모형은 이 세 요인들을 다 고려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11> 정치 이념의 결정 요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1. 인구학적 요인들				
성별 (여성)	-0.25* (0.12)			-0.29* (0.12)
20 ~ 24세	0.01 (0.19)			0.05 (0.19)
25 ~ 29세	0.05 (0.18)			0.09 (0.18)
30 ~ 34세	0.10 (0.17)			0.08 (0.17)
35 ~ 39세	기준 범주			기준 범주
혼인	-0.05 (0.15)			-0.10 (0.16)
2. 사회경제 요인				
소득 수준		0.04 (0.03)		0.02 (0.03)
고등학교 미만		기준 범주		기준 범주
대재 혹은 대졸		-0.19 (0.20)		-0.27 (0.21)
대학원재 혹은 대학원졸		0.19 (0.25)		0.11 (0.26)
도심권		-0.36 (0.30)		-0.32 (0.30)
동북권		-0.28 (0.17)		-0.30 (0.17)
서북권		-0.13 (0.22)		-0.13 (0.22)
서남권		-0.14 (0.17)		-0.13 (0.17)
동남권		기준 범주		기준 범주
3. 심리적 요인들				
경제만족도(불만족)			0.17* (0.08)	0.19* (0.08)
계층의식(상층)			0.19** (0.05)	0.18** (0.05)
성격: 성실성			0.27 (0.37)	0.35 (0.37)
성격: 개방성			-0.92* (0.39)	-1.09** (0.39)
성격: 친화성			0.25 (0.41)	0.48 (0.42)
성격: 감정안정성			0.41 (0.38)	0.20 (0.39)
성격: 외향성			-0.05 (0.34)	0.06 (0.34)
조정된 R ²	0.002	0.005	0.011	0.018
응답자 수	1,000	1,000	1,000	1,000

종속변수는 정치 이념 (1=매우 진보; 5=매우 보수); 순서형 로짓 결과. * p < 0.05, ** p < 0.01 (양측검정)

우선 인구학적 요인들 중에서는 성별만 정치 이념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미래 세대 중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모형 (4)에서 인구학적 요인 전체가 과연 정치 이념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해 보았더니, 모형에 사용된 인구학적 요인들은 정치 이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text{Chi}^2 = 6.64$; $p = 0.249$). 비록 성별이 정치 이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모형 (1)과 모형 (4)에 보고되었으나, 성별을 포함한 모든 인구학적 요인들이 정치 이념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는 말이다. 반면 사회경제 요인들 중에서는 정치 이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는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형 (4)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전체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재확인되는 내용이다 ($\text{Chi}^2 = 9.75$; $p = 0.203$).

서울 미래 세대의 이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이다 ($\text{Chi}^2 = 24.94$; $p = 0.001$). 자신의 소속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성격이 개방적인 응답자들이 진보적인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성실성이 높은 사람의 보수성 및 친화성이 높은 사람의 진보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가지 놀라운 결과는, 예상과 달리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결과와는 반대로, 정치 이념에 영향을 줄 만한 결정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계 경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응답자들이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의 보수주의가 경제 차원의 내용이라면, 서울 미래세대가 가계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시장 논리, 즉 민간 주도 경기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 결과에 보인 보수주의가 사회 현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서울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개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뛰는 진보세력에게 풀고 있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진보-보수의 일차원적인 논리가 세대 균열에 적용되어 “청년층=진보”, “노년층=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통용되는 관행에 도전하기 위해, 20세에서 39세에 이르는 서울 미래세대 내부의 정치 이념 다양성을 확인하고 그 결정 요인을 찾아보았다. 설문 조사 자료 분석 결과, 흔히 인구에 회자되는 이념의 결정 요인들인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거주 지역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서울 미래세대의 이념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연령과 혼인여부와 같은 인구학적인 요인 역시 이념의 결정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다만 제한적인 의미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미래세대의 정치 이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심리적 요인이었다. 우선 주관적 계층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방성과 같은 성격 특성과 진보적인 입장 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이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흔히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진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경제만족도와 보수 성향 간의 친화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우

선 여기서의 보수 성향이 경제 현안 관련된 것이라면, 경제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정부 주도 보다는 시장 주도의 경기부양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여기서의 보수 성향이 사회 현안 관련된 것이라면, 경제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이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세력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두 번째 가능성이 현실로 구현된 현상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포퓰리즘(populism)이다 (Müller 2016). 이러한 현상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도 발현된다면, 경제만족도가 낮은 청년층이 타집단(out-group)을 배제하고 내집단(in-group)의 공고화를 추구하는 방향의 보수주의에 경도되는 현상을 보게 될 개연성이 있다.

이 연구는 서울 미래세대의 정치 이념을 진보-보수의 일차원으로 환원시켜 자가보고한 응답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서울 미래세대 내부의 이념 다양성을 보다 치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 이념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다양한 설문 문항을 필요로 한다. 향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가 지향하는 이념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손호철, 2017.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 서울: 서강대 출판부.

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탄핵 광장의 안과 밖: 촛불 민심 경험 분석』. 서울: 책담.

Converse, 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Feldman, S. and Johnston, C., 2014.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ideology: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mplexity. *Political Psychology*, 35(3), pp.337-358.

Gerber, A. S., Huber, G. A., Doherty, D., Dowling, C. M. and Ha, S. E., 2010. Personality and political attitudes: Relationships across issue domains and political contex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pp.111-133.

Gosling, S. D., Rentfrow, P. J. and Swann,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pp.504-528.

Müller, J-W. 2016. *What Is Popul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3세션
서울의 미래세대는 누구인가?

사 회: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센터장]

1. 서베이로 본 서울 미래세대의 꿈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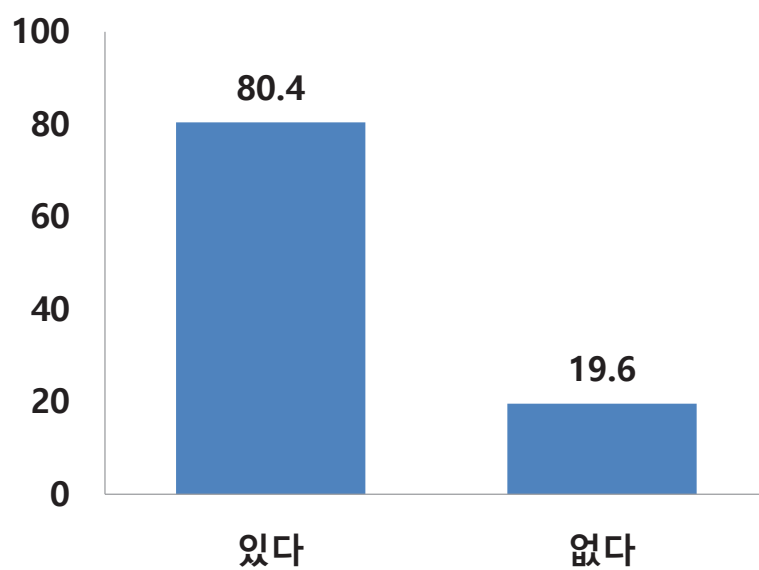
서울 미래세대의 꿈 서베이 결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

김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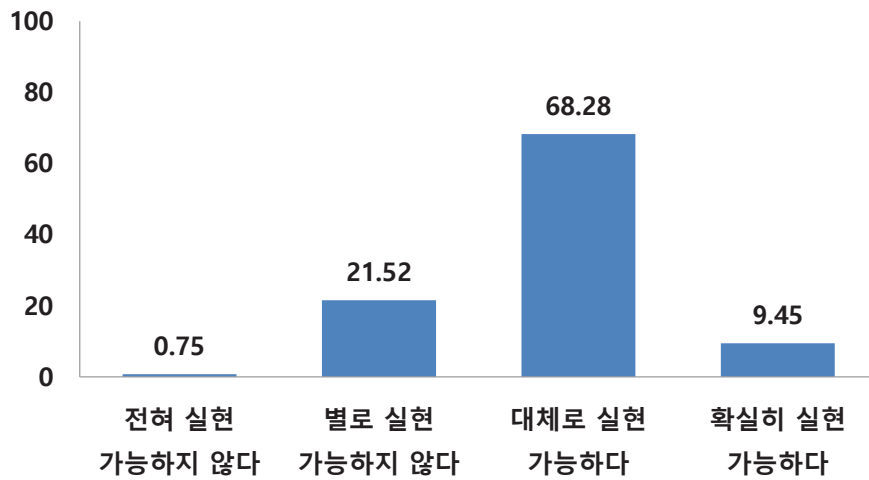
I. 서울 미래세대의 꿈

1-1. 서울미래세대 꿈 여부



Q. 귀하가 미래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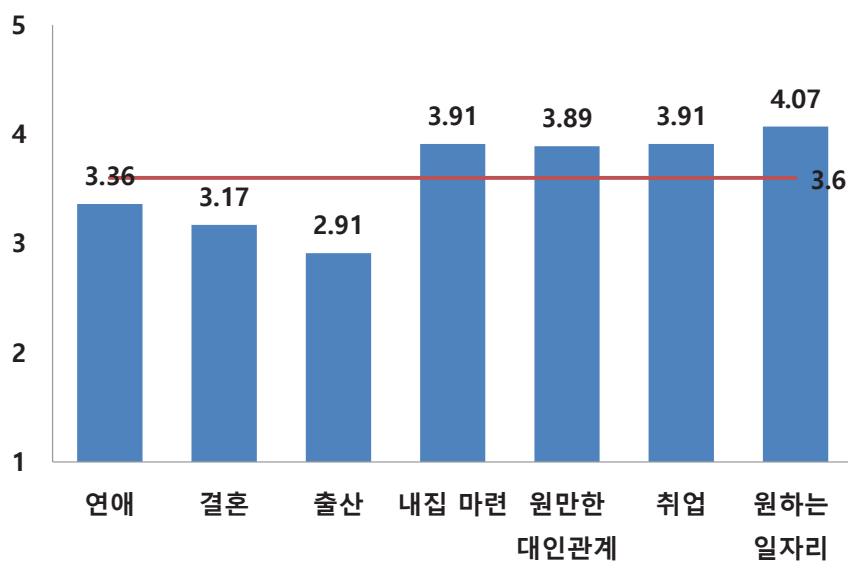
1-2. 꿈의 실현 가능성



꿈 실현 가능성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804	2.864428	0.567074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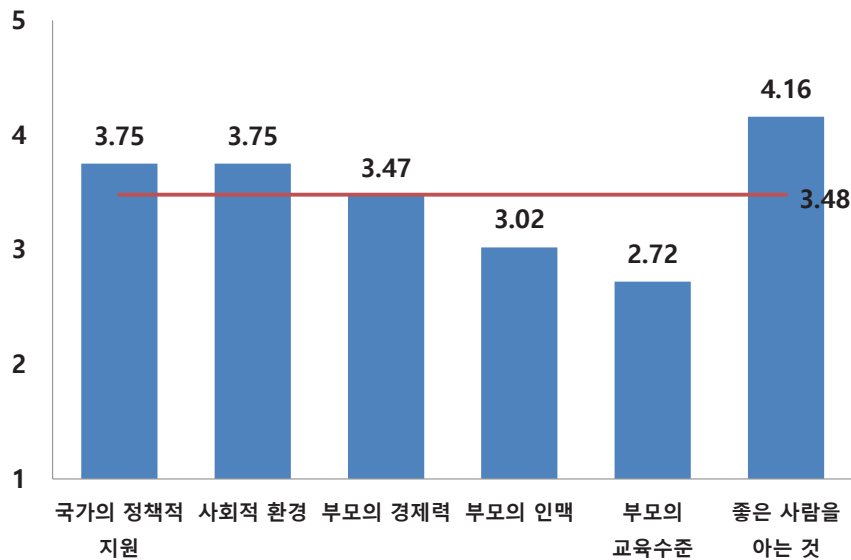
Q. 귀하가 판단하실 때 그 꿈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합니까?

2. 꿈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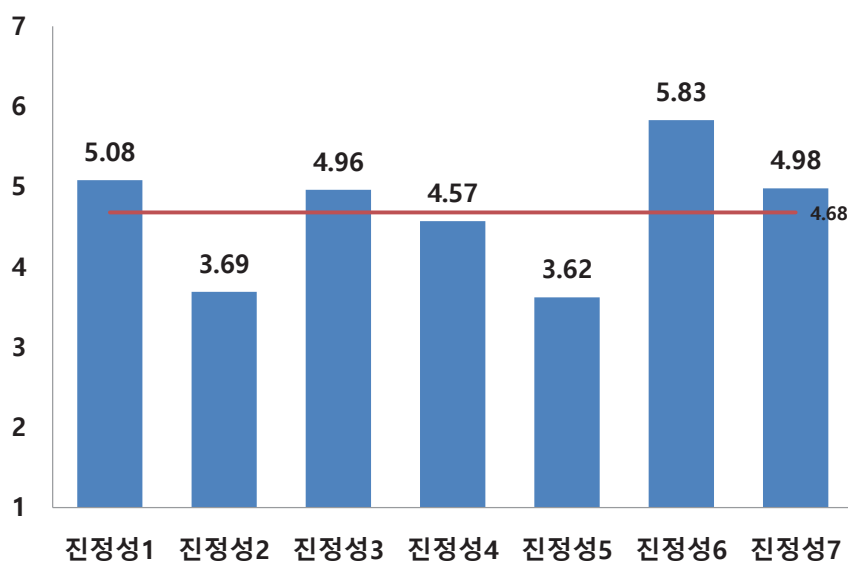
Q.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꿈이나 욕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3.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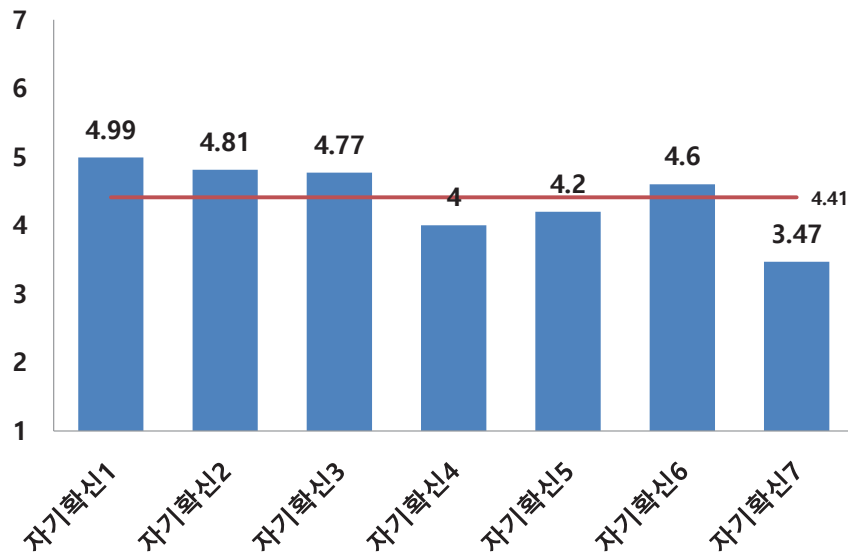
Q. 귀하는 그 꿈을 실현하는 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 꿈의 경영방식(진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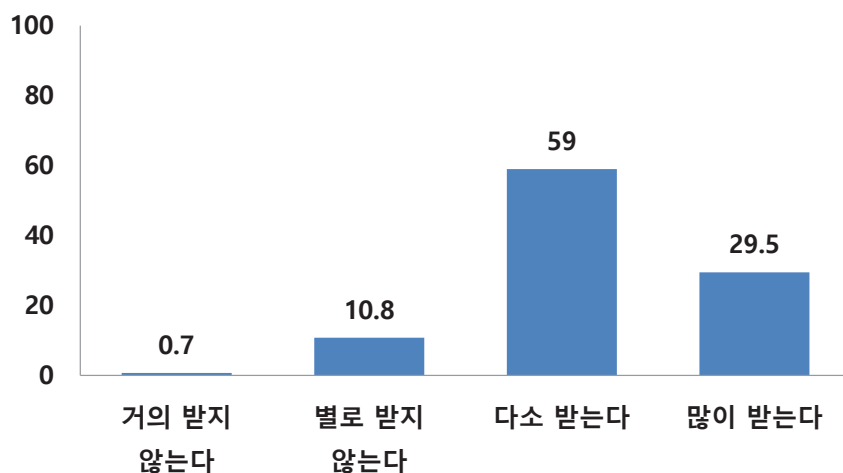
Q. 다음은 귀하가 꿈을 추구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주어지는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4-2. 꿈의 경영방식(자기확신)



Q. 다음은 귀하가 꿈을 추구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주어지는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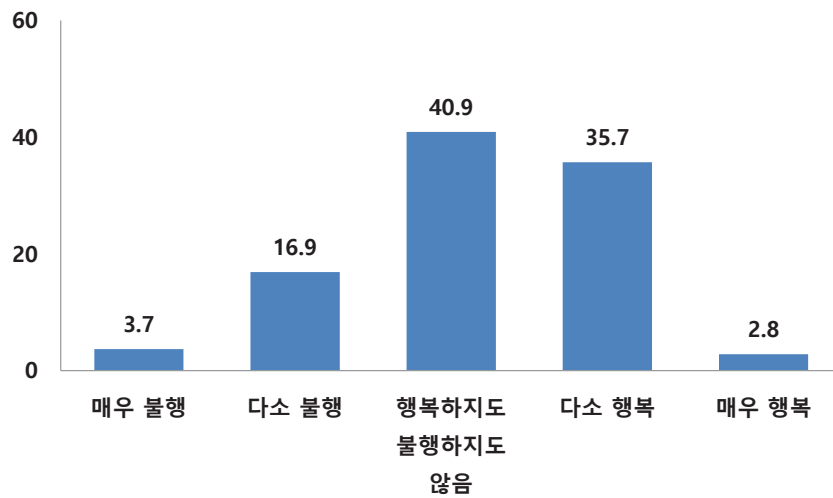
5. 스트레스



스트레스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1,000	3.17	0.63	1	4

Q. 귀하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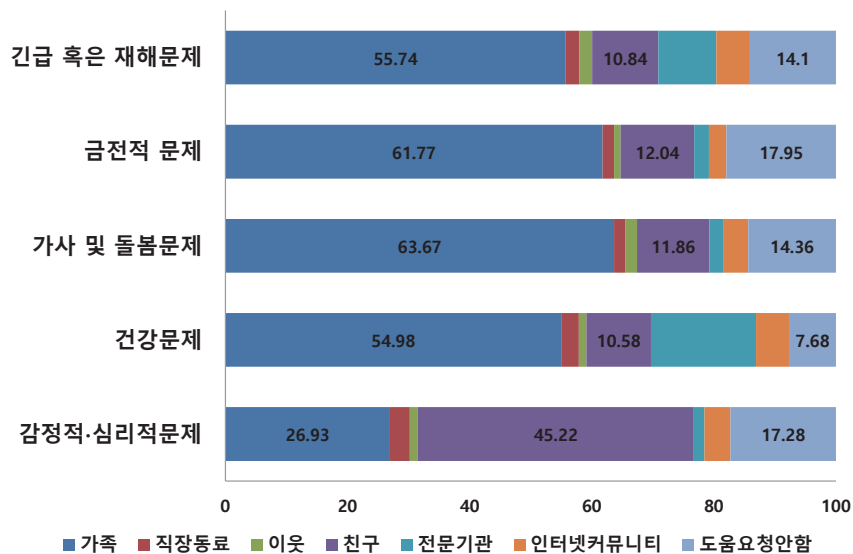
6. 행복감



행복감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1,000	3.17	0.87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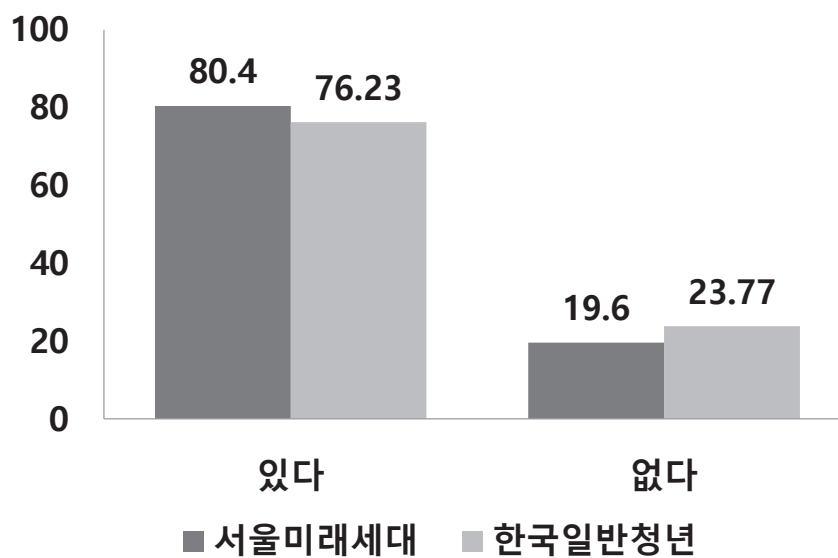
Q. 귀하는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사회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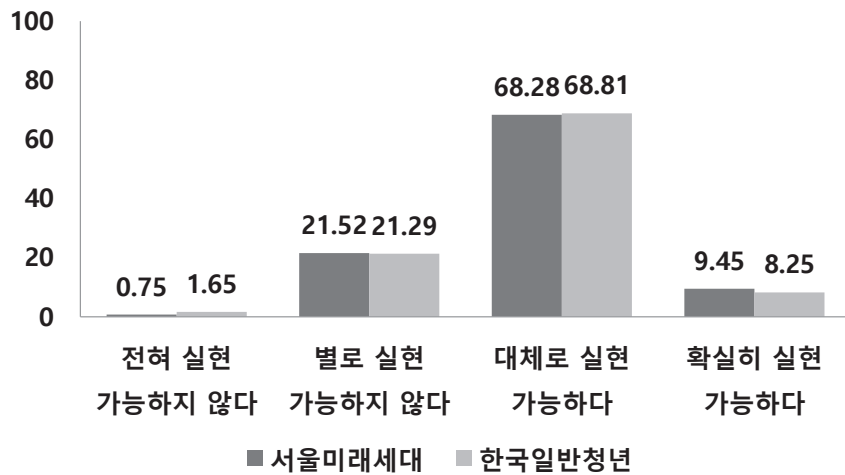


Ⅱ. 서울 미래세대 vs. 한국일반청년

1-1. 꿈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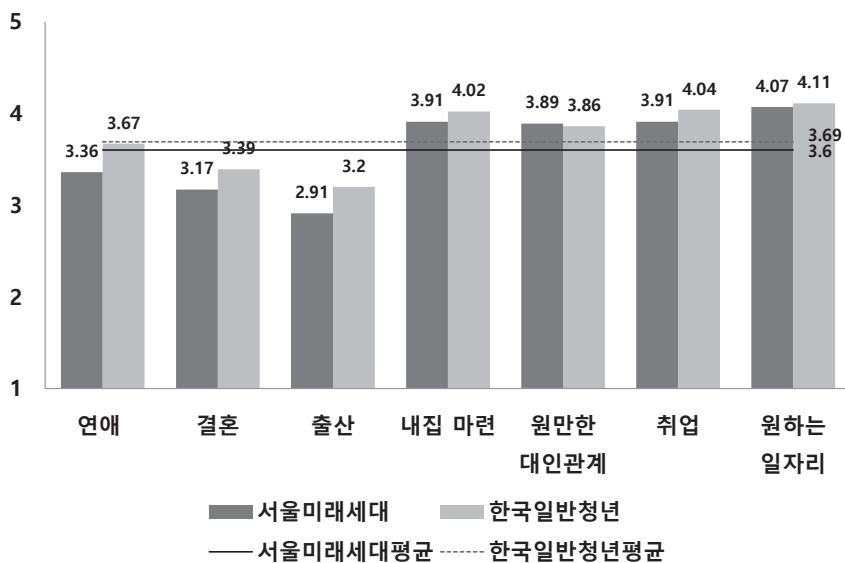
1-2. 꿈의 실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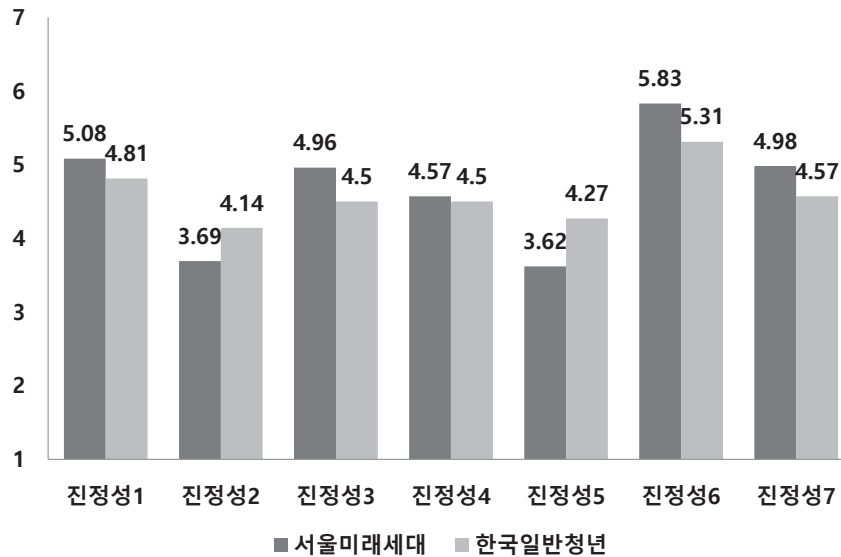
꿈 실현 가능성(서울미래세대)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804	2.86	0.57	1	4

꿈 실현가능성(한국일반청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606	2.84	0.58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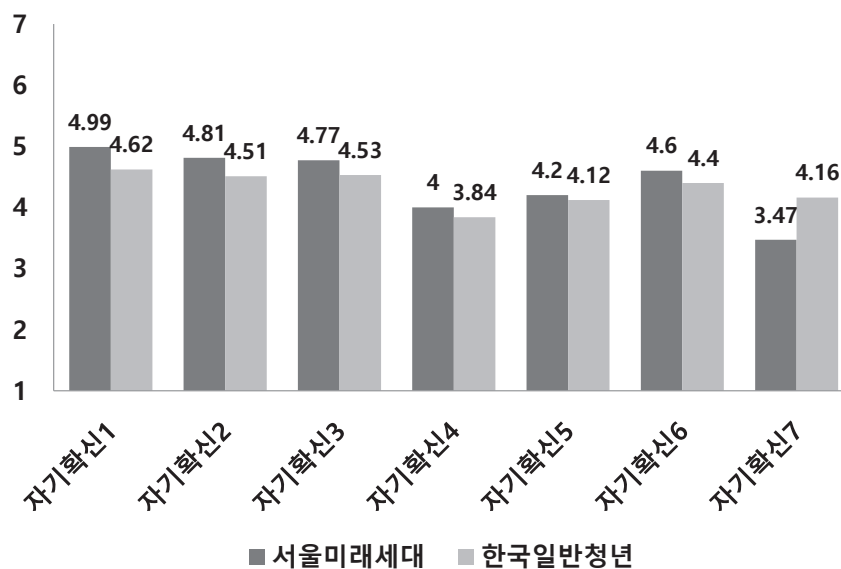
2. 꿈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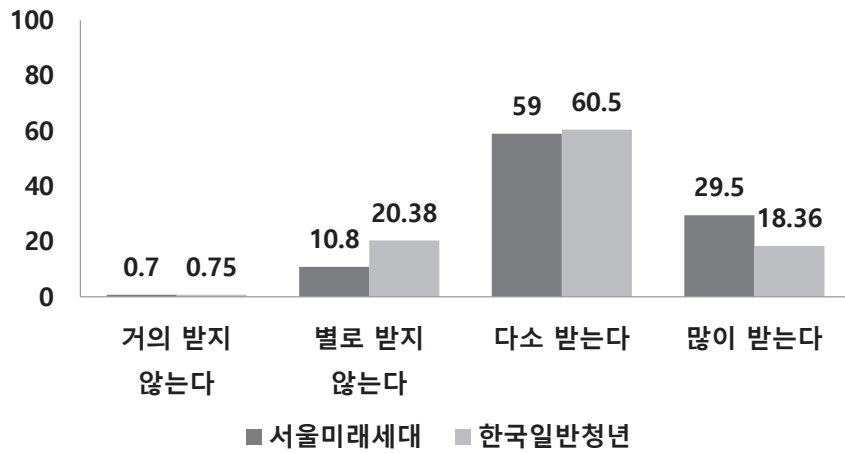
3-1. 꿈의 경영방식(진정성)



3-2. 꿈의 경영방식(자기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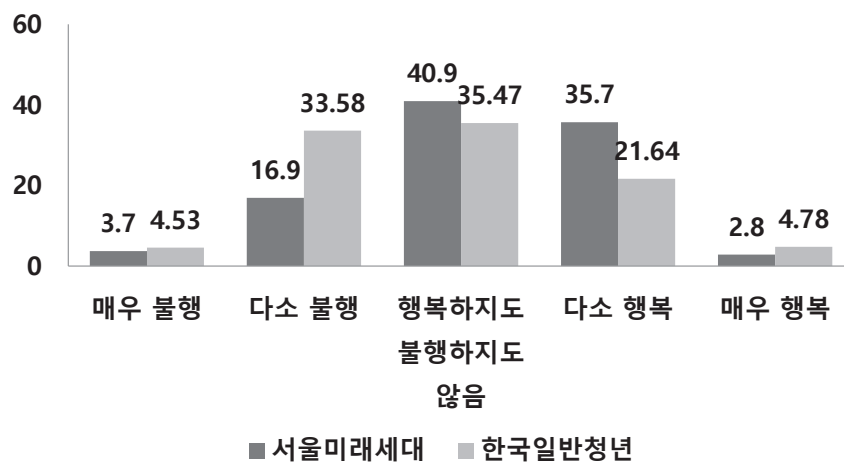
4. 스트레스



스트레스(서울미래세대)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1,000	3.17	0.63	1	4

스트레스(한국일반청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795	2.96	0.65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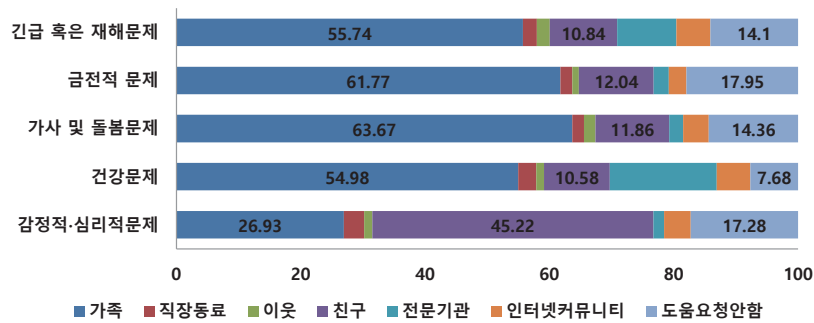
5.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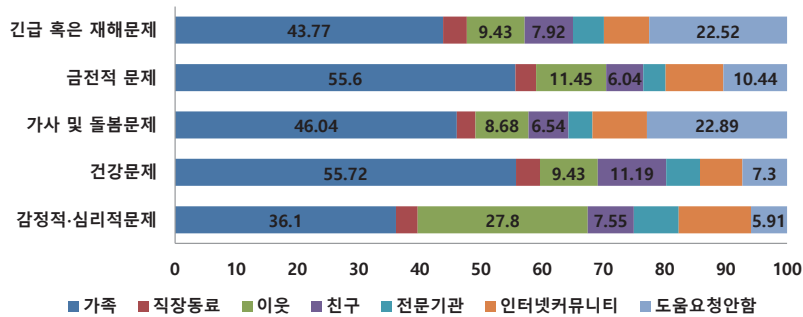
행복감(서울미래세대)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1,000	3.17	0.87	1	5

행복감(한국일반청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795	2.89	0.96	1	5

6. 사회적 지원



<서울미래세대>



<한국일반청년>

감사합니다

2. 변혁의 꿈, 혁신의 꿈

김은지 (서울대 사회학과)

이상규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

1. 들어가며

한 사회에는 개인의 삶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사적인 꿈 뿐 아니라, 집합적 삶에 대한 공적인 꿈 역시 존재한다. 이 때 공적인 꿈으로서 사회적 꿈은 현재 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며 특정 인구 집단을 이러한 꿈을 구현할 수 있는 주체로 호명한다. ‘민족 중흥’, ‘제 2의 건국’,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건설’ 등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했던 사회적 꿈의 대표적인 양상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몽상이나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기념비, 사업, 운동, 캠페인 등 각종 장치들을 통해 구현되며 현실을 변화시켜 나간다.

한국 현대사에서 청년은 사회적 꿈을 구현해내는 핵심적인 주체로 호명되어 왔다. 개화기(신)청년, 60년의 4.19 세대, 80년의 386 세대는 모두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적 꿈의 상징적 담지자들이었다. 특히 80년대 민주화를 가능케 했던 가장 핵심적인 꿈은 대학 사회와 재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변혁’의 꿈이었으며, 이러한 꿈의 담지자들이었던 당시 대학생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청년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의 꿈은 동구 소련의 멸망,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본격화된 고용불안 등과 겹치며 점차 청년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회 변혁’에 대한 전망의 상실은, 대학 사회 내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해석들과 실천의 공급처로 기능했던 공동체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기존에 소위 ‘운동권’으로 불리는 이 꿈의 담지자들이 청년 세대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2000년대 들어 ‘변혁’의 꿈은 그 헤게모니적 지위를 상실하고 일부 관심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한편, 그 공백을 메우면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 변화의 담론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회 혁신’이다. 2000년대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사회적 기업’, ‘사회 혁신’, ‘소셜 이노베이션’ 등의 논의들은 그 주요 주창자 중 한 사람인 박원순이 2011년 서울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새로운 물질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혁신의 담론은 한동안 사회 변화와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청년들을 ‘사회 혁신가’, ‘사회혁신활동가’로 호명하면서 이들에게 변혁과 구분되는 대안적인 사회변화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류연미, 2014; 김은지, 2017).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청년을 주체로 호명하고 있는 이 두 사회적 꿈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두 꿈이 제시하는 현재상과 미래상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권장하는 실천들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러한 꿈은 어떠한 공동체와 실천들 속에서 생산, 재생산, 변형, 강화 되는가? 그리고 각 꿈의 담지자들은 이러한 꿈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의미화 해나가고 있는가? 이 두 꿈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변화 시켜나가고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A대학 단과대 학생회와 서울혁신파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혁신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때 청년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지금도 학내 학생운동을

1) 본 글에 실린 ‘사회혁신’에 관한 내용은 김은지(2017)의 줄고 『‘혁신적 시민성’의 의미형성과 제도화-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를 인용, 수정, 변형한 것임을 밝힌다. 구체적인 인용과 재구성의 사항은 각 절마다 별도 표시하였다.

통해 명맥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사회 변혁의 꿈과, 200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혁신의 꿈이 형성되고 수행되어 나가는 양상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먼저 변혁의 꿈이 출현하고 쇠퇴해 가는 역사,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혁신의 꿈이 새롭게 부상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어서 A대 학생회에서 생산한 자료집, 문건, 자료를 통해 변혁의 의미론을, 그리고 박원순의 저서, 서울혁신센터와 청년허브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혁신의 의미론을 살펴본다. 또한 학생회 학생들과 청년 혁신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²⁾ 자료를 바탕으로 두 꿈이 구체적인 공동체의 다양한 실천들 속에서 어떻게 생산, 강화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혁 운동가와 혁신 활동가들이 각각 사회적 꿈과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서사화 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꿈’의 출현과 쇠퇴

1) 변혁의 꿈, 학생운동권 청년들

사회변혁에 대한 꿈은 근대 이후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가졌던 대표적인 사회적 꿈이었다. 식민 시대를 경험했던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청년운동은 제국주의 침략과 수탈로부터 민족해방과 자주독립 쟁취, 봉건적 질서의 잔재를 극복하고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노력과 관련되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당대의 학생 집단들에게는 사회진보를 이끌어야 할 선도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절대빈곤 시기를 지나, 1970~80년대까지 동원체제를 통한 압축적 경제성장을 겪었다. 국가 주도의 억압적 구조 속에서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던 반면, 대학과 지식인 사회는 통제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던 비교적 자율적인 공간이었다. 여기서 소수의 특권층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청년들이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 변혁의 꿈을 보다 자유롭게 꿀 수 있었던 것이다(최철웅, 2011; 김원, 2011).

특히 학생운동권 세력은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소수였지만, 이론과 의식화로 무장되어 있었

2) 이에 본 연구는 A 대학 단과 학생회 집행부에 소속된 학생 운동가 3명과, 서울혁신센터나 청년허브에 입주해있거나 사업지원을 받는 청년 혁신 활동가 7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글에 실린 인터뷰이들은 모두 가명이며, 이들의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성명 (가명)	나이	성별	활동내역	학력
주영	20대 초	남	2016 청년참 지원사업	대안학교 졸업
성태	20대 후	남	2015 청년참 지원사업	대졸
연주	20대 중	여	2016 청년참, 청년활 지원단체 2017 청년허브 입주단체	대졸
주현	30대 초	여	2016 혁신센터 사업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	대학교 수료
동현	30대 초	남	2014 청년허브 입주단체, 2016년 혁신센터 입주단체	대졸
일환	30대 중	남	2016 혁신센터 입주단체	대졸
용민	30대 초	남	2014, 2016 청년참/청년활 지원 사업 수행	대졸
지혜	20대 중	여	A대 단과대학 학생회	대학교 재학
상민	20대 초	남	A대 단과대학 학생회	대학교 재학
준한	20대 초	남	A대 과/반 대표	대학교 재학

고 급진적 실천성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 대중과 시민사회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청년학생계층의 이해관계나 권리보다는 전체 민중과 노동자계급을 대변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는 ‘전위’내지 ‘동맹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왔다(최철웅, 2011: 27). 70년대까지의 학생운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 중심이었고, 광주항쟁을 겪은 80년대 들어서는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노선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의 연대투쟁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80년대는 노동운동이 사회 변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노학연대’의 이념 아래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학생 운동가들이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학출’의 시대로 불리기도 한다(오하나, 2010). 그런가 하면 80년대는 변혁운동을 주도했던 학생운동권 내 담론 형성이 활발해지면서 사상노선이 분화되고 각종 논쟁들이 촉발된 시점이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의 소위 ‘학원자율화’ 이후 대자보와 유인물, 자체신문, 영화, 이념서적 출판 등이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치기구가 활발히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386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 시기 변혁운동의 주체들은 한국사회의 정치담론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학생운동은 더욱 확장되고 강해져가는 듯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치적·형식적 민주화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91년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의 해체, 93년 문민정부 출범 등 역사적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은 서서히 쇠퇴하고 그 정당성을 잃어갔다. 그것은 한국사회 전체의 맥락에서도 그러했고 학생사회 속에서도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 운동권이 쇠퇴하게 된 배경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과 해석들이 있다.

우선, 역사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변혁운동’의 정당성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급진성을 잃거나 제도권 정치로 편입되었고, 대학에서도 공동체 중심의 저항적 문화보다는 개인주의를 앞세운 새로운 문화적 경향이 강조되었다. 경제성장과 소비문화의 확산에 따라 90년대 청년들은 변혁의 주체라기보다는 ‘신세대’나 ‘X세대’ 등으로 호명되는 소비문화의 주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학생의 ‘탈정치화’ 흐름 속에서,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변혁이 학생 사회에서의 헤게모니를 급격히 상실해 갔다는 것이다(김동춘, 1998).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대학생 청년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그리고 가혹해진 현실적 삶의 조건과 관련짓는다. 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지난 20여 년 간 한국사회의 대학생들은 과거와 같은 지식인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등의 용어가 보여주듯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연애, 취직, 결혼, 출산 등을 미루거나 포기한 채 생존을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흐름은 대학사회까지 스며들어 문과계열의 통폐합, 학문 간 서열화, 대학 간 위계화 등이 가속화됐고, 학생들은 문사철과 같은 기초학문보다 토익, 토플과 자기계발 담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생들은 정치적 저항 대신 경쟁과 효율을 택하고, 사회정의나 공동체, 연대 등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생존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민철기, 2003; 홍명교, 2011; 김홍중, 2009).

학생운동 내부의 한계와 동력 상실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스스로 급진성을 포기하고 제도권 정치와 타협했던 전략의 실패, 전위로서의 자신들을 대중과 구별했던 엘리트주의적 경향, 관료화와 권위주의적 위계질서 속에서 경직화된 문화, 여성을 배제하는 젠더 차별의 문화, 소모적인 노선/분파 갈등 등을 극복하지 못했던 학생회 조직 자체의 문제점 역시 학생운동의 쇠퇴에 한 몫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학생운동은 전통적인 정치

적 변혁 주체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하고 학내정치, 복지나 교육환경개선 등과 같은 학내문제/생활정치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여러 사회운동의 한 ‘부문계열’로 축소된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치적 학생운동이 아닌 학내 생활정치에 천착한 비운동권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변혁 세력으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얻었던 정치적 영향력과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 두 가지 노선 모두 성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생사회 내에서, 그리고 전체 대중들 사이에서도 학생운동은 점차 그 정당성과 영향력을 잃어가게 된 것이다.³⁾

2) 혁신의 꿈, 청년 혁신 활동가들

청년의 탈정치화에 대한 범람하는 진단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표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사회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이었다. 류연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이 일부 시민운동에 국한되어 있던 시점에서, 사회혁신가로서의 청년의 표상은 대학 동아리의 형태로 처음 발견된다. 2006년 출범한 사회적 기업 연구동아리인 ‘넥스터스’를 기점으로 해서, 소셜 벤처 동아리의 급격한 붐이 일어난다. 이후 ‘사회혁신’은 “탈 정치화된 청년의 실천적 기획을 기대하는 시민운동가의 입장,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전문가의 입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대기업의 입장을 마찰없이 공존시킬 수 있는”(류연미, 2014: 33)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각종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사회적으로 대폭 확산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제도적인 힘을 실어주었던 것은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이었다. 박원순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애드보커시(advocacy)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90년대식 시민운동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운동의 위기’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잇다른 정책 실패 속에서 진보 진영에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통치 담론이 부족하다는 ‘통치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 운동체이자 싱크탱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희망제작소를 설립한다. 이후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 만들기, 공유 경제, 시민참여 거버넌스 등의 논의들을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면서, ‘사회혁신’에 관한 실천과 의미론들을 생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이후 서울시의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다른 시민사회의 인적, 담론적, 조직적 네트워크들과 접목되면서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혁신파크의 설립으로 물질화, 정책화 된다(김은지, 2017: 32-35).

서울혁신파크는 청년허브,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마을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중간지원조직이 이전하면서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혁신파크는 중간지원조직인 서울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혁신가/시민들을 위한 공간적 부지를 마련하고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물질적 제도적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2013년 개관한 청년허브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 정책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며 청년을 서울시 일자리 경제활성화의 주체로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류연미, 2014: 50), 청년들에게 사회 혁신활동이라는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전파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허브는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

3) 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쇠락에 대해 연구한 황규환(2015)에 따르면, 민족, 노동, 시민을 선도하는 역할 규범을 유지하고자 했던 전통적인 학생운동세력은 대학생들이나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문제, 환경문제, 기타 당사자운동들이 제기했던 새로운 생활정치 의제들을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한 채, 과거의 행위규범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산출하고자 했다. 반면 생활정치를 앞세운 비운동권 계열은 학생사회 고유의 이해, 요구, 감정들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그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두 노선이 추구했던 실질적 민주화의 목표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워크를 조성하고 사회혁신관련 사업을 지원해주는 커뮤니티/네트워크 사업과, 일자리/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사회적 꿈’의 담론들

그렇다면 변혁의 꿈과 혁신의 꿈은 어떠한 의미론으로 구성되는가? 본 장에서는 각각의 활동과 관련해 학생회와 혁신파크에서 생산된 공식 문건들과 기록물, 단행본 등 각종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때 꿈-담론은 현실의 모습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행위자들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상을 제시하며, 현실과 미래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실천의 방향과 이를 위해 주체가 담지해야 하는 바람직한 윤리/덕목을 제공한다.

1) 변혁의 꿈-담론 : 학생회 사례

변혁의 꿈이 제시하는 현실 세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변혁의 담론이 표상하는 현실은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공간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안락한 세계”(농활,23)⁴⁾라는 자유주의적 이상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관계와 억압의 매커니즘을 폭로한다. 그곳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진 것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자들과 이들에 의해 억압당하는 자들이 서로 분투하는 공간이다. 착취와 억압으로 세상을 표상하는 변혁 담론에서 운동의 영역은,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곳이 된다. 억압적인 가부장제 혹은 신자유주의화와 같이 세상을 움직이는 선형적인 원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원리들이 관통하는 공간은 어떤 곳이든 변혁 운동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전통적 변혁운동은 이러한 모순적이고 억압적인 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으로 농민과 빈민, 노동 문제에 주목했다. 여기에 성적 억압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여성주의, 성소수자 문제 역시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고, 대학의 법인화, 기업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본논리에 맞서 대학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 또한 운동의 주요 아젠다로 부상했다. 핵심은 이러한 운동의 영역들이 제각기 분산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나 억압의 원리에 의해 일관된 방식으로 묶여 있다는 것에 있다.

변혁운동이 지향하는 미래상 역시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 수립된다. 학생회에서 발간한 한 자료집에서도 밝히고 있듯, “발 딛고 있는 사회적 토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은 앞으로 이 학생사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와 연결” (확간수-하, 15)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혁운동의 미래상은 억압과 폭력을 대립항으로 해서만 성립한다.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농활, 14)”, “억압에 치여 다치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정책, 5)”, “이전까지 우리를 짓누르던 소외를 떨쳐내고 진정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체제 종속으로부터의 탈피”, “안락한 기만의 세계를 박차고 만나는 사회”(농활, 7)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의 꿈은 주로 “~로부터”라는 문장을 통

4) A대 학생회에서 생산된 문건들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2016년 새터 자료집은 이하 ‘새터’로 2016년 농활 자료집은 이하 ‘농활’로 2017년 선본의 정책자료집은 ‘정책’으로, 상반기/하반기 확대간부수련회 자료집은 이하 ‘확간수-상’과 ‘확간수-하’로, 2017년 상반기/하반기 단학대회 자료집은 ‘단학-상’과 ‘단학-하’로 표기된다.

해 발화되고 있다. 요컨대, 이들의 꿈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온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해방”이다.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사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 되어 있는 사회 (단학-하, 109) 등의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때, ‘통제’라는 표현은 주목을 요한다. 통제는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자연적 매커니즘에 인위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마치 자연 법칙처럼 가멸차게 확산되어가는 억압과 착취의 매커니즘에 주권자의 의지로 제동을 거는 것, 이것이 곧 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이미지인 것이다.

억압과 착취가 이들의 현실인식의 중추를 이루고, 이를 넘어서는 해방이 미래상의 핵심을 이룬다면, 현실과 미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이들에게 주어진 운동의 방법론은 곧 ‘적대’와 ‘연대’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세계는 가진 자에 맞서야 하는 전쟁터이고, 운동은 전쟁이자 싸움이다. 변혁 운동이 생산하는 팜플렛, 대자보는 “승리”, “투쟁”, “쟁취”, “패배”, “전선”, “정세”와 같이, 전쟁이나 싸움을 연상시키는, 단어들로 점철되어 있다. ‘적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동일한 적에 맞서 다양한 세력을 규합해내는 ‘연대’이다. 이 때 연대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산발적 싸움을 “같은 사회적 맥락”하에 위치 시킬 수 있는 해석 능력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적 능력을 요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벌여야 하는 주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 변혁의 꿈의 담지자는 자율적 주체여야 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지하는 것은 변혁의 주체에게 있어 핵심적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역량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과 연결되지 않는다. 개인의 주체적 삶에 대한 강조는 공동체에 대한 지향과 불가분으로 얽혀 있다.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혼자서 개인적 영역의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단학-하, 26)” 그것은, 개인이 언제나 “해당 공동체의 사회적 맥락”하에 위치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일로만 여겨왔던 것을” “공동체”의 일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둘째, 그렇기에 이들은 무엇보다 정치적인 존재여야 한다. “모든 이슈는 정치적이다. 정치와 일상을 구분하지 말고, 정치적인 논의라고 해서 피하려 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내자(단학-하, 50)” 정치적 존재로서 변혁의 주체는 단순히 학우들의 의견을 수합, 집계, 대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내 공동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하는 자이다. 정치적 존재는 “단순히 상호존댓말을 쓰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갖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오히려 학우들의 의견을 기계적으로 수합하는 것, 혹은 “학우들이 의제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모든 선택지를 늘어뜨려 놓고 학우 대중이 이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학우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를 박탈하면서 이들을 그저 “개개인으로 놔두는” “무책임한” 행위로 의미화 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집합체”를 넘어서는 “뚜렷한 방향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한발 앞장서서 사회적 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다. (확간수-하, 22) 이 때 변혁의 담론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위는 “엘리트주의적인 계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지만, 동시에 “내용적 정당성”에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서는 무게감을 부여한다.

정치적 존재로서 변혁의 주체는 의견의 공론화 과정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존재이기도 하다(확간수-하, 34). 단순히 “자신과 맞지 않다, 불편하다”고 외면하거나, 차이에 대한 존중이라는 명목 하에 의견의 대립을 회피하기 보다는, “가치관과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불편함”을 견디면서 학생들 간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은 정치적 주체로 존재하기 위한 핵심

적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말하는 “총의”는 단순한 의견의 수합과 구분된다. 의견의 수합이 각각의 부분들의 의견이 합산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총의란 곧 각자의 세계관이 맞부딪히는 과정에서 전에 없는 무언가를 산출하는 정치적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치적 존재는 기꺼이 “치우칠 줄” 아는 존재들이다. 권력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성찰은 이들에게 특수한 균형 감각을 요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관통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약자를 향해 “치우”칠 수 있는 감각이다. 이러한 권력관계에 대한 성찰 없는 등가화는 그 자체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함정일 수 있다. “여성혐오와 남성혐오라는 말이 동치될 수 없다. 이 두 용어를 동치에 놓는다는 것은 젠더 권력관계를 부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때 치우침은 단순히 “합리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다르다. (농활, 5). 그것은 권력관계와 적대가 관통하는 세상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항상 우리는 편을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이 방향을 향해 치우쳐왔던 멋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 사회는 변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농활, 5).

셋째, 정치적 존재는 무엇보다 고민하는 자이다. 학술회에서 생산한 문건에는 “고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때 “고민”은 특수한 의미론을 가진다. 첫째, 그것은 구조적인 억압과 착취의 문제를 끊임없이 자신의 일상과 연계지을 수 있는 특수한 사고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 사회를 관통하는 “근본적 작동원리”로부터 우리의 삶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는 것, “현 체제가 담지한 구조적 모순과 권력관계” (단학-하, 26)가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행위 생활공간에서 언제든 재생산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상상력은 많은 경우 사회과학적 지식에 대한 습득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동체 속에서 발화되고 공유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눔의 과정 속에서만 고민은 주체를 변화시키는 실천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2) 혁신의 꿈-담론 : 희망제작소 · 서울혁신파크의 사례⁵⁾

그렇다면 사회혁신은 어떠한 의미론을 가지는가? 본 글에서는 시민운동활동가로서 사회혁신에 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서울 시정으로 제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던 박원순의 저서들과 희망제작소, 서울혁신파크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회 혁신의 방법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혁신’의 꿈이 제시하는 현실은 어떠한 공간인가? 변혁의 꿈이 제시하는 세계가 착취와 억압으로 얼룩진 공간이라면, 혁신 담론이 제공하는 현실 세계는 무엇보다 “세대갈등과 미래 불안, 기후변화 생태위기 등” 전대미문의 “초대형 난제들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다. 억압이 자리했던 공간에 난제들이 놓인다. 착취나 억압이라는 원리에 의해 일관된 방식으로 묶일 수 있었던 변혁 운동의 영역들과 달리, 혁신 활동의 영역은 그 영역에 있어 뚜렷한 구심점을 갖지 않으며 다양한 주제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된다. 좋은 먹거리, 고용불안, 불평등, 세대갈등, 기후변화, 생태 위기⁶⁾, 교육, 빈곤, 노인 문제⁷⁾ 등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문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곧 ‘사회혁신’의 대상이 된다.

5) 본 장은 김은지(2017) 줄고 『‘혁신적 시민성’의 의미형성과 제도화-‘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의 35-45 페이지를 인용, 재구성,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6)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이란」,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01-vision/parkafter>>.

7) 정상훈, 「뉴스레터발간사」,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2016.01.26.

<http://m.blog.naver.com/s_innopark/220609539709>.

그렇다면, ‘혁신’의 꿈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미래란 어떠한 모습인가? 무엇보다 혁신의 꿈은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 즉, “공익”적인 사회를 꿈꾼다. ‘혁신’의 담론은 만나지 못하던 이해와 이해 이해와 이해(利害), 필요와 자산, 인간과 인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줌으로써,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해결책을 주된 ‘혁신’의 사례로 소개한다. 아침에 운동하는 이들과 말상대가 필요한 노인들을 연결해주는 것, 쓰지 않는 주차장의 주인과 주차 공간이 필요한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것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혁신’은 “모두에게 헌신하고 기여하는”(박원순, 2010: 105)해법을 이상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로 설정하면서, 그 누구의 이해도 위협하지 않으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회를 바란직한 미래상으로 설정한다.

변혁의 담론에서 현실과 미래를 좁힐 수 있는 주된 실천이 적대와 연대로 요약된다면, 난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혁신’의 담론이 제시하는 실천은 크게 생산과 협력이다. ‘사회혁신’의 핵심적 방법론은 추상적인 이념이나 거대담론에 입각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실용적인 대안을 ‘생산’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총체적 변혁에 대한 전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난 세기에 미래를 약속했던 수많은 ‘완성된 개혁 청사진’은 사실 처음부터 너무 불완전한 것임이 밝혀”진 오늘, 필요한 것은 “삶의 미시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전투를”벌이며, “한걸음 한걸음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자세이다(박원순, 2007: 60). 이에 ‘사회혁신’에서 사회변화는 “빈곤 노인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작동되는 난로를 만들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연을 하고, 신진작가들을 위한 전시를 여는”⁸⁾ 것과 같은 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의 행위와 등치 된다. 요컨대 혁신의 꿈에서 사회 변화라는 정치적 행위는 인구에게 적절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인구의 부와 생명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제적 행위와 뒤섞이게 된다.

일상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생산이 운동의 핵심적인 방법론이 될 때, 기존의 시민사회와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적대적인 경계선 역시 허물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정부, 기업 혹은 시민들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담지자로서 혁신 활동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첫째, 변혁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혁신의 주체 역시 스스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영위해나가는 자율적 존재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자율성의 구체적인 의미론에 있어서는 변혁의 담론과 몇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무엇보다, 혁신의 담론에서는 변혁의 담론에 비해 개인의 개별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가령, 희망제작소에서 제시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다양한 자기 알기, 자기-듣기, 자기-말하기의 테크닉들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구분되는 나만의 개별성과 차이성을 발견하는데 주목한다. 훌륭한 시민은 무엇보다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박원순, 2010: 25).

둘째, 변혁의 주체가 정치적 존재가 되기를 요구한다면, 혁신의 주체는 무엇보다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변혁의 담론에서 문제 해결의 초점이 개인의 탐욕이나 이기심이 아닌 구조적인 모순에 놓인다면, 혁신의 담론은 탐욕과 이기심을 사회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문제화한다. 혁신의 담론은 끊임없이 “물질” 아닌 정신 “탐욕” 아닌 나눔, “독식” 아닌 “순환의 가치”와 같이 비도덕과 도덕의 대립으로 세상을 양분하면서, 도덕적 순수함을 현 질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대안으로 표상한다. 변혁의 담론이 의견의 대립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

8)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이란」, 『서울혁신파크』.
<<http://innovationpark.kr/01-vision/parkafter>>.

함과 투쟁의 필연성을 직시하고 이를 기꺼이 감수하는 주체를 요구한다면, 혁신의 주체에게 있어 방점은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찍힌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것, 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자세”⁹⁾야말로 혁신적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이때 혁신의 담론은 변혁의 담론과는 사뭇 다른 균형 감각을 학습 시킨다. ‘변혁’의 담론이 권력관계의 불평등한 성찰 속에서 치우침을 하나의 미덕으로 제시한다면, ‘혁신’의 담론은 사회의 여러 세력들을 수평적 “이해관계자”로 표상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 조정하면서 이들 간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존재가 될 것을 주문한다.¹⁰⁾

셋째, 혁신의 주체는 창의적인 존재여야 한다. 변혁의 주체가 ‘고민’한다면 혁신의 주체는 ‘고안’한다. 변혁의 주체가 일상 이면을 관통하는 구조의 생산과 재생산의 동학을 들추어낸다면, 혁신의 주체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다.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것, “내 주위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발칙한 상상”의 시작이 된다(박원순, 2010a: 47).¹¹⁾

4. ‘사회적 꿈’의 공동체들

지양해야 할 현실과 추구해야 할 이상 그리고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 꿈의 의미론은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물질화 될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 운동가와 혁신 활동가 청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지향을 실현 시켜 나가는데 있어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운동가/활동가들은 꿈-담론이 제시하는 세계관을 습득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체득하며,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나간다. 본 절에서는 학생회 공동체와 혁신 단체 속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의례와 실천들을 살펴해보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변혁이나 혁신의 꿈이 생산, 강화, 재생산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글쓰기 : 대자보 쓰기 vs 기획서 쓰기

사람들이랑 같이 자보 같은 것 쓰거나 토론회 같은 것을 준비하거나 그런 얘기 하면서 사상적으로 급진적이 되었고 더 벼려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상민)

그것이 변혁이 되었든, 혁신이 되었든, 사회적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은 끊임없이 특정한 자료를 모으고 생산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가령, 학생회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교

9)황현숙,「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희망제작소』,2016.04.11.

<www.makehope.org/후기-끝이-아니라-시작입니다/>

10)송하진,「대학로를 혁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희망제작소』,2012.08.30.

<www.makehope.org/작성중공공서비스도-서비스디자인으로/>

11) 물론 이 차이는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아이디어의 생산 역시 때로는 구조적 상상력을 요청하지만, 이것이 활동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자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이디어의 ‘고안’은 사회과학적 지식의 체계적인 습득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테크닉들을 필요로 한다. 가령, 아이디어의 고안은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일관된 원리로 꿰어내는 총체화된 지식이나 논리를 습득하는 것이 아닌 같은 층위에 있는 이질적인 단편들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옥상과 벌꿀, 지구와 계란, 전화와 간호사 등 서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이질적인 것들을 새롭게 연결지어보는 훈련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희성·이진아,「외쳐라, 인터라뱅」,『희망제작소』,2009.11.18.

<<http://www.makehope.org/소셜디자인러/>>

내외 관련 이슈들에 대한 자보, 성명서, 카드 뉴스를 작성한다. 마찬가지로 혁신 활동가들 역시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한 각종 기획서, 홍보물, 포스터, 자료집 등을 생산해낸다. 글을 쓰기 위해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를 일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로 이들을 특정한 마음과 신체를 담지한 주체로 조형해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글쓰기는 이들을 어떠한 주체로 만들어내는가? 본 chapter에서는 이를 위해 변혁운동의 ‘대자보쓰기’와 혁신활동의 ‘기획서 쓰기’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① 변혁운동 : 대자보 쓰기

먼저 대자보는 중국 인민이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붙이는 대형의 게시문에서 유래한 단어로,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내붙이거나 걸어 두는 큰 글씨로 쓴 글”¹²⁾을 말한다. 보통 A 학생회에서 내거는 대자보는 크게 규탄하기, 해석하기, 요구하기라는 세 가지 정도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먼저 대자보의 첫 문단에서는 관련된 이슈에 관한 사실 관계가 적시된다. 보통 이 경우, 부정부패로 얼룩진 총장을 선임한 이사회,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 등 가진 자들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행한 행태들이 나열, 비판 된다. 이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주로 사안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탄압”하거나 이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들로 묘사된다. 개인은 이러한 자보쓰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을 가시화 하고, 이들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법을 배운다(규탄하기). 이러한 개별 사안은 이후 보다 추상수준이 높은 구조적인 언어들로 치환, 재해석 된다.(해석하기) 비정규직 교사의 문제 혹은 교수의 인권침해와 같이 대자보에서 다루어지는 특정한 사안은 개인의 악덕함이나, 국지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의한 노동유연화’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를 요구하려면 그가 처한 부당한 노동차별과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먼저 봐야 한다”) 혹은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권력관계’의 문제로 해석된다. (“폭력은 단지 성품이 나쁜 개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스스로가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행할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거나, 인권침해인지도 자각할 수 없게 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고한 권력 관계의 발현이다”) 이러한 해석하기의 훈련을 통해 이들은 개별적인 사안 이면을 관통하고 있는 구조적 매커니즘을 간파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은 특정 사안을 억압과 착취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적대’의 감각과 상이한 시공간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사건들을 ‘같은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연대’의 감각을 체득하게 된다. 환경 파괴와 노동문제를, 2014년 밀양에서 일어난 투쟁은 2016년 학교 본부가 A 학생회에서 자행한 폭력과 연결시킬 수 있는 상상력은 이렇게 학습되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대학생인 우리의 문제이지만, 대학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근본적 작동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괴적 원칙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이 연대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농활, 29)”

자보의 마지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된다(요구하기). 요구하기는 권력관계에 열위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가 권력을 지닌 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평등의 기대치를 계속해서 발화하면서, 꿈꾸는 사회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선언한다.

12)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9281900>

② 혁신운동 : 기획서 쓰기¹³⁾

그렇다면 혁신 활동가들에게 대표적인 글쓰기의 방식은 무엇일까? 상대적으로 생업의 부서 자유로운 학내 대학생들의 운동과 달리, 혁신 활동가들에게 사회 변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적 활동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활동은 그 자체로 수입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일이며 많은 경우 이는 정부나 대기업 혹은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운동의 프로젝트화는 2000년 대 이후 시민운동이 제도화 되면서 정부나 여타 기업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 상황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 변화를 꾀해야 하는 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자료 생산의 방식은 곧 기획서 쓰기이다. (김은지, 2017: 82-85) 대자보 쓰기와 마찬가지로 기획서 쓰기도 그 나름의 독특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진 주체를 만들어낸다. 대자보 쓰기가 규탄하기, 해석하기, 그리고 요구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기획서 쓰기는 헤아리기, 계획하기, 약속하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대자보 쓰기가 권력에 대적해 권리와 의무의 언어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기획서는 권력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성명서가 권력을 규탄한다면 기획서는 권력을 헤아린다.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결정권자가 제시하는 평가의 기준과 비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스스로의 목적과 활동방향을 서사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가령, 혁신센터 입주단체들의 경우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공유’‘협력’‘개방’‘소통’과 같은 혁신파크가 추구하는 비전과 요구상에 맞추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서사화 해야 한다. 동시에 기획서는 제한된 기한 내에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직해내고, 자원 동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 능력을 요구한다. (계획하기) 기획자는 과업을 몇 가지 단계로 쪼개어 나누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이에 걸맞은 실행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기획서를 쓰는 프로젝트형 주체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고, 이를 구체적인 콘텐츠의 형태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프로젝트는 권력에 요구하기보다는 약속하게 만든다.(약속하기) 프로젝트에게 있어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은 활동가 자신이 아닌 자원을 배분하는 자에게 있다. 프로젝트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분절된 시간 속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는 순간 순간의 과업이다. (김은지, 2017: 84) 활동이 지니는 고유한 시간의 리듬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과 단기간 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딜레마이기도 하다. 가령 혁신파크에서 공유주택 사업을 담당하기도 했던 주현은 “각 각 그룹들이 한번 해보겠더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인데 반해, 길지 않은 사업기간 동안 빨리 빨리 “결과물”을 뽑아 내야하는 압박 사이에 느꼈던 괴리감을 토로한다.

이렇듯, 기획서는 대자보쓰기와 다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진 주체를 형성해낸다. 대자보가 적대와 연대의 마음가짐·몸가짐을 체화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권력과 대등한 존재로 상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기획서는 권력의 요구 사항을 면밀하게 헤아리고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다.

2) 조직과 의례 문화적 특징들

13) 본 장은 김은지(2017) 참고 『‘혁신적 시민성’의 의미형성과 제도화-‘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의 82-85 페이지를 인용, 재구성,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① 변혁운동

학생회를 특징짓는 것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춘 조직 체계이다. 각 과/반이 학생 자치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단과대 집행부와 과/반 대표들이 모이는 단운위는 단과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상위 기구로 기능한다. 단과대 집행부의 대표들은 학교 전체 차원의 총운영원회를 구성하며 그 상위기구로는 전학대회와 학생총회가 있다. 이렇듯 과/반이 학생자치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단과대가 과/반 자치회를 포괄하며, 이러한 단과대가 전체 총 학생 위원회에 포괄되는 피라미드 형 조직 구조는 학생 운동가들이 학생 사회를 표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¹⁴⁾ 그것은 특수한 ‘아래’와 ‘위’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한다. 일반 학생 대중들은 “기층”을 이루며 결정사항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전달 된다.

단과대 집행부만 놓고 보자면, 이들 내부에서도 각각의 팀을 나누어 활동하며 1주일에 한번 정도 집행부 회의를 진행한다. 사례연구의 대상이 된 A 대학 단과대 학생부의 경우 인권 사회팀, 교육 자치팀, 문화 생활팀의 총 3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각 10명 정도씩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집행부 회의에서는 매주 시작 전 간단하게 시사 이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지고 각각의 팀에서 활동 사안들을 보고, 논의한다. 회의들을 통해 학내 공동체의 다양한 안건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학내 공동체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체로 인지하게 된다.

각종 서적들을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나 새터·농활 등에 마련된 ‘교양’ 코너 역시 비판적 지식을 학습하고, ‘변혁적 전망’을 공유하고, 대항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치적 학습의 장치이다. 그러나 80년대 학생 운동이 무엇보다 이론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중시했다면, 오늘날 학생회에서 이러한 이론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듯 보인다. 가령 A 학생회의 경우 그 때 그때 현안에 맞추어 대자보나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 이론 서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세미나를 대체한 듯 보이며, 세미나는 학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학내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맑스주의, 여성주의 학회들에 관심 있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운동 노선에 따른 학생사회 내부의 첨예한 갈등이나 논쟁 역시 상대적으로 약화 되었다. 과거 학생운동이 NL/PD/CA 등 운동권 내부 노선 간의 첨예한 갈등을 경험했다면 오늘날 학생운동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전선은 운동권 내부 보다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대 학생사회에서 세력화를 시작한 비운동권과 운동권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새터, 농활 등의 중요한 내부 행사들은 몇 가지 문화적 의례/코드들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례로는 민중의례/민중가요 제창, 내규 짜기 등이 있다. A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국민의례’를 대신하거나 이와 병행해, 민주열사나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의 의미를 담은 ‘민중의례’가 행해진다. 의례에 이어서 학생들은 팔뚝질을 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 내규 짜기 역시 개인이 특정한 정치적 감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이다. 내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맺음을 위하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과 폭력을 지양하고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약’”(새터, 26)“으로, 각종 행사의 자료집 앞부분에는 선후배 간의 평등한 관계, 술자리 강권 문화 지양, 외모지상주의 지양 등 일상생활에서 삼가야 할 후배, 여성,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14) 그러나 과/반 대표들이 멤버로 참여할 수 있는 전학대회나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학생총회가 대표들만 모인 총운위보다 상위기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피라미드 형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 발언이나 행위들이 적혀 있다. 새터나 농활 등에서는 기존의 학생회에서 제정된 내규들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직접 이를 제정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감수성은 이러한 문화를 이를 공유하는 이들끼리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문화적 코드가 된다. 이 밖에도 “학우, 기층 대중, 조직화, 총화한다, 총화단결, 규탄한다” (지혜, 상민) 등등 ‘운동권 사투리’로 불리는 특유의 용어, 민중가요나 마임 역시 다른 이들과 구분되는 이들만의 문화적 코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양이나 옷차림만으로도 구분될 수 있었던 과거의 학생 운동가들과는 달리, 오늘날 외양이나 말투만으로 이들을 구분하기는 어려워졌다. 또한 과거운동권을 특징 지었던 금욕적, 권위적인 문화적 코드 역시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이들 역시 가끔은 “비싼 것도” 먹고, “강권은 지양”하며, 특정 옷차림을 “부르주아”적이라 지적하거나, 농활에서 밤샘 토론을 시키는 등의 운동권 문화는 “권위주의”라는 이름으로 배척당한다(지혜, 상민). 이렇듯 이들의 문화 역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생회의 주요 간부나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강한 헌신과 애정을 요하는 일이다. 인터뷰이들은 학생회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나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기 희생을 감내하고 헌신하는” 사람(8) “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하며, 이러한 학생들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학생 사회 위기의 핵심을 이룬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혁신활동

인터뷰를 진행한 대부분의 사회혁신 단체들은 학생회와 같이 명확한 체계를 가진 조직이 아닌 그 때 그 때 프로젝트별로 유연하게 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꾸려나간다. 이러한 회의, 모임의 성격 역시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단체들의 경우 사회를 바라보는 언어를 학습하고 그 톤을 조정해나가는 정치적 훈련이 아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아이디어 회의가 활동의 주를 이룬다. 가령 성태가 몸 담고 있는 단체는, 자신만의 색깔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에 조직의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런 단체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특이한”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있다. 그에게 있어 “병신 같은” 행동을 종종하는 ‘변희재’와 나이를 먹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나 콘텐츠를 흡수할 줄 아는 ‘이어령’은 참신한 매력을 준다는 점에서 동시에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묶인다. 그에게 있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자신은 “주제가 다를 뿐”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나가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람들로 표상된다. 요컨대 그가 표상하는 공공성 혹은 사회적인 것의 의미론은 진보와 보수 혹은 권력과 비 권력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보다 진지하게 정치적인 언어들을 학습하고 사회적인 가치관을 고민하는데 무게를 두는 단체 혹은 활동가들도 존재한다. 가령 용민은,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를 “사업 하나, 아이템의 하나”로 보는 것을 비판하면서, ‘사회혁신’이 “운동에 대한 지향”을 가지는 것, 혹은 사회변화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한도 비슷한 의견을 드러낸다. 그에게 있어 사회혁신이란 “상품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맞부딪히고..어떤 그런 흐름을 크게 바꾸어나가”려는 기획의 일부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그들에게 있어, 세미나를 통한 이론의 학습은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계관을 정립하고, 사상적으로 버려지면서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자리한다. 혁신 활동가들의 경우 지식순환협동조합, 수유너머, 인디고 서원과 같은 대학이 아닌 다른 대안 공간에서 정치적인 언어를 습득하였다. 대학은 점점 정치적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해나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식

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난 시민사회의 대안적 공간들이 이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언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단체들의 지향점은 매우 다기하지만, 공통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있다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이다. 면담해 임해 준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조직을 위한 개인의 일방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느슨하고 덜 피로한” 활동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하나하나 원오브템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고자하는 욕구”를 존중해주는 활동(주현),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목표는 일치하는”(용민) 공동체,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고” 빠지거나 오지 않아도 “미안해하거나 눈치주지 않는” 분위기 등이 이들이 지향하는 공동체 문화의 핵심을 이룬다.

3) 대중행동 : 집회 vs 축제

(1) 변혁운동 : 집회

투쟁이나 집회/연대 활동 등의 대중 행동은 변혁의 꿈을 체화, 강화하는 핵심적인 실천이다. “토론회나 자보작성”을 통해 고민하던 것들은 이러한 “세상에 우리의 의지와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 “세상과 대화”하는 “행동”으로 실현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학생회 조직은 다양한 인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학내 문제 뿐 아니라 노동, 여성, 환경 등 각종 사회현안에 즉각 연대할 수 있는 실천의 레퍼토리와 프로토콜을 학습해 왔다. 이에 이들은 시시각각으로 터지는 사회 현안에 대해 성명서 작성, 집회 참가 등을 즉각적으로 기획해 낸다. 집회에서는 발언, 구호 외치기, 행진 등의 전형적인 실천의 레퍼토리들이 반복된다. 집회나 농성장에는 각 소속 단체들이 깃발을 들고 참여해, 몇몇 학생들이 발언을 진행하고 발언 중간 중간 ‘요구하라’ ‘시정하라’ 등 권력을 규탄하고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다. 발언과 구호가 끝나면, 규탄과 요구의 대상이 되는 권력기관까지의 거리 행진, 성명서 낭독, 의견서 전달, 항의방문, 점거 농성 등의 실천이 뒤따른다. 가령, A 학생회는 다른 단대와 함께 대학 본부의 수익화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100일 넘는 기간 동안 본부 점거 농성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투쟁과 점거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폭력적인 진압이나 징계 혹은 학생들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나 회피 등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듯 “언론에서 소개되지 않는 일상적인 폭력”은 “과거의 인식으로는 결딜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게 하고” “빼앗긴 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창출하는” 기회로 작용한다(농활,23) 이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 되었다는 믿음 혹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수평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허구적인지를 체감하면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세미나, 자료 작성 등이 개별 사안들을 관통하는 구조적 동일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적대와 연대의 기본적 세계관을 형성한다면, 집회/농성 현장을 통해 다른 투쟁 주체를 만나고, 국가, 경찰, 자본 등의 억압적인 힘과 대면하는 경험은 이러한 연대와 적대의 감각을 신체에 각인 시킨다.

(2) 혁신운동 : 축제

공동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적대와 연대의 감수성을 체화하게 된 학생 운동가들과 달리, 대

부분의 혁신 활동가들은 권력과 조직적으로 맞서는 방법 혹은 집회를 통해 다른 운동과 연대하는 방법을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변혁 운동이 얼핏 보기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사안들을 동일한 구조적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나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농활, 16) 볼 수 있는 사고능력과 감수성을 제공하고, 이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대의 실천들로 뒷받침한다면 혁신 운동에는 이러한 연대의 감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공식적 언어가 부재하거나, 이를 구체적 실천으로 뒷받침할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집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 스스로 나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각자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운동이나 정책을 바꾸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큰 그림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용민)

이들은 집회나 시위 등은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천으로 의미화하거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 주목 할만한 것은 집회나 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이든 그렇지 않은 이들이든 이들에게 기존의 집회나 투쟁은 감각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가령 채식주의자로서, 채식인들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거나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활동을 주로 해온 주영은 “끌어오르는 분노나 울분”을 표출하는 방식의 운동, “싸우는” 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몇몇 집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스스로와는 맞지 않는 실천의 방식이라고 느낀다. 그에게는 예전에 속했던 공동체 내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혼자 외롭게 싸워본 경험이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대중 활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인터뷰에 응한 혁신활동가들은 기존의 집회나 투쟁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유연하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 문화를 만드는 것에 방점을 둔다. 이들에게 집회 등의 대중행동은 적에 맞서 싸워야 할 투쟁의 장이기보다는 대다수를 끌어들이야 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해된다. 재미야 말로 이들에게 있어 사회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이다. 시위 대신 크루즈 파티를 연다거나, 거대인형을 만들어 이목을 끈다거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연극을 만드는 등의 행동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소수의 운동가가 아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의 방식으로 표상된다. 가령 일환은 “시위 문화 개선”을 속한 단체의 주요한 모토로 삼으면서, 거대인형을 제작해 시위 때마다 들고 나간다. “싸워야 하는 상대는 숨어 있는” 시대에, 적을 가시화 해 외치고 투쟁하는 방식 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위 문화를 좀 바꿔보는 것. 시위문화가 그게 시위문화가 보면 계속 투쟁하는 문화잖아요. 그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잘 안먹히잖아요. 왜냐하면 싸워야 하는 상대는 숨어있고 독재처럼 나쁜놈 이렇게 되는데 아닌데 뭐 신자유주의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사실 무슨 애긴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런식으로 시위를 하고 운동을 할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좀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게 아니라 끌어올 수 있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좀 더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큰 이미지로서 거대 인형을 시작했지만 그 생각도 있었던 거죠. 시위문화를 거대인형과 함께 바꿔나가고 싶다. 문화 예술적으로 이 시위 속에서 이렇게 좀 더 분위기를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또 이미지도 한번에 딱 나오게 하고. 이런 다양

성을 일단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5. '사회적 꿈'의 서사들

1) 사회적 상상 : '난입'과 '개척'

변혁 운동을 하는 청년들과 혁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사회를 상상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이들은 사회를 어떠한 공간으로 표상하며,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가? 본 절은 이를 사회적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착해보고자 한다. 찰스 테일러에 따르면 사회적 상상이란 “자신의 사회적 실존에 대해 상상하는 방식, 사람들이 다른 이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 사이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 통상 충족되곤 하는 기대들, 그리고 그러한 기대들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규범적 개념들과 이미지들”로 정의된다. (테일러, 2010 : 43) 이것은 이론가들의 정합적인 구축물인 이데올로기나 이론과는 달리 명확히 정교화 되고 정합적인 논리에 의해 일관적으로 짜여지지 않았지만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 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상상, 이미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변혁 운동가들과 혁신 활동가들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상상은 어떻게 다른가?

변혁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 내부의 다기함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일관된 사회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조직적으로 생산되는 각종 자료집이나 교양 세미나 등의 과정은 특정한 사회적 상상을 공유하도록 하며, 방향성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생회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혁신활동가들의 경우 사회적 상상에서 활동 단체들마다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혁신활동이 가지는 한계이자 가능성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이는 상이한 세계상을 가진 이들을 사회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결합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기능한 동시에, 이들이 일관된 구심점을 가지고 공통된 행동으로 결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어떤 이들에게 정치적 언어는 완전히 낯선 것인 반면, 어떤 이들은 변혁 운동을 하는 학생들과 유사하게 ‘착취’나 ‘독점적 소유구조’ 등의 언어를 사용해 사회를 문제화 한다.

무엇보다 변혁 운동가들의 사회적 상상을 특징짓는 것은 전체 사회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일관된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나 억압적인 착취구조와 같은 개념들은 다양한 사회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별적인 사안들을 일관된 틀에 의해 연결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듯 사회가 일관된 원리가 관통하고 있는 짜여진 공간으로 표상될 때 생겨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는 감각’, 억압적 권력관계의 외부는 없다는 감각이다. 이러한 감각은 자료집과 인터뷰이들의 서사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들에게 공동체 내부의 문화 개선을 통해 변화를 이룩하려는 흐름은 종종 “개별적”인 해결책 “진통제” 혹은 “소꿉놀이” 등으로 평가된다. “공동체 내에서 아무리 바람직한 합의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합의들은 더 큰 사회적 구조와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억압적 구조에 대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변혁의 주체들에게 있어 사회변화는 벗어날 수 없는 구조와 “맞부딪히면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의 방식은 가진 자들만이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는 무대에 ‘난입’해 자신들의 몫을, 절대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무대에 난입해 직접적으로 적을 타격하지 않는 행위들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 하 시장 논리에 매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짚지 못하는 운동“, 혹은 일시적 “진통제”(상민)에 그치면서 “개인의 무기력감”을 강화 할 뿐이다(단학하, 27)

변혁운동가들에게 시민 사회 역시 사회의 여타 공간과 마찬가지로 적대가 가로지르고 있는 영역으로 표상된다면, 혁신 활동가들에게 시민사회는 억압적인 체계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의 영토로 그려진다.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섹터’라는 개념은 이러한 표상을 강화시킨다. 이 때 시민사회는 정부를 일컫는 제 1섹터, 기업을 의미하는 제 2섹터와도 구분되는 독립적인 제 3의 ‘섹터’로 그려진다. 독자적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한 동시에 이해관계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과도 달리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연대가 가능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상상은 지역 공동체 운동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용민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혹은 마을 만들기 역시 이러한 활동을 어렵게 하는 정치경제학적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는 “1섹터, 2섹터”와 “제 3섹터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기존의 운동은 언제나 “돈과 기존에 있던 체제”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만 상상해왔지 “그와 다른 것들이 뭐가 없을까” “대안”적인 무엇이 없을까에 대한 상상력은 약했다는 것이다. 가령 주택난이 문제라면, 정부나 기업에 주거권을 요구하는 것 만큼이나, 시민들끼리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급자족적인 공동체를 만들 줄 아는 상상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들은 대안적인 공동체를 확산시키고 이것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체계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 믿는다.

여기서 우리는 변혁 운동가들과 혁신 활동가들 사이에 서로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변혁운동가들이 학습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를 간파하고, 이에 따라 사회를 일관된 원리에 따라 조직하는 구조적 상상력이다. 이는 벗어날 수 없음의 감각, 즉 난입과 투쟁 없이 외부는 도래하지 않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상상력이다. 그에 비해 혁신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적대와 억압 없는 별도의 공간을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개척의 상상력은 기존의 무대에 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진 자들과의 적대를 우회해 대안의 영토를 고안해내는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2) 운동의 방향 : 생활의 ‘정치’화 - 정치의 ‘생활’화

90년대 이후 사회운동에서는 생활 정치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확산되어 왔다. 학생 운동 역시 90년대 이후 변화한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내 문제 특히 생활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확대 해 왔다. 생활과 정치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변혁 운동가들과 혁신 활동가들 모두 공통적으로 표하는 관심사이다. 그러나 생활과 정치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실천의 양상에 있어서 이 둘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변혁 운동가들의 경우 생활과 정치의 접점을 찾는 데 주목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핵심은 생활을 정치화 하는 것에 놓인다. 가령, A 학생회의 경우 올해 ‘Humans of 00대’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것은 평소 “주변에서 쉽게 보지만 노동(자)로 자각하지 못했던 분에게 인터뷰를 통해 다가가”, “노동이란 무엇이며, 나 또한 노동자로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의 경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억압을 드러내보이고, 일상의 언어를 보다 구조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번역하고자 시도한

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인터뷰 내용은 이들의 일상적인 노동 경험을 "보이지 않는 착취"와 교육비용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구조"와 연결 짓는다. 그들은 학생의 대표로서 시설 관리나 공간 사용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대학 본부에 요구하고 제기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민원 수리" 혹은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그치는 행정 사업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생활의 요구를 언제나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와 접목 시키고자 한다. 요컨대 변혁운동가들에게 있어 생활정치란 일상의 언어를 구조적인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 일상의 공간을 "적극적인 토론의 장"으로 변환 시키는 것, 생활을 정치화 하는 것이다.

투쟁과 복지 같은 것이 구분되거나 구별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복지도 복지를 제대로 받아내려면 투쟁이 필요하고 잘 되어도 그런 나라도 복지 관련된 것이 투쟁 관련된 것이고 투쟁하는 것이 복지가 될 수도 있고. 정치가 일상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줌...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이라는 것은 엄청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것이 공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민)

그에 비해 혁신 활동가들은 어떨까? 변혁 운동가들이 생활을 정치화 시키는데 집중한다면, 혁신 활동가들은 정치를 생활화 시키는데서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본다. 이들은 '구조' '변혁' '체제에 저항' 등과 같은 정치적인 단어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대중에게 주는 무게감과 거리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운동을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뚜렷한 대의명분이나 "좋은 일"에 대한 의무감 없이도 자연스럽게 추구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들에게 기존의 정치적 행위는 "인위"적인 것으로 표상되면서, 정치가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길 꿈꾼다. 이들에게 있어 사회변화는 쇼핑의 행위, 예금 투자의 행위 등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이러한 지향은 혁신활동가들 대부분에게서 발견된다. 주현, 동현, 주영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수가 주택 소유를 독점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는 주현은 신협에서 공유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펀드 상품을 만드는 일을 기획했다. 그녀는 "비영리적 목적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적금행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펀드 상품이야 말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 본다.

이런 신협이나 지역 금융에서 자발적으로 금융이 형성이 되고 그 돈이 이런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그림들이너무나 당연하게 그거는 되게 비영리적 목적에 동의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치를 해도 문제가 없어. 나 손해를 안봐. 그런데 이런 주택이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 만들어지네 그러면 내 자식도 혜택을 볼 수가있네 이런 방식의 메커니즘으로 흘러가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있고 그래서 저는 금융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은 봐요. (주현)

동현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다.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주요한 단체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싸"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그들이 기획하는 연극이 "좋은 일"이라는 강박, 혹은 "사회활동"이나 "농아인 관계자"들과 같이 특정한 명분을 가진 이들만 볼 수 있는 일이 되기를 거부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극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연극이어야 되고, 그 와중에 이왕이면 농아인에 대해서 한번쯤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이 택하는 전략은 정치의 불편함과 무거움을 최소화 하는 것, 정치를 생활화 하는 것이다. 변혁의 운동이 일상의 곳곳에 반복적이고 관성적인 생활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권리의 언어를 발화하는 ‘무대’를 설치하려 한다면, 혁신 활동은 별도의 무대 없이도 작동하는 정치적 변화를 꿈꾼다. 이들은 사적 개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장소에 큰 변형을 주지 않고도 관철되는 정치를 꿈꾼다.¹⁵⁾

3) 곤경들

그렇다면 각각의 활동가들은 어떠한 난관을 겪고 있을까? “기층과의 괴리”(간부하, 46)는 변혁 운동가들이 체감하는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학생들의 저조한 학생 참여는 이들의 운동이 소수의 헌신적인 학생들의 ‘덕질’에 국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심화 시킨다. 과/반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담은 자료집에는 이러한 학생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있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반 사업 활동에 너무너무 너무너무 관심이 없”(간부하, 26)다는 점,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은 학번대표를 포함한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간부하 26)“, “투쟁 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집회 등 투쟁에 참가하는 학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생대표자는 기피의 대상이자 연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혁 운동가들은 무관심을 넘어 학생회에 대한 미묘한 반감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학생사회에 선도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내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특정한 의견이나 방향성을 강요하고,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 아니냐는 지속적인 비판에 시달린다. 권력관계의 불편함을 문제 삼는 이들의 특정한 균형감각은 어떤 이들에게는 편파적이라 읽힌다. 학생들의 ‘총의’를 모아낸다는 이들의 지향과는 달리,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바람직한 ‘자치’는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때로 좁혀질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린다.

혁신활동가들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정치를 재창안하려는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이 소수가 만들어내는 미약한 움직임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은 때로 이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밖은 아직도 정글인데.” “내가 활동하는 것의 파급력”은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흐름에 공감해주기보다는, “스스로 단절할” 때(용민), “이렇게 해서 뭐 달라지는게 있나” 싶은 회의감이 엄습해 온다.(동현) 경제적 생존의 위협 역시 이들 활동의 주요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 혁신 활동가들은 활동과정에서 끊임없이 작고 낭만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구조적 힘들에 직면한다. “기존 시스템에 돈을 벌어나가는데 이것에 반하는 것이 돈을 벌수 있다는게 정말 어렵”다는 일환의 말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혁신 활동가들에게 이것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으로, 다달이 오르는 월세와 나가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로 혹은 ‘갑’ 기업들의 횡포로 늘 들이닥친다. 변혁운동가들의 말처럼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파괴적인 자본의 힘은 이들이 세운 작은 “유토피아”를 비

15) 일상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정치적 실천에 대한 상상력은 이외에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희망제작소의 <소셜 디자이너 스쿨>은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실천의 한 방식으로 그린 디자인 기법을 소개한다. 이 때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구조, 그리고 이를 공고히 하는 개발 권력에 대한 비판이 아닌 도로 화살표의 페인트 칠 방식을 변경하는 것, 달력의 디자인을 달리하는 것 등 사물의 배치를 바꾸는 실천들이 사회변화의 실천으로 소개된다. 같은 강의의 다른 시간에는 다른 이들과의 불화 속에서 지난한 소통을 이뤄내는 것이 아닌, 모금의 장소나 분위기 혹은 홍보 어구를 바꿈으로써 사람들의 변화된 행동 패턴을 유도하는 마케팅의 기법이 효과적 설득의 방식으로 설파된다. 투쟁과 적대를 우회한 채 일상의 자연적 흐름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물의 배치를 조정하는 실천들이 새로운 운동의 방법론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껴가지 않는 것이다.

5. 맺음말

결론은, 지향점은 똑같더라고요. 사회를 우리가 조금 더 더불어 같이 살자, 같이 살아보자 라는 건 똑같았는데 방법은 달랐던 거죠. (용민)

절차적 민주화가 진행된 지 30년이 흘렀다. 80년대 학생사회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서 도덕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변혁의 꿈은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보다 왜소해져 갔고, 그 사이 대중들의 변화한 감수성을 민감하게 포착된 다른 사회적 꿈들이 출현하기도 했다. 본 글에서 우리는 기존의 학생운동이 담지, 계승하고 있는 변혁의 꿈과 2000년대 후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의 꿈이 어떻게 맞물리고 엇갈리면서 각자의 흐름을 형성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두 꿈은 그 나름의 고유한 가능성과 동시에 각자의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운동은 명확한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학생 대중과 괴리된 채 소수의 ‘덕질’에 그치고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혁신활동의 경우 변화된 2000년대 대중의 감수성을 명민히 포착하는 듯 보이지만 보다 선명한 정치에 대한 감각 없이는 나약한 움직임에 그치고 말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중에 대한 회의감”을 갖지 않고(지혜) “조급해”하지도 않으면서(주영) 변혁과 혁신의 꿈을 계속해서 추구 해나가고자 한다. 본인이 온전한 그림을 갖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재미(일환),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무언가가 “바뀌어가는 것”이 주는 기쁨(주영, 용민, 성태), 그리고 결국 타인의 고통이 결국 나의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감각(상민)은 이러한 꿈을 계속해서 추구하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이 두 꿈 간의 생산적인 연대이다. 어떻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인 상상력을 접목시켜 보다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를 위한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차 문헌

관악 사회대 학생회. 「2016년 사회대 새터 자료집」

_____ 「2016년 사회대 농활 자료집」

_____ 「2017년 사회대 상반기 확대간부수련회 자료집」

_____ 「2017년 사회대 하반기 확대간부수련회 자료집」

_____ 「2017년 상반기 단학대회 자료집」

_____ 「2017년 하반기 단학대회 자료집」

35대 사회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 Act 더하다 정책 자료집」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http://www.hopemakers.co.kr>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http://www.innovationpark.kr>

박원순. 2010. 『원순씨를 빌려드립니다』. 21세기 북스.

○ 2차 문헌

- 김동춘 (1998).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19, 101-116.
- 김원 (2011).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매진
- 김은지 (2017) <<‘혁신적 시민성의 의미형성과 제도화 -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홍중 (2009).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민철기 (2003). 1990년대 학생운동의 쇠퇴원인 - 정치적 기회구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하나 (2010). 《학출 : 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이매진.
- 테일러.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역, 이음.
- 최철웅 (2011). ‘청년운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66, 15-50.
- 홍명교 (2011). 대학의 위기와 대안적 학생운동의 전망. 문화과학 66, 111-127.
- 황규환 (2015). 형식적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의 변동 - 1990년대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3. 꿈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연주, 김지애
(서울대 사회학과)

1. 들어가며: 꿈꾸지 않는 사회, 꿈을 포기하는 청년

2017년 8월 청년실업률 9.4%, 8월 기준 1999년 IMF 이후 최고(통계청, 2017).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결과는 2017년 한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주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들이 느낄 좌절과 불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에서 청년들의 어두운 미래를 논하기 시작한 건 사실 꽤 오래 전의 일이다. 2007년 우리나라 비정규직 20대의 월평균 급여인 ‘88만원’을 빗대 청년층의 절망을 이야기한 『88만원 세대』를 시작으로(우석훈, 2007) 한국의 청년은 절망, 좌절, 그리고 불안의 세대로 통칭되었다. x세대, 밀레니엄세대, 에코세대 등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이나 성격 특성으로 청년을 설명하는 말은 더이상 등장하지 않았고 한국의 청년들은 꿈을 꾸지 않는, 꿈을 포기한 청년들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에 N포세대가 있다. N포세대는 ‘3포세대’라는 말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의 3가지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데 2011년 경향신문 기획시리즈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된 후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이후 3포는 ‘대인관계’와 ‘내집 마련’을 포함한 5포로, 다시 이 5포는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로 확장되었고 2017년에는 여기에 ‘건강’과 ‘외모’를 포함한 9포세대론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청년층을 일컫는 말로 ‘깨닫다’라는 뜻의 ‘사토리’에서 파생한 말인 ‘사토리세대’가 등장하였는데, 돈, 명예, 출세 등에 관심을 품은 채 득도한 것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지자체 등에서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은 늘어나고 있다. 청년수당이 대표적이다.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한 청년수당 정책은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 청년카드, 인천 청년사회진출, 강원도 청년수당 등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청년지원정책의 목표와 비전이 단순히 청년층의 생계 지원, 긴급 자금 제공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제공되는 이 지원금으로 청년층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바라기도 어렵다. 서울시 청년수당정책 담당자가 “청년들이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꿈꿀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힌 것처럼 당장의 물질적인 지원 만큼이나 정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미디어에서 말하는대로 청년들이 꿈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어떤 꿈을 포기하고 있으며 얼마나 꿈을 포기하는가? 과연 그들이 실제로 포기하는 꿈의 정도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어둡고 불안한 미래와 얼마나 상응하는가? 그 중에서도 꿈을 꾸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청년들의 꿈의 유무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일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세대, 서울의 청년을 분석하였다. 서울은 여기서 나고 자란 서울이 고향인 청년들에 더불어 꿈과 희망을 찾아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의 형성, 좌절, 투쟁이 벌어지는 무대이다. 서울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꿈꾸는 청년과 꿈을 가능케 하는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청년과 꿈에 대한 기존의 논의

청년과 꿈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꿈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좌절, 포기, 무기력, 불안 등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청년세대 관련 담론의 주를 이룬다. 특히 청년을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소유한 집단으로 보기보다 신자유주의 테제 안에서의 경제적 행위자로 조망하기 시작하면서 청년에 대한 비관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우석훈, 2007; 김홍중, 2015).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청년을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인용된다. 2016년 진행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고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비정규직의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타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며 청년층이 가구주인 경우 대부분 임대 상태인데 평균 납부하는 월세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청년의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4년제 사립 대학교의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에 오히려 대학졸업 소요기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김기현 외, 2016: 7). 교육, 경제, 주거, 건강의 대표적인 지표를 간단하게 살펴본 이 수치들은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준다.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청년은 한발 더 나아가 ‘노동’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례가 된다.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에 대한 유형근의 연구(2015)는 새로운 결사체의 등장과 성장에 주목하여 기세가 줄어들고 있는 노동운동의 긍정적인 대안으로 청년층을 조명한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청년들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투쟁과 서바이벌의 세대로 표상되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 1인 가구를 인터뷰한 정순희와 임은정(2014)의 연구에 따르면 ‘투쟁’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 그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최소한의 지출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가능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홍중(2015)은 청년을 ‘생존주의 세대’라고 명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생존주의 세대는 “일반화된 경쟁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마음가짐인 생존주의를 가진” 사람들이다(2015: 179).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실패한 ‘빈곤 청년’에 대한 연구(2012)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김선기(2016)가 지적한 것처럼 2010년 이후 청년세대 담론은 비관론 일색으로 흐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꿈과 연결해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좌절, 분노, 저항이 지금의 청년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오혜진, 2015).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글에서 청년의 꿈에 주목하는가? 꿈꾸기 어려운 사회, 꿈꾸지 않는 청년에서 굳이 꿈꿀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의 실마리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꿈이 추상적이고 허황된 가상의 미래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천과 개인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홍중(2015)에 따르면 “꿈은 욕망과 희망의 작용을 통해 구성, 교섭, 변형되며 실천의 흐름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미래의 소망표상으로 규정되며 꿈이 하나의 자본으로서 다른 자본형태들을 향한 마음을 작동시키는 원형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꿈의 소유는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지향으로 나아가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목표와 비전을 위한 다른 자본들(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동원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청년세대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비판론을 낙관론으로 바꿀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과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3. 설문 구성과 구체적인 질문

우리는 <서울 미래세대 인식조사>¹ 결과를 중심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 조사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20~39 세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크게 5 가지 분야, 1) 개인의 삶의 질과 가치관에 대한 인식, 2) 가족 및 대인/사회관계, 3)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4) 미래 삶에 대한 기대, 5) 기타 및 응답자 특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진 문항은 미래에 대한 꿈, 열망과 이 꿈을 추구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문항은 아래와 같다.

☐ 귀하가 미래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어느 정도 실현가능합니까?

- ① 확실히 실현가능 ② 대체로 실현가능 ③ 별로 실현가능하지 않음 ④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음

☐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꿈이나 욕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연애 2) 결혼 3) 출산 4) 내집 마련 5) 원만한 대인 관계 6) 취업 7) 내가 원하는 일자리

우리는 먼저 미래세대의 ‘꿈의 유무’를 살펴보았다. 꿈은 개인이 그리고 상상하는 미래의 구체적인 이미지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제공하는 원동력이다. 미래세대가 그들의 미래에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꿈의 실현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꿈의 실현가능성’은 ‘꿈의 유무’에서 한 발 나아가 꿈의 구체성, 현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N 포세대’론에서 규정하는, 한국 사회 청년들이 쉽게 포기하는 요소 중 5 포에 해당하는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원만한 대인 관계, 그리고 여기에 청년층의 당면과제인 ‘취업’과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추가한 7 가지 항목에 대해 미래세대가 어느 정도의 꿈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 항목들은 한국의 청년들이 현재 많이 포기하는 요소라고 언론에서 진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미래세대에게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N 포문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언론에서 주장하는 미래세대의 포기가 실제 현실과 얼마나 상응하는지 파악해보기로 하였다.

¹ <서울 미래세대 인식조사>는 2017 년 6 월 21 일부터 25 일까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미래세대(20~39 세의 청년층)를 대상으로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진정성

- 1) 나는 일반적인 성공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편이다
- 2) 내가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3) 나의 꿈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다
- 4)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5) 실현하기 어려운 꿈은 품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 6)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결국 내가 내리는 것이다
- 7)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대립할 수도 있다

자기확신

- 8) 나는 원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 9) 나는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 10) 나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운명이라고 믿는다
- 11) 나는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 12) 미래에 꿈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 13) 나는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다
- 14)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을 잃을까 불안하다

‘진정성’과 ‘자기확신’으로 구성된 위의 14 가지 문항은 ‘꿈을 추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² 꿈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꿈의 실현을 위해 꿈을 운영하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김석호 외, 2017).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진정성과 자기확신이다. “진정성은 자신의 미래를 부모나 사회의 외적 규범에 따라서 상상해가느냐(conformity),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방식으로 구현해가느냐(authenticity)의 문제이고, 자기확신은 꿈을 미래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불안(anxiety)으로 체험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자기확신(self confidence)을 통해 극복하는 방식으로 경험하는가의 문제이다” (김석호 외, 2017).

똑같이 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을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달라진다. 자신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따라 꿈을 꾸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준 규범에 맞춰 자신의 꿈을 조정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꿈을 이루려는 열망이 강하다. 꿈이나 미래를 불확실한 암흑에 싸여진 무언가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꿈은 떠나면 이상향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로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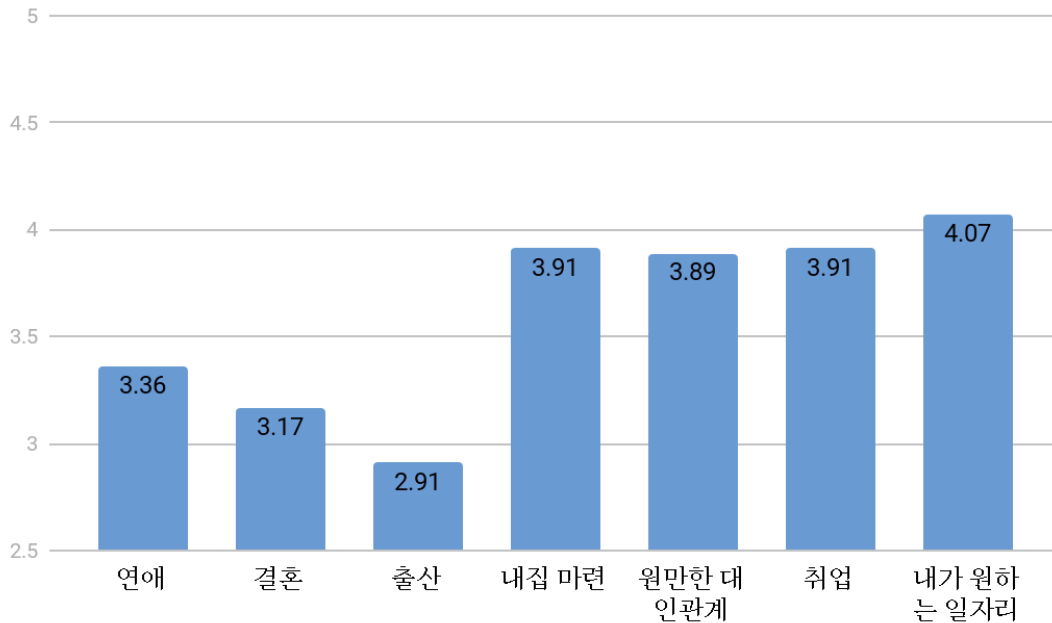
우리는 이렇게 ‘꿈’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 서울의 미래세대 중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포기과 좌절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이 시대에 어떻게 꿈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지,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²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정성 척도의 경우 우드 등이 개발한 Authenticity Scale(Wood et al., 2008)과 커니스 등에 의해 구성된 Authenticity Inventory 의 문항들에(Kernis and Goldman, 2006) 자체 개발한 문항들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자기확신의 측정을 위해서는 AHS(Snyder et al., 1991), BHS(Beck et al., 1993), IHS(Schrank et al., 2011), 웨이어와 카버의 LOT(Scheier and Carver, 1985)에서 관련 항목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였다. (김석호 외, 2017 참조)

4. N 포세대론에 대한 검증

N 포세대는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포기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5 포에 해당하는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여기에 청년층에게 중요한 ‘취업’과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추가해 7 가지 항목에 대해 꿈꾸는 정도를 조사하였다.³

꿈꾸는 정도



서울의 미래세대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4.07), 취업(3.91), 내집 마련(3.91), 원만한 대인 관계(3.89), 연애(3.36), 결혼(3.17), 출산(2.91)의 순으로 꿈을 꾸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회재생산’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연애, 결혼, 출산을 꿈꾸는 정도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확연히 낮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항목들은 N 포세대 논의가 처음 등장했던 때 언급한 ‘3 포’에 해당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꿈꾸는 정도가 다른지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성별, 교육수준, 혼인여부, 가구소득, 그리고 ‘서울의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분석 척도인 ‘지역’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꿈꾸는 정도’는 7 가지 항목에 대한 꿈꾸는 정도를 평균낸 값을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이 3.5, 남성이 3.6 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과 혼인여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 또한 가구소득이 가장 적은(0~299 만원) 사람들과 가장 많은(700 만원 이상) 사이에 각각 3.5, 3.7 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사실상 그 차이가 0.2 점으로 아주 크진 않다. 마지막으로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과 비강남으로 서울의 지역을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³ ‘꿈꾸는 정도’는 5 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1은 ‘매우 낮다’, 2는 ‘낮은 편이다’, 3은 ‘보통이다’, 4는 ‘높은 편이다’, 5는 ‘매우 높다’이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미디어에서 그 동안 생산해 온 N 포세대 논의는 유효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3 포 항목에 속하는 연애, 결혼, 출산은 다른 항목에 비해 서울의 미래세대가 더 꿈을 꾸기 어려운, 다시 말해 더 많이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다. N 포세대론이 5, 7, 9 포까지 확장되었지만 사실 미래세대에게 앞의 3 가지가 가장 쉽게 포기하게 되는, 포기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일각에서 미디어와 저널리즘의 논의가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실제 청년들의 생각을 잘 반영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적어도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서울의 미래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꿈꾸는 정도가 약하다.

그리고 이 결과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첫째,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는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되면서 생겨난 1 인가구 증가 현상,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 경제적 이유를 중심으로 결혼을 미루는 싱크족(Single Income, No Kid)의 출현은 더 심화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궁극적으로는 노동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로 인해 ‘미래의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현재 미래세대가 포기하는 꿈의 문제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에게도 계속 꿈을 꾸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3 포 항목을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은 사실임에 틀림 없으나 과연 이 항목들을 ‘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만일 이것들이 청년들이 꿈꾸지 못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동안 사회가 너무 당연하게 청년이라면 꿈꾸어야 하는 것으로 무의식적인 압력을 주었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재생산이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연애, 결혼, 출산은 필수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출산’은 여성의 생물학적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청년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것이 맞고 대부분 청년 시기에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못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치 너무나 당연히 결혼과 출산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불합리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그 항목들은 사회가 부여한, 사회가 요구하는 꿈이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꾸는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는 설령 N 포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꿈꾸는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청년세대를 곧 포기와 좌절의 세대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러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꿈꾸는 정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흙수저론이나 강북-강남의 두 축으로 분절되는 서울의 지역간 격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흙수저론은 간단히 말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를 말하는데, 즉 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나 또한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 지위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본 설문에서 부모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수인 ‘가구소득’에 따라 꿈꾸는 정도를 보았을 때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간에만 차이가 났고 그 차이도 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는 ‘흙수저론’이 적어도 N 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대인관계, 취업 등을 꿈꾸는 정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강북과 강남의 지역 격차도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우리가 흔히 강남 출신에게 가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미지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들은 청년, 서울의 미래세대가 꿈을 꾸고 만들어 가는 데에는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조건 외에 다른 동력이 작용함을 추측하게 해준다.

5. 청년의 세 가지 마음의 능력: 자신감, 좌절감, 주도성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들이 N 포로 불리는 항목들을 꿈꾸는 정도가 낮다고 해서 이들을 꿈꾸지 않는 세대로 부르기는 어렵다. 우리는 사회가 부여한 꿈이 아닌,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좌절감, 주도성의 정도를 파악해봄으로써 청년세대의 꿈에 새롭게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이 세 가지 마음의 능력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에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이는 미디어가 N 포라고 불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들을 두고 자주 언급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경제 불경기, 취업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지면서 청년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좌절감과 무기력감 속에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마저 잃은 세대로 묘사되곤 한다.

먼저 미래세대의 자신감, 좌절감, 주도성의 평균적인 수준을 살펴보았다. 모두 7점을 만점으로, 자신감은 4.70, 좌절감은 4.31, 주도성은 5.29를 나타냈다. 주도성이 자신감과 좌절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신감과 주도성에서 보이는 점수는 연애, 결혼, 출산 등 N 포가 의미하는 항목들에 대한 꿈을 측정한 점수들에 비해 모두 7점을 만점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좌절감 점수 또한 N 포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자신감과 주도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대의 ‘꿈’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논의가 사뭇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등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되는 N 포세대론은 미래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청년상을 그려낸다. 그러나 자신감, 좌절감, 주도성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능력에 초점을 둘 때에는 청년에 대한 기존의 비관적인 논의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해석도 가능해보이기 때문이다. 즉 N 포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꿈꾸는 정도가 낮다고 해서 청년들을 포기와 좌절의 세대로 선불리 부를 수 없다는 위의 지적이 타당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의 능력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자신감	좌절감	주도성
성별			
남성	4.82	4.24	5.25
여성	4.58	4.37	5.32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4.47	4.57	5.18
대학교	4.68	4.31	5.27
대학원 이상	4.96	4.11	5.41
가구소득			
~299 만원	4.56	4.40	5.27
300~399 만원	4.66	4.33	5.31
400~499 만원	4.67	4.26	5.26
500~699 만원	4.73	4.27	5.19
700 만원 이상	4.92	4.20	5.38
지역			
강남	4.82	4.20	5.21
비강남	4.68	4.32	5.30

먼저 자신감의 경우,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신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세하다. 소득이 가장 적고 가장 많은 집단의 경우에도 그 둘의 차이가 0.3 정도에 불과하다.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도 0.1 점 정도로 작다. 좌절감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좀 더 높은 좌절감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강남과 비강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주도성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 가지 마음에 능력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N 포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마음의 능력이 사회경제적 조건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 좌우됨을 카리킨다.

그렇다면 그 요소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회이동성 인식 및 기회불평등 인식과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사회이동 또는 계층이동은 주어진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세대 내 혹은 세대 간에 변화하는 현상으로, 주관적 계층상승 가능성이란 자신의 사회계층이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Kelly & Kelly, 1984).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신감, 좌절감, 그리고 주도성은 교육수준, 가구소득, 강남/비강남 지역 등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표들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상상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현재 객관적으로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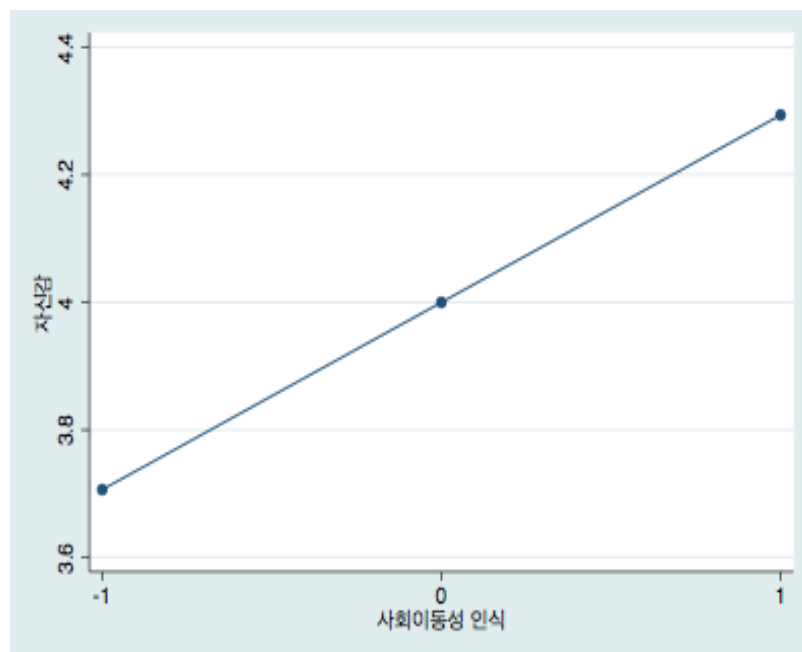
있는 것보다는 이러한 객관적 요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개인들은 객관적인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그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때로는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힘을 가지기도 한다(Elder, 1974).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높은 자신감과 주도성, 낮은 좌절감을 보일 수 있다. 이는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Molnar 외, 2006). 사회이동성 인식은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가 부모님 나이 정도가 되었을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후자에서 전자를 뺀 값이 음수일 경우 계층하향이동을, 반면 양수일 경우 상승이동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는 기회불평등 인식이 가지는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기회의 평등이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성취가 미리 결정된 인종이나 출생지, 가족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World Bank, 2006). 따라서 기회불평등 인식이 높다는 것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개인의 노력보다는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광영(2016)은 이 기회불평등 인식에서 나타나는 격차가 곧 ‘희망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진학, 취업, 가족 형성,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등 많은 부분에서 기회불평등 인식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기대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불평등 인식에 따라 미래를 꿈꾸게 하는 세 가지 마음의 능력에서도 차이가 발견되는지 분석해보았다. 소득불평등과 같은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않는 반면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점(이양호 외, 2013)에서도 우리는 기회불평등 인식이 자신감, 좌절감, 주도성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와 “외부압력이나 ‘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두 개의 문항의 대한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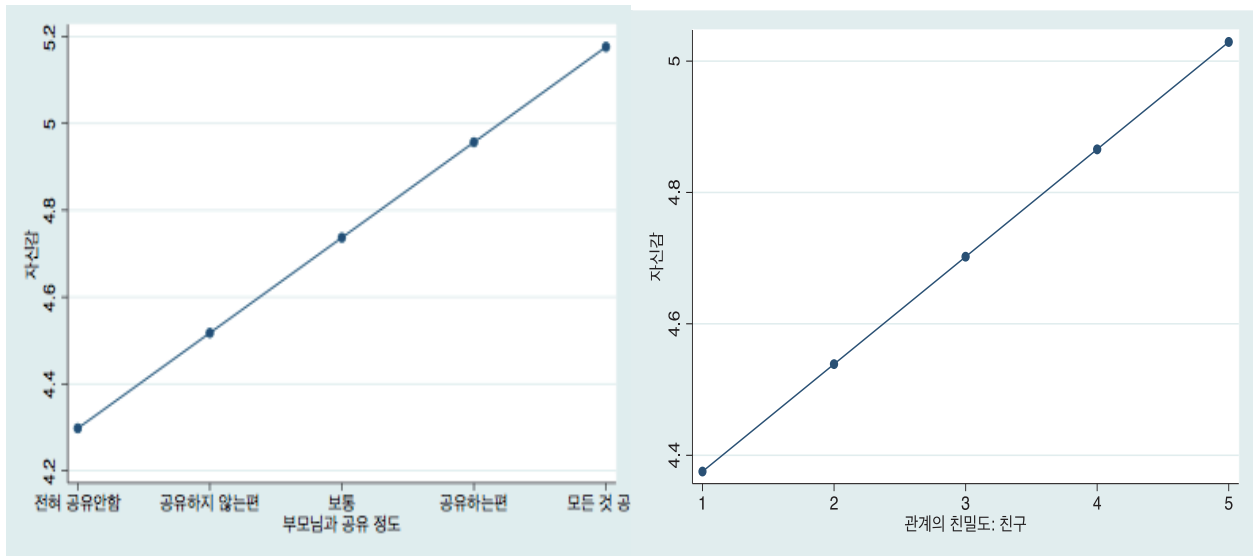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자본이 가지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자본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로 “사회연결망 혹은 다른 사회적 구조 가입을 통해 얻는 행위자의 능력”(Portes, 1998: 6)이라는 데에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만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적 지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이는 스트레스가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우울 수준을 낮추는 등 정신건강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Cho & Lee, 2010). 한편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이를 지각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커진다(Brown et al., 1993). 우리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받는 효과가 클 것이라 예측하였다. 따라서 청년들이 자신의 부모 및 친구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이들이 가지는 세 가지 마음의 능력에서 격차가 발견되는지 분석해보았다.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친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과 얼마나 공유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교우관계의 친밀도는 “친구가 나의 학업과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관계유지가 힘들다”, “나는 친구에게 경쟁의식을 느끼곤 한다”, “나는 친구를 신뢰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가 편하다” 등의 문항에 대한 점수를 평균내 측정하였다.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청년일수록 건강한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사회이동성 인식 및 기회불평등 인식, 그리고 사회자본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연령, 가구원수 등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한편 사회이동성 인식과 기회불평등 인식은 개인들의 현재 계층적 배경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인식 그 자체가 가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직업과 가구소득이 이에 해당되며, 지역은 지역별 소득 수준을 토대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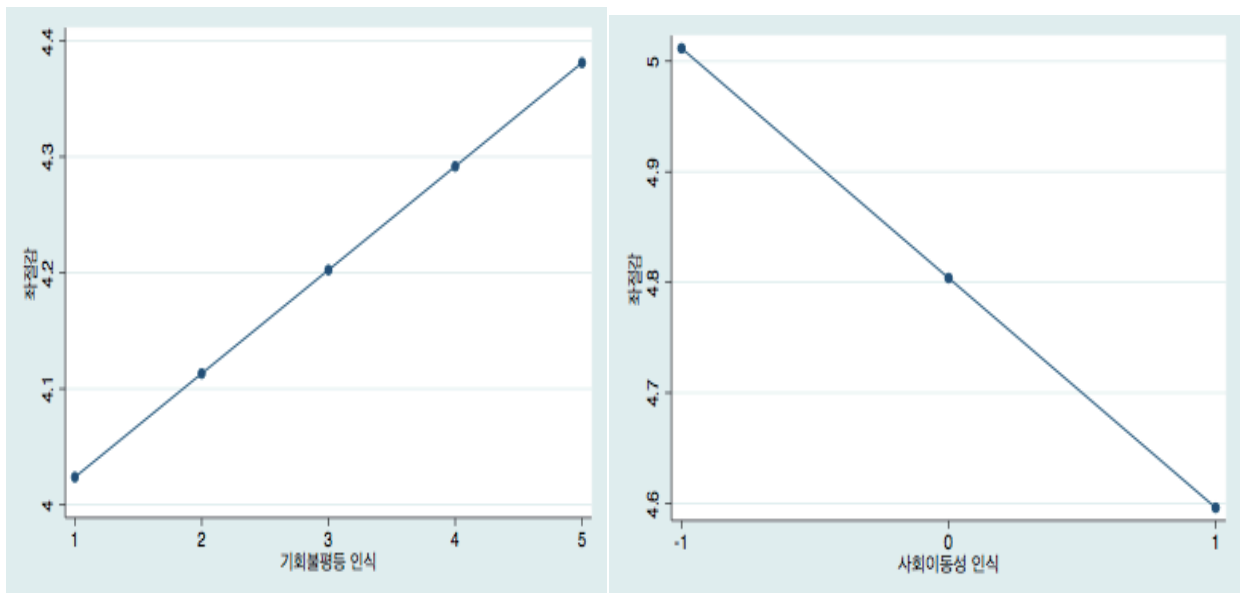
먼저 자신감에 있어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가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예상과는 다르게 기회불평등 인식은 자신감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반면 사회이동성 인식은 자신감과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신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감이 높은 경향을 띤다. 자신이 계층하향이동할 것이라 생각하는 청년의 평균 자신감 점수는 3.7 정도로 상승이동을 기대하는 청년들의 점수보다 낮다. 사회에서 기회가 얼마나 균등하게 주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보다는 스스로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다 개인적인 측면의 인식이 청년들의 자신감을 좌우하는 더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사회자본이 가지는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와 고민을 더 많이 공유하는 청년일수록 자신감이 높다. 부모와 고민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청년들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밑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자신감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깊고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자신감이 높다. 정신적 건강을 포함해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해온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친밀한 관계는 청년들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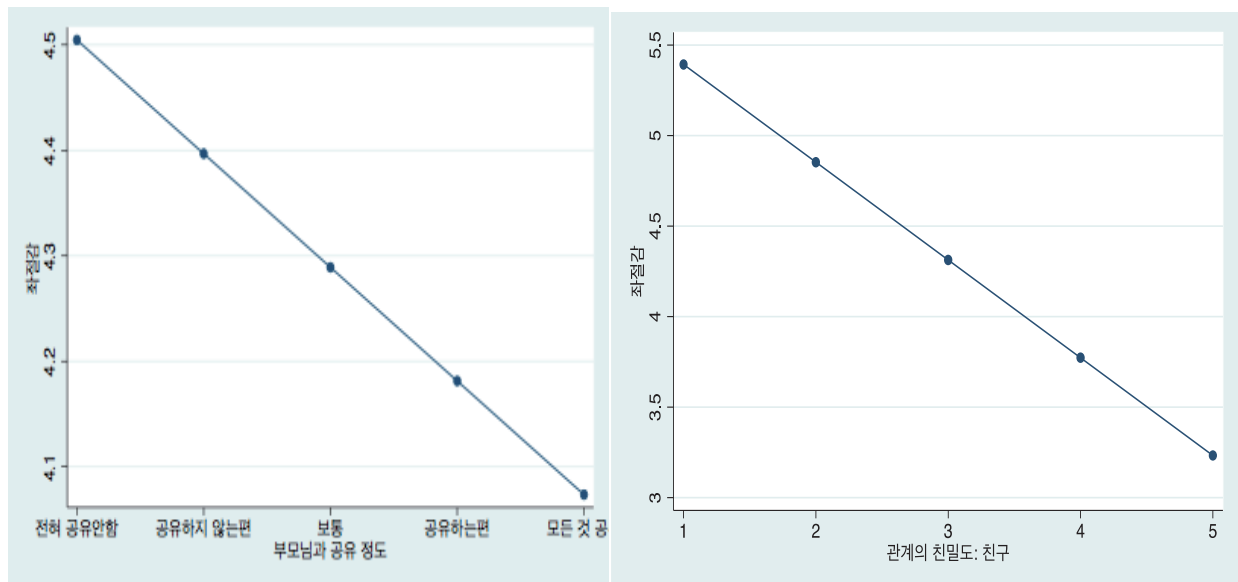


좌절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회불평등 인식은 좌절감과 정적 관계를 갖는 반면, 사회이동성 인식은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본인의 노력보다 타고난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청년들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좌절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미래에 계층하향이동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향이동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좌절감을 보였다. 자신감과는 다르게 사회적, 개인적 수준의 인식은 모두 청년들의 좌절감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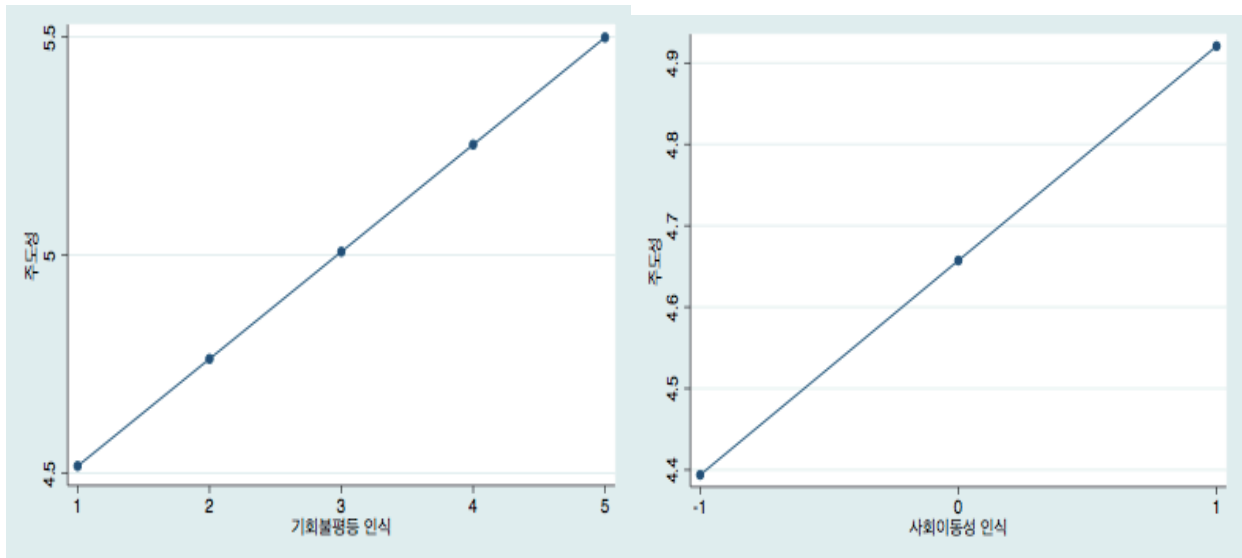


사회자본으로 살펴본 두 가지 관계에서의 친밀도는 모두 좌절감과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와의 고민을 공유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또 친밀한 교우관계를 가지지 못할수록 좌절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띤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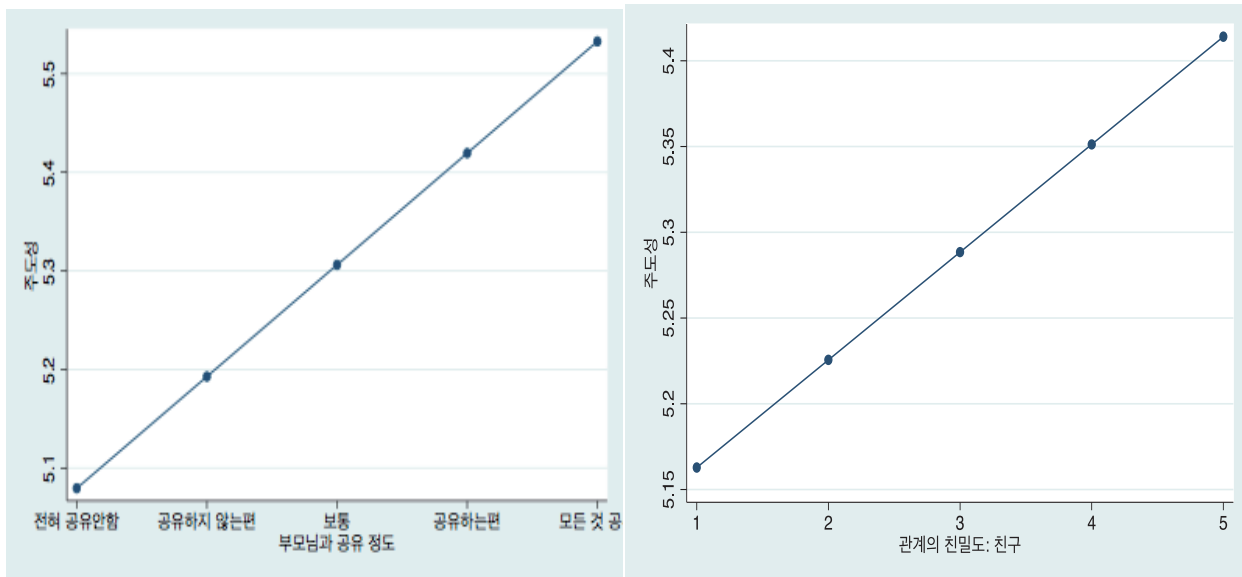
사회적 지원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신숙 이경주, 2002).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효과(장준배, 2002) 등을 통해 좌절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도성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먼저 사회이동성 인식은 주도성과 정적관계를 가진다.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삶에 대해 더 큰 의지와 열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편 기회불평등 인식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개인의 노력 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낙담과 포기,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애착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와 다르게, 기회불평등 인식은 주도성과 정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높은 주도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 가지 가능성으로 김홍중(2015)의 ‘생존주의 세대’를 떠올릴 수 있다. 사회가 균등하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생존주의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일 수 있다.



사회자본이 주도성에 가지는 효과는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부모와 적극적으로 고민을 공유할수록 높은 주도성을 가지는 반면, 교우관계 친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밀한 교우관계는 의지적 측면보다는 자신감, 좌절감과 같은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요소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의 분석은 연애, 결혼, 출산 등 N 포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꿈으로 청년세대의 꿈을 논했던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사회가 주장하는 청년층의 꿈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근본적인 힘, 즉 자신감, 좌절감, 주도성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삼포세대, N 포세대, 절벽세대 등 청년세대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비관론과 다른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좌절의 세대로 부르기 전에 이들의 꿈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해봐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꿈꾸는 세 가지 마음의 능력에 대해 큰 설명력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을 찾아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이동성 인식과 기회불평등 인식, 그리고 사회자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이동성 인식은 세 가지 마음의 능력에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자신의 계층상승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더 높은 자신감과 주도성, 상대적으로 낮은 좌절감을 보였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꿈꾸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의미한다. 계층이동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면, 청년층이 장년층에 비해 계층상승 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인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매년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미래세대로 하여금 꿈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노후준비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계층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년들의 좌절감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해결책은 법적, 제도적으로 기회의 공평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분석은 청년층의 꿈과 희망에 있어 기존 연구들이 주목한 사회계층관련 요소들에 더하여 사회자본이 가지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지지는 세 가지 마음의 능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2-30 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 미래세대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미래세대가 꾸는 꿈과 이 꿈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탐구하였다. ‘꿈’에 관한 문항으로는 꿈의 유무, 꿈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대인관계, 취업, 내가 원하는 일자리의 7 가지 항목에 대해 꿈꾸는 정도를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진정성’과 ‘자기 확신’이란 두 가지 개념을 통해 ‘꿈을 추구하는 방식’을 측정하고 함께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의 미래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의 3 포 항목에 대해 꿈꾸는 정도가 내집 마련, 대인관계, 취업,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출산’에 대해 꿈꾸는 정도가 7 가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출산과 육아에 수반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2, 30 대가 출산을 포기하는 저출산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꿈꾸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성별, 교육수준, 서울 내에서의 지역 격차,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이의 폭이 크지 않았다. ‘꿈을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자신감, 좌절감, 주도성의 세 가지 개념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는 사회경제적 조건 외에 ‘꿈꾸는 마음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을 찾아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이동성 인식’, ‘기회불평등 인식’, ‘사회자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이동성 인식은 세 가지 마음의 능력 모두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자신의 계층상승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더 높은 자신감과 주도성, 상대적으로 낮은 좌절감을 보였다. 기회불평등 인식은 좌절감과 주도성에 효과를

가졌다. 사회자본으로 살펴본 부모와 교우관계에서의 친밀도는 자신감과 좌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주도성에서도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N 포 항목이 가리키는 청년층의 꿈과 더불어 이들이 가진 꿈꾸는 마음의 능력을 살펴보았다. 청년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비관론과 달리 청년의 꿈을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이들이 보여주는 자신감과 주도성의 수준은 이들을 포기과 좌절의 세대로 선불리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꿈꾸는 마음의 능력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보다도 사회이동성 인식과 기회불평등 인식, 그리고 사회자본에 의해 보다 결정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꿈을 포괄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측정과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조건들 외에 청년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살펴본 두 가지 인식과 사회자본이 청년들의 꿈을 만들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들에게 꿈을 증여하기-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중심으로

조민서,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1. 들어가며

21세기 한국 사회의 장기화된 저성장과 경제적 침체 속에서 청년 세대는 주거문제, 등록금문제, 만성적인 실업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공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자신의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못하고, 사적 적응문제(adaptive problems)에 몰두하는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래시(Christopher Lasch)가 말하는 ‘최소자아(minimal self)’의 양상들과 복합적 의미의 ‘서바이벌’에 몰두하는 문화적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홍중, 2015a). 이처럼 청년 세대가 사회적 사안이나 문제에 대한 감각과 관심이 점차 약화되거나 그 구조와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21세기적 현실을 배경으로 우리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에 주목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체험하고,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익히며,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이런 연관 속에서 만들어가는 방식을 관찰하고 탐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016년 8월,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으며 강제중단되었다가 2017년 7월부터 재개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급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며,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직접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의 구직활동비)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모두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중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즉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이나 도박, 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 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행한 여러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 일자리 정책의 의미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구상되고 실행된 여러 방책(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만들기 사업) 중의 하나이다. 해당 청년들이 교육에서 노동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청년들이 구직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현금으로 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율적인 진로 개척 과정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특정 관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때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담지하고 있던 청년관의 간극이 드러났다.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는 이 사업이 당사자 청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서울청년의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의 기구를 통해 논의의 주체로서 참여하여 제안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 사업이 정부가 기존에 시행해왔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청년 정책들과 다른 점은, 청년들이 구직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과정과 시간을 온전히 긍정한다는 점이다. 이전의 정책적 지원과 달리 청년들은 청년수당을 자신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의 의무가 수당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사용처에 제한이 없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¹⁾. 결국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2016년 8월 4일 1기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1차분 50만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했던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찰과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연구는 2016년 10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센터의 제안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 그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실험적 상황을 설정하여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즉, 본래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동일한 조건의 실험상황을 조성하여, 그 사업과 같은 혜택을 누린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추적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였던 2831명 중 10명의 연구대상자 패널을 고려하여, 성별, 소득분위, 희망직군(창업, 취업, 예체능, 공무원 시험 준비)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패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3개월 간 기존 사업과 동일한 금액(50만원)을 지급하였다. 우리는 패널들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를 매달 제출받고 3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수행하여 청년활동지원금을 수령하면서 변화해가는 패널들의 삶을 관찰하였다.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은 대부분 복지 수혜자인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지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형태 등 정책의 기술적 쟁점들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센터는 이런 쟁점들에 대한 해답의 도출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를 제안했지만, 우리는 연구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사실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것은 여러 형태의 정책적, 기술적, 절차적 문제의 저변에 존재하는 이른바 청년들의 ‘꿈’ 혹은 ‘미래’라는 시간의 문제, 그리고 이들이 ‘사회’ 혹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체험하거나 인지해가는 과정과 연관된 여러 문제들이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사회학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이론적 문제들이기도 하며, 우리 시대에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꿈이라는 자본’의 존재 방식과 연관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들이기도 하다(김홍중, 2015b).

비록 충분한 사례나 입증의 절차가 아직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 연구의 과정에서 획득된 통찰은 비교적 풍부한 성찰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차후의 검증과 탐색을 위한 중요한 발견술적(heuristic)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우리가 수행했던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결과를, 이론적 논의가능성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재해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의 사회실험의 사회학적 함의를 시론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이 실험의 사례를 통해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수당을 받게 된 청년들의 내면에서 그들의 꿈에 일어난 변화이며, 이 변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의 감각이다. 첫째, 청년수당을 받기 이전의 청년들이 품어왔던 미래의 모습과 꿈을 관리해왔던 양상을 살펴본다. 둘째,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이 갖는 의미와 청년수당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변화한 미래와 꿈에 대한 감각을 관찰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희미한 감각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그 감각되는 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꿈을 증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것’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1) 연합뉴스. 2016. 8. 9. <복지부, 연일 청년수당 비난… “서울시, 진정성 없다.”>

2. 유예된 성장, 희박한 미래

우리 시대 청년들을 묘사하는 지배적 용어가 되어 버린 ‘3포세대’나 ‘N포세대’와 같은 용어들에 드러난 청년의 표상은,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이행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는 근대적 청년상과 크게 다르다. 근대적 청년상이 상정하는 규범화된 생애주기는 졸업 이후 취업을 하고, 취업을 통해서 독립적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는 이런 규범이 더 이상 당연한 현실이 아니며, 생애주기의 일반적 양상이 다원화되거나 이질화되고 있다. 청년세대의 자조가 묻어있는 위의 용어들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구성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과거의 지배적인 꿈꾸기의 내용(무엇을 꿈꾸는가?)과 꿈의 방식(어떻게 꿈을 실현해나갈 것인가?)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사회와 시대 속에서, 청년들의 꿈은 가령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향해 낙관과 희망을 동원하여 전진해가는, 한국 근대 고유의 ‘캔두이즘(can-doism)’과는 상이한 색깔을 띠게 된다. 우리가 인터뷰한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청년수당의 수혜자가 되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미래란 목적과 수단의 명확한 도식 속에서 전형적으로 설정되고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다. 꿈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래의 삶의 궤적에 대한 심적 투사라는 함의를 많은 부분 상실한 듯이 보이기도 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에게 꿈은 ‘꿈’이라는 용어에 결부된 희망과 낙관, 밝은 미래의 이미지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꿈’은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불가능성을 상기시키는 단어이다. 그렇다고 N포세대와 같은 표현들에 내포된 ‘포기’가 곧 이들이 일체의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꿈꾼다. “큰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어디 여행가는 걸 포기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진짜 결혼하고 싶”어하며, 출산을 스스로 제어함으로써 꿈꾸는 가족의 규모를 축소시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식을 가지고 싶어한다(석권). “다 먹고 살 만해야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 밥값도 없는데 누구를 만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여전히 “끝은 조금 무섭”다고 토로한다(미나). 이들은 이러한 꿈을 성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근대사회가 구축한 성장의 서사인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 만들기’를 여전히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꿈은 현실과 대질되며 끊임없이 타협되고 조정되어 축소된다. 결혼하여 가정이 꾸려질 터전인 집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집에 대한 욕망을 축소할 것을 강요한다. 그래서 청년들은 “여행을 간다든지 하다 못 해 옷을 좋은 걸 입더라도 주거비용에 몇 억씩 그렇게 빌려 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대출금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효주)”이며, 나이를 먹고 성인기 이행 규범을 부과받는 상황에서 뒤늦게 인지한, “진짜로 그 정도 금액인지 몰랐”던 “집값”을 보고 “분수에 맞게 살(준석)”아야겠다고 결심한다. ‘가족’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이 압도적인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것은 언제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는 과업을 유예하는 것이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유예의 기간 동안 이들의 미래는 구직에 성공하여 결혼과 주거비용을 모으기 위해 노동하는 것으로

상상된다.

끝을 알 수 없기에 점진적 개선과 목표의 성취를 선불리 기대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노동하는 자신 뿐이다. 구직을 넘어 주거를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을 비롯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상의 가족들의 자리는 이들의 미래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10년 앞으로 내다봤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살지는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산다는 게 진짜 좀 낯익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나의 미래, 전체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한 가장으로서 정말 그렇게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아무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런 거에 비춰서 생각을 해 본다면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재윤).

진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팍팍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봤을 때 솔직히 내 한 몸 혼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끝나게 되면 그 뒤에는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서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살까? 그것도 되게 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걸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큰 집 작은 집 이런 걸 떠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좀 나이가 먹을수록 버거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석권).

이러한 미래 전망은 자신의 노동만으로 한국사회에서 해당 연령대에 부과되는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경제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어떤 꿈을 꾸든 간에” 그 꿈을 추구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의식주의 문제는 “단기간에 되지 않겠”다고 여겨지고 있었다(다솜). 혹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내 일만 성실하게 해서 월급만 타면 가정 꾸리고 자식도 키”울 수 있었던 과거와 대비하여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일까지 생각을 해서 일을 더 해야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사회”로 간주하고 있었다(석권). 특히 주거의 경우, 구직과 노동을 거쳐 표준적인 경로로 모은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아득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다(혜영). 요컨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과업은커녕 최소한의 생존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영위하는 직업 노동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 즉 결혼이라는 ‘꿈’은 어떻게 수용되고 있었는가?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일단 서로가 살기가 너무 힘들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양쪽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보면 ‘**진짜 결혼이라는 게 진짜 꿈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혜영)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도 하는 사람은 다 하고 그러는데. 딱 전반적인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굳이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딱히 ‘결혼을 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친구 결혼하는 거 보니까 또 하고 싶더라고요. 결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웨딩드레스는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을지 까마득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은 딱히. 그냥 취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런 것 같아요.(서현)

이들 응답자들에게 결혼은 통상적인 의미의 ‘꿈’, 즉 열망하는 미래상이 아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용어는 오히려 일종의 백일몽처럼 덧없거나 현실성이 상실된 리얼리티를 지칭하는 것에 더 가깝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러한 꿈의 내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현실은 아니지만 어떤 가능한 세계로 투사된 막연한 소망의 의미를 띠기 시작한 저 꿈들은 청년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포기되었다기보다는 현실적 고려에 의해 유예되어 임시적으로 마음의 다른 서랍에 ‘보관’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왜냐하면 제가 또 제가 생각하는 진로가 어떻게 보면 저도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창업하는 거를 하면 그거는 돈을 더 못 벌 것 같은데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현실은 벽이 너무 높아서 결혼은 늦게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암울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차원? 그거는 비전에 대한 거고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준석)

미래 생각하면 자신감은 없는데, **자신감은 없는데 그래도 현실감을 잃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생각한 거는 딱히 없는데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한다, 포기한다 그래도 최대한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친구 같은 경우는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집 같은 거는 사실 타협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결혼도 가능한 한 포기하지 않고 싶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고 싶고. 그런데 굳이 이제 정 상황이 안 된다면 깨끗하게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철선)

위의 응답에서 표현되는 것은 향후 사회적 행위자의 꿈 세계를 탐구할 때 요구되는 흥미로운 쟁점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꿈의 존재방식이다. 위의 응답자들에게는 꿈이 선명하게 존재한다고도, 전적으로 부재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들은 꿈이 객관적 현실의 일부를 구성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도저한 현실에 압도당하여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이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꿈과 현실을 상이한 세계로 귀속시킨다. 이들은 “비전”과 “현실”을 구분하고, 현실에서 “포기한다”고 되뇌이면서도 “최대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임의의 구분은 이들이 현실의 여하한 무게에 압도당하지 않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국한시켜 말하자면, 꿈의 존재론은 존재/부재의 코드로 구성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꿈은 존재와 부재 사이 어딘가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잠재적 양태를 띤다. 꿈은 순수하게 존재하거나 완전히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 때 꿈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는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의식되는 준거점으로서 명멸한다. 꿈은 매 순간마다 그 실현가능성을 부단히 계산해야 하고, 삶의 구체적인 내역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행위를 조직하는 준거로 기능하는 독립변수로서의 꿈의 선명도, 혹은 희박함의 정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²⁾.

2) 김홍중에 의하면 사회적 행위자들은 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련의 실천들을 수행한다. “꿈은 주관적으로 품어진 환상적 희망의 자발성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립되는 합리적 판단과 평가의 개입을 통해 조형된다. 꿈꾸는 행위자는 자신의 주관적 열망의 실현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을 부단히 예측하고 그 판단들에 기초하여 꿈의 강도와 내용을 조정해가는 합리적 조율을 수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순수하게 허황되고 어처구니없는 야망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자를 사회세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언제나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된다(Bourdieu, 1997:

하지만 이 꿈은 저 일련의 다른 과업들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과업인 구직에 실패하면서 점차 회박해져간다. 청년들은 각종 인턴, 대학 졸업, 워킹홀리데이 등을 거쳐 스펙을 쌓고 구직에 도전하지만 계속되는 탈락을 경험하면서 무기력해져 간다. 특히 ‘압박면접’의 이미지로 표상되는, 구직의 지난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좌절감은 자신감을 점차적으로 고갈시켜간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청년들은 점차적으로 도전의 횟수 자체를 축소하게 된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중의 돈이 점차적으로 소모되어가면서 점차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들이 집에 머무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1차적 부조 집단 내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 밖으로 나가, ‘사회’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곧 사회성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들은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사회적으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나이이기에 더 이상 가족에게서 ‘용돈’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뭐 용돈을 받아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밖을 잘 안 나갔어요. 그냥 한 달이면 한 달간 집에 부모님도 다 안계시고 집에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좀 지루이 되니까 나갈 때 차비 이런 것도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천 원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차비가 얼마고 보통 친구랑 밥을 먹으면 얼마가 드니까 대충 어느 정도가 드니까 이게 한 달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간, 몇 번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친구들이랑 만남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있었죠(서현).

돈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은근히 기가 죽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으며, 결국 인간관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수중의 화폐가 고갈되는 경험을 하는 이들은 일상의 전 영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돈을 벌리는 것만이 아니라 비금전적 관계에서 지는 신세까지도 빚지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천추희, 2016: 209). 예를 들어서, 친구와 밥을 한 번 먹는 것까지도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지인들과의 사회적 교제로부터도, 4대 보험과 같은 사회적 부조 장치에 가입할 수 있는 단위로부터도 소외된 이들은 사실상 사회 속에 있되 그 존재가 감추어져야만 하는 개인들이다. 로베르 카스텔의 표현을 빌자면, 이들은 근대적 개인주의가 상정하는 도덕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존중의 결여, 보장의 결여, 안정적인 결사와 보호받는 재화의 결여”로 특징지워진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개인이다(Castel, 2003: 448-449).

이들은 ‘사회’ 내에서 존재할 장소를 배정받지 못한 존재들이다. 미성년에서 성년으로의 이행은 사회성을 생산해내는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 노동을 통해 다른 이들의 노동의 산물과 교환될 수 있는 일반적 질권으로서의 화폐를 획득하는 것, 이를 위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재생산을 스스로 도모하는 사회생활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미성년의 단계에서는 비록 노동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노동력, 곧 미래의 사회생활의 주체라는 기대와 약속 위에

311-2). 그 이유는, 행위자들이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기회” 사이에서 여러 형태의 합리적 조정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이다(Bourdieu, 1997: 312). 요컨대, 꿈은 순전히 몽환적 세계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현실적 고려와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타진 속에서 조형된다. 사회적 몽상은 언제나 일정 정도 ‘합리화된 몽상’이라 할 수 있다(金洪中, 2017).

서 생산적 노동 없이 사회성을 소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노동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미성년이 이 미래성을 근거로 소비로만 이루어진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근대 시민사회 일반의 조건이다. 특히 국가에 의한 집합적 사회보장이 부재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미성년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가족(social investment family)’이 지배적인 가족의 모델이 되어왔다(장경섭, 2011). 하지만 이 미래의 약속이 좌초하면서 청년은 성년과 미성년 양자 중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다. 극복되어야 할 과거로서의 미성년기와 지향하지만 성취되지 못한 미래로서의 성년기 둘 모두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회가 구축한 성장의 서사적 시간대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삶은 선형적인 성장을 구상할 수 있는 ‘미래’의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 이들의 삶은 개선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지향하며 기획(project)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다.

3. 꿈을 증여받는다는 것

이렇게 기획을 통해 선취할 수 있는 미래가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던 이 청년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된 수당이 주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일차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수당은 그만큼의 화폐가치와 등가교환될 수 있는 물질적 급부를 의미했다. 우선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저 수당만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간을 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으로 활용하여 투자해야만 하는데, 이 꿈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으로서의 생활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부모의 부조를 기대할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한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노동의 내용은 희망직군에 따라 달랐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각종 아르바이트나 교습, 출장을 통해 이 생활비용을 충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구직이라는 미래의 꿈을 위한 자기계발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행해야 하는 자기의 소모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노동을 통해 충당되어야 했던 생활비용의 일부를 수당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증여받는 것과 같았다.

특히 예술·창업 분야에서의 구직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은 상황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던(다솜)” 구상으로만 남아있었던 계획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고, 더욱 다양한 재료와 작업도구를 풍부하게 구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은 직군의 특성상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고안해야 한다. 수당을 통해 새롭게 장만한 재료와 작업도구, 장비들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미나), 이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고민의 시간과 시행착오”는 “좋은 밑거름(다솜)”이 된다. 즉 청년수당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획이 필요한 청년들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임파워(empower) 효과를 냈던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용 혹은 작업도구라는 물질적 급부보다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들의 마음에서 관찰된다. 희박해져가는 미래 앞에서 청년들의 “조급하고 성급했던 마음(미나)”은 미래를 기획하고 그 기획을 현실에 옮길 수 있는 “효율적”이고 “편안한 마음(재윤)”으로 점차 변화해나갔다. 꿈의 내용과 꿈꾸기의 수단이 모두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기획에 착수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다달이 지급되는 수당을 통해 삶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에게 청년수당은 길고 길었던 수 년의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그래 해보자!' 사람들에게 그림그리는 즐거움과 행복함을 알리는 일을 말이다. 그리고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시도조차 할 수 없어 미루기만, 생각만 하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아가고 있다. 역시나 그 준비기간 또한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있지만 말이다. 정말이지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도 요즘 참 설레고 즐거운 기분이다(다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들쭉날쭉하던”생활은 규칙적으로 조직되어 “리듬감(철선)”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여건의 변화는 이들이 “적어도 지원금 받는 기간 동안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노력(철선)”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미래를 가능성의 장으로 표상하여 합리적 계산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일상적 실천은 보다 선명해진 미래의 변화를 암시하는 지표이다.

무엇보다 3개월간 청년활동지원을 받으면서 한 달에 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계획을 자세히 세우면서, 몸에 잘 배어있지 않았던 계획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에 한 달 목표를 쓰게 되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 날 해야 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이 생겨서 차근차근 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미나).

경제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결과로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감각이 희미하게나마 움트기 시작한다. 이들에게 증여된 것은 50만원이라는 화폐일 뿐만 아니라 화폐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능성, 그 가능성을 기획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곧 “꿈” 그 자체였다.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불어넣은 활력은 그들을 미래를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의 결과를 현실에 옮길 수 있는 주체, 꿈꿀 수 있는 주체(dreamer)로 조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꿈꾸는 자’의 주체성이 ‘빚쟁이(debtor)’의 주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 빚을 지면서 비로소 꿈꾸기가 시작된다. 빚을 진다는 것은 그 빚을 갚아나갈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희미해져가던 미래를 떠올리는 순간 다시 꿈꿀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빚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을 도와주는 지인들에게 지게 되는 빚이다. 이 빚은 새롭게 발생한다기보다는 ‘출현’하는 것에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다소 길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청년의 말을 직접 인용해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니가 돈을 다 내야 되니까 제가 너무 기가 죽어있는 거예요, 언니한테. **내가 뭘 먹고 싶어도 내가 사먹을 수 없으니까** “언니 뭐 먹고 싶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언니한테 되게 기대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뭐, 그러니까 첫 달³⁾에는 식비가 나왔으니까 언니한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골라보라.”고 약간 자신감이 조금씩 붙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혼자 집에 있고 그러니까 혼자 너무 **작아 보였는데** 나가니까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냥 보이는 이미지는. 그래서 ‘나도 다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취업만 하면 또 똑같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빚을 되게 많이 지고 있어요**, 언니한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언니가 맛있는 거 사주면 그냥 사주는 거에서 딱 그쳤는데 **요즘에는 제가 일부러 빌리고 있거든요**, 언니한테 돈을. 얼마씩 빌려주면 “내가 취업하면 한 번에 갚는다.” 그러면서 “이자도 내가 은행 이자 이

3)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직전 청년수당을 지급했던 2016년 8월을 가리킨다.

상을 쳐준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는 돈을 달아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언니한테는 “나한테 적금 드는 식으로 생각하고 정확히 해 놓아.”라고. 그래서 조금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취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해요, 계속. (...)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전까지는 빚이 없었죠. 용돈 받는 거에서만 쓰고 제가 돈 얼마 쓰면 엄마가 갚아주고 약간 이런 식이었으니까. **집에서 천덕꾸러기였다가 이제는 빚만 쌓여가고 있어요** (...). 언니한테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장보고 이렇게, 언니가 맨날 사왔으니까. 나 이제 좀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장보는데 먹고 싶은 거 골라 해 갖고 집에 와서 나눠 해먹고 그러는데 좀 다시 **이제 좀 다시 베푸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나가서도 내가 이제 밥 먹을 때도 좀 고민을 안 하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서현).

언니에게 “없혀살아” 가던 청년은,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언니에게 빚을 지기 시작한다. 즉 그는 언니에 대해 빚쟁이가 된다. 이 진술은 언뜻 보면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이미 생계와 거주지를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는 이가 어떻게 빚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화자가 말하는 “빚쟁이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돈을 “일부러 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언니에게서 받은 것은 빚이 아니었고, 청년은 빚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차라리 “천덕꾸러기”에 가까웠다. 천덕꾸러기는 누구인가? **빚을 질 수도 없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예속되었지만 적어도 우선 자신이 종속되어있는 근거인 채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진다. 가령 사업을 위해 대출받는 자영업자는 대출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고, 학업을 위해 대출받은 대학생은 학자금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해나간다. 비록 그들은 다가오는 만기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율적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천덕꾸러기는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채무 자체를 획득할 수 없다. 그는 타자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 의존을 통해 획득된 자원은 ‘자신의 빚’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자신의 빚이 아니기에 이 빚으로 먹을 음식을 고를 수도 없다.

하지만 수당을 받는 청년은 이제 언니에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골라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 말은 수당의 지급이 연구참여자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담고 있다. 청년수당이 지급되면서 ‘천덕꾸러기’일 뿐이었던 연구참여자는 언니와의 관계에서 ‘빚쟁이’가 되었다. 왜 빚쟁이가 된 것이 이토록 유의미한 변화인가? 물론 지급된 수당으로 언니에 대한 의존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는 없다. 월 50만원의 수당은 독립을 하고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와 구직 준비 자금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여전히 그는 가족에게 의존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의존관계가 유지되는 와중에서 단 하루라도 먼저 “베꿀 수 있”는 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에게는 월 50만원의 수당이 주어졌을 뿐이고, 이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언니에게 빚을 진다. 빚진다는 표현조차 쓸 수 없는, ‘천덕꾸러기’로서 진 빚과 이 빚은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여전히 상황이 예전과 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체적으로 진 빚이기 때문이다. 그는 꿈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증여되었기에 스스로를 ‘신용’을 담지할 수 있는 존재로 정립할 수 있었다. 특정한 금융기관과 같은 사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격적인 관계임에도 이렇게 빚을 지는 관계가 형성된 것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변화이며, 이 변화는 곧 청년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둘 사이에 오고가는 물질적 재화의 양은 같을지 몰라도, 그 재화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빚’이라고도 차마 명명할 수도 없을 만큼 갚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빚, 그래서 채

무자의 마음 속에 존재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었던 ‘도덕적 부채’는 이제 상환해나갈 가망이 있는 ‘경제적 부채’로 가시화되었다. 마음의 부채가 청산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불가능의 감각에 뿌리내린 빛이라면, 경제적 부채는 아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 미래에 갚을 희망이 있는 빛이 된다.

이 청년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 빛을 가시화하고, 일정한 양의 주권적 소비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가 가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증여받은 무엇인가의 존재 때문이다. 이 증여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서울 청년’이라는 멤버십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떳떳하게 말할 수도 없던 빛을 당당하게 빛이라고 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장전된 빛으로 바꿀 수 있었던 까닭은 부채의 원천이 가족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 빛, 이것은 빚쟁이‘로서’ 꿈꾸는 청년이 지게 된 빛의 또다른 차원이다.

4. ‘사회’를 감각하기

누가 빛을 제공하는가? 그것은 가족이 아니며, 지인들도 아니고, 대출업체도 아니다. 그것은 이들과는 다른 이유로 청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무언가이다. 수당을 증여하는 무언가는 청년들에게 귀속을 묻지 않는다. 그저 ‘청년’이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줄 뿐이다. 이러한 증여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누가 나에게 이런 금액을 증여하는지에 대한 어떤 감각을 야기한다. 그것은 가족에게서 오는 증여와 크게 다른 것으로 지각된다.

솔직히 저희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지원을 받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희가 뭔가 내면 냈지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정부에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 뭔가 딱딱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약간 엄마가 용돈 주는 식이 먼 엄마 조금 속이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서현)

편하게 생각을 하려고 처음 시작이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쓰다가 보니 괜히 혹시라도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트러블이 나면 누가 책임을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격하게 제대로 쓸 데만 쓰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철선).

가족을 넘어서는 모종의 공공적인 지평으로부터 증여된 화폐는 개인이 가장 일차적으로 귀속되는 가족집단에게서 받은 화폐와 달리 엄격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증여의 원천에 따라 수중에 들어있는 화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기왕에 제출된 연구들의 내용과 일치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들은, 대학생들이 공식적인 기관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가족에게서 지원받는 학비와 달리 인식하고, 자신을 독립된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신용은 성인의 자격으로 인식되며, 부채는 정신적 자산으로 이식된다. 대출이나 경제적 활동은 성인의 사회생활 중 일부를 구성하므로, 지금 당장 갚아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학(원)생으로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독립된 주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천주희, 2016: 234). ‘빚질 수 있음’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과제를 제기할지라도 성인의 표식으로서 힘들지만 독립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인류학적 연구(백진영·오

명석, 2015)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스스로를 채무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학생’으로서의 자아를 유지한다. 여기서 그들은 스스로를 ‘학생’으로 정체화함으로써, 스스로를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경제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뚜렷한 미래로서 기획한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죄이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권장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다른 학생들을 부모라는 ‘채권자’에게 미래의 시간을 점유당한 ‘채무자’라는 이유에서 도덕적으로 평가절하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부모와의 부채를 청산하고, 빚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정부’와 새롭게 체결함으로써 스스로를 당당한 책임의 주체로 정립하는 절차의 일부이다. 그래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대학생들에게 대출금은 ‘의미 있는 부채’이다(백진영·오명석, 2015: 21-25).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청년은, 아직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장서사가 상정하는 시간대에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족을 넘어서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 집단은 그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는가? 앞서 언급한 ‘서울시’라는 집단은 충분한 답이 아니다. 당시의 집권여당에서는 청년수당 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실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⁴⁾, 정작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주체를 서울시, 서울 시장, 혹은 보건복지부와 같은 행정적인 실체로 인지하지 않았다. 수당에 대한 자신의 서사를 발화하는 도중 이 집단이 거명될 때는, 수당을 증여하던 집단이 수당을 증여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였다.

(2016년 8월에 시행하려했던 청년수당 정책이 - 필자) 취소된 다음에도 특별히 막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생각은 안 들고. 솔직히 취소, 보건복지부가 취소했었나요? 그래서 **개네도 이상하고 서울시도 이상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하게, 평범한 사람들만 피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철선)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정부에 관한 거일수도 있고 서울시에 관한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전부 생각을 하면 뭔가 조금 확실하다거나 그런거를 제안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제안을 했고 신청까지 받았고 구체적인 플랜까지 짰는데 없어지는 게 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서울시나 정부나 방향을 같이 가야 되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밥그릇 싸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효주)

청년들은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를 ‘서울시’를 ‘정부’와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다. 정책 시행을 둘러싸고 구성된 첨예한 정치적 대립국면이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이 보도가 연구 참여자들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인 서울시와 이를 반대했던 정부가 이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행정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서울시가 증여의 주체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이 사업에 반대했던 정부와도 구분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자신에게 수당을 증여한 존재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 것일까? 서울시와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는 ‘파트너’로 간주될 뿐이다. 행정적 실체로도, 특정한 인격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사업 시행의 주체, 곧 증여의 주체는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에 대한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제도적

4) 연합뉴스. 2016. 8. 19. <與 “서울시, 청년 볼모 포퓰리즘 정치 중단해야”>

실정성의 차원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주었다고 상상하는 무언가는 제도의 형태로 기술할 수 없을 뿐,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청년들이 이 ‘실체’에게 느끼는 감정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독서실 등록하고 또 학자금 대출 이자 나가고 통신비 나가고 그러면 진짜 거의 뭐 덜덜 떨면서 통장잔고 확인하는 게 두려운데, 독서실 비용은 그냥 따로 나가게 됐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밥 먹을 때도 아무래도 ‘오늘 뭐 사먹어도 되겠다.’ 이런 기분은 있어서 좋았어요(철선).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뭐라고 하지, **안전망, 펜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떨어져도 그래도 다음 달에는 이거 나오니까 또 준비하면 되지.’ 그런 느낌이었어요(효주).

청년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일정액의 도움을 통해 “마음에 여유”를 주는 어떤 “안전망”, “펜스”와 같은 것을 감각하고 있었다. 그 실체를 무엇으로 명명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청년들은 이 익명의 실체 때문에 어떤 “안도감”, “감사함”(석권)을 느끼고 있다. 이 감사함의 수신자가 특정한 행정체계나 인격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그 수신자는 무엇인가? 가족도, 국가도, 서울시도, 정치인도 아닌 이 흐릿한 무언은 ‘사회’라는 지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희미하게 감각되는 ‘사회’란,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수증자의 마음 속에 새롭게 발생하게 된 정서적 스탠스가 고려하는 ‘지평(horizon)’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복지들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지원, 무상급식 이런 복지도 되어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복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재윤).

이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계획 없이 호지부지 시간을 흘려보냈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청년이 되어 **다른 청년들에게** 희망과 조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미나)

여기서 사회란, 자신에게 수당을 증여한 어떤 주어라기보다는 청년 수당과 같은 정책을 기획하고 현실로 옮기는 집합적 실천의 장이자, 그 정책의 대상으로서 포함되는 ‘다른 청년’들을 고려하는 시각을 가리킨다. 요컨대 청년들은 자신의 관점이 아닌 ‘사회’라는 집합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고민하고,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 여부와 관련지어 자신의 삶을 기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짐의 기저에는 “눈치 안 보고 공부를 할 수 있(혜영)”게 해주고 “작업에 있어 확실히 윤택함(다숨)”을 더해주는 수당에 대한 “안도(석권)”와 “감사”의 감정이 깔려 있다. 이 감정들의 존재는 ‘사회’가 특정한 행정체계나 정치인으로는 환원될 수 없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여한, 실체적 공여자로 표상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하지만 이 ‘사회’에 대한 감각은 ‘감사함’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수증자가 공여자에 대해 느끼는 공여자의 형상에 대한 태도는, 그리고 공여자가 자신에게 준 증여물의 성격은 증여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청년이 사회에 진 또다른 빛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백진영(2014)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가 대출해주는 학자금은 상품인 동시에 선물로 인식된다. 정부는 상품인 것을 알면서 선물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학생들은 둘 모두를 알기 때문에 국가에 불만을 표시한다. 정부가 후원자인지 자본가인지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양상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백진영, 2014: 74-75) 증여가 이루어지는 절차의 세부적 특성에 따라 공여자의 형상과 공여자를 대하는 수증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모스는 일찍이 증여되는 물건 자체보다 증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화되어 실천되는지에 주목한 바 있다. “되돌려 줄 수 없는 이들에게 선물은 상처가 될 수 있다(모스, 2002)”. 그래서 선물은 단지 선물일 뿐만 아니라 독(poison)을 함유하고 있는 양가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Auyero(2012)와 서보경은 아르헨티나와 태국의 무상복지 체계를 연구하여 받는 자(patient)의 ‘받음(patency)’과 관련된 감정적 동학에 주목한 바 있다(Auyero, 2012: 9; Seo, 2016: 291).

본 연구는 애초에 본격적인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책 설계를 위한 실험적 시도로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이 동학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위한 직접비(학원수강료,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포함한 광의의 생활비)로 구별되며,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⁵⁾. 하지만 본 정책의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 수행된 본 연구의 경우, 청년들의 수당 지출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수당의 용처를 구직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접비로 한정하였다. 문제는 이 때, ‘구직활동을 위한 직접비’의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지속적으로 혼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텐데 누군가에게는 되게 ‘그런 걸 무슨 직접비로 한대?’ 이렇게 말을 할 것,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말하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비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지레 포기하고 내돈을 쓰고, 확실하게 선택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서현).

이게 보고서도 좋고 그런 가이드라인도 좋은데 이 돈을 받고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정책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하기엔 약간 부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걸 사람 마음이니깐 해소해주는 게 쉽지 않을 건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사업할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 지금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다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쓰고 우리한테 알려줘라” 이것이지만 우리는 “쓰고 그걸 증명해야 한다” 같아요(석권).

청년들은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출하고자 하는 대상이 연구에서 규정한 ‘직

5)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안내 홈페이지 <https://youthhope.seoul.go.kr/> (2017. 9. 15 접속)

접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를 연구자들에게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비록 연구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청년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행정적 관리자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공여의 주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질문하는 상황을 우회하기를 바라는 까닭은 증여하는 자와 증여받는 자 간에 형성되는 권력관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일방적 증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결끄러움의 감정이 있는 것이다.

이 결끄러움은 자신에게 증여된 선물에 대해 자신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천명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발생한다. 수당의 지출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출이 유용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유용성의 잣대는 구직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다는 미래의 약속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따른다. 매달 제출하기를 요구받는 활동보고서와 지출 증빙 내역서 등은 수증자들이 자신의 지출을 '보고'함으로써 정책의 취지에 충실한 주체임을 스스로 도덕적으로 증명하는 장치들로 기능한다. 이 때 청년들은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 고마움에는 바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끊임없이 스스로 되묻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있다. 열등감과 결여의 표식인 부채감을 발생시키는 '증여'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정당화할 필요성을 부과받기 때문이다(백진영·오명석, 2015). '청년수당'이라는 사업의 명칭이, 단지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청년'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지급의 충분조건임을 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청년수당은 성원권에 근거한 '몫(share)'으로서 주어지는 기본소득(피겨슨, 2017)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정당화되어 분배되는 가능성(기든스, 2001)에 가깝다.

6. 새로운 사회적인 것의 실험

2017년 7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수당 정책은 위에서 상론한 실험 상황과는 달리 지급받은 수당을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에 지출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본소득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생산적 복지에 근접한, 부단히 도덕적 자기 규율이 동반되는 투자로서의 지원이 아닌, 당당하게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몫'이 된 것이다. 여기서 청년은 단지 이 사회의 구성원 중 한 축을 차지하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이다.

19대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하나인 '청년사회상속제' 역시 이와 유사한 발상에 바탕하고 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균등하게 1,000만원씩 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속’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로 첫 출발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태어난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로 역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⁶⁾. ‘증여’와 관련된 온갖 이슈들이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수놓는 스캔들로 자주 소환되고는 한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증여의 주체와 이유를 가족이라는 사적 단위에서 ‘사회’라는 공적 단위로 이전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발상의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청년이든 사회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 정책의 취지는, 가진 것이 없어 자신의 신용에 근거한 ‘부채’ 조차 형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출발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청년의 권리는 학자금 대출, 미소 금융과 같은, 대출이자를 할인해주는

6) 정의당. [정책자료]청년사회상속제 해설자료(Q&A). 정의당 홈페이지(<http://www.justice21.org/>) (2017. 9. 15 접속)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상품들이 요구하는 ‘신용’ 이전에, 사회에 대한 성원권에 근거한 권리로서의 ‘빚집’의 차원까지 획득된다. 요컨대, “그라민 은행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292)가 말한 “신용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다”를 뒤집어서 “빚집은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디인스트, 2015: 292-3)

물론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전면적으로 실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논의들은, 나날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면서 사회국가(social state)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국가의 모델을 구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서구와는 달리 압축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neoliberal welfare state)”(송제숙, 2016)라 이름할 만한 독특한 사회정책의 궤적을 그려왔던 한국사회에서, 현재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처로 입안된 위의 실험들은 서구에서마저 사회국가모델이 경제상황의 변화로 여러 한계를 노출하며 쇠락해가고 있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서구식 사회국가에 대한 향수를 품는 대신 보다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자크 동즐로(2008)가 19세기 말-20세기 초 “발명”되었다고 말하는 서구 사회국가의 모델은 복지(the social)와 성장(the economic) 간의 순환하는 대위법을 조직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임노동자, 그리고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의해 남성 노동자와 결합된 가족 단위만을 복지체제로 편입시켰다. 이는 노동하지 못하는 자들을 암묵적으로 배제한 ‘노동 중심적’ 모델(퍼거슨, 2017)이다. 여기서 시민권은 대다수의 생산자=소비자라는, 동어반복적으로 규정된 주체들이 직장 단위로 가입된 보험을 통해 국민국가 단위의 제도화된 연대에 가입하여 실현하는 계층 간, 세대 간 연대에 바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만성화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 곧 ‘사회’에 진출하여 국민국가 단위의 보험합리성의 체계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그로써 세대 간, 세대 내 연대가 구축하였던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은 우선 노동시장에의 진입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봉쇄되어있는 오늘날의 청년세대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사회국가의 목표가 산업재해, 실업, 파산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주체들을 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먼저 진입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로 제기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들이 생산해놓은 사회성을 ‘소비’만 하고 있을 뿐인 청년을 먼저 꿈꿀 수 있는 이(dreamer)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날 청년들에게 적합한 사회정책은 리스크 관리에서 ‘꿈 관리’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단지 세대집단으로서의 ‘청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청년들은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요청하는 명시적인 집단 중 하나이다. 제임스 퍼거슨(2017)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관찰한 ‘청년’은 세대집단이 아니라 연령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이름이다. 현재는 급속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유지된 고등교육체제를 거친 이후 양산된 세대로서의 청년들이 기존의 사회정책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가장 가시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세대로서의 청년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청년’들이 있다. 여기서 청년은 ‘청(靑)’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성에 깃든 희망과 에너지 대신,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그 잠재성의 실현이 무한히 유예되는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내적 절망감을 감내해야만 하는 이들 모두를 포괄한다. 이 물질적 풍요와 기회의 빈곤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는 결국 풍요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사회의 ‘자리’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요컨대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발명해야 할 한국의 사회국가가 ‘사회’국가라면, 그 사회의 역할은 무조건적 증여를 통해 저 둘 간의 모순을 지양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발굴할 시간, 자원, 그리고 의지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곧 오늘날의 모든 청년들에게, 단지 우리 사회의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꿈을 증여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정책 시행 이전 10명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실험 상황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이와 별개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한국 사회가 고안해야 하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에 대한 논점들을 제기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 이들을 다시 꿈꾸게 할 것인가? 왜 ‘사회’가 이들을 꿈꾸게 해야 하는가? 이들에게 ‘사회’란 무엇인가? 청년수당은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하는 하나의 실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질문들은 수당이 증여되는 방식을 설계하는 작업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며, 수증자인 청년들과 그들이 감각하게 될 ‘사회’의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지어 사고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디자인에 따라 청년수당은 사회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증여가 이루어지는 기본소득에 가까울 수도,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규율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작동하는 생산적 복지와 유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청년수당’ 정책은 이 상이한 사회적 증여의 모델들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이외에도 경기도와 부산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 등이 잇따라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각기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저 질문들은 더욱 활발히 탐구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사회의 청년에게 꿈을 증여한다는 것의 의미가 성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든스, 앤서니(Giddens, Anthony). 2001.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 역. 생각의나무.
- 김홍중. 2015a.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사회학』 49(1).
- 김홍중. 2015b.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사회』 108.
- 동즐로, 자크(Donzelot, Jacques). 2008. 『사회보장의 발명』. 주형일 역. 동문선.
- 디인스트, 리차드(Dienst, Richard). 2015. 『빛의 마법』. 권범철 역. 갈무리.
- 라자라토, 마우리치오(Lazarato, Mauricio). 2012. 『부채인간』. 허경 외 역. 메디치미디어.
- 모스(Marcel Mauss). 2002. 『증여론』. 이상률 옮김. 한길사.
- 백진영. 2014.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경험을 통해 본 신용과 부채 인식의 형성」.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진영·오명석. 2015. 「“꿈에 투자하세요” :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8(2), 3-43.
-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사회정책』 18(3), 63-90.
- 천주희. 2016.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사이행성.
- 퍼거슨, 제임슨(Ferguson, Jameson). 2017. 『분배정치 시대』. 조문영 역. 역문책.
- 金洪中. 2017. “夢想社會學概要”. (근간). 중국어.
- Auyero, J. 2012. *Patients of the state: the politics of waiting in Argentina*. Durham, N.C.: Duke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1997. *Méditations pascaliennes*. Paris. Seuil.
- Seo, B. K. 2016. “Patient waiting: care as a gift and debt in the Thai healthcare system”.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22(2), 279-295.